

김만덕 자료총서 Ⅲ

나눔과 봉사의 실천가

김만덕



재단
법인

김만덕재단

김만덕자료총서 Ⅲ

나눔과 봉사의 실천가

김만덕



국가 표준영정 제82호 김만덕 표준영정

김만덕자료총서 Ⅲ

나눔과 봉사의 실천가

김만덕

| 일러두기 |

- 이 책에 실린 글은 김만덕과 관련하여 기존에 발표된 대표적인 논문, 보고서 등에서 연구에 필요한 것을 선정한 것이다.
- 기존 발표된 글은 당시 표기한 대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단, 명확한 오탈자는 수정하였으며, 저자의 요청에 따라 내용이 수정되었음을 밝혀둔다.
- 발표된 논문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삭제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 이 책에 실린 글의 저자 및 출처를 아래와 같이 밝혀둔다.

제1부 - 김만덕과 문학

- 「萬德傳」과 關聯漢詩가 지닌 地域文學的 價値
(부영근, 『영주어문』 제18집, 영주어문학회, 2009)
- 문헌에 기록된 제주의 세 여인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김준형, 『온지논총』 제17집, 온지학회, 2007)
- 배시황(裴是愷)과 만덕(萬德)의 이야기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서술의식의 일면
(정인혁, 『시학과 언어학』 제10호, 시학과 언어학회, 2005)

제2부 - 김만덕과 여성

- 〈萬德傳〉에 나타난 여성성의 의미 탐색
(조도현, 『인문학 연구』 통권 84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 아름다운 삶의 여정 - 물 플란더즈와 김만덕을 중심으로
(손달래, 『동북아문화 연구』 제14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제3부 - 김만덕과 상업

- 濟州巨商 金萬德에 관한 研究
(송병식, 『경영논집』 제40권 제1/2호,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2006)
-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
(양성국·김봉현, 『경영사학』 제27집 제2호, (사)한국경영사학회, 2012)

제4부 - 김만덕과 문화콘텐츠

- 김만덕 스토리텔링의 양상과 과제
(이창훈, 『영주어문』 제22집, 영주어문학회, 2011)
- 고전의 현대적 수용 - 김만덕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 사례를 중심으로
(정창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 한국여성문학회, 2007)
- TV 사극에서 '거상(巨商)' 콘텐츠의 영웅 스토리텔링 개발 방안
(안숙현, 『인문컨텐츠』 제20호, 인문컨텐츠학회, 2011)

부 록

- 현대사회에서의 김만덕의 삶의 의미
(김경애, 『김만덕과 과워여성 토론회』, 2006)
-
-

| 발간사 |

조선후기, 제주라는 지역적 한계와 여성·서민이라는 신분적 제약을 극복하고 상업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뒤, 대흥년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놓은 김만덕(金萬德, 1739~1812)은 나눔과 실천의 모범으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만덕은 단순한 미담의 주인공을 넘어,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나눔과 기부의 윤리를 앞서 실천한 인물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선구자로도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김만덕 자료총서 III - 나눔과 봉사의 실천가 김만덕』을 발간하여 김만덕의 삶과 정신을 다각도로 조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회적 인식 변화와 연구 환경의 진전에 따라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김만덕을 재조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본 자료총서 III의 증보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증보판에서는 기존에 수록된 김만덕기념사업회 발자취 및 추진 경과에 대한 서술은 생략하고, 김만덕에 대한 순수 학술적 연구 성과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문학, 여성, 상업, 문화콘텐츠라는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총 11편의 연구 논문을 수록하여 김만덕을 인물사적 범주를 넘어 보다 확장된 맥락에서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자료총서가 김만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나눔과 기부의 가치를 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라며, 향후 김만덕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과 교육 자료 제작의 기초 자료로도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6월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이사장 양 원 찬

목 차

1부 - 김만덕과 문학

- 17 ● 「萬德傳」과 關聯 漢詩가 지닌 地域文學的 價値 / 부영근
- 42 ● 문헌에 기록된 제주의 세 여인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 김준형
- 73 ● 배시항(裴是愷)과 만덕(萬德)의 이야기를 통해 본 조선후기 서술의식의 일면 / 정인혁

2부 - 김만덕과 여성

- 107 ● 〈萬德傳〉에 나타난 여성성의 의미 탐색 / 조도현
- 126 ● 아름다운 삶의 여정 - 몰 플란더즈와 김만덕을 중심으로 / 손달례

3부 - 김만덕과 상업

- 151 ● 濟州巨商 金萬德에 관한 研究 / 송병식
- 174 ●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 / 양성국·김봉현

4부 - 김만덕과 문화콘텐츠

- 205 ● 김만덕 스토리텔링의 양상과 과제 / 이창훈
- 246 ● 고전의 현대적 수용 - 김만덕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 사례를 중심으로 / 정창권
- 267 ● TV 사극에서 '거상(巨商)' 콘텐츠의 영웅 스토리텔링 개발 방안 / 안숙현

부 록

- 303 ● 현대사회에서의 김만덕의 삶의 의미 / 김경애

| 1부 |

김만덕과 문학

- 「萬德傳」과 關聯 漢詩가 지닌 地域文學的 價値 - 부영근
- 문헌에 기록된 제주의 세 여인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 김준형
- 배시황(裴是愷)과 만덕(萬德)의 이야기를 통해 본 조선후기 서술의식의 일면 - 정인혁

「萬德傳」과 關聯 漢詩가 지닌 地域文學的 價値

부영근*

1. 머리말

문학은 문화의 한 흐름이다. 그리고 문학은 역사와 철학 등 모든 문화적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문화적 영역이다. 또한 문학은 지역을 아우르는 중앙의 포괄적인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각 지역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단위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 문학은 이러한 역사와 철학 지역을 아우르는 문화의 한 부분이다.

요새 스토리텔링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콘텐츠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소재 내지 장소 인물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 전해지는 역사적 사건, 설화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재구성하여 콘텐츠¹⁾화 하려는 시도이다. 역사도 시대를 테마로 구성된 이야기이다.²⁾ 다만 그것의 소재가 사실에 기초한 시대적 배경과 사건을 가지고 당시의 사관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문학 역시 특정한 감흥, 소재, 인물, 장소, 시대

* 대구한의대 초빙교수, 영남대학교 강사

1) 콘텐츠라고 해야 하고, 콘텐츠는 일본식 영어에서 비롯된 오류라고 지적하는 논리도 있지만 여기서는 콘텐츠라고 하였다. 뜻은 이회승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논문, 서적, 문서 등의 내용, 내용의 목차'라고 되어 있다.

2)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문학적인 기술 능력이 가미된 고도의 이야기이다.

이제까지의 문학은 중앙 집중적인 소재를 콘텐츠화하여 구성되다보니 다양성이라는 흥미진진한 모습에서 벗어나 유행과 시대 흐름에 순응하는 긍정적인 측면에 집착하였다. 따라서 문학적 기술 능력을 개발하고 집약적으로 발전시킨 공로는 있지만 전체를 아우른다는 기준점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렸고 이러한 현상은 이제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제주는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문화적 소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독특한 제주만이 가진 소재들은 문학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여러 문인들에게 각색되어 다양한 시선으로 접근, 여러 가지 문체를 활용하여 표현되었다.

제주는 본토와 떨어져 있다는 격절성 기후와 풍토가 다른 점 그리고 조선조 오백년 동안 제주를 다녀간 유배객, 관료, 여행객, 장사꾼 혹은 표류하다 어쩔 수 없이 孤島에 닿은 사람 등 어쨌든 수많은 스토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야기를 현대적 관점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문화적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고 문학을 전공한 우리들의 의무이다. 이것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자본주의적 명제에 대한 문학적 해결점을 제공해 줄 수 있어 자연스럽게 문학의 새로운 모색을 가능케 한다. 예컨대 제주의 명승고적 산수자연 제주목 관아지를 포함한 관청의 부속 건물 방호소 등 유형문화재와 관련된 역사적 흔적이 있고 또 그것을 배경으로 한 문학적 작품들이 시대 인물을 초월해서 많이 남아 있다.³⁾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주를 알리는 스토리가 되어 트렌드로 작용할 수 있다.

3) 즐고, 「제주 산수를 형상화한 한시 소고」, 『영주어문』 제14집, 2007.

「한시로 형상화된 제주의 역사고적」, 『한문학연구』 제21집, 2008.

「한시로 묘사된 제주의 물산과 민중생활」, 『영주어문』 제16집, 2008.

문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실용적 측면에서 보면 한편으로 문화를 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하여 그것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학적 유산들을 발굴 현재에 맞게 드러내어 현대적 트렌드라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적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사회적 공익적 목적성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⁴⁾ 무엇보다도 이러한 소재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문학의 향유 층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긍정적인 기대도 가능해진다.

최근 들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 지역은 새로운 산업을 찾아야 하는 과도기적 시점에 놓여있다. 주지하듯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제조업 중심에서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 기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가를 즐기려는 사회적 욕구가 팽배해져 있는 지금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적극적인 지방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제주의 모습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 그것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문화적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조선후기 나라도 구하지 못하는 흑독했던 기근을 여자의 몸으로 구원하여 수많은 제주민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니 이가 바로 만덕이다. 萬德에 대한 일화는 당시에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왜냐 하면 당시 여자로서는 생각하기조차 힘든 일이었고 거의 실현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만덕의 행적은 당시 많은 문인들에

4) 예컨대 최근 들어 문화재청에서 활성화하려는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화 작업, 작가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유산 해설가, 안동국학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대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수집 정리하여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집약하려는 움직임 등을 들 수 있다. 유흥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도 이러한 측면을 부각한 선구자적 집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의해 傳 혹은 漢詩로 지어져 현재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혹지는 이백년 전의 변방 아낙의 조그마한 행적을 호들갑스럽게 지금에 와서 거론하는 것에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당시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나라도 구제하기 힘든 백성들을 餓死의 나라에서 구해내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던 제주가 낳은 조선조 변방 여인의 뚜렷한 행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사실에 맞게 재구성하여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트랜드로 인식시키는 것은 어쩌면 현대를 사는 문학인의 의무이고, 당시 이와 관련한 작품을 남긴 문인들의 뜻을 잇는 명분이 뚜렷한 일인 것이다.

훗날 제주에 유배 온 추사 김정희가 萬德의 행적을 보고 감탄하여 ‘恩光衍世’라는 글씨를 써서 양손 김종주에게 전하기도 했던 것이 좋은 선례가 되어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들어 「萬德傳」에 대한 연구는 이신복의 연구⁵⁾를 필두로 제주 현지에서 김태능에 의해 전반적인 고찰⁶⁾이 이루어졌고, 김준형이 그 뒤를 이어 자세한 자료 분석을 하였고, 정창권은 콘텐츠화 작업을 하였다.⁷⁾ 진재교에 의해 당시 분위기를 살려 만덕전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말로 형상화되었다.⁸⁾ 이후 안대희는 만덕전의 주요한 국면들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였다.⁹⁾ 지금까지 그녀의 행적을 밝혀 세상에 드러내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5) 이신복, 「체제공의 “만덕전” 연구」, 단국대학교 1994.

6) 김태능, 『김만덕전』, 김만덕기념사업회, 2000.

7) 정창권,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 푸른숲, 2006.

8) 진재교, 「만덕전」, 『조선후기 인물전』, 현암사, 2005.

9) 안대희, 「끓어죽지마라. 만덕이 있다」, 『한겨레21』 제721호, 2008.

2. 萬德 關聯 作品의 創作背景

한두 해 전 새로운 화폐 도안을 만들 때 제주도에서는 金萬德(1739~1812)이라는 18세기 후반의 여성을 넣자고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제주 출신에다 미천한 신분으로 장사를 통해 거부가 되고, 그 재산을 털어 빈민을 구제한 의로운 행적이 제주를 상징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로 만덕을 꼽는 데는 이견을 내놓기가 어렵다.

미천한 신분으로서 이렇게 큰 인물로 추앙받는 근거는 설득력을 지닐 만큼 충분하다. 행적이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에까지 등장하고, 정조와 왕비 그리고 당대의 정승인 채제공을 비롯한 수많은 명사들이 그를 만나보고 시와 산문을 써서 그의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의 행적은 1790년대 후반에 한 시대를 떠들썩하게 한 유명한 사건이었다. 변방 여성이 이렇게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은 아주 드물다. 「秋齋紀異」에 萬德의 행적이 담긴 것은 자연스럽다.

이백여 년이 지난 지금 제주에는 그를 기리는 사업회가 결성돼 활동 중이고 그의 행적을 추적한 글과 책이 여러 종 출간됐다. 사대부 여성이나 일반 여성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인물 형상으로서 萬德의 이미지는 지금도 생성 중이다.

이제까지 남아 전하는 萬德에 대한 기록들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당시 조정에서 萬德의 일을 사회를 개혁하고 바로잡아 계도하는 방편이라 생각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채제공을 필두로 한 남인들이 앞장서서 주도하였다. 그것은 정조와 채제공과의 관계에 기인한다.

이제까지 萬德에 대한 작품을 남기고 있는 사람을 작품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漢詩	傳
李家煥 朴齊家 丁若鏞 趙秀三 紅挑 (기생) 등	蔡濟恭 李載采 洪義俊 李義發 金熙洛 劉在建 沈魯崇 등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萬德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많은 문인들에 의해 창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傳을 지어 그녀의 행적을 세상에 알리려 하고 있다. 이것은 傳이 가지는 문체적 특징에 기인하고 체재공의 영향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당시 十年獨相이란 말을 들을 만큼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던 그는 이민구와 허목의 문풍을 이었으며 다산에게로 이어진다. 이러한 남인 문학의 맥을 이은 번암의 「萬德傳」은 당시 남인들에게 지령처럼 여겨져서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리라 생각된다.

당시 萬德의 행적이 의협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 우리는 심로승의 작품에 유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萬德이 일으킨 떠들썩한 소동을 지켜보면서 찬양 일색의 남인들의 작품과는 달리 萬德이라면 침을 뱉는 제주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견을 제시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시의 제주 목사는 沈樂洙(1739~?)였는데 그는 조정에 기근을 구할 구휼미를 요청하기도 하였고, 이후 이 일의 전말을 조정에 보고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沈魯崇은 그의 아들로서 1794년 아버지를 뵈러 제주에 가 있던 몇 달 동안 주민들로부터 萬德의 사연을 자세히 들었다며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萬德이 기생 노릇을 할 때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해 남자의 돈을 보고 따랐다가 돈이 떨어지면 떠나되 옷마저 빼앗아서 그가 지닌 바지저고리가 수백 벌이었다. 그 바지를 늘어놓고 햇볕에 말리는

것을 보고는 동료 기생마저 침을 뱉고 욕했다. 육지에서 온 장사꾼들 가운데 萬德의 탓으로 패가망신하는 이가 많았다. 그렇게 해서 萬德은 제주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음식을 구걸하는 형제도 돌보지 않던 萬德이 제주에 기근이 들자 곡식을 바쳐서 한양에 이르고 금강산을 구경하고자 하였다. 萬德이 호탕한 말을 하여 여러 학사들이 傳을 지어 칭송했다.

심로승이 전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萬德의 행실과는 전혀 판판이다. 심로승은 소문과 실상이 서로 어긋난 사례로 萬德의 일을 들었다. 심로승은 傳을 지어 萬德을 칭송한 채제공과 같은 사람들이 萬德에게 기만을 당한 것으로 보고 싶었다. 심로승은 萬德이 한창 행세할 때 제주에서 4개월을 지내면서 소문을 들었으므로 서울에서 萬德의 말만 듣고 판단한 다른 사람보다는 실상에 가깝게 사실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르면 어쨌든 萬德이 구휼미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萬德의 전모는 그렇게 선하지 않다. 한 번의 선행으로 萬德은 많은 것을 얻었다. 개처럼 벌여 정승처럼 쓴다는 평이 그에 합당하다. 적어도 심로승의 판단에 따르면 그렇다.

과연 심로승의 전언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며 어느 쪽 말이 진실에 가까울까?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채제공과 이재채, 정약용을 비롯해 萬德을 높이 평가한 사대부가 대체로 남인 계열이라면 심로승은 노론에 속한다. 그리고 당대의 문장가이다. 서로 다른 평가에는 당파적 입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당파적 입장 차이는 조선조 내내 조정을 뒤흔들고 결과적으로는 민심의 옳은 향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을 소재로 창작된 판연히 다른 두 작품이 있게 되었다.

3. 萬德과 關聯된 作品

萬德의 행적을 토대로 창작된 작품들은 <표 1>에서 드러나듯이 크게 傳과 漢詩로 나눌 수 있다. 傳과 漢詩는 성격이 매우 다른 문체이다. 주지하듯이 傳은 『史記』 열전, 『三國史記』 열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인물의 주요한 국면을 집중적으로 포착하여 그 인물이 가지는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적당한 문체이다. 그러나 漢詩는 장편 서사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시인의 독특한 감흥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동의를 구할 때 적절하게 쓰이는 문체이다. 그런데 萬德에 관련된 작품들은 傳으로도 기록되었지만 조금 엉뚱하게도 漢詩로 창작되었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문체적 특징에 관계없이 萬德과 관련된 기록들을 傳으로 된 것과 漢詩로 된 작품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傳으로 된 作品

앞서 언급하였듯이 萬德에 대한 기록들은 대부분 傳의 문체를 빌려서 창작되었다. 이것은 傳이 가지는 문체적 특징에 기인한다.

傳은 일반적으로 입전 대상자의 일생의 행적 가운데서 작가가 특별히 두드러지게 드러내 보이고 싶은 부분을 서술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설은 이와 달리 주인공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으려 한다. 그런데 「萬德傳」은 傳이면서도 萬德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작품 속에 들어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의 구조는 소설적인 구조를 가지면서도 傳의 특징을 제대로 구현하였다고 하겠다.

진재교는 조선후기 인물전의 몇 가지 특징을 밝히면서 첫번째로 ‘조선 후기 사대부 문인 작자는 물론 여항의 작자들까지 하층 인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주요 행적에 주목하여 각양각색의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포착한 것은 조선후기 傳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였다.¹⁰⁾

그렇다면 조선후기 인물전의 특징이 잘 드러났다는 萬德에 관한 여러 문인들의 傳 작품의 내용을 채제공의 「萬德傳」을 가지고 네 단락으로 나누어 전반적으로 살펴보자.

만덕은 성이 김이고 제주도 양민의 딸이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없어 기생집에 의탁하여 살았다. 만덕이 성장하자 관청에서 기생의 문서에 그녀의 이름을 올렸다. 만덕이 비록 미천한 기생에 종사하였으나 스스로 기생으로 처신하지 않았다.

만덕이 스무 살 무렵 관청에 자신의 처지를 눈물로 호소하였다. 그러자 관청에서 그 처지를 가엽게 여겨 기생의 문서에서 이름을 빼 양민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 만덕은 양민의 신분이 되었으나 탐라의 남정네를 촌스럽게 여겨 남편으로 맞이하지 않았다. 만덕은 돈을 버는 재주를 가졌다. 특히 물가의 변동을 잘 알아 적절한 시기에 물품을 사고팔았다. 그녀는 수십 년 뒤 이름이 날 정도로 돈을 모았다.¹¹⁾

도입부분으로 萬德의 성장과정과 신분의 변화를 기록하고 지수성가 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서 당시에 논란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만덕의 성씨가 김씨이며, 그녀가 기생인가 하는 대목이다.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추정은 어쩔지 모르겠다.

당시 변방 중에서도 최변방인 제주는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다 그런

10) 진재교, 「조선후기 전에서 찾은 주체적 인간」, 『조선후기 인물전』, 현암사, 2005.

11) 채제공, 「번암집」, 「만덕전」. 萬德者 姓金 耽羅良家女也 幼失母無所歸依 托妓女爲生 稍長 官府籍萬德名妓案 萬德雖屈首妓於役 其自待不以妓也 年二十餘 以其情泣訴於官 官矜之除妓案 復歸之良 萬德雖家居乎庸奴 耽羅丈夫不迎夫 其才長於殖貨 能時物之貴賤 以廢以居 至數十年 頗以積著名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신분을 옳게 유지하고 명분을 지키며 살기에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었다. 자연재해와 탐관오리의 수탈로 대표되는 인재 속에서 연명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었다. 당시 잠녀들의 매복의 고통을 노래한 「潛女稅」¹²⁾의 내용 중에 ‘우리가 전복을 캐는 것은 우리가 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저 서슬이 파란 관리들의 수탈에 호응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때문이다. 만약 내가 아프다고, 기후가 좋지 않다고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크게는 우리 가족 곧 자식들을 관비로 빼앗길 수 있다’라고 했던 하소연을 기억해본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신분을 가지고, 무슨 성씨를 가지고 사는가의 문제는 사치일 뿐이다.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때로는 관청에서 구걸하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하지만 먹어야 한다는 사실에 매달려야 하는 변방의 어려운 상황이 잘 묘사된 「濟州乞者歌」¹³⁾에서처럼 변방의 미미한 백성들은 최소한의 자신을 지키는 데 몰입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덕 역시 처음에는 재물에 집착했을 것이다. 다만 이후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자신의 어릴 적 삶 속에 클로즈업 되어 측은지심이 자연스런 발로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정조 19년 을묘년(1795) 제주도에 크게 흉년이 들어 백성이 계속 굶어 죽었다. 그러자 정조는 ‘곡식을 배에 싣고 가서 백성을 구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득한 남해 바다 팔백리 길을 뚫단배가 배들의 북처럼 자주 왕래하더라도 제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만덕은 많은 돈을 내어 여러 고을의 뱃사공들에게 육지의 쌀을 사와서 제때에 제주도로 운반해 오도록 하였다. 만덕은 사가지고 온 십분의 일의 쌀로 자신의 친척을 구휼하고 나머지는 모두 관청에 다 실어

12) 김춘택, 「북헌집」 권13, 「囚海錄」.

13) 신광수, 「석북집」 권7.

다 바치니 굶주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관청의 뜰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관청에서 굶주린 정도에 따라 백성에게 골고루 쌀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남녀 모두 나와서 ‘우리를 살린 이는 만덕이다.’ 라고 하면서 만덕의 은혜를 칭찬하였다. 관청에서 백성을 구제하는 일이 끝나자 제주 목사가 백성을 구제한 만덕의 일을 조정에 보고하니 정조 임금께서 매우 기뻐하게 여겨 문서를 내렸다. ‘만덕의 소원은 뭐든지 들어주도록 하라.’ 목사가 만덕을 불러 임금의 어명을 알려주며 물었다. “네 소원이 무엇이나?” “별다른 소원은 없습니다만 서울에 한번 들어가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고 이어 금강산에 들어가 일만 이천 봉을 구경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당시 나라의 법으로 제주도 여성들은 바다를 건너 육지에 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제주 목사가 만덕의 소원을 아뢰니 정조 임금이 소원을 들어주라고 명했다. 또 관청에서 서울에 올 때까지 말을 제공하고 각 여관에서 교대로 음식을 제공하게 하였다.¹⁴⁾

「萬德傳」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대목이다. 어렵게 모은 재물로 백성들을 구제하고 당시 백성들로부터 ‘우리를 살린 사람은 나라님도 아니고 조정 대신도 아닌 더구나 사내도 아닌 일개 미미한 변방의 아낙이다’ 라는 경악에 가까운 추앙을 받았던 부분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로로 상경하여 중전과 빈궁을 만나 뵈고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라서 더 이상의 재론이 필요치 않다. 다만 당시 제주의 여자들이 出陸은 법으로 금지되

14) 聖上十九年乙卯 耽羅大饑 民相枕死 上命船粟往哺 鯨海八百里 風檣來往如梭 猶有未及時者於是萬德捐千金買米 陸地諸郡縣棹夫以時至 萬德取十之一 以活親族 其餘盡輸之官 浮黃者聞之 集官庭如雲 官劑其緩急 分與之有差 男若女出而頌萬德之恩 咸以為活我者萬德 賑訖 牧臣 上其事于朝 上大奇之 回諭曰 萬德如有願 無問難與易 特施之 牧臣招萬德以上諭 論之曰 若有何願 萬德對曰 無所願 願一入京都 瞻望聖人在處 仍入金剛山 觀萬二千峯 死無恨矣 蓋耽羅女人之禁不得越海而陸 國法也 牧臣又以其願上上命如其願 官給舖馬遞供饋

었는데 이것은 나라의 주요한 세수원인 잡녀들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공물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했던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남자들조차도 出陸이 어려웠고 다만 제한적으로 목사가 허락한 인원들만 출입하며 장사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지리적 격절성에 따른 것이고 혹은 일부 탐관오리들이 자신들의 불순한 행적이 밖으로 드러나길 꺼렸던 것도 한 원인이 된다.

그리고 조선조 동안 제주에는 민심을 달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탐라별시가 꾸준히 시행되었다. 따라서 급제하고 상경하여 관리로 뽑힌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 중에는 서울에 눌러 살며 일가를 이룬 경우도 있었지만 제주가 가지는 지리적 여건이 부모 형제와 생이별의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부분 이것을 참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귀향하였다. 그리고 제주에서 제공되는 미관말직에 만족하여 생을 마친 경우도 많았는데 이 모두가 저간의 상황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이해된다.

예컨대 청음 김상헌이 17세기 초 제주 안무어사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제주로 들어가기 전 자신을 제주까지 인도해 줄 사공들이 '제주만이 가지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물산이 부족하고 이렇게 물으로 나온 기회에 육지의 물산을 무역할 기회를 잡지 못하면 살기가 막막하다는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여 며칠 장사할 말미를 주었다는 사실'¹⁵⁾에서 또 다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만덕은 돛단배 하나로 구름 낀 아득한 바다를 건너서 병진년(1796) 가을에 서울에 들어왔다. 한두 번 나를 만났는데 나는 만덕을 만나본 사실을 글로 써서 임금께 아뢰었다. 정조가 선혜청에 명하여 달마다 식량을 주게 하고 며칠 후에는 내의원 의녀에 임명하여 여러 의녀의

15) 김상헌, 「남사록」, 8월 13일.

우두머리로 삼았다. 관례에 따라 만덕이 중전께서 거처하시는 궁궐에 나아가 중전과 빈궁께 문안을 드릴 적에 빈궁께서 궁녀를 보내 말했다. “내가 여자의 몸으로 의롭게 굶주린 수많은 백성을 구하였으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그리고는 상을 후하게 내렸다. 만년을 지낸 뒤 정조 정사년(1797) 늦은봄에 만덕은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만폭동 중향성 등의 기이한 경치를 차례로 구경하였다. 금부처를 보면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며 공양에 정성을 다했다. 제주도에 불법이 전해지지 않았으므로 만덕은 원여덟의 나이에 절집과 불상을 처음으로 보았던 것이다. 또한 안문령을 넘고 유점사를 거쳐 고성으로 내려가서 삼일포에서 뱃놀이를 하고 통천의 총석정에도 올랐다. 천하의 좋은 경치를 다 본 뒤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는 며칠을 머문 뒤 내전에 나아가 고향 제주에 돌아가겠다고 하니 중전과 빈궁이 전처럼 상을 내려 주었다. 이때 만덕의 이름이 서울에 가득하여 삼정승 이하 사대부들이 한번만이라도 만덕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¹⁶⁾

이제 이야기는 정점에 도달한다. 심각했던 제주의 기근을 사재를 털어 구제하였다는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그에게 여러 가지 포상이 내려졌으나 모두 사양하고 대궐을 구경하고 금강산을 오르고 싶다는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차례차례 절경을 둘러보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여기에서 일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당시에 제주에 불교가 전해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대목이다. 불행한 역사이기는 하나 고려조 삼별초의 최후 집결지라는 점과 오랜 세월 원나라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에 기초하면 불교가 제주에 전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

16) 萬德一帆雲海萬頃 以丙辰秋入京師 一再見蔡相國 相國以其狀白 上命宣惠廳月給糧 居數日 命爲內醫院醫女 俾居諸醫女班首 萬德依例詣內閣門 問安殿宮 各以女侍 傳教曰 爾以一女子 出義氣救饑餓千百名 奇哉 賞賜甚厚 居半載 用丁巳暮春 入金剛山 歷探萬瀑 衆香奇勝 遇金佛輒頂禮 供養盡其誠 盖佛法不入耽羅國 萬德時年五十八 始見有梵字佛像也 卒乃踰鴈門嶺由楡岾下高城 泛舟三日浦 登通川之叢石亭 以盡天下瑰觀 然後還入京 留若干日 將歸故國 詣內院告以歸 殿宮皆賞賜如前 當是時 萬德名滿王城 公卿大夫士無不願一見萬德面

다. 그리고 만덕이 살던 시대보다 약 백년쯤 앞서 제주 목사를 지낸 병와 이형상(1653~1733)은 신당 129곳 및 두 곳의 사찰을 일시에 불사르고 천 개에 가까운 불상을 바다에 던져버렸으며 무당들을 양민으로 환속시켰다. 결과적으로 당시 제주의 유교적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는 긍정론이 있지만 당시 무당들이 그를 주문으로 저주하였다. 현재까지도 지역에 따른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문화적 편협성을 드러내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이해하면 당시 제주에는 여러 가지 민간신앙과 외세의 영향에 따른 조금 변형되었으리라고 양보하더라도 불교가 엄연히 존재하였다.

주지하듯이 당시 제주민이 불확실한 바다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무언가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제주민의 일상에서 ‘불법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신빙성이 적다. 오히려 조금 떨어진 시기이지만 추사 김정희의 경우처럼 제주를 오가는 관리들조차도 화북포의 해신사에서 무사귀환을 빌었던 사실에서 당시 제주에는 여러 가지 민간신앙과 사찰이 존재했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변수로 옳은 불교의 교리가 전파되지 못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보다 훨씬 앞서 제주를 다녀간 백호 임제(1549~1587)가 한라산에 올라 존자암에 묵으면서 시를 지었다는 사실에 비추면 더욱 믿기 어렵다. 혹시 금부처를 보면 정성을 다하는 만덕의 모습이 독실한 몸매 배인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만덕이 떠나려고 하직인사를 하면서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살아 생전에 다시 정승님의 얼굴을 뵈 수 없겠군요.” 이윽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러자 나는 말했다. “옛날 진나라 시황제와 한나라 무제는 바다 밖에 삼신산이 있다고 여겼네. 세상에서 우리나라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하고, 금강산을 봉래산이라 하지. 자네는 제주에서 성장하여 한라산에 올라 백록담 물을 마시고, 이번엔 금강산을

두루 답사하였으니 삼신산 중 두 곳을 유람한 셈이네. 천하의 수많은 남자조차도 이렇게 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 작별하는 마당에 왜 마음 약한 아녀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가.” 그리고는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만덕전」을 짓고는 웃으면서 주었다.¹⁷⁾

어느새 얘기는 결말에 도달한다. 萬德은 서울에 머무는 일 년여 동안 중전과 빈궁을 뵈고 여러 사대부들과도 대면한다. 이후 소원대로 금강산을 유람하고 탐라로 돌아가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다. 중전과 빈궁을 뵈고 하직인사를 올리고서 번암과 헤어지면서 「萬德傳」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끝이 난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국면은 만덕이 번암과 헤어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다. 여인의 이별의 눈물이야 별 이상할 것도 없지만 제주 여인의 눈물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른 구석이 있다. 제주의 여인들은 여러 가지 변방 여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다른 상황에 직면한다. 예컨대 제주의 기이한 민풍을 보여주는 「迎郎曲」과 「送郎曲」¹⁸⁾에서처럼 다른 지역 여인들이 겪기 힘든 슬픔도 겪어야 했다.

이미 얘기하였듯이 제주민의 바다에 기댄 삶은 많은 과부들을 양산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얼마간의 무리들은 제주에 교대 근무로 들어오는 병사를 낭군으로 맞아들여 반년 남짓 지내다가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색다른 제주 여인의 슬픔이 가슴에 와 닿는다. 만덕도 홀로 소원풀이를 위해서 객지에서 일 년여를 보내는 동안 늘 마음 속으로 의지했던 번암

17) 萬德臨行 辭蔡相國哽咽曰 此生不可復瞻相公顏貌 仍潸然泣下 相國曰 秦皇漢武皆稱海外有三神山 世言我國之漢拏 卽所謂瀛洲 金剛卽所謂蓬萊 若生長耽羅登漢拏 爽白鹿潭水 今又踏遍金剛 三神之中 其二皆爲若所包攬 天下之億兆男子 有能是者否 今臨別 乃反有兒女子刺刺態何也 於是敘其事 爲萬德傳 笑而與之 聖上二十一年丁巳夏至日 樊巖蔡相國七十八 書于忠肝義膽軒

18) 임제, 「南冥小乘」, 2월 16일.

이었다. 막상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오자 어찌면 「送郎曲」의 주인공과 같은 막막한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무튼 일 년여 동안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제주로 무사히 돌아왔다. 이후 萬德은 제주로 돌아가 살다가 1812년에 사망했다. 돌아간 뒤 제주에서 생활한 사연은 일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있다. 묘비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다른 기회에 논의하기로 하겠다.

여성 義俠萬德의 선행과 왕명을 받은 서울 금강산 여행은 당시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전설이 되었다. 洪義俊 李義發 金熙洛 劉在建 등이 그의 삶을 조명하는 글을 지었다.

3.2. 漢詩로 된 作品

주지하듯이 당시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혹독하게 제한되었다.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저 변방의 그야말로 미미한 여인이 饑民을 구휼하고 그 공로로 상경하여 중전과 빈궁을 뵈고 금강산까지 구경하였다는 것은 일대 파장을 일으켰다. 따라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奇話들이 만들어지고 당시 사대부들이 주축이 되어 시집이 만들어졌다.

다산 정약용도 이 시권에 발문을 써주었다. 그 글에서 다산은 萬德에게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 곧 三奇四稀가 있다고 말했다. 기생이 과부로서 수절한 것, 많은 돈을 기꺼이 희사한 것, 섬에 살면서 산을 좋아한 것이 세 가지 기특함이다. 여자로서 겹눈동자를 가졌고, 종의 신분으로서 역말을 타고 왕의 부름을 받았으며, 기생으로서 중을 시켜 가마를 메게 하였고, 외진 섬사람으로 內殿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것이 네 가지 희귀함이라고 했다.¹⁹⁾

19) 정약용, 「여유당전서」, 「題耽羅妓萬德所得摺紳大夫贈別詩卷」, 乙卯耽羅饑 萬德捐振之

萬德이 누린 호사가 당시로서 얼마나 파격적인지를 보여준다. 이 외에도 많은 당시 문인들이 이러한 기회를 흘러보내지 않고 분위기에 동참하였다.

판서 이가환은 서문과 함께 시를 지었다.

萬德瀛洲之奇女	만덕은 제주도의 기이한 여인!
六十顏如四十許	나이는 예순이건만 얼굴은 마흔 살
千金糶米救黔首	천금 같은 쌀을 내어 굶주린 백성들 구하고
一帆浮海朝紫禦	배 타고 바다 건너와 임금님을 뵈었네.
但願一見金剛山	소원은 한 가지로 금강산을 보는 것
山在東北烟霧間	금강산은 동북쪽 멀리 안개 속에 쌓여 있네.
至尊御肯賜飛驒	성상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나는 듯한 역말을 내려주시니
千里光輝動江關	천리 길 빛나는 영광이 곳곳에 넘쳐흘렀네.
登高望遠壯心目	높은 봉에 올라 멀리 조망하여 눈과 마음 확 트이게 하더니
飄然揮手還海曲	표연히 손을 흔들며 섬으로 돌아가네.
耽羅遠自高夫良	담라는 아득한 옛날 고씨 부씨 양씨부터 비롯했는데
女子今始觀上國	서울을 구경한 여자는 만덕이 처음이리라.
來如雷喧逝鶴舉	우레처럼 떠들썩하게 와서는 고니처럼 홀연히 떠나고
長留高風灑寰宇	높은 기상을 길이 남겨 천하에 흩뿌렸네. ²⁰⁾

작자는 작품 서문에서 독특하게도 萬德을 과부로 소개하였다. 이 부분은 분분한 대목이다. 만덕에 대한 작품의 시초가 되는 채제공의 작품에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그 배경을 자세히 소개하였고 이후 이것은 대다수의 의견이 되었다. 따라서 작자의 그녀가 과부라는 논리는 다소 주관

詢其願 金剛山也 有聖旨令如願 丙辰秋 耽羅妓萬德 驛至京 越明年春 萬德回自金剛 將還其鄉 左丞相蔡公爲立小傳 敘述頗詳 余不贅 余論萬德 有三奇四稀 妓籍守寡一奇也 高貴樂施二奇也 海居樂山 三奇也 女而重瞳子 婢而被驛召 妓而令僧肩輿 絕島而受內殿寵錫 四稀也 嗟以一眇小女子 負此三奇四稀 又一大奇也

20) 이가환, 「금대시문초」 상, 고시, 「送萬德還耽羅」.

적인 견해로 보인다. 그리고 큰 기아에 쌀을 사서 백성을 구휼하고 이 사실이 보고되어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 소원을 물었는데 다른 것이 없고 금강산을 보고 싶다고 하자 내의원 행수로 임명하고 역말을 타고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하였다.²¹⁾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본격적인 작품 속에서 작자는 세세한 내용을 은근히 담았으면서도 별도의 서문을 두어 행적을 소상히 밝히려 했던 것은 한시의 문체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려는 세심함에서 비롯되었다.

이 작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분히 한시라기보다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정도로 만덕의 행적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물론 작자의 역량이 십분 발휘된 것도 사실이지만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창작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아마 당시 많은 문인들이 萬德과 관련된 작품을 지을 때 대부분 전의 형식을 빌려 조금 더 소상히 행적을 밝히려 하였다. 하지만 작가는 그러한 일반적인 경향에서 탈피하여 자기의 주관적 입장을 살리려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작자는 변방 여인의 기이한 행적이 조선후기 나라 전체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백성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위정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에 매우 적당한 소재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傳보다는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한시라는 문체가 이러한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작품 말미에 ‘고니처럼 홀연히 떠나 높은 기상을 길이 남겼다’고 고상하고 신비롭게 표현하였다. 작자는 아마도 신선한 충격이었던 이 사건이 본인뿐 아니라 조선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숭고한 일로 추앙되기를 의도했었다는 기분이다.

마치 기생이었던 紅挑가 어찌면 스무 살에 妓籍에서 어렵게 빠져나와

21) 萬德 耽羅寡婦 乙卯大饑 糶米賑飢 州牧以聞 至尊動色 問萬德所欲 萬德無所欲 欲見金剛山 遂錄名女醫 賜以驛遞 俾成其願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굵주림을 아녀자의 몸으로 과감히 사재를 털어 수행한 변방 여인의 행적에 감동하여 약간은 동질감 속에 자랑스러움을 솔직한 심정으로 “행수 의녀는 탐라의 기생이라/ 만 리 길 높은 파도도 겁내지 않네./ 이제 또 금강산으로 구경 길 떠나며/ 꽃 같은 이름 교방에 남기네.(女醫行首耽羅妓 萬里層溟不畏風 又向金剛山裡去 香名留在教坊中)”

라고 드러냈던 부분과 일정 부분 맥이 닿아 있다.

조수삼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서문과 함께 시를 남겼다.

懷淸臺築乙那鄉 청대에 대한 생각 올라의 고을에 가득하여
積粟山高馬谷量 산처럼 쌓인 곡식 말을 키우는 마을 살릴 곡식이다.
賦汝重瞳眞不負 헤아려보니 너의 겹눈동자 참으로 저버릴 수 없으니
朝瞻玉階暮金剛 아침에 대궐에서 보고 저물어 금강산을 노니네.²²⁾

조수삼 역시 다른 사람에 비하여 칠언절구에 그쳤지만 함축적으로 萬德의 행적을 드러내려고 애썼다. 작자는 서문에서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萬德이 서울에 오게 된 경과와 그녀의 소원으로 대궐을 둘러보고 금강산 구경을 원했다는 사실에 대해 기술하고 내의원 행수로 상경하여 금강산을 구경하였다고 하였다.²³⁾

본격적인 작품에서 작자는 칠언절구라는 형식의 한계를 그녀가 기민을 구한 행적을 부각시켜 극복하려 하였다. 특히 작자는 그녀를 의협이 강한 모습으로 형상화하려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당시 소문을 그대로

22) 조수삼, 『추재집』, 「만덕」.

23) 萬德濟州妓也 家貲鉅萬 一隻眼重瞳 正宗壬子州大歉 萬德出數千斛穀 數千緡錢 賑活一邑之民 上大嘉之 使問其所願 曰萬德女子賤人也 無他願 惟願一瞻天陞 一見金剛 遂命騎馭上京屬之藥院內醫女行首 仍令廚傳 往遊金剛

쫓아 겹눈동자를 지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당시 서울에서는 萬德의 눈 한쪽이 겹눈동자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겹눈동자는 한 눈에 눈동자가 두 개 들어간 것으로 역사적으로 성인인 중국 고대의 순임금과 진한 교체기의 항우가 있다. 박제가와 조수삼 등은 확인해보지도 않은 채 그가 겹눈동자를 지닌 특별한 용모임을 부각시켰다. 박제는 전생에 부처의 마음과 신선의 풍골이 있어서 萬德이 그런 특이한 상을 지냈다고도 말했다.

당시 이 소문이 크게 확산되자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 다산이 사실을 확인해보려고 萬德을 자기 집에 불렀다. 확인해 밝힌 뒤에 「겹눈동자의 변증」이란 한 편의 짧은 글을 썼다. 이 작품에서 다산은 만덕이 물건을 두 개로 보지 않고 가까이서 그의 눈을 보니 黑白의 睛瞳이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겹눈동자란 헛소문임을 밝혔다.

하지만 萬德 자신도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 다산은 소문이 사라지지 않고 횡행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虛誕함을 좋아하여 스스로 바보가 된다고 개탄했다.²⁴⁾ 이러한 뜬소문이 떠돈 것은 萬德이 일으킨 소동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한다.

이 외에도 서울에 머물 때 萬德은 여러 일화를 남겼다. 李載采의 「萬德傳」에는 그가 서울에 머물 때의 일화를 기록했다. 서울의 惡少輩들이 돈이 굉장히 많은 과부라고 하여 萬德에게 바짝 접근했다. 그러자 萬德은 “내 나이 쉰이 넘었다. 저들은 내 얼굴을 곱게 봐서가 아니라 내

24) 정약용, 『여유당전서』, 「重瞳辨」 濟州妓萬德 捐貲振恤 請見金剛山 驛召至漢陽 萬德自言 厥目重瞳 公卿轉相傳噪 余爲招至 問汝目重瞳 有之乎 曰然 曰凡宮室樓臺草木人物 於汝視 一皆成兩乎 曰不然 曰然則汝非重瞳矣 逼視之 其黑白睛瞳 了不異人 然而重瞳之說 竟行不熄 人之樂誕自愚如此 大抵瞳之有童 人以人面照之也 樓臺 照爲小樓臺 草木照爲小草木 其有小樣 卽所以視此物也 令瞳重設則一瞳各照一小樣 一物不成兩視乎 此易知之理也 卽 虞舜項籍之目亦必非重瞳 令果重也 視物迷錯 不辨數目 一廢人矣

재물이 탐나서 저런다. 굶주린 자를 구할 여유도 없는데 어느 거름에 저런 탕자를 살찌우라?” 라며 거절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남을 등치려는 이들이 있는데 萬德은 의연하게 대처했다. 의협의 풍모가 넘쳐난다.

아무튼 그녀가 남긴 일화 속에서 그녀가 일으킨 사건이 얼마나 당시에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파장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퍼진 것이 아니고 역으로 지역에서 서울로 번져간 조선조에 보기 드문 일이었다는 것이 의미를 배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효자 열녀 충신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의 틀을 벗어나 변방의 여인이 당시 현실적인 한계를 당당히 극복하고 굶주린 백성을 구한 것을 작품의 주제로 삼았다는 점은 매우 특이한 사실로 보인다.

4. 萬德 關聯 作品의 意義

주지하듯이 「萬德傳」이 지어진 시기는 노론벌열 층의 장기 집권 폐단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진 암울한 시기였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개혁하여 민생안정과 정권을 보장받으려 했던 정조는 번암을 重用하여 남인들의 정치 참여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조의 생각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문체반정을 통해 노론의 세력을 견제하려 했던 경험이 있기도 하지만 홍국영의 일로 급진 개혁의 문제점을 너무도 잘 인식하고 있었던 정조는 뚜렷한 명분이 없는 한 어설픈 개혁은 오히려 역풍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에는 대대적인 기근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될 수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여인의 몸으로 사재를 털어 구호미가 제주로 들어오기 전 열흘 동안 술을 걸어 백성들의 餓死만은 면하게 한 변방 여인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 일은 기존의 틀을 깨는 정치적인 이슈에 목말라 있던 정조에게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는 호재임에 틀림이 없었다. 곧 실정의 책임을 당시 집권층인 노론에게 엄중하게 물어서 그들의 세력을 철저히 견제하여 왕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그들과 대항하여 왕권의 항구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항마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인 것이다. 남인을 중용할 수 있는 적기인 셈이다. 또한 남인의 입장에서는 정조를 도와 당세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명분을 제공해주는 일이었다.

즉각 정조는 萬德을 대궐로 초청해 금강산을 구경시켜주고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정치개혁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그 중 하나가 대신들에게 萬德의 사건을 주제로 글을 짓는 율과를 부과하였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萬德에 대한 기록들은 傳 漢詩 雜著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번암을 위시한 남인들의 문집 속에 제한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첫째 당시 조정 대신들이 왕명을 거역하고 제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당시 대신들에게 왕명을 거역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두 작품을 지었다는 얘긴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남인들에게 편향되어 있는 점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결국 노론벌열 층은 지엄한 왕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지어놓고 문집을 편수할 때 빼버렸던지 없애버렸을 것이다. 다만 남인들은 당세를 키울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왕명에 부응하였다. 아마 당시 남인들은 이것만이 이 혼란한 시기를 사는 방편이 되고 지식

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유행처럼 萬德에 관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쏟아냈던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萬德傳」이 가지는 가치를 지금에 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야기의 주제, 주인공이 모두 제주라는 점은 매우 희소가치가 있는 지역의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지방화 시대가 우리 문학인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점에 과단히 부응할 수 있는 소재임에 틀림이 없다.

5. 맺음말

조선 후기 제주의 흉악한 饑饉은 탐라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 수 있는 무서운 일이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제주 목사의 보고를 받고 즉각적으로 구제를 시행하려고 하였지만 변방의 외딴섬까지 그러한 은택이 미치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다. 따라서 그 일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었다. 이러한 절박한 시기에 제주의 당당한 여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난관에 맞서 기민을 구제하였고, 그 공로로 대궐을 구경하고 금강산을 보려 했던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이 일은 당시에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체제공을 필두로 여러 문인들이 傳과 漢詩를 지어 위로하였다. 이러한 일은 주로 남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어쨌든 당시 문인들의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인식은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물론 당과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쨌든 이러한 창작활동은 당시 남인들을 중심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제하려는 운동처럼 자연스럽게 퍼져나가 이후 지속적으로 계승되었다.

우리들은 이제까지 문학의 역량을 중앙 중심의 제한적인 틀에 집착하였다. 따라서 이백년 전 굶주린 백성을 구하였던 이 숭고한 일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당시 실학을 주도했던 정약용, 박제가, 조수삼 등 기라성 같은 문인들이 이 일을 중요시하여 별개의 작품을 남기려 했었던 것에 비하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요즘 들어 조금 관심을 기울이려는 시도들이 있기는 하지만 미약하다. 이것은 문학이 현대에 맞게 재해석되어 현실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효용성을 등한시한 결과이다.

중앙에 대한 연구가 학문의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유산들 역시 지역의 특성을 알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거름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중앙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고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단서인 것이다.

참고문헌

- 임 제, 『南冥小乘』.
- 김상헌, 『남사록』.
- 김춘택, 「囚海錄」, 『북헌집』.
- 채제공, 『번암집』.
- 신광수, 「耽羅錄」, 『석북집』.
- 정약용, 『여유당전서』.
- 이가환, 『금대시문초』.
- 조수삼, 『추재집』.
- 이신복, 「채제공의 만덕전 연구」, 단국대학교, 1994, 633쪽.
- 김태능, 『김만덕전』, 김만덕기념사업회, 2000.
- 진재교, 『조선후기 인물전』, 현암사, 2005.
- 정창권,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 푸른숲, 2006.
- 안대회, 『굶어죽지마라. 만덕이 있다.』, 「한겨레21」 제721호, 2008.
- 줄 고, 「제주 산수를 형상화한 한시 소고」, 『영주어문』 제14집, 2007, 53~79쪽.
- _____, 「한시로 형상화된 제주의 역사고적」. 『한문학연구』 제21집, 2008, 35~71쪽.
- _____, 「한시로 묘사된 제주의 물산과 민중생활」, 『영주어문』 제16집, 2008, 107~130쪽.

문헌에 기록된 제주의 세 여인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김 준 형*

1. 三多島와 濟州

三多島. 바람 많고, 돌 많고, 여자가 많아 제주도를 삼다도라 한다. 애초 삼다도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현재 다수의 사람들은 삼다도란 말을 다분히 낭만적으로 쓰고 있는 듯하다. 삼다도는 곧 아름다운 제주도와 같은 의미로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기실 三多는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 달가운 말일 수 없다.

바람이 많고, 돌이 많다! 그것은 농경사회에서 좋은 자연환경이 아니다. 농경사회에 반하는 자연환경.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 환경이 아름다운 풍광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삶은 아름다운 풍광에 반비례한다. 풍광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들의 삶은 더더욱 고달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람이 많고, 돌이 많다'는 것은 척박한 자연에서 그 자연을 이기며 살아야 했던 당시 제주민의 피와 땀의 다른 말인 셈이다. 사면이 바다이면서도 소금이 없어 진도나 해남에서 그것을 구해와야 했던 섬사람들. 사방이 물로 덮여 있으면서도

* 부산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정작 마실 물이 없었던 섬사람들. 마실 물을 찾아 몇 십리를 다니는 것은 예사였기에 5리(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물을 떠오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물을 구했다며 좋아했던 섬사람들¹⁾ 그것이 아름다운 자연 이면에 숨겨진 섬사람의 삶이었다.

여자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李元鎮은 『耽羅志』에서 제주에는 여성이 많고 남성이 적대(女多男少)고 기록하고 있다. 제주에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장삿배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 주변에서 생활의 기반을 찾아야 했던 제주 남성은 배를 타야만 했다. 하지만 뱃길이 험하다 보니 漂沒하는 경우도 많았다. 제주민들이 딸 낳기를 중히 여긴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²⁾

이러한 기록은 『탐라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崔簿의 『漂海錄』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록이 있다.

최부는 제주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때 그와 함께 배를 탔던 제주민 李孝枝와 대화를 나눈다. 효지는 당시 제주 남성의 삶을 진솔하게 이야기한다.

우리 제주도는 아득히 바다 가운데 떨어져 있어 수로로 구백여리나 됩니다. 또한 어느 바다보다도 파도가 세차고 거세합니다. 공물을 실은 배나 장사하는 배는 끊임없는 오기는데, 그 중 표류되거나 침몰되는 배가 열에 대여섯이나 된답니다. 섬사람들은 앞서 죽지 않으면 반드시 뒤여라도 죽고야 말지요. 그런 까닭에 경내에는 남자의 무덤이 매우 적은 게지요. 여염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세배나 많습니다. 부모된 자들도 딸을 낳으면 반드시 “내게 효도를 잘할 애”라고 말하고, 아들을 낳으면 모두가 “이 놈은 내 아이가 아니고, 고기밥이야!”라고 말하지요. 이처럼 우리들에게 죽음이란 하루살이가 와서 사라지

1) 金淨, 〈濟州風土錄〉

2) 李元鎮, 『耽羅志』, “公私運販之船, 絡繹不絕, 海路險遠, 屢致漂沒, 故州人以生女爲重”

는 것과 같죠. 비록 지금이 평시였다 해도 어찌 집안에서 죽을 마음이
나 가졌겠습니까?)

죽음이 일상이었기에 죽음에 초월해있는 듯한 제주 남성의 목소리가
여실히 그려져 있다. 뱃일을 나가면 열에 5~6번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삶을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죽음이 일상처럼 되어 있었던 것이다. 오늘 죽지
않았다고 해서 행복할 것이 없다. 오늘‘만’ 살아있기 때문이다. 내일은
또다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야 했다. 또한 바다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일상화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다에 나가지
않는다면 왜구의 잦은 노략질에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고종실록』에
쓰인 다음과 같은 내용도 이를 방증한다.

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全羅監司 李憲植과 濟州牧使 沈遠澤
이 올린 狀啓를 보니, ‘加波島에서 전복을 따던 일본 배 6척이 擘瑟浦
에 와서 정박하고 일본 선원들이 제멋대로 상륙하여 촌락에 뛰어
들어와서는 닭·돼지를 약탈했고, 칼을 빼들고 집주인 李晚松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했으며, 모슬포 백성 金成萬, 鄭宗武, 李興福 등도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 배에 탔던 40여 명이 달려나와서 본 모슬포의
譏察將 文在旭을 위협하여 강제로 화해의 증표를 받아내고는 즉시
그 섬으로 돌아갔습니다’라고 했습니다.”⁴⁾

議政府에서 아뢰기를, “全羅監司 閔正植과 濟州前牧使 趙均夏의
狀啓를 연이어 보니, ‘일본 배들이 아무런 증명서도 없이 갑자기 와서
정박하고는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걸땀하면 약탈하며 어부들을

3) 崔簿, 『漂海錄』 1488년 윤정월 13일, “我州邈在大海中, 水路九百餘里, 波濤視諸海尤爲洶
暴. 貢船商舶, 絡繹不絕, 漂沒沈溺, 十居五六, 州人不死於前, 則必死於後, 故境中男墳最少.
閭閻之間, 女多三倍於男. 爲父母者, 生女則必曰: ‘是善孝我者’, 生男則皆曰: ‘此物非我兒.
乃鯨鱓之食地! 我等之死, 如蜉蝣出沒, 雖在平日, 亦豈以死於壟下爲心哉”

4) 『고종실록』 고종 24년(1887) 8월 17일.

묶어 놓고 때려서 물에 처넣었습니다. 백성들이 배에 올라 저지하자 저들은 칼과 총으로써 인명을 많이 해쳤으며 민가에 돌입하여 부녀자들을 위협하고 양식과 옷과 닭과 돼지 등을 약탈하여 가는 등 온갖 행패를 자행하므로 온 섬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형편입니다.(하략)⁵⁾

제주 남성들에게 죽음은 삶처럼 일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보니 자연히 제주에는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3배나 많았던 것이다.⁶⁾ 여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남성의 삶이 고단했음을 반증하는 예인 셈이다.

삶의 고단함은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남성이 없는 상태에서 바람 많고, 돌 많은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려면 자연히 여성들은 다른 지역의 여성들보다 강한 생활력을 가져야만 했던 것이다. 그것은 또한 제주 여성들의 비애이기도 하다. 결국 삼다도라는 말은 제주민의 비애를 대변하는 말인 셈이다.

삼다의 악조건에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문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또한 문헌에 기록된 제주민은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 되는가? 하나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체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제주민,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려낸 문인들의 기록을 통해 제주민의 삶을 엿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제주민에 주목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민초들의 삶을 문인들은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민

5) 『고종실록』 고종 28년(1891) 8월 22일.

6) 제주 남성들이 여러 명의 부인을 취하는 양상을 기록한 문헌은 더러 보인다. 金熙洛의 『故寔』(奉教製進萬德傳)에 “제주 풍속에 한 남자가 세 명의 여인을 취한다(厥俗一男三女)”고 한 기록이나, 李元鎭의 『耽羅志』에 “중들도 모두 가정을 갖는데, 절 근처에 처자를 둔다. 비록 거지라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처첩을 둔다. [僧皆作家, 寺傍以畜妻子, 雖行乞者, 並畜妻妾]”는 기록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풍습은 남성이 적었던 당시 배경에서 어쩌면 당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현상일 수밖에 없다.

의 삶의 애환을 엿볼 수 있는 작품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만 한 귀퉁이에 조각처럼 남겨진 기록에서 더러 제주민을 언급한 대목을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를 찾아내서 문인들은 어떠한 인물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고, 또한 그 인물들은 어떠한 목적에서 다루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 과정에서 제주민의 삶의 애환을 읽고자 한다. 여기에는 우선 제주의 세 여성에 초점을 둔다. 張德, 昆生, 萬德이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문인들 사이에 비교적 널리 회자되었던 인물들인데, 그 문학적 형상화 방식은 상당히 이질적이다. 이를 통해 제주민에 대한 문인들의 평가를 읽어낼 수 있으며, 민초로 살아갔던 제주민의 삶의 일단을 엿볼 수 있으리라 본다.

2. 문헌에 나타난 제주의 세 여인, 그들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1) 齒耳鼻咽喉 분야의 名女醫, 張德

成俔(1439~1504)의 『慵齋叢話』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조정에서는各司 名官의 나이 어린 계집종을 뽑아 혜민서에 귀속 시키고 의서를 가르쳤다. 이들을 여의라 명명하고, 부인의 병을 고치게 하였다. 제주에서 온 여인도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의술은 알지 못하였으나 齒蟲을 잘 잡아냈다. 사대부 집에서도 다투어 그를 불러들였다. 그녀가 죽자, 다른 한 여자가 그 기술을 전수받았다. 나도 불러서 이를 치료하였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얼굴을 들어 입을 벌리게 한 다음, 은으로 만든 날카로운 물건으로 하얀 색의 자그마한 벌레를 꺼내는 것이었다. 날카로운 물건은 잇속에 집어넣지도 않고, 이에서는 피가 나지 않았다. 그 쉬운 것이 이러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그 기술을 전하지 않았다. 비록 조정에서 죄로 다스려도
고하지 않았는 것을 보면, 이는 환술이고 정업은 아닐 것이다.7)

성현은 『용재총화』라는 필기집에 당시 자신이 보고 들은 일을 기록해
놓았다. 성현이 만난 齒蟲을 잘 다스렸던 제주에서 올라온 한 여인,
그녀는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용재총화』에 실려 있다. 필기는 특성상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하기에, 천한 사람이라도 이름을 밝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성현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가 이름을 잊었거나,
혹은 이름조차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현이
관심은 다만 치충을 잡아내는 신기한 의료 행위와 그 행위를 다른 사람
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기술을 幻術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 절하한다. 성현은 이름조차 드러내지 못한 한 인물
에 대한 관심이 없다. 단지 그의 환술에 성현은 눈길을 줄 뿐이다.

그렇다면 성현이 말한 제주 의녀는 누구인가? 그는 제주에서 온 張德
일 개연성이 높다. 1492년 당시 右承旨 權景禧(1451~1497)가 성종께
아뢴 내용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의 醫女 張德은 齒蟲을 제거하고 코와 눈 등의 부스럼을 제거
할 수 있었습니다. 죽을 즈음에 장덕은 그 기술을 개인적으로 부리던
종[私婢 貴수이에게 전수하였습니다. 나라에서는 귀금이를 속량하
여 여의로 삼아 그 기술을 널리 전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중에
두 명의 여의가 그를 좇았는데, 귀금이는 그 비법을 전해주지 않았습
니다. (필자 요약 : 그 이유를 묻자, 귀금이는) 제가 7살 때에 처음으
로 이 기술을 배웠는데, 16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취할 수 있었습니

7) 『慵齋叢話』 10권, “朝廷揀各司各官年少婢子, 屬惠民署, 教醫書, 名曰女醫, 以治婦人之病. 有一女, 來自濟州, 不知醫術, 有去齒蟲, 士大夫家爭相邀致. 其女死, 又有一女, 傳其業. 余亦招來治齒, 令人仰面開口, 而銀匕物出小白蟲, 匕不入齒, 齒不出血, 其容易如此. 又不傳其術於他人, 雖朝廷治罪, 而猶不告, 此必幻術, 而非正業也.”

다. 지금 제가 마음을 다해 가르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아직 능숙하게 익히지 못했을 뿐입니다.⁸⁾

제주 의녀 장덕에게 의술을 배운 귀금이가 다른 의사에게 기술을 전수하였는데, 다른 의사들은 그 기술에 익숙하지 않다. 이에 조정에서는 귀금이를 불러 그 연유를 묻는다. 그러자 귀금이는 자신도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그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는 내용이 실록의 전부다. 이를 통해 볼 때, 『용재총화』에서 이야기한 제주 의녀는 장덕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실록』이 쓰여진 때[1492]와 성현이 살았던 시기[1439~1504]가 겹친다는 점, 의녀가 제주에서 왔다는 점, 의녀의 의료 기술 중 특히 치충을 잡아내는 데에 능숙했다는 점 등 실록에서 언급한 장덕과 『용재총화』의 제주 의녀는 유사한 대목이 많기 때문이다. 실록에서는 신통한 의료 기술이 후대로까지 전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쓰여진 것 뿐이지만, 그 도정에서 우리는 뜻밖에 제주에서 상경한 제주 의녀 장덕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치충을 잘 잡아내던 장덕은 누구이며, 그의 의료

8) 『성종실록』 266권. 23년 6월 14일, “右承旨權景禧啓曰：‘濟州醫女張德，能去齒蟲如鼻眼凡病瘡處去之。將死，傳其術於私婢貴今，國家贖爲女醫，欲廣傳其術，使二女醫從行，貴今秘不傳。沂有黃乙者，善治蠱毒而秘之，刑問三次，然後乃言。女醫粉伊習其術而不及黃乙，是不盡傳其術也，請拷貴今問之。’命召貴今，問曰：‘使女醫二人從行，汝秘不傳，必欲獨擅其利也。汝若固諱，當拷掠鞫問，其悉言之。’貴今曰：‘我自七歲始學此術，至十六歲乃成，今我非不盡心教，彼不能習耳。’”

장덕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라 할 1488년에 기록된 『성종실록』에는 ‘長德’으로 표기되어 있다. 반면 1492년에 기록된 『성종실록』이나 편찬연대가 정확치 않은 『靑坡劇談』에는 ‘張德’으로 쓰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張德’을 취한다.

장덕의 생몰년은 알 수 없다. 다만 1488년 9월 28일 『성종실록』에는 “잇병을 고치는 의녀 장덕은 이미 죽고 이제 그 일을 아는 자가 없으니, 이·눈·귀 등 여러 가지 아픈 곳에서 별래를 잘 제거하는 사람이면 남녀를 물론이고 抄錄하여 보내라”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기록을 통해 당시 장덕이가 급사하자 조정에서는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을 급히 구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장덕이는 1488년 9월을 즈음하여 급사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

행위는 어떠하였는가?

앞서 성현은 『용재총화』에서 장덕의 의료행위가 한갓 환술일 뿐 정업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것은 그가 치충을 쉽게 잡아내면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고, 신통한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성종실록』에서 의료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주지 않고, 오직 자신이 데리고 있던 귀금에게만 전수해주었다는 점과도 일맥 상통한다. 그런데 귀금이의 진술을 보면 귀금 자신도 1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장덕에게 배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덕의 의료 기술이 남들이 보기에는 쉬운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 습득해야만 얻을 수 있는 난해한 기술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성현이 장덕의 의술을 환술이라고 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장덕은 당시에 치의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장덕은 어떻게 의녀가 되었고, 그가 행한 의술은 어떠했는가?

여러 방면으로 문헌을 찾아보았지만, 장덕이가 어떠한 인물이고, 그가 어떻게 제주를 떠나 서울에서 의녀가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成倪의 친구이면서 사돈이었던 李陸(1438~1498)이 편찬한 『靑坡劇談』에는 장덕의 삶의 편린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보인다.

내가 젊었을 때에 제주 加氏를 본 일이 있었다. 그녀는 선비의 집을 드나들며 齒蟲을 잡아내었는데, 효험이 있었다. 그 뒤에 가씨와 같은 고을의 官婢 張德이 가씨에게서 그 술법을 배웠다. 치통·콧병·눈병이 있을 때에는 수없이 많은 벌레를 잡아내는데, 벌레를 잡아냄에 따라 병도 또한 조금씩 나았다. 대낮에 침으로 핏줄을 찌러 벌레를 잡아내면 벌레는 꿈틀거리는데, 며칠 동안 죽지 않았다.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것을 보았지만, 모두가 그것이 어째서 그러한지 알지 못하였다.

일찍이 대궐에 들어가서 이를 치료하였는데 효험이 있었기에 惠民署

의 女醫로 삼았다. 그리고 나이 어린 여의 몇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술을 배우도록 하였지만, 끝내 전수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 유독 장덕이 개인적으로 두었던 계집종 玉梅가 그 집에서 고용살이를 하였는데, 장덕이 죽으면서 그 기술을 모두 옥매에게 전수해 주었기에 옥매는 그 기술을 모두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옥매 또한 혜민서에 귀속되었던 것이다. 내 집이 그와 이웃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위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幻術이었다.⁹⁾

이록은 당시 자신이 경험한 바를 적어놓았다. 이 기록은 앞서 보았던 『용재총화』와 『성종실록』에 비해 장덕의 면모가 좀 더 확장되어 있다.

제주에서 온 사람 加氏의 의술이 매우 빼어났는데, 그 기술은 같은 고향 제주도의 관비 장덕에게 그대로 전수된다. 장덕은 가씨에게 배운 기술을 토대로 신통한 경지에까지 이른다. 장덕은 당시 최고의 의술을 발휘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효험을 눈으로 직접 보여주기가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덕은 惠民署의 女醫로 발탁되어 의료 행위와 의술 교육을 담당한다. 하지만 아무도 장덕의 의술을 전수받지 못하고, 오히려 장덕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옥매가 그 기술을 전수받는다. 그래서 옥매도 혜민서에 귀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¹⁰⁾ 이록의 기록 역시 장덕의

9) 李陸, 『靑坡劇談』. 子少時, 見有濟州加氏者, 出入士族第, 出齒蟲有效. 其後同州婢張德, 學術於加氏. 凡齒痛及眼鼻有患, 出蟲無數, 病亦少愈. 白日以針接以. 鉤取蟲, 蟲輒搖躍, 數日不死. 人環立而視之, 皆莫知其所以. 嘗入大內, 治齒有驗, 命屬於惠民署爲女醫. 使年少女醫數人學其術, 竟無傳者, 獨有私婢玉梅者, 常雇於其家, 張德死而玉梅盡得其術, 亦屬惠民署. 家與予比隣, 觀其所爲, 眞幻術也.

10) 옥매는 『성종실록』에 거명된 귀금과 같은 인물로 보인다. 아마도 옥매가 혜민서로 옮겨가면서 이름을 귀금으로 달리 불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어찌면 '귀금'이라는 이름은 당시 의녀의 어떤 직급을 의미하는 보통명사였을 수도 있겠다. 실제로 『성종실록』에는 귀금이 의녀가 되기 이전인 1474년 윤6월 1일 『성종실록』에서 醫女 귀금은 이후 국상이 있을 때에 緣事 崔彦珍과 간통하여 杖 100대와 벌금을 내는 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1474년에 기록된 의녀 귀금은 1492년에 기록된 귀금과 다른 인물일 개연성이 높다.

의술이 빼어났다는 점, 그 기술이 다른 의원에게 전수되지 못했다는 점, 유독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에게만 그 기술이 전수되었다는 점 등에서 『용재총화』와 『성종실록』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장덕이 어떻게 의술을 습득했고, 장덕이 처음으로 해민서 여의로 뽑혀 들어갔다는 점은 『청과극담』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장덕이 있기 전에 제주 여인 가씨가 사대부 집안을 돌아다니며 의술을 행했고, 그 기술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제주의 관기 장덕에게 전수되었다는 점에서 당시의 전문적인 의술이 어떻게 전수되고 있는가를 짐작케 한다.¹¹⁾

아무튼 장덕의 의술은 당대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덕의 이름은 여항간에 널리 회자되었고, 결국 궁중에서까지 그 기술을 인정하여 장덕을 해민서 의녀로 발탁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성현이나 이륙과 같은 사대부들은 그를 불러 치료를 받았고, 그 기술이 신통하여 자신들의 필기집으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이 신통하게 여긴 것은 제주 여인 가씨나 장덕이 아니다. 가씨와 장덕으로 이어지는 전문가의 영향 관계도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겪었던 신기한 사실일 뿐이다. 결국 성현

11) 필자는 조선 초기 제주도에서는 齒耳鼻咽喉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술을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실제로 실록에는 제주도에서 유독 齒耳鼻咽喉와 관련된 기록이 다수 보인다. 예컨대 1430년 『세종실록』에는 ‘정의현의 여인 塞自昵가 눈에 들어 있는 벌레를 끄집어냈다.’는 기록이 있고, 1431년 『세종실록』에는 ‘제주민 孝德이란 여인이 어두운 눈에 티를 없애고, 嚙齒·候蟲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각주 8에서 보았던 1488년 『성종실록』에서, 장덕이가 죽자 그를 대신한 사람을 급히 抄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 역시 제주목사 許熙다. 조정에서 제주목사에게 명령을 내려 급히 齒耳鼻咽喉와 관련된 의원을 선발해 보내라고 했다는 점은 곧 제주도에는 이미 그러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상당히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덕이 서울로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씨가 죽자, 마침 가씨의 제자로 있던 장덕은 서울로 올라갈 수 있었고, 장덕은 스승을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 결국 조정에서는 장덕을 해민서로 불러들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겠다.

이나 이류의 시선은 사람이 아닌 특이한 사건에 한정된 것이다.

장덕이가 문헌에 기록될 수 있는 원인은 기이한 사실에 대한 사대부들의 博學인 관심에 머물렀던 셈이다. 당시 최고의 기술을 보유했던 여의사, 적어도 지금의 치과·이비인후과 분야에서는 최고였던 여의사였지만 장덕이라는 인물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성현이나 이류의 시선은 특이한 행위에 멈춰 있다. 문학적으로 확장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인물이지만, 사대부들은 인물보다는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 애초부터 인물은 중요하지 않았다. 대상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사대부들에게 이데올로기적인 교훈을 드러내지 못하고 흥미로운 사건만 제시한 신분이 낮았던 여의사는 사대부들의 일회적인 흥미나 박학의 재료로 놓여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특출한 능력을 발휘한 제주의 한 여인도 필기라는 장르 안에 하나의 에피소드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2)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上京하여 擊錚한 官妓, 昆生

다음의 여인을 보자. 이름은 昆生으로, 제주의 官婢(官妓)다. 장덕과 마찬가지로 賤人이다. 곤생은 1705년 『숙종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 다양한 사료에 그 이름이 등장한다. 그 이유는 곤생이 擊錚을 통해 제주목사 李喜泰(1669~?)를¹²⁾ 고소한 데서 비롯한다. 사건의 요점은 이희태가 곤생의 다섯 모녀 중 세 명을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杖殺하였다는 것인데, 사료를 통해 당시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이희태는 숙종 28년 壬午年 謁聖試에서 장원을 한 인물이다. 당시 과거에 합격한 자는 9명인데, 甲科에는 李喜泰, 乙科에는 趙道彬·韓永祚, 丙科에는 洪萬遇·洪禹瑞·任墮·李海朝·李緯·金萬謹으로 당대의 최고 문장가들이다. 이희태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든든한 문벌을 가진 인물들이며, 또한 후대에 이들은 모두 고위관직을 역임하였다. 김순동, 『韓國故事大典』, 회상사, 1969, 207쪽.

- ① 이희태는 서울에서 첩과 조카를 거느려 제주에 부임한다. 하지만 조카는 실제 이희태의 자식이 아니라, 그가 데려간 첩의 전 남편의 아이였다.
- ② 곤생이 이를 알고 倡設한 말을 하였는데, 희태가 이를 미워하여 항상 죽이려고 하였다.
- ③ 마침 몇몇 기생이 곤생과 사사로운 원한 때문에 곤생을 呈訴하였는데, 희태는 이 사안을 확장하여 제주관관·대정현감·정의현감 등 제주의 모든 수령을 불러 곤생과 그의 딸 桂貞·次貞·三貞 등 다섯 모녀를 形訊한다. 그 중 세 사람은 형문을 받은지 2일이 못되어 죽는다.
- ④ 희태는 죽은 계정 등의 죄를 備局에 論報하고, 남은 죄인은 육지로 移配한다.
- ⑤ 그 뒤에 곤생은 바다를 건너와 擊鼓하여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 ⑥ 이 일이 알려지자, 전라감사 徐文裕는 묘당에서 일을 처리하기를 청한다. 그러나 우의정 李濡, 예조판서 尹世紀 등 관료들은 이희태를 적극적으로 구원한다.
- ⑦ 마침 제주목사 宋廷奎의 狀聞에 ‘형벌을 남용하여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은 개인적인 분노에서 나왔다’는 내용을 숙종이 보고 備忘記로 呈報하여 이희태에게 죄를 묻는다.
- ⑧ 이희태는 璿설수설하다가 사실대로 아뢰는다.
- ⑨ 이희태는 관리라는 이유로 극형 대신 유배를 가고, 희태를 옹호한 이유 등은 별다른 죄를 묻지 않는다.

제주민의 격쟁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바다 건너 서울에까지 올라와 격쟁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사건을 접수 받은 조정에서는 이 일을 전라감사 徐文裕(1651~1707)에게 맡긴다. 그렇지만 전라감사는 관비에 의해 고소를 당한 전 제주목사의 일을 처리하기가 겉끄러웠는지 조정에서 이 일을 다루도록 청한다. 전라감사는 『大明律』 “한 집안의 세 사람을 죽이면 公家를 가리지 말고 형벌을 주라(一家殺三人, 非指公

家用刑)”는 조항에 따라 처리하기가 어려웠음직도 하다. 실제로 조정에서 이 일을 논의해야 할 때에도 당시 判府事 崔錫鼎(1646~1715)은 병 때문에 의견을 내지 않았고, 領府事 尹趾完(1635~1718)과 左議政 李喬(1645~1718)는 밖에 나가 있다는 이유로 의견을 내지 않는다.¹³⁾ 법과 현실 사이에서 결정을 짓지 못했던 당시 관료들의 고민이 그대로 느껴진다. 결국 조정에 남은 관료들이 이 일을 떠맡아 처리해야 했는데, 당시 조정에 남은 관료들은 이회태를 처벌하기보다 그를 옹호하기에 급급했다. 법보다는 사대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소위 ‘뱌주기식 수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제주민은 육지로 나올 수 없는데, 섬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격쟁한 죄목을 더욱 부각시키기도 했던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 ① (李濡) 곤생의 딸은 기생으로 모두 자색을 갖추었습니다. 그들은 전·후임 관리들의 눈에 든 다음, 요악한 죄를 저지른 것이 하나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모두 이를 분하게 여기나 관리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말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회태는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까닭에 나서서 모狀에 따라 심문하여 죄를 다스렸던 것입니다.¹⁴⁾
- ② (尹世紀) 섬 안에 사는 여인은 원래 서울로 올라올 일이 없는데도 어떻게 바다를 건너 서울까지 올라와서 격쟁을 할 수 있었습니까? (중략) 회태가 비록 사사로운 혐의로 장살을 했다고 해도 그 죄는 告身을 빼앗아 파직하는 벌에 불과할 뿐입니다. 만약 한 관비의 격쟁 때문에 새로 바뀐 관리의 죄를 묻고자 한다면 이는 사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 후의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¹⁵⁾

13) 『승정원일기』 숙종 31년 9월 19일.

14) 『備邊司謄錄』 숙종 31년 7월 13일. 昆生之女, 以妓生, 皆有姿色, 爲前後官員之所哂, 妖惡之罪, 不一而足, 人皆憤惋, 而以其干連官家之故, 不敢發言. 至於李喜泰, 因其不近女色, 遂乃相率呈狀, 有此推治之舉.

15) 『비변사등록』 숙종 31년 7월 13일 島中女人, 元無上京之事, 而何以越海上來而擊錚耶?

- ③ (李濡) 제주 기생이 사사로이 물에 나와 關庭에서 격쟁까지 한 것은 전에 없던 일입니다. (중략)비록 원통함을 품을만한 단서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당 고을에서 조사하여 틈타는 것이 옳거늘, 어찌하여 임의로 오고가게 합니까? 이러한 길이 한번 열리면 관원과 군관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기생은 원통함을 호소할답시고 육지로 나오는 자가 반드시 많아질 것입니다.¹⁶⁾

이희태의 죄를 조사하라는 명령에 당시 우의정 李濡(1645~1721)나 예조판서 尹世紀(1647~1712) 등은 오히려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면서 피해자 곤생의 죄를 부각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하나는 곤생 모녀는 관원들과 유착하여 백성에게 해악을 입혔는데, 여색을 좋아하지 않는 이희태가 부임하여 그 동안 쌓은 이들의 죄악을 법안에 따라 다스리다가 세 사람을 죽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섬에 사는 여인은 바다를 건너 올 수 없는데도 올라와 격쟁까지 하였다. 설령 이희태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세 사람을 죽였다 해도 이런 일을 조정에서 수용한다면 육지로 나오는 섬 여자가 많아지는 폐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건이 본질과 전혀 무관한 쟁점을 부각시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뜻밖에 당시 제주목사 宋廷奎(1656~?)의 장문을 숙종이 본다. 임금이 사건에 직접 나섬으로써 이희태의 죄를 덮고자 했던 중신들의 노력과 달리, 결국 이희태는 형벌을 받는다. 물론 사건의 마무리는 극형이 아닌 유배형이다.¹⁷⁾

이 사건은 국가 기강과 관련된 문제이면서 흥미로운 사건임에 틀림없

甚可怪而固未可知也。喜泰雖緣私嫌杖殺，而其罪不過奪告身罷職之罰。若因其一官婢之擊錚，而論罪其新遞之官，非但事體之不當，其流之弊，有不可勝言矣。

16) 『비변사등록』 숙종 31년 7월 13일. 濟州妓生之私自出陸，至於擊錚於關庭，實是會所未有之事。其所防禁之嚴，此諸西北官妓，尤嚴，則雖或有抱冤之端，自本州覈實啓聞，可也。何可任其出往乎？此路一開，則爲官員及軍官輩所哂之妓生，托以訴冤而出陸者，必多有之。

17) 이후 이희태는 해미현감을 역임했다. 당시 암행어사로 파견된 李翊漢은 李湛(임천군수)·鄭東隆(결성군수) 등과 함께 이희태를 貶論했다는 기록이 1708년 『숙종실록』에 나온다.

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지 않았다. 당시 문인들은 장덕과 같은 특이한 기술을 가진 사람에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장덕이 행한 기술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였다. 그렇지만 곤생의 일은 당시 사대부들 사이에 널리 퍼진 사건인데도 아무도 그 일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것은 곤생의 행위가 사대부들 사이에 결코 아름다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굳이 곤생의 행위를 문학적으로 그려낼 수도 없었다. 사대부 자신들의 울타리를 범한 관비의 ‘용감한혹은 무식한’ 행위를 옹호하는 글은 고사하고 나서서 꾸짖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곤생이 당시 사대부들에게 생소한 인물은 아니었다. 앞선 인용문 ①을 보면 곤생은 자색이 있어서 새로 부임하는 관료나 퇴임하는 관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쓰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곤생은 당시 사대부들 사이에 비교적 알려진 기생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이희태에게 맞아죽은 곤생의 큰딸 桂貞은 『九漣夢』의 저자 金萬重의 조카이면서 仁敬王后 오빠인 金鎭龜(1651~1704)의 총애를 받았던 기생이기도 했다.

김진구는 일찍이 1689년에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1694년 갑술환국으로 호조판서로 기용되어 상경할 때까지 5년 남짓을 제주에서 지냈다. 그 동안에 김진구는 계정과 친밀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金春澤(1670~1717)이 쓴 다음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潘의 이름은 尹衛호 호남 함열 사람이다. 선군께서 적거할 당시에 반윤위는 교수로 있었는데, 매번 술을 갖추어 들고 찾아와서는 심히 즐겼다. 그는 늙었지만 힘이 강성하였는데, 술도 잘 마시고 화살로 열매도 잘 뺐다. 선군께서는 반윤위에게 시와 문장을 써준 것도 보았다. 또한 愛妓 桂貞이 있었는데, 선군께서 매번 희학하였다. 또한 시문 가운데에 미치었다. 반이 죽은지 이미 오래고, 계정 또한 사건

으로 인해 관에서 장살되어 죽었다고 한다.¹⁸⁾

김춘택은 1706년에 제주에 유배되었는데, 그 때 그는 〈謫居感懷〉를 지어 유배객의 소회를 시로 드러낸다. 위의 내용은 6번째 시를 쓰고¹⁹⁾ 그에 대한 설명을 붙인 것이다. 김춘택의 선군김진귀이 제주에 유배되었을 때, 당시 제주 교수 潘尹衛²⁰⁾와 제주 기생 계정과 친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를 기억하여 시를 짓는다는 내용이다. 김춘택의 기술을 통해 보면 계정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의 총애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든든한 권력자의 총애를 받았던 기생이었다지만, 결국 계정은 아무런 존재 의미도 갖지 못하고 장살되었다. 이 점은 조선 초기 3대 기생 중의 한 사람이었던 西原[지금의 청주] 기생 下陽臺가 문사들의 놀이에 희화화되는 것과도 동일한 양상이다.

서원 기생 하양대는 재주와 용모가 빼어나 많은 문사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루는 마침 문사 몇 명이 모여 글을 짓고 술을 마시다가 하양대에게 “오늘은 어찌하여 관차가 어긋났나, 신관과 구관이 마주 하니, 웃음도 울음도 감히 할 수 없으니, 마야흐로 사람 노릇의 어려움을 알지라”를 노래하게 하면서 놀았다. 술에 반쯤 취하고 흥취가 무르익어가면서 하양대의 노랫소리도 구름 속으로 퍼져들었다.

그 때 말석에 앉아있던 한 무사가 마침 참새가 처마 끝으로 날아들기에 탄환으로 참새를 쏘았는데, 탄환은 처마를 맞히고 그 반동으로 튀어나와 하양대의 입으로 날아들어 앞니를 모두 부러뜨렸다. 그러자 좌중에 있던 조대가 시를 지어 조롱하였다. (詩 생략) 시를 본

18) 『北軒居士集』 권 2. 〈謫居感懷〉 潘名尹衛, 湖南咸悅人. 先君謫居時, 潘爲教授, 每具酒來訪甚歡也. 其老而強力. 善飲能射之實. 已見於先君所贈潘詩若字. 且有愛妓桂貞, 先君海用戲謔, 亦及於詩文中者也. 潘亡已久, 而桂貞又以事被官杖而死云.

19)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每憶佳時潘廣文, 官間日叩謫居門. 垂垂霜髮三千丈, 灑灑香醪五石樽. 未怪彎弧知柳葉, 常看薦枕有桃根. 海山兜率憑誰問, 玉碎花飄可更論.”

20) 潘尹衛는 1691년 한 해에 濟州教授로 있었다.

문사들은 모두 박수를 치고 꺄꺄 웃어대며 말하였다. “장하도다, 무사여! 우리들의 시기하는 마음까지 풀었구만!”²¹⁾

당시 최고의 기생 역시 문사들의 모임에 끼어 심심하게 앉아있던 한 무사의 장난에 앞니가 부러지는 ‘갓’일 뿐이다. 앞니가 부러져 아파하는 ‘인간’ 하양대의 모습은 없다. 곤생과 그의 딸 계정 역시 하양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인간으로서의 삶은 없었다. 사대부들 사이에서 곤생과 그의 딸을 기억하지 않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문학으로 형상화하기에는 곤생과 계정은 사대부들의 구미에 맞는 사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대부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사건을 드러내기에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문학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김춘택은 자신도 부친을 따라 1706년에 제주로 유배되었고, 유배지에서 지내는 동안 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하고 한순간 계정을 떠올렸을 뿐이다. 제주의 한 집안 세 자매가 맞아 죽은 일은 마음에 두지 않았다. 사대부들의 세계, 그 세계에 도전한 제주의 여인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것이다. 격쟁이 있었고, 조정이 떠들썩했던 한 사건을 사대부들은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지 않았다. 행동은 특이했지만, 그 사건은 자신들의 세계에 반하는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이다.

곤생과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김춘택처럼 부친을 매개로 하여 가끔 기억이 날 때, 시의 주석처럼 한줄기 존재로만 그려져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사서를

21) 徐居正, 『太平閑話滑稽傳』, “西原妓下陽臺, 有才貌, 所幸多文士, 一日, 文士數人, 適會, 作文字飲, 命陽臺唱, ‘今日何舛次, 新官對舊官, 笑啼俱不敢, 方驗作人難’ 之曲, 以爲戲. 酒半意酣, 陽臺歌聲遏雲. 有武士, 在未席, 適黃雀投棧簷端武士張之. 丸激簷楣, 反入陽臺口, 折板齒. 座有措大, 賦時嘲之曰, ‘西原佳妓下陽臺, 歌舞叢中獨擅才, 最恨當時文士會, 適從何處武人來. 金丸忽入風流竅, 玉齒翻成睥睨開, 從此繞梁聲反溢, 空教坐客恨難裁’ 文士俱撫掌大噱曰, ‘壯哉! 武士. 解吾曹群猜.’”

제외한 어느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저 김춘택의 시의 한 귀퉁이에 흔적처럼 남아있을 뿐이다. 그것은 곤생과 그의 딸에 대한 애정이 아닌, 사대부들간의 교감의 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었다.

3) 지배 이데올로기의 문학적 형상화, 萬德

제주의 인물 중 가장 널리 회자된 자는 단역 만덕(1739~1812)이 아닐까 한다. 만덕은 이미 제주에서 신격화된 인물이기도 하다. 최근 일부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명사로 만덕을 거론하기도 한다. 만덕은 그런 칭송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당시 사대부들이 만덕의 행위에 대해 글을 남긴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만덕이란 인물에 대한 포폄이 아닌, 제주의 한 여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는가에 있다.

앞서 살펴본 장덕과 곤생 역시 만덕처럼 사대부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인물이다. 그런데도 아무도 문학적으로 이들을 그려내지 않았다. 당대 최고의 의술을 가진 자, 희대의 억울함을 가진 자에 대해 당시 문인들은 붓을 들지 않았다. 붓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신기한 일로만 치부할 뿐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간혹 사람을 기억하지만, 그것 역시 주변적인 존재일 뿐이다. 그런데 만덕은 그들과 달랐다. 당시 문인들은 앞다투어 만덕을 그려냈다. 진재교의 조사에 의하면 만덕과 관련한 이야기는 傳·漢時·辨·題·筆記 등 총 13개의 조선후기 문헌에서 확인된다.²²⁾ 또한 근대의 신문지상에서도 만덕을 만날 수 있는데, 야담 작가 신정언이 쓴 〈當代之 傾國佳人 濟州妓生 金萬德〉이나²³⁾ 이병기가

22) 진재교, 「한국 한문서사양식의 층위와 변모」,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 2001 동아시아학 국제학술대회, 성균관대, 2001.10.26. 208~213쪽.

23) 申鼎言, 「當代之 傾國佳人 濟州妓生 金萬德」, 『조선일보』 1936. 6. 11.

쓴 〈財物을 애기지 안코 던진 慈善家 金萬德〉이²⁴⁾ 그러하다.

만덕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미 김봉옥이 쓴 『제주통사』와²⁵⁾ 제주도에 서 편찬한 『久遠의 女像 金萬德』에²⁶⁾ 이미 자세하게 다루어진 바 있다. 만덕의 본관은 김해로, 부친 金應悅과 모친 고씨 사이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고 한다.²⁷⁾ 만덕의 몸은 富大하고 키는 長大하였고 겹 눈동자重瞳를 가지고 있었다고도 한다.²⁸⁾

만덕이 겹눈동자라는 말은 여러 기록에 나온다. 茶山 丁若鏞(1762~1836)이 직접 불러 보고서 만덕의 눈동자는 겹눈동자가 아니라는 변증을 하기도 했다.²⁹⁾ 그렇지만 다산 스스로도 밝혔듯이, 당시 公卿間에 만덕의 눈동자를 두고 떠들썩했다는 점을 두고 본다면 만덕의 눈동자는 겹눈동자로 보였음이 분명한 듯하다.³⁰⁾ 또한 신체는 컸고, 용모는 그리 빼어나지는 않은 듯하며, 가무에도 큰 재주를 보이지 못한 듯하다.³¹⁾ 이런 점에서 보면 만덕은 기생으로서의 자질이 빼어난 편은 아니었다고

24) 이병기, 「財物을 애기지 안코 던진 慈善家 金萬德」, 『동아일보』 1940년 1월 12일.

25)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90(2판). 169~172쪽.

26) 제주도 편, 『久遠의 女像 金萬德』, 제주도, 1989. 제주문화원,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27) 이 기록은 앞의 책에 나오지만, 그 출전을 밝히지 않아 명확치 않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고찰이 요구된다. 김준형이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그 의미」(『제주도연구』 17, 제주도학회, 1999)에서는 이를 참조하여 생애를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28) 淡水契, 『중보 탐라지』, 프린트판, 1954.

29) 丁若鏞, 『與猶堂全書』, 〈重瞳辨〉, “濟州妓萬德, 捐貲振恤, 請見金剛山 驛召至漢陽. 萬德自言厥目重瞳, 公卿轉相傳噪, 余爲招至問: ‘汝目重瞳有之乎?’ 曰: ‘然’ 曰: ‘凡宮室樓臺草木人物, 於汝視一皆成兩乎?’ 曰: ‘不然’ 曰: ‘然則汝非重瞳矣. 遍視之. 其黑白睛瞳, 了不異人. 然而重瞳之說, 竟行不熄. 人之樂誕自愚如此. 大抵瞳之有童, 人以人面照之也. 樓臺照爲小樓臺, 草木照爲小草木, 其有小樣, 卽所以視此物也. 令瞳重設, 則一瞳各照一小樣, 一物不成兩視乎? 此易知之理也. 卽處舜項藉之目, 亦必非重瞳, 令果重也. 視物迷錯, 不辨數目, 一廢人矣.”

30) 이 점은 최근 만덕의 캐릭터를 만드는 데에도 주목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한다. 만덕의 신체의 특징은 겹눈동자이기 때문에, 만덕의 캐릭터를 구성함에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도 겹눈동자라야 할 것이다.

31) 金熙洛, 『故窠』, 〈奉教製進萬德傳〉, “馬州妓有萬德者, 生某里某第, 貌不揚, 短歌舞.”

볼 수 있다. 이 점은 만덕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뜻한다. 만덕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될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은 단지 겹눈동자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신체적인 한 특성에 시선을 두고, 그 특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 이 시기 역시 物化된 타자에 대한 시선보다는 여전히 사건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³²⁾ 만덕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특별한 행적에 있다.

제주민 30%가 죽어가던 최대의 자연재해가 이어지던 1795년, 만덕은 가지고 있던 재산 중 10%는 자신의 친족을 구하고, 나머지 재산을 털어 제주 도민을 구휼한다.³³⁾ 그가 내놓은 재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명확치 않다. 다만 李義發(1768~1849)이 지은 〈萬德傳〉에 “이내 쌓아두었던 600斛을 내어 제주민을 구휼하였다”라는 기록과,³⁴⁾ 金熙洛이 지은 〈奉教御進萬德傳〉에 “600곡을 내어 진휼하였다”는 기록을 보면 만덕이 지출한 돈은 600곡이라 하겠다. 지금으로 환산하자면 대략 80kg 쌀을 기준으로 할 때 600가마니 정도를 내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이 양은 제주민이 10일을 지낼 수 있는 분량이었다.³⁵⁾ 정조는 다른 사람이 아닌 기생이 직접 나서 제주 백성을 구제한 것을 기특히 여겨 보상의 일환으로 소원을 물었고, 그에 대해 만덕은 상경하여 금강산 유람을 원한다. 이 때 만덕의 나이 58세였다.

만덕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제주민을 구휼한 행위는 의로운 행동이며,

32) 박희병의 「'병신'에의 시선 - 전근대 텍스트에서의」(『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은 ‘병신’이라는 하나의 물화된 객체를 대상으로 근대와 전근대의 시선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약용이 만덕의 눈동자가 겹눈동자가 아니라고 굳이 변증을 편 것도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면보다는 그 이면에 담긴 철학적인 면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33) 채제공, 〈만덕전〉 “萬德取十之一, 以活親族, 其餘盡輸之官.”

34) 李義發, 『雲谷先生文集』 券之八, 〈萬德傳〉, “乃出所儲六百斛, 以賑之”

35) 李義發, 『雲谷先生文集』 券之八, 〈萬德傳〉, “延一州民旬日之命”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기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정조는 국법으로 금지된 ‘제주 여인은 바다를 건너 육지로 나올 수 없다’는 조항까지 무시하면서까지 만덕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이면서, 또한 정치적으로 활용해야 할 목적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정조는 만덕의 행위를 기록하도록 하였고, 이에 사대부들은 다투어 만덕의 행위를 써넣었다. 만덕의 문화적 형상화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만덕은 어떻게 재산을 형성하였는가? 蔡濟恭(1720~1799)의 기록을 토대로 보면 ‘물가의 높고 낮음을 때에 맞춰 내어놓기도 하고 독점하기를 몇 십년 동안 하였’³⁶⁾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제주에서致富 방법은 객주업과 매점매석이 대부분이었는데, 만덕 역시 이러한 방법에 기댔다고 채제공은 밝힌 것이다. 하지만 沈魯崇(1762~1837)이 쓴 〈桂纖傳〉을 보면, 당시 만덕의 치부 방법은 채제공의 언술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접때 내가 제주에 있을 때 만덕의 얘기를 상세하게 들었는데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해 돈을 보고 따랐다가 돈이 다하면 떠나는데 문득 그가 입은 바지저고리까지 빼앗으니, 가지고 있는 남자의 바지저고리가 수백 벌이 되어 매번 쪽 늘어놓고 햇볕에 말리니, 군의 기생들조차도 침을 뱉고 욕하였다. 육지에서 온 상인이 만덕으로 인해 꽤가망신하는 이가 잇달았고, 이로 인해 만덕은 제주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그 형제 가운데 음식을 구걸하는 자도 있었으나 돌아보지도 아니하더니, 도에 기근이 들자 곡식을 바치고는 서울과 금강산 구경을 원한 것이다.³⁷⁾

36) 채제공, 〈만덕전〉, “其才長於殖貨, 能時物之貴賤. 以廢以居, 至數十年, 頗以積著名.”

37) 심노승, 〈계섬전〉, “……嚮余在島中, 聞德事頗詳, 性凶恪, 視金從之, 金盡而去, 輒奪其衣袴, 所藏男子衣袴累百數, 每灑纒纒出點晒, 郡妓唾罵之. 北商以德敗者相續, 德富甲一島, 兄弟有. 食者不顧. 至是, 島飢納穀, 願至京遊金剛(하락)” 이 자료는 김영진의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6)를 참조할 것.

심노승은 만덕이 제주 도민을 구휼하기 前年인 1794년까지 제주 목사 로 있었던 沈樂洙(1739~1799)의 아들이며, 그 역시 1794년 5월에 제주 에 가서 4개월 남짓 머물렀다.³⁸⁾ 따라서 심노승의 기록이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사실일 개연성이 더 높다. 특히 심노승이 직접 “접때 내가 제주에 있을 때 만덕의 얘기를 상세하게 들었는데 嚮余在島中, 聞德事頗詳”라고 언급한 것은 그만큼 그의 주장에 신빙성을 높인다. 물론 이 기록은 소론 심노승이 남인 체제공에 대한 비판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만덕을 높게 평가한 체제공과 달리 만덕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을 가능성도 있다.³⁹⁾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심노승의 표현에는 다소 과한 면도 있다. 그렇다 해도 만덕의 치부 과정에 부분적으로 정당치 못한 면도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사대부들은 만덕의 치부 과정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도정에서도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언급할 필요조차 없었다. 왜냐 하면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만덕은 이미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에 적합한 행위를 한 인물인데, 굳이 정당치 못한 치부 과정까지 밝혀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과만으로 만덕은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더욱 유효했던 것이다.

실제 조정에서는 만덕이 아닌 제주 양반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그 한 예로 대정현감을 역임했던 高漢祿을 보자.⁴⁰⁾

38) 김영진, 앞의 논문, 1996. 연보 참조.

39) 김영진, 앞의 논문, 1996. 45쪽.

40) 박용후가 편한 『南濟州郡誌』(상조사, 1978)를 보면 고한록이 책에는 高漢祿로 되어 있는데, 이는 高漢祿의 오류다에 대해 “乙卯 8月 到任., 戊年 2月 歸. 大靜書堂을 設置하여 獎學 養士하였으며 善治로 이름 났음”이라 하여, 1795년 8월부터 1798년 2월까지 대정현감을 역임했음을 밝히고 있다. 신의철이 편한 『外案考』(보경문화사, 2002)를 보면 고한록은 1795년 5월부터 1797년 12월까지 대정현감을 역임했다고 쓰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고한록은 1795년~1797년 사이에는 대정현감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조실록』 19(1795)년 5월 11일조 기사를 보면 고한록은 이미 전 현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本州人前縣監高漢祿), 이는 고한록이 1793년 8월부터 동년 10월까지 정의현감을

1793년 『정조실록』에는 제주목사 李喆運은 장계를 올려 明月里의 高漢緣이 500석을 내어 제주민을 진휼했다는 기록이 있다.⁴¹⁾ 그런데 같은 해 11월 11일자 『실록』을 보면, 고한록이 바친 것은 쌀 60섬과 벼 60섬에 불과한데 500섬으로 보고했다고 하며, 고한록과 이철운을 삭직한다.⁴²⁾ 그 조사를 위해 심낙수가까지 파견이 된다. 그런데 심낙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한록이 내놓은 재산은 환산의 기준이 달라 수량의 차이를 보였을 뿐이라고 밝힌다.⁴³⁾ 실제로 고한록은 사심없이 내놓았던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수량을 두고서 왈가왈부했음을 짐작케 한다. 결국 진휼을 끝마친 결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짓는다.

목사 李禹鉉이 장계를 올리기를

“……본주 사람으로 전 현감 高漢緣은 곡식을 무역해 진휼에 보낸 것이 무려 3백석이나 되고, 將校 洪三弼과 幼學 梁聖範은 자원해서 납부한 곡물이 각각 1백석이나 되니 가상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니 하교하시기를,

“……전 현감 고한록이 매년 私財를 내놓곤 하는데 바다 밖의 풍속으로 볼 때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고 있으니 정말 가상한 일이다. ……”⁴⁴⁾

어찌되었든지 간에 조정에서는 고한록을 1793년부터 2~3년 동안 ‘매번’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제주민을 구휼하고자 했던

역임했기 때문에(신의철, 앞의 책) 이처럼 쓴 것이다.

41) 『정조실록』 17(1793)년 5월 22일조.

42) 『정조실록』 17(1793)년 11월 11일조.

43) 『정조실록』 18(1794)년 3월 2일조.

44) 『정조실록』 19(1795)년 5월 11일조. “濟州牧使李禹鉉狀啓曰…(중략)…本州人前縣監高漢祿貿穀補賑 至於三百石 將校洪三弼 幼學梁聖範 願納殷物 各爲一百石 極爲可尙…(중략)…敎曰…(중략)…前縣監高漢祿 每每損財 海外土俗之能知存愛 萬萬可尙…(하략)” 34 쪽 下.

인물로 인정한다. 내놓은 곡식의 양이 얼마이든 간에 고한록은 자주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제주민을 구제코자 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그에 대해서는 곡식을 내놓았다는 사실에 대한 칭찬보다는, 칭찬에 앞서 엄격하면서도 객관적인 규율을 제기한다. 내놓은 곡식의 수량을 잘못 보고했다고 삭직당하는 등 여러 면에서 제약이 따랐던 것이다. 아무런 사실 확인없이 만덕에게 수혜를 준 것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고한록은 양반이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으로 활용한 계제가 없었고, 만덕은 그와 달랐기 때문은 아닌가? 실제 만덕이 포상을 받은 시기는 제주의 양반들의 포상이 모두 끝난 시점인 1796년 11월이다.⁴⁵⁾

제주의 기생 만덕이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였다고 목사가 보고하였다. 상을 주려고 하자, 만덕은 바다를 건너 상경하여 금강산을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허락해 주고 나서 연로의 고을들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게 하였다.⁴⁶⁾

그리고 “벼슬아치들이 모두 만덕의 전기를 짓고 그를 노래하는 고금에 드문 일”이⁴⁷⁾ 벌어진다. 실제 채제공, 洪羲俊(1761~1841), 이희발, 김희락, 劉在建(1793~1880) 등이 전을 짓고, 李家煥(1742~1801), 朴齊家(1750~1806) 등이 한시를 지은 것은 당시 사대부들이 얼마만큼 만덕을 찬양하는 글을 지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이 점은 당시 사회적인 기강이

45) 고한록 등에 대한 포상은 정조 20(1796)년 6월 6일 『정조실록』에 나온다. 참고로 1838년 『헌종실록』에는 1827년 이후로 무뢰배를 모아 일부러 표류하며 통역을 하며 돈벌이에 나선 제주민 고한록을 효수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고한록과 제주민을 구출한 고한록이 동일 인물인지 어쩐지는 두고봐야 할 듯하다. 설령 같은 인물이라면 고한록은 실로 다단한 삶의 역정을 겪었고,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제주민의 아픔을 대변하는 인물의 상징이 아닐까 한다.

46) 『정조실록』 20(1796)년 11월 25일조. “濟州妓萬德, 散施貨財, 賑活饑民. 牧使 啓聞, 將施賞, 萬德辭, 願涉海上京, 轉見金剛山, 許之, 使沿邑給糧”

47) 김정희, “縉紳皆傳記詠之, 古今稀有也” 제주도편, 앞의 책, 1989. 82쪽.

문란했던 상황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에 충실했던 피지배 계층의 의로운 행동을 찬양하는 당시 사대부들의 글쓰기 경향과도 일치한다. 채제공이 義婦 〈淸風義婦傳〉을 지은 것이나 忠婢 〈七分傳〉을 지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⁴⁸⁾

만덕의 행위는 의로운 일임에 분명하다. 그 일은 다수의 문인들에 의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다. 이는 당대 최고의 여의사 장덕이 신기한 의료 행위를 보여주었을 때 흥미로움의 대상으로 접근했던 필기의 글쓰기 방식이나, 사대부의 학대에 분노했던 곤생의 격쟁 사건에 대해 침묵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질 때 다투어 글쓰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인 셈이다.

3. 제주의 세 여인, 그리고 비애의 섬 濟州道

장덕이나 곤생이나 만덕은 모두 천인이다. 세 명의 천인에 대해 사대부들은 모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이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에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장덕의 경우는 단순한 흥미의 대상으로 접근했다.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들의 일회적인 행위에 관심을 둘 뿐이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은 정약용이 만덕의 겹눈동자에 辨證의 글을 쓰는 방식과도 동일하다. 글을 쓰는 사대부의 시선은 물화된 대상의 한 장면에서 멈춰있다. 장덕의 신기한 행위, 만덕의 눈동자는 기실 흥미로운 하나의 대상이다. 따라서 문인들은 흥미와 관심의 대상으로 이들을 바라볼 뿐이다. 문인들에게 그들은 어떠한 인물인지,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지에 대한

48) 이에 대해서는 김준형의 앞의 글(1999)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다.

관심이 없다. 그들은 객체로서 문인들에게 ‘보여지는 것’일 뿐이었다. 문인들에게 그들은 물화된 하나의 대상으로만 존재한 것이다.

곤생은 사대부들의 세계에 도전한 인물이다. 문인들은 자신이 속한 사대부 세계에 도전한 곤생을 철저히 외면한다. 곤생은 사대부들과 친밀한 관계를 보인 기생이다. 곤생의 만딸은 당시 최고 실권자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인데도 맞아 죽었다. 수청을 거부하다 죽은 관기 名花는 그래도 가해자 사대부에 대한 형벌은 있었다.⁴⁹⁾ 하지만 곤생에게는 그마저도 미비했다. 세 딸을 잃은 어머니의 아픔,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자 했던 기생 이전의 어머니 곤생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곤생은 인간이기에 앞서 단순한 ‘것’일 뿐이다. 鄭襲明이 쓴 〈贈妓〉에는 “이 시는 어느 지방의 수령이 체직되어 가면서 사랑하던 기생에게, ‘내가 간 뒤에는 또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고는 촛불로 얼굴을 지져서 흉하게 만들었으므로 내가 그것을 두고 시를 짓는다”고 창작 후기를 밝힌 바 있는데,⁵⁰⁾ 곤생에게는 이러한 시조차 하나 제시되지 못하였다. 촛불로 얼굴이 흉하게 된 기생의 아픔을 정습명은 감싸주었을지도 모르건만, 곤생의 아픔은 사대부의 세계에 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저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다. 이후 김춘택이 이들을 기억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아픔에 대한 기억이 아닌 아버지의 장난감과 같은 존재로만 기억할 뿐이다. 사대부의 세계에 반한 인물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의 아무 얼굴도 갖지 못하고, 잊혀진 존재로 남아 있을 뿐이다.

반면 만덕은 사대부들이 다투어 글을 지었다. 만덕은 곤생과 다른

49) 『태종실록』 10년 6월 25일조. 全羅道 都觀察使 許周가 羅州判官 崔宣之를 파면시켰다. 萬頃縣令 尹江이 어떤 일로 나주에 이르렀는데, 관기 名花가 수청을 들지 않는다고 노하매, 직지가 매를 때려 3일 만에 죽었다.

50)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동문선』 II, 1968. 373쪽.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만덕의 행위는 사대부들에게 부합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 끊임없는 찬사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주에서 만덕은 점차 신격화되어 갔다. 야담 작가 신정언은 만덕이 제주에 돌아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削髮爲僧)고 썼다.⁵¹⁾ 신정언은 만덕을 여걸로서의 호탕한 면모와 함께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아름다운 존재로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모든 물화를 버리고 중이 되었다고 밝히고 싶어했음직하다. 그만큼 만덕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대명사로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런데 만덕을 신격화하면서 만덕은 오히려 제주 민중들에게서 멀어져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 만덕이 재산을 내놓아 제주민을 살렸을 때 “나를 살려준 사람은 만덕일세”라고 노래했던 당시 제주민의 목소리, 근대에 야담 작가 신정언이 만덕이 지닌 인간적인 면을 읽어내려고 했던 점 등과 달리 신화적인 인물로 형상화되는 것이 아닌가? 제주민이 ‘만덕 할망’으로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은 인간 만덕이지, 신화화된 김만덕은 아니지 않은가? 사대부들이 주목한 만덕과 제주민이 기억하는 만덕은 다른 인물일 터다.

제주도는 비애의 섬이다. 독립적인 국가 체제에서, 고려시대 제주는 몽고와 고려 사이에서, 이후에는 조선과 자치적인 州로서 지내왔다. 三培道로 정해진 최악의 유배지, 제주목사가 된다면 좌천으로 여기던 사대부들.⁵²⁾ 근대를 맞이하던 기로에서는 양제해(1813), 강제검(1862), 방성찰(1898), 이재수(1901) 등에 의해 일어난 민중 봉기. 그리고 근대사의

51) 申鼎言, 「當代の 傾國佳人 濟州妓生 金萬德」, 『조선일보』 1936. 6.11.

52) 정조 연간만 따져보면, 1777년부터 1799년까지 총 23년 동안 제주목사로 부임한 인물은 총 29명이다. 평균으로 따져도 제주목사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실기』(김두봉 편, 제주시 우당도서관, 2003)에는 제주목사로 부임한 인물이 20명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외안고』(신의철, 2002)에는 29명으로 되어 있다. 『외안고』에는 귀향한 이유가 쓰여 있지 않아 귀임 연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주도실기』에는 그 연유가 쓰여 있다. 20명 중 13명이 개인적인 사유나 정치적인 문제로 사임 또는 퇴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최대 비극 4·3. 제주는 늘 비애를 안고 살았다. 지금까지 ‘州’와 ‘道’가 이상하게 하나로 묶인 묘한 이름을 가진 濟州道. 그리고 그 섬에 살았던 제주민.

제주민들은 그 비애를 잊고자 한다. 그 섬에 뿌려졌을 수많은 피와 울음. 그 슬픔을 잊고 새로운 이름을 갖고자 한다. 三多島를 낭만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 섬사람들의 슬픈 목소리보다는 타자의 시선에 의해 부각된 인물에 대해 더욱 높이 평가하고자 하는 시각. 그것은 피해 의식에 대한 제주민의 자위 본능일 수도 있다. 제주는 아름다운 섬이다. 그렇지만 아름다움 이면에 담긴 비애를 부각하는 것도 나쁠 것이 없다. 슬픔을 간직한 섬으로 이해하는 것도 죽음을 일상으로 받아들였던, 비애를 자신의 삶으로 인식하고 살았던, 그 섬이 자신의 삶일 수밖에 없었던 제주민에 대한 또 다른 예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찬양의 대상 만덕도 기억해야 하지만, 격쟁까지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해야 했던 곤생을 같이 기억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주민은 비애를 잊고자 했다. 제주에서 채록된 구비설화를 보아도 피해자로서의 제주민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⁵³⁾ 슬픔이 일상화되어버린 삶을 살아가던 제주민들은 굳이 이야기로까지 향유하면서 그 기억을 간직하고 싶지 않았다. 그 이유에서 비롯된 현상은 아닐까? 슬픔을 간직하기보다는 미래를 꿈꾸는 메시아·장수의 등장애 더 관심을 가지고, 고대 신화의 한 편에 머물고자 하는 바람이 더욱 컸을 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제주의 세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구비설화에서 거의 찾을 수 없다. 하나는 신화처럼 향유되다보니 이야기로 향유하지 않았고,⁵⁴⁾ 다른 이야기는 일부러 기억하지 않았다.

53) 필자는 『구비문학대계』, 『임석재전집』, 『제주설화집성』, 『제주도전설』, 『남국의 민담』 등을 포함한 단행본과 제주대 국문과와 국어교육과에서 발행되는 『국문학보』와 『백록어문』의 학술조사편을 살펴 보았지만 구비설화 중에 슬픔을 간직한 이야기는 극히 적었다.

제주에 살았던 인물들 중에는 육지에 올라가 빼어난 의술을 행한 여의사 장덕, 억울하게 맞아죽은 딸의 원혼을 풀고자 했던 곤생, 제주민의 아픔을 못건뎀 자신의 재산을 털어야 했던 만덕이 있었다. 그리고 장덕에게 의술을 전한 가씨, 억울하게 죽은 곤생의 딸 계정·차정·삼정, 만덕처럼 제주민의 기근을 같이 아파했던 양반 고향록 등도 있었다. 이들은 지배층의 기록의 잔편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잔편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잔영을 읽어내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삶의 복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것은 제주섬[濟州島]을 살았던 인물의 그림자이며, 濟州 ‘특별자치’道(濟州道)에 사는 사람들의 초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54) 만덕 이야기는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1958년 7월 제주시 용담동에서 고부길에게서 채록한 것 한 편 뿐이다.(진성기 편저,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74(4판). 236쪽.)

참고문헌

- 金春澤, 『北軒居士集』.
- 徐居正, 『太平閑話滑稽傳』.
- 李元鎮, 『耽羅誌』.
- 張漢喆, 『漂海錄』.
- 崔簿, 『漂海錄』.
- 蔡濟恭, 『樊巖集』.
- 『국역 대동야승』, 민족문화추진회, 1985(중판).
-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 CD-ROM 『司馬榜目』.
- CD-ROM 『朝鮮王朝實錄』.
- 김두봉, 『제주도실기』, 제주시 우당도서관, 2003.
- 김순동, 『韓國故事大典』, 회상사, 1969.
- 박용후, 『제주도지』, 백영사, 1976.
- 박용후, 『남제주군지』, 상조사, 1978.
- 신의철, 『外案考』, 보경문화사, 2002.
- 고창석, 「19세기 제주인의 표류실태」,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조사, 1997.
- 김만덕기념사업회, 『恩光衍世』, 제주도 기념사업회, 2007.
-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90(2판).
-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6.
- 김준형,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제주도연구』 17, 제주학회, 1999
- 박희병, 「병신에서 시선 - 전근대 텍스트에서의」, 『고전문학연구 24』,

- 한국고전문학회, 2003.
- 제주도, 『久遠의 女像 金萬德』, 제주도, 1989.
- 제주문화원 편, 『제주 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 진재교, 「한국 한문서사양식의 층위와 변모」, 『동아시아 서사학의 전통과 근대』, 2001 동아시아학 국제학술대회, 성균관대, 2001.10.
- 현승환, 「실존인물 김만덕의 문학화 과정」, 『백록어문』 20·21합호, 백록어문학회, 2005.

배시황(裴是愷)과 만덕(萬德)의 이야기를 통해 본 조선후기 서술의식의 일면

정인혁*

I. 조선후기 서술의식의 문제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1637)은 조선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외세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주자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나름대로 공고한 지배구조를 갖춰왔던 조선 왕실은 그 권위를 의심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타격은 그 가치를 신념으로 신봉하는 지배계급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봉하던 가치가 생존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가치의 수호와 실현이 곧 소명이라 여기는 이들에게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삶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치, 그리하여 진리라 믿어왔던 것, 곧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기준이 부재함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자기정체성에도 혼란을 주게 된다. 안정된 사회 속에서 개인 또한 안정적인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기 마련이다. 사회의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하던 주자학적 가치와 진리에 대한 의심과 혼란은 사회적 혼란뿐

* 관동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만 아니라 개인적 정체성을 고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양란이 가져온 엄청난 영향은 사회·정치·경제·문화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른바 ‘조선후기 사회’는 이렇게 시작된다.

글쓰기가 곧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할 때, 조선후기 사회의 절대적 진리의 의심은 문학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본고의 목적은 조선후기 서사문학의 일면을 통해 조선후기 지배계급 지식인들의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의 변화가 문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당대인들의 ‘서술의식’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서술의식’이란 서술하는 내용(대상)을 어떻게 텍스트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서술 행위에 관한 의식이다.

II. 虛構의 實錄 : 裴是愷의 경우

병자호란의 국치 이후 조선 조정은 나름대로 북벌의 의지를 천명하며 절치부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이었고, 현실의 청나라는 힘이 강해서 감히 맞설 수 없었다. 그렇게 타도해야 할 청나라가 고압적인 자세로 러시아와의 전쟁에 병사를 보내라는 요구를 해왔다. 배시황 이야기는 바로 이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나선정벌 가운데 제2차 나선정벌을 배경으로 한다.

제2차 나선정벌과 관련된 문헌으로는 〈北征日錄〉, 〈백시황전〉, 〈北征錄〉, 〈北征日記〉, 〈車漢日記〉, 〈懸吐本北征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배시황’이란 인물이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것에는 〈북정일록〉과 〈백시황전〉이 있다.

2-1. <北征錄>의 발견과 <北征日錄> 및 <비시황전>의 문제

<북정일록>과 <비시황전>은 제2차 나선정벌의 수장 신유와 그 휘하 장수 배시황의 활약상을 일기 형식으로 담아낸 기록이다. <북정일록>은 李圭景(1788~?)의 『五洲衍文長箋散稿』 나선변증설에 포함되어 있는데 ‘裴是愧 記’라고 표기되어 있다.¹⁾ 그리하여 신유 장군과 함께 나선정벌에 참전한 배시황 장군의 手記로서 실록을 비롯한 비변사 기록 등의 정사를 보완하는 역사적 자료로 인정되었다.

<비시황전>에 관한 문학적인 연구로는 김기동의 연구²⁾가 시초이다. 김기동은 <비시황전>의 플롯과 史實을 비교하면서 플롯이 없으며, 묘사 및 표현이 졸렬하여 문예성이 빈약함을 지적하고, 소설적 가치보다는 역사적인 가치를 더 많이 지닌 것으로 평가하였다.³⁾ 이후 <비시황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문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 때문이다.

반면 권혁래의 경우, <북정일록>과 <비시황전>의 서사문학적 성격을 논하였다. <북정일록>과 <비시황전>은 배시황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극적 긴장감과 서사적 일관성을 갖춘 작품이라는 것이다.⁴⁾

1) 신기석은 <북정일기> 해설에서 배시황의 <북행일록>을 실기로 보고 있다. 신기석이 언급하고 있는 <북행일록>은 <북정일록>으로 <북행일록>의 ‘行’자는 ‘征’자의 오기이다. 申基碩 譯著, 『北征日記』, 탐구당, 1980, 23쪽.

<북정록>의 발견 이전까지 모든 연구자들이 배시황의 기록을 실기로 보았던 데에는 이규경의 『吾洲衍文長箋散稿』 卷六十 羅禪辨證設에 포함된 <북정일록>에 ‘裴是愧記’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이익의 <차한일기>에도 배시황이 언급되고 있기에 아무도 배시황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한일기>는 바로 <북정일록>에서 파병부대의 규모와 1차 나선정벌 결과를 정정한 것을 제외하면 <북정일록>의 요약본이다.

2) 김기동, 「배시황전에 대한 일고찰」, 『어문학』 8, 1962.

3) 같은 글, 권혁래, 「<비시황전> 연구-성립과 서사성, 역사의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집, 한국고소설학회, 1997, 212~213쪽 참조, 재인용.

4) 권혁래, 같은 글.

정유 2월에 혜산첨사 신유가 북우후의 자리로 전임되어 10월에 병영에 도입하였다. 배시황은 편비로서 이에 따랐다. 시황과 유는 다 영남 사람이다.

丁酉二月 惠山僉使申瀏 移除北處候 十月到兵營 裴是愧以褊裨從焉. 是愧與瀏皆嶺南人地.⁵⁾

정유년에 또 원병을 청하니, 이에 북우후 신유로써 영병대장군으로 삼아 북도병사 5천인을 보냈다. 시황이 말하되 “변급이 패전하고 돌아왔는데 또 이번에 출병한다면 군사들이 반드시 도피할 것입니다. 군사를 선발하는 일을 만약 시황에게 맡겨 주신다면 열읍을 가만히 돌아다니면서 재예를 은밀히 살핀 후에 정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신유 장군의 결재를 얻었다.

丁酉又請兵, 以北處候申瀏爲領兵大將軍, 發北道兵五千人. 是祿謂曰, 邊笈敗還, 又有此行, 軍必逃避 選兵之事, 若專委是愧, 當潛行列邑, 陰察才藝, 然後可精選. 瀏印署.⁶⁾

앞의 인용문은 배시황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배시황의 역할이 나선정벌 시에 핵심적이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당시 조선은 흉년에 피폐하였으므로 병사 조달이 쉽지 않았다. 이때에 정예병을 모으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배시황은 이 임무를 자임하여 훌륭하게 완수한다. 배시황의 활약은 〈비시황전〉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쵸 효묘구년무술에 비시황이란 자 신류를 조차 나선을냥키 토 멀흐든 사적이라.⁷⁾

주둥적 빅여명을 못지르미 어시에 원슈 이금을 타인호야 수적을

5) 裴是愧記, 『北行日錄』, 신기석 역저 『北征日記』, 탐구당, 1980, 136쪽.

6) 같은 곳.

7) 미상, 『비시황전』, 박태근, 『국역 북정일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73쪽.

치니 특노가 겨우 상접허미 적이 관공으로 화포 장장을 부러 삼시간
 에 청병일 진퓌허니 원슈 겨우 몸이 사라 도라와 칠일이 되도록
 싹흠흠 싹시업 업느니라 시황이 신공께 헌계허야 왓 청병이 일퓌지
 차허니 위금일계컨딘 화공에 지남이 업소이다 허고인허야 화전 하
 나를 민드러 보이니 그 법은 활살에 화약봉지와 화승을 밋자서 쏘면
 살 퓌킬 썩에 화약 퓌킴이 밀니여 화승불에 다닥치게 허얏스니 심히
 편리허니라⁸⁾

첫 번째 인용문은 〈백시황전〉이 배시황 장군의 사적을 기록한 문헌임
 을 밝히는 부분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연패하던 청군 대장에게 배시황
 이 火攻이라는 비책을 제안하는 장면이다. 연패를 하던 연합군은 배시황
 이 제안한 화공으로 일거에 승리하게 된다. 나선정벌의 주역은 바로
 배시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1977년 신유 장군이 직접 썼다는 〈북정록〉이 발견됨으로써
 〈북정일록〉과 〈백시황전〉의 정체, 그리고 배시황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었다.

〈북정록〉은 신유가 제2차 나선정벌 시 쓴 戰記이다. 그 체제나 특징을
 다음 몇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자.

4월 초 6일 맑다. 회령부로 가서 출병군사들을 검열한 다음 조총시
 방을 한 결과 총 51명이 적중하였다. 초 7일 하루 종일 큰 바람이
 불다. 군사들에게 장비품을 지급하고 부대를 정돈하기 위해 계속
 회령에 머물렀다. 초 8일 행영으로 돌아왔다.⁹⁾

四月初六日晴往會寧府點閱軍兵仍爲試放得中者五十一名 初七日
 大風終日以資裝分給隊伍整頓次仍留 初八日晴還營

8) 같은 책, 179쪽.

9) 신유, 『북정록』, 박태근 역, 위의 책, 56~57쪽.

인용문에서도 보이듯이 전형적인 일기의 체제를 보여준다. 특기할 일이 없을 때에는 날짜와 날씨만 적으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11일 가랑비가 내리다. 대장이 노획한 적선 한 척을 내주면서 전사한 조선 포수들을 화장하라고 하였으나, 나는 우리나라 풍속에는 본래 화장하는 법이 없으니 절대로 화장은 안되며 만리이역에서 죽어간 그들의 시체를 본국으로 실어갈 수 없을진대 부득이 본국의 법식대로 매장하겠다고 한즉 그는 내 청을 그대로 들어주었다. 나는 흑룡강가의 약간 높은 언덕 위에 자리를 잡아 그들 일곱 사람을 동향끼리 갈라 묻어 주었다. 아아! 멀리 이국땅에 와서 모래벌 속에 묻힌 몸이 되었으니 참으로 측은한 마음 이를 데가 없구나!¹⁰⁾

十一日微雨大將者送言戰死砲手等當給賊船以此舡木燒焚以去云我國俗無焚屍之事決不可燒焚而萬理絕域頓無收回路不得已作我國俗埋葬云云則大將者亦以爲可即令各其同邑軍士就岸上稍高處埋之遠赴異域委骨沙磧慘憺憐憐

아버지와 같은 입장에서 전사한 부하 병사들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 잘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청국 장군의 화장 제의에 조선인의 전통적인 매장 방식의 장례를 고집함으로써 민족적 주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일기의 전형적 특징인 개인의 소회가 가감 없이 토로되고 있다. 다음 인용문에서는 ‘大國’ 청장군에 대한 비판을 스스럼없이 내뱉고 있다.

이 기회에 나는 대장에게 조총 얘기를 꺼냈다. ‘군사를 지휘하여 먼 곳에 와서 큰 승리를 보고 개선하게 되니 우리나라에도 큰 영광이오. 그런데 적의 총포가 매우 특수하므로 만약 이를 몇 자루 입수해서 국가에 바칠 수 있다면 개선의 영광은 더한층 빛날 것이오. 그러니 대장께서 의향이 어떠하신지요?’라고 한즉 대장은 옆에 앉은 부장과 낮은 귀엣말을 주고 받다가 ‘노획 총기는 일일이 숫자를 적어 북경에

10) 같은 책, 92~93쪽.

이미 보고하였으니 북경 당국의 하회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소라고 대답했다. 적군으로부터 노획한 조총은 무려 3~4백정이나 되는데 북경에 보고했다는 핑계로 인색한 처사를 하다니 매우 괘씸한 놈이다.¹¹⁾

我又言曰領軍遠赴得見大捷凱還之日 其亦有光於我國而賊人砲制殊異若得數柄奉獻於 國家則倍增奏捷之光矣 余知肯許否大將與副將附耳相議而答曰 既已照數奏知于北京當觀面下處之云,所得賊砲不下三四百柄而托捕奏知北京顯示貪吝之色極可憎也

다음 인용문에서는 자신의 건강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신유 장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 일기이기에 인간적 모습이 숨김없이 드러난다.

12일 맑다. 서웅기가선에 머물다. 지난 초 10일부터 왼쪽 귀가 안 들리는데 날로 심해지니 참으로 괴롭구나. 이곳은 연일 모진 바람이 불어 아마도 축상의 징후 같은데 의원도 없고 약도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장차 폐인이 될지도 모르니 참으로 한탄스러운 노릇이구나.¹²⁾

十二日請留鋤應基家善自初十日左耳聾閉日漸加重可悶此地惡風連吹似是觸傷之候而既味治療之方又無解術之人不得爲醫藥計將余克病癱深可

〈북정록〉은 신유 장군이 직접 쓴 일기이다. 1977년 발견되어 다른 자료, 즉 청나라의 기록은 물론 러시아의 기록과 비교검토 결과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의 기록과 당시 전투 상황 등에 오차가 없어 곧 역사적 자료로서 검증을 받았다. 그러므로 일기로서의 〈북정록〉이 담고 있는 내용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군사를 직접 이끈 신유 장군의 일기인 〈북정록〉에 큰 공적을 세워 나선정벌로

11) 박태근 역, 앞의 책, 118쪽.

12) 같은 책, 113쪽.

승리로 이끈 또 다른 주인공 배시황 장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북쪽 바닷가에 한 떼의 도적의 무리가 있는데, 그 소혈은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오직 배로 집을 삼고 흑룡강 상하를 오르내리며 활가지방을 약탈하였다. 청국 사람들은 이를 맞아 여러번 싸웠으나 모두 패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청국은 지난 갑오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원병을 청해왔으며, 이번 또한 원병을 요청해 온 것이다. 조정은 부득이 북우후에게 출정하도록 특명을 내렸다. 나는 출정명령을 받고 도내의 포수 중에서 길주 35명, 명천 16명, 경성 22명, 부령 13명, …(중략)… 그 밖의 화병 20명, 초관 2명 신성일·박세웅, 군관 2명 박대영·유웅청, 통사 2명 김명길·엄애남, 그리고 수술 38명, 짐 실을 쇠마의 구인 39명 등으로 부대 편성을 마치고 출동을 대기하고 있었다.¹³⁾

北海邊有虜賊不知其巢穴在於何處而以舟楫爲家來往黑龍江上下寇掠曰可地方清人屢戰皆敗歲甲傲午始請我國來救而今者又爲請援朝廷不得已特命北虜侯領兵往赴事有旨下來故精妙道內砲手吉州三十五名明川十六名鏡城二十二名富寧十三名會寧二十六名…中略…火兵二十名哨官二申誠一朴世確(雄?)軍官二朴大榮柳應天通事二金命吉嚴愛男隨率三十八名卜刷馬驅人三十九名整齊以待

이렇게 말을 모는 사람의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한 신유 장군의 일기에 근접해서 보좌하는 비장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신유 장군이 실수로 누락하였다고 하기에는 배시황 장군의 역할이 작지 않음을 이미 살폈다. 그렇다면 배시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며 <북정일록>과 <비시황전>은 허구 서사인 것이다. 잘 알려져 있지 않던 나선정벌을 당시 유행하던 영웅군담류의 소설로 창작

13) 같은 책, 55-56쪽.

해낸 것이 〈북정일록〉·〈비시황전〉인 것이다. 〈차한일기〉에서 언급된 〈북정일록〉과 〈비시황전〉의 잘못된 기록, 곧 승리한 변급의 1차 나선정벌을 실패로 기록한 것¹⁴⁾도 배시황을 중심으로 한 제2차 나선정벌의 승리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허구화로 이해할 수 있다.

2-2. 허구적 인물의 실록, 〈北征日記〉

〈북정일록〉, 〈비시황전〉의 주인공 배시황은 실존인물로 여겨져 임진왜란 때 경상우수사를 역임했던 배설의 후예로까지 추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정론〉의 발견을 계기로 배시황은 가공의 인물임이 밝혀지고 그가 직접 기록했다는 〈북정일록〉이나 그의 행적을 기록한 〈비시황전〉 또한 허구서사로 드러났다. 실재했던 제2차 나선정벌의 승리를 가공의 영웅적 인물을 중심으로 극적 긴장감을 서사화하여 하나의 영웅군담소

14) 제1차 나선정벌에서 승리한 邊岌. 휘하 조선군은 84일간의 원정을 마치고 노획한 러시아군의 회약을 선물로 6월 21일 전원 무사히 귀국하였다. 조정은 논공하여 변급을 가자하고 휘하의 군사도 포상했다.(박태근, 〈북정일기〉 해설, 박태근, 『국역 북정일기』, 12쪽) 이익은 〈북정일록〉을 용약하여 〈차한일기〉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바로잡았다. 다음의 인용문은 〈비시황전〉에 나온 변급 관련 기록과 이익의 〈차한일기〉의 같은 대목이다.

드디어 북도 늑진 선방포수 오익을 쏘발히고 변급으로 녕솔허야 북경에 가서 청장을 쏘차 나아가 치다가 사상허여 다하고 아국병 심환자 삼십인이라 변급이 주복야헝허야 가치 도라오니라. 「비시황전」

박태근, 앞의 책, 173쪽.

청나라는 갑오년에 사신을 보내어 우리 나라에 원병을 요청했기에 우리 정부에서는 북우후 변급을 영장으로 하여 총수 1백 명과 기수, 고수, 화정 48명을 거느리고 출정케 하였다. 우리 군은 후통강에서 적을 만났다. 적은 총알에 맞아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우리 군은 호통 골지까지 추격하니 적은 멀리 달아나고 변급 휘하 전 병사는 돌아왔다.

甲午遣使徵兵,我邦以北虜侯邊岌爲將,領銃手百名旗鼓火丁四十八名赴之. 遇賊於厚通江,賊多中丸死,追至好通及骨地,賊遠遁,岌全師還, 「車漢日記」

신기석, 앞의 책, 163쪽.

설로 재창조해낸 것은 특별할 것이 없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창조된 가공의 인물 배시황이 다시 실록의 정신에 입각하여 쓰인 글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유의 증손인 신륙이 쓴 <북정일기>가 바로 그것이다.¹⁵⁾ <북정일기>는 신유 장군의 증손 신륙이 1760년 편한 책이다. 1869년 신유의 6세손 신현웅이 신유 장군의 일대기를 수록한 <통상신공실기>에 다시 수록되었다.¹⁶⁾ <북정일기>를 보건대 신륙은 2차 나선정벌과 관련된 문헌들 즉, <북정록>과 <북정일록>, <비시황전>을 모두 읽은 것으로 보인다. 신륙은 <북정일기> 말미에 자신이 이 글을 편한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북정일기>란 아마도 배시황 수기, 곧 <비시황전>이 나 <북정일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신륙의 <북정일기> 곳곳에 이 두 문헌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삼가 상고해 보건대, 우리 증조고의 <북정일기>가 세상에 나돌아 다니는 것이 많으나, 그 기지를 써서 승리를 취한 계책이라든가, 항의 해서 둔수를 면한 사적이 간략히 기록되어 자세하지 못했다. 그 곳에 계실 때에 친필로 기록해두신 것을 보고 나서야 우리 증조의 본의를 알게 되었다. 대개 그 공을 천하 후세에 공으로 자랑하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짐짓 간략히 하신 것이다.···중략··· 진실로 우리 증조가 패전하고 돌아오셨다면 청나라의 원군 요청이 또 몇 번이 있었을지 알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생령의 절반은 흑룡강의 고기 밥이 되었을 것이다.···중략··· 이 곳에서 1년간을 둔수했다라면

15) 신기석은 이 신륙의 <북정일기>가 바로 신유의 '원본' <북정일기>라고 보았다. 신륙이 쓴 것은 이 증조의 일기를 옮기고 나서 덧붙인 글(跋文)로 한정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북정일기>를 신유가 쓴 일기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북정록>의 발견 이후 <북정일기>는 신륙이 <북정록>과 <북정일록>, <비시황전>을 바탕으로 다시 쓴 것으로 여겨진다.

신기석, 앞의 글, 21쪽.

16) 권혁래, 앞의 글, 227쪽.

비록 우리나라의 곡식을 다 기울이더라도 절반도 이어 대지 못했을 것이다. 죽음으로 항쟁하여 이 환을 면하게 하셨으니, 우리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것이 실로 큰 것이다. 그러나 자손된 사람으로 감히, “우리 선조가 공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증조의 본뜻이다. 경진 3월 보름날, 증손 특은 삼가쓰다.¹⁷⁾

謹按我會祖考北征日記行于世上者多而其設機取勝之策抗義免戍之事略記而不備反見在彼中時親筆所錄然後乃知吾會祖之本意也蓋不欲功基功於天下後世故略之其於所詠二絕尤可驗矣或者以爲我會祖之功不足有無於我國是固不知者之言也清與彼賊交兵十載我國之赴援已再矣苟使我會祖敗還則清國之請援又不知幾番而我國生靈半爲黑龍江之魚矣且自會寧至寧古塔一軍一軍一名也 一朔糧運致價二十石零端北三十石自寧古至宋加羅江里數之遠又三倍於會寧寧古之間苟於此地屯戍一年則雖傾盡我國之穀半不可繼矣以死相爭能免此患其爲功於我國者固大矣然爲子孫者不敢日吾先祖有功云者是乃吾會祖之意地庚長三月望日會孫謹識公之北征事蹟詳載國乘

신록은 <북정일록>이나 <비시황전>을 통해 2차 나선정벌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증조부인 신유의 일기 <북정록>을 접하게 되고 <북정일록>이나 <비시황전>이 실제와는 차이가 많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문헌에서는 신유의 활약과 그 의의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신록은 <북정일기>를 새로이 서술하며 세간에 유포되면서 간략해져 그 사건의 전말이 전해지지 않으나 정작 나선정벌의 핵심적인 사안이었던 점 두 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나선정벌을 승리로 이끈 신유 장군의 치밀한 계책, 둘째 조기 철군의 문제에서 두드러지는 청과의 관계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유의 의지와 실행이다.¹⁸⁾ 이 두 가지는 <북정일록>과 <비시황전>에는 없던 것으로 <북정

17) 신기석, 앞의 책, 133~134쪽.

18) 송하준, 「<북정록>의 소설과 과정과 그 성취」, 『고소설 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340쪽.

록)에만 나온다. 신록은 이 부분을 제2차 나선정벌의 핵심으로 보고 그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다.

30일 맑다. 머물다. 밤에 군관 유응천 등 4인을 불러 말했다. “지금 원수의 지휘하는 양을 살펴보니 매우 소루하다. 그리고 그 편지도 신빙할 길이 없다. 앞으로 접전할 때에 필시 응변의 계책이 없을 것이니 너희들이 직접 가서 탐지해 보아라.”¹⁹⁾

그리고는 잠수군 1백여 명을 불러 백금 50냥을 상으로 나누어 주며 말했다. “너희들은 오늘 야반에 몰래 적선에 가 붙어서 못을 치고 쇠줄로 적선을 연결하여 돌씩돌씩 짝 맞추어 붙여 매어 뿔뿔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해 두어라.” 이날 밤 유응천, 김명길 등을 불러 말했다. “너희들은 적을 깨뜨릴 계책을 알고 있는가? 내 들으니, 물에 익숙한 자는 불에는 서툴다 하더라. 그런데 적의 배는 樵皮로 장식되어 있고, 또 그 포제가 다른 나라의 것과는 달라서 화승을 사용하지 않고 자석을 화문에다 장치해 두어 이 자석과 쇠가 서로 부딪쳐 불이 거기에서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한다. 그래서 거개가 포를 4면의 배구멍에 걸어 두고 애초 이동을 하지 않는다 하며, 불은 배 바깥에서 생겨나고 연기 한 점도 배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애초 불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한다. 그래서 화약을 각 군사들이 서 있는 곳에 산치해 두고 있다 하니, 만약 화전을 쓰기만 하면 저들

송하준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북정일기〉의 신록이 철군 문제를 둘러싼 청 원수와의 갈등관계를 통해 반청의식을 형상화하고 이러한 갈등을 바탕으로 인물의 성격을 개성적이며 생동하게 그려내었음은 물론, 인과적 계기에 충실한 서사의 집중과 문체를 보여줌으로써 소설적 성취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과연 신록이 소설이라는 것, 허구적 재구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서술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장면의 묘사나 대화의 삽입 등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허구적 재구성의 결과라고는 할 수 없다. 갈등을 부각시킨 것은 서사적 요인으로서가 아니라 〈북정일록〉이나 〈비시황전〉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조기 철군의 문제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북정일기〉의 소설적 경향이라면 배시황이라는 허구적 존재를 인정할 점 정도인데, 그것도 대상 텍스트를 허구로 인식하여 허구적 인물인 배시황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했던 인물로서 잘못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19) 신기석, 같은 책, 92쪽.

이 어찌 하늘로 오르겠나, 땅 속으로 들어가겠나?”²⁰⁾

인용된 장면은 〈백시황전〉에서는 ‘화공’으로만 언급되어 요약서술되었던 것이고, 〈북정일록〉에서는 배시황이 작전을 계획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잠수군으로 배들을 쥘어 화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인책을 쓰는 등, 신유 장군의 화공 계획은 매우 섬세하고 치밀하며 그 설명 또한 구체화되어 있다. 또한 그 모든 전술이 신유 장군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25일 맑다. 이른 아침 대통관 이몽선·김대헌 등이 이 환을 데리고 다음과 같은 대장의 지시를 가지고 찾아왔다. “도적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 조선군은 곧 철수할 수는 없소. 계속 이곳에 주둔한 후 8, 9월 초에 영고담으로 돌아가시오. 모름지기 문서를 다시 만들어 군관 1명을 회령으로 보내어 군량을 계속 실어 오도록 하시오”라고 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듣고 통관에게 ‘만약 적을 다 무찌르지 못하여 다시금 교전하는 일이 있다면 비록 일국의 재력을 탕진하여 군량을 실어오는 일이 있더라도 어찌 마다하겠소. 그러나 적은 이미 무찔렀는데 또 무슨 걱정이 있단 말ियो. 또 뜻밖에 군량을 더 실어오라 하니 북쪽 땅 백성의 힘으로는 참으로 지탱하기 어렵소. 통관은 국가의 고충을 수량해서 대장에게 좋은 말로 주선해주오.’...(중략)... 통관들은 대답하기를 ‘이번 일은 도원수와 부원수가 이미 결정한 일이며 또 군량 보급의 계속 지원은 황제의 어명ियो. 귀관은 소청을 주선할 수는 없으니 빨리 거행토록 하시오.’라고 할 따름이었다. 계속 주둔은 정말 뜻밖이다. 이 말을 듣고 군량 수송이 걱정되어 가슴이 메어지는 듯하였다. 저녁에 군관 박대영이 떠났다.²¹⁾

28일 소나기가 오다. 여러 장수들과 군병들이 주둔하여 대기하고

20) 같은 책, 100~101쪽.

21) 박태근, 앞의 책, 102~103쪽.

있으라는 소문을 듣고는 모두 수심과 분노에 차 죽으려고들 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너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마땅히 죽음으로 항쟁하여 빨리 돌아가게 할 터이다.”²²⁾

앞의 인용문은 신유의 <북정록>에서 청국에 의한 주둔 명령을 듣고 신유 장군이 그 불가함을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적을 섬멸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조선군에게 주둔하기를 명한 청국의 처분에 신유장군은 죽음으로 항거해서라도 조기 철군을 이루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북정일기> 전체에서 이러한 철군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은 절반을 차지한다. 그만큼 2차 나선정벌에 있어서 중심적인 사건은 출전과 전투만큼이나 청의 무리한 주둔 연장 요구에서 비롯된 갈등과 그 문제의 해결이었다.

신록은 신유의 사적을 기록하면서 선조의 공을 자랑하지 않으려 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겸양의 발언이고 상투적인 문구라고 하더라도 선조의 유음을 받드는 후손의 입장에서 왜곡과 과장은 지양하고 사적의 시말과 인과를 정확히 기록하여 명백히 하려 함에 그 지향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허구적 인물 ‘배시황’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정일기>에서 배시황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4일 비가 내리다. 선전관인 조카(명전)가 왔다.(배시황의 일기에
는 “발군표신發軍標信을 가지고 자원해서 왔다.”고 했음)
十四日兩宣傳姓命全來 裴是槐日記云持發軍標信自願而來²³⁾

이에 좌초장 박세웅과 대통관 김대현을 같이 한 배에 타게 하여

22) 신기석, 앞의 책, 111쪽.

23) 박태근, 앞의 책, 신유, 「北征日記」, 『統相公實記』, 21쪽.

선봉으로 삼고, …(중략)…군관 유응천과 배시황, 차통관 이기영
은 내가 탄 배에 있게 했다.

乃以左哨長朴世雄大通官金大憲可騎一船爲先鋒…中略…軍官
柳應天裴是愷次通官李起榮在我所乘船²⁴⁾

또한 파병 군사의 규모 등에서 허구 서사로 판명된 〈북정일록〉이나 〈비시황전〉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비변사 기록이나 〈북정록〉을 보면 2차 나선정벌의 파병 규모는 200여 명이였다. 그러나 〈북정일록〉이나 〈비시황전〉에서는 5천명으로 기록되었고, 〈북정일기〉 또한 병력을 5천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신록의 서술 태도로 볼 때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가공의 인물, 배시황이 언급되었다고 해도 신록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설, 허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허구 서사의 가장 큰 특징인 사건의 재구성은 없으며 요약 서술되었던 것을 인물의 대화로 장면화하여 제시하고 전투 장면의 묘사가 강화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신록으로 하여금 선조의 사적을 기술하는 데에 허구적 인물을 언급하게 하고 허구 서사의 영향을 받게 하였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신록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즉, 신록이 〈북정일기〉를 서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했던 것은 바로 傳授정신이다. 〈북정일록〉과 〈비시황전〉이 두 문헌은 신록이 서술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제2차 나선정벌이라는 사실을 구성하는 또 다른 자료들, 곧 傳授해야 할 사실들이었던 것이다. 즉, 신록의 〈북정일기〉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모든 전거를 종합하여 완벽한 기록을 서술하려는 서술의식의 결과물인 것이다. 사실적이고 공적인 태도를 보이는 史書류

24) 같은 책, 25쪽.

저술의 대원칙을 ‘實錄情神’²⁵⁾으로 집약할 수 있다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려는 신록에게 있어서 신유의 제2차 나선정벌과 관련된 여러 문헌들은 누락될 수 없는 것들이다. 곧 신록은 허구적인 인물 배시황과 배시황의 이야기인 〈북정일록〉·〈비시황전〉을 전수정신과 실록정신에 의거 기록하였던 것이다.

신록이 〈북정일록〉과 〈비시황전〉까지 고려하면서 〈북정일기〉를 서술할 때 지녔던 서술의식은 선조의 사적을 정확히 알리려는 명분과 목적에 따른 ‘傳授情神’과 그 사적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實錄情神’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신록에게 있어서 〈북정일록〉과 〈비시황전〉은 신유의 나선정벌이라는 역사를 보완하는 信史²⁶⁾였던 셈이고, 배시황은 실록정신에 입각한 엄격한 자기검열의 결과인 것이다. 실록정신에 의한 자기검열과 전수의 목적 하에 신록에게는 배시황이 실존 인물인가 허구적 인물인가는, 그리고 그 기록의 사실 유무는 신록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

25) 진재교, 「한국 한문서사양식의 층위와 변모-전·야담·기사를 중심으로」, 『대동문화 연구』 제40집, 104쪽 참조.

진재교는 이러한 현상을 들어 조선후기에 오면서 서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해석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컨대, ‘직필’을 기본으로 하는 서사양식조차 작가의 입장과 견문의 차이, 기술태도, 또는 대상인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 등과 같은 다성성을 수용하면서 허구지향성을 드러낸다.” 같은 책, 105쪽. 이러한 변화는 여러 작품들을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진재교의 평가처럼 당대 작가들이, 특히 본고의 대상인 〈북정일기〉의 신록과 같은 작가가 과연 허구를 의식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향하여 작품을 서술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오늘날의 해석자 입장에서 ‘소설’을 염두에 두고 당대 작품들의 소설성을 들어 당대 작가들이 소설을 의도하였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당대인들의 소설이 아니라 서양의 픽션과 노블 개념, 현대 소설에 익숙한 관점에서의 소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고소설의 성격을 고구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진재교는 일련의 작품들에 대하여 서술적인 의미로서만 ‘허구지향’, ‘허구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엇이 허구적인 것인지를 밝히는 것, 특히 당대인들에게 있어서 허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26) 김려는 正史외의 外史로서 정사를 보완할 서사작품을 중시했는데, 일기, 필기, 만록을 비롯하여 碑誌行狀類, 전, 필기에 이르기까지 사실을 중시하는 속성을 지녀서 내적으로는 실록정신을 담고 있는 일단의 서사작품들을 信史로서 인식하였다.

진재교, 같은 글, 106쪽 참조.

다. 그렇기에 〈북정일기〉는 ‘신유’라는 인물과 그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 허구적으로 확장, 재현된 ‘소설’로 평가되기도 하였다.²⁷⁾ 그러나 신록에게 허구 의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반고가 평한 사마천의 기술태도²⁸⁾에 비춰보면 이는 충분히 ‘실록정신’의 결과물이라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록은 나선정벌의 핵심적인 의의를 허위로 기술하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진정한 實錄情神을 구현한 것이기 때문이다.²⁹⁾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록정신이 허구를 서사 내로 포함시킬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Ⅲ. 實在의 再構成 : 萬德의 경우

2장에서 신유의 제2차 나선정벌과 관련한 몇몇 문헌을 통해 ‘실록정신’이 어떻게 허구를 내포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온전히 전하겠다는 강한 목적의식이 이전에 존재하는 모든 기록의 종합을 초래하였고, 이 가운데 허구적 인물과 허구적 사건 또한 반영되었던 것이다. 이는 강한 목적의식, 명분이 ‘실록정신’과 맞물려 만들어낸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허구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우리 기록문학의 서술의식이 어떻게 허구와 만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술의식이다. 실재성의

27) 송하준, 앞의 글 참조.

28) 반고가 사마천의 기술태도를 평하면서 “그의 문장은 곧고, 그가 기술한 일들은 핵심을 찔렀으며, 미덕을 허위로 기술하지 않았고 악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록이라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진재교, 「한문소설과 기록전통과의 관련성에 대한 몇 가지 문제」, 『고소설연구』 11집, 2001, 33~34쪽.

29) 같은 곳.

여부를 떠나 배시황과 그의 사적을 실록하게 한 것은 신유의 행적을 구체화하여 정확하게 알리려는 목적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서술 대상의 사실 여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점차 서술자의 서술의식 쪽으로 옮겨간다는 점이다. 자신의 서술 목적이 진정성을 담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서술자의 엄격한 서술 의식과 그에 따른 서술 방식에 있지 대상 내용에 있지 않음을 뜻한다.

3-1.〈萬德傳〉과 〈桂織傳〉의 두 萬德

〈만덕전〉의 내용은 제주도 기생 출신 만덕이 기아에 허덕이는 제주도 민을 구휼하고 그 상으로 궁궐 구경과 금강산 유람을 다녀온다는 이야기이다. 『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만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의 기생 만덕이 財貨를 훔쳐 베풀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휼 하였다고 목사가 보고하였다. 상을 주려고 하자, 만덕은 사양하고, 바다를 건너 상경하여 금강산의 이모저모를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허락해 주고 나서 沿路의 고을들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게 하였다. 20년 11월 25일조.

濟州妓萬德，散施貨財，賑活饑民。牧使啓聞，將施賞，萬德辭，願涉海土京，轉見金剛山。許之，使沿邑給糧³⁰⁾

이 사실은 체제공이 지은 〈만덕전〉에 자세히 실려있다. 체제공의 〈만덕전〉은 다음과 같다.

- ① 만덕은 성이 김으로 제주도 양민의 딸이다.
- ② 어려서 고아가 되어 기생집에 의탁했다.

30) 진재교, 앞의 글 113쪽.

- ③ 장성하자 기적에 이름이 올랐으나 스스로 기생 처신하지 않았다.
- ④ 관청에 호소하여 양민의 신분을 회복하였다.
- ⑤ 만덕이 물가 변동을 이용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
- ⑥ 정조 19년에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었다.
- ⑦ 정조는 구제의 명을 내렸으나 역부족이었다.
- ⑧ 만덕이 많은 돈을 내어 육지의 쌀을 사오게 하였다.
- ⑨ 구한 쌀의 십분의 일로 자신의 친척을 구하고 나머지는 관청에 바쳤다.
- ⑩ 관청에서 굶주린 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 ⑪ 백성들이 만덕을 칭송했다.
- ⑫ 제주 목사가 만덕의 구제를 조정에 알렸다.
- ⑬ 정조가 만덕의 소원을 물었다.
- ⑭ 만덕은 서울 궁궐과 금강산을 보고 싶다고 하였다.
- ⑮ 정조가 소원을 들어주라고 하였다.
- ⑯ 관으로 하여금 만덕에게 말을 비롯한 여행경비를 제공하였다.
- ⑰ 만덕이 병진년 가을 입경하였다.
- ⑱ 체제공은 한 두번 만덕을 만난 뒤 사실을 글로 써 위에 아뢰었다.
- ⑲ 정조가 만덕에게 달마다 식량을 주게 하고 내의원 의녀에 임명하였다.
- ⑳ 증전과 빈궁이 만덕에게 상을 하사하였다.
- ㉑ 만덕이 정사년 봄에 금강산을 구경하였다.
- ㉒ 만덕이 금강산에서 절과 불상을 처음 접했다.
- ㉓ 만덕은 안문령·유점사·고성 삼일포·통천 총석정 등을 보고 서울로 돌아왔다.
- ㉔ 내전에 귀환을 아뢰고 증전으로부터 상을 하사받았다.
- ㉕ 만덕을 보려는 삼정승 이하 사대부들이 많았다.
- ㉖ 만덕이 체제공과 울며 이별하였다.
- ㉗ 채 정승이 우는 만덕을 달래며 만덕전을 지어 주었다.

이신복은 <만덕전>을 논하면서 첫째, 여자의 몸으로 잃었던 신분을

되찾은 점, 둘째, 결혼하지 않은 점, 셋째, 여성으로서 부를 축적하여 기민을 구휼한 점, 넷째, ‘물욕과 명예욕의 경지를 벗어난 소원’을 들어 만덕을 ‘의지의 여인, 사랑의 여인, 멋의 여인’이라 평하고 있다.³¹⁾ 당대 지식인들도 만덕의 이러한 점에 동등한 관심을 보였고, 많은 사대부 관료들이 만덕을 칭송하는 헌시를 지어주었다. 그 가운데 잘 알려져 있는 정약용의 경우를 한 번 보자.

제주기생 만덕이 얻은 바 진신대부들이 준 이별시집에 제함.

병진년 가을 제주 기생 만덕이 역참으로 서울에 이르렀다. 이듬해 봄 만덕이 금강산으로부터 돌아왔다. 장차 그 고향으로 돌아갈 적에 좌승상 채제공이 소전을 지었는데 서술이 자못 상세하였다. 나는 더할 것이 없어 만덕의 세 가지 기이한 점과 네 가지 희귀한 점을 논한다. 기적에 올랐으면서도 홀로 지낸 점이 그 첫 번째요, 많은 재물을 모아 즐거이 베풀어 두 번째요, 바다에서 살면서 산을 좋아함이 세 번째이다. 여자이면서 중동이고 여종이면서 역마를 타고 기생이면서 승려들의 어깨에 수레를 매게 했고 육지에서 떨어진 먼 섬 사람으로 내전의 충애를 받은 것이 네 가지 희귀함이라. 아! 한 애꾸눈의 작은 여자가 이 세 가지 기이함과 네 희귀함을 지녔으니 또 하나의 큰 기이함이로다.

題耽羅妓萬德所得摺紳大夫贈別詩卷

丙長秋耽羅妓萬德驛至京越明年春萬德回自金剛將還其鄉左丞相蔡公爲立小傳敘述頗詳余不贅余論萬德有三奇四稀妓籍守寡一奇也高貲樂施二奇也海居樂山三奇也女而重瞳子婢而被驛召妓而令僧肩輿絕島而受內殿寵錫四稀也嗟以一眇小女子負此三奇四稀又一大奇也³²⁾

세 가지 기이한 점과 네 가지 희귀한 점은 당대 지식인들이 만덕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서 느낀 바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점이

31) 이신복, 「채제공의 〈만덕전〉 연구」, 『학문학논집』 12집, 근역한문학회, 1994, 643-648쪽.

32) 정약용, 『與猶堂全書』, 驪江出版社, 1978, 2권, 312~313쪽.

그들의 관심을 끌었고 만덕이라는 인물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배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만덕을 입전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3-2. 實事의 再構成

만덕은 여러 가지로 당대 지식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다. 비록 천한 신분의 섬 여성이지만 백성을 구휼하고 큰 포부를 품고 실행에 옮긴 것 등은 만덕을 가히 더불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만덕에 대해 전혀 다른 평이 있어 주목된다.³³⁾ 그것은 심노송의 평가이다. 심노송은 〈桂織傳〉이라는 글에서 만덕을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그러한 만덕에게 포상하고 전을 지어주는 등의 세대를 名과 實이 어긋난 세대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기녀 만덕이 곡식을 내어 진휼하니 조정에서는 그녀를 예국의 우두머리 종으로 삼고 금강산 유람까지 시켜주면서 말과 음식을 제공하였으며, 조정의 학사들로 하여금 그녀의 전을 짓도록 명하여 규장각의 여러 학사들을 시험하였다. 지난날 내가 제주에 있을 때 만덕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었다. 만덕은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해 돈을 보고 따랐다가 돈이 다하면 떠나는데, 그 남자가 입을

33) 김준형 또한 만덕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심노송의 이질적인 평가에 주목하여 논의한 바 있다. 김준형은 체제공이 지배 이데올로기 강화의 차원에서 〈만덕전〉을 지었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만덕의 생애와 구휼 과정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결과에 관심을 두었으며 이것이 심노송과 다른 만덕을 낳은 이유라고 논하였다. 이러한 관찰에 대해서는 필자도 적극 동감하는 바이나 김준형의 논의는 서술적이어서 분석적이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즉, 텍스트의 어떠한 요인이 그렇게 해석되게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김준형,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제주도연구』 17집, 제주학회, 2000, 1~26쪽 참조.

바지저고리까지 빼았으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바지저고리가 수백 벌이 되었다. 매번 쪽 늘어놓고 햇볕에 말릴 때면, 군의 기녀들 조차도 침을 뱉고 욕을 하였다. 육지에서 온 상인이 만덕으로 인해 패가망신하는 이가 잇달았더니 이리하여 그녀는 제주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 형제 가운데 음식을 구걸하는 이가 있었는데 돌아 보지도 않다가 도에 기근이 들자 곡식을 바치고는 서울과 금강산 구경을 원한 것인데, 그녀의 말이 웅대하여 불 만하다고 여겨 여러 학사들은 전을 지어 많이 칭송하였다.

내가 <계섬전>을 짓고 나서 다시 만덕의 일을 이와 같이 덧붙인다. 무릇 세상의 명과 실이 어긋나는 것이 이러한 것이 많음을 혼자 슬피하하니 계섬의 이른바 만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前年耽羅妓萬德出粟助賑，朝廷驛召隸局婢首，游金剛往來，乘驛官饋，命題敘傳，試閣中諸學士。嚮余在島中，聞德事頗詳。性凶悒，視金從之，金盡而去，輒奪其衣袴，所藏男子衣袴累百數，每纒纒出點晒，郡妓唾罵之。北商以德敗者相續，德富甲一島，兄弟有丐食者不顧。至是，島飢納穀，願至京遊金剛，謂其言落落可觀，諸學士敘傳多稱之。余既爲桂織傳，又附見萬德事如此，竊悲夫世之名實相舛者多此類，若織所謂遇不遇又何足道地。³⁴⁾

이 글에서 보면 만덕이 제주도민을 구휼하고 금강산 유람까지 다녀오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만덕전>에서와 달리 해석된다. <만덕전>에 서는 '제주도민 구휼(선행) → 서울·금강산 유람(보상)'의 사건 구성을 보이지만 심노승의 그것은 서울, 금강산 유람을 위한 계획적 구휼 행위이다.

이렇게 상이한 만덕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놓고 보면 치밀한 계획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었던 하나의 만덕이와 어떤 물질적·사회적 보상도 없이 고매한 정신을 보여준 또 다른 만덕이가 존재한다.

34) 沈魯崇, 「桂織傳」, 김영진 역,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2001, 254~255쪽.

이 두 만덕이는 공존할 수 없다. 채제공의 〈만덕전〉과 심노승의 만덕에 관한 기록이 공존하는 한 우리는 ‘만덕’이라는 인물의 실체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다. 결국 실제 만덕은 사라진다.

〈만덕전〉에서의 ‘만덕’은 섬 지역 기생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선행을 한 덕이 있는 인물이다. 거기에 더해 섬 여자로서 처해있던 성과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어떤 사내 대장부도 꿈꾸기 어려운 것을 실현한 여성이다. 그 ‘뜻이 높고 커서 다른 사람 같지 않음, 소탈하여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음(落落)’에 당대 선비라 자처하는 이들은 동류의식을 느꼈을 법하다. 그러나 그들이 본 만덕은 이미 채제공에 의해 인정받은 신화화된 ‘만덕’일 뿐이다. 만덕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떻게 제주도민을 구휼하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반면에 심노승은 제주 목사의 보고를 토대로 만들어진 만덕과 실제 만덕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한 차이를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이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 근거는 그가 제주에서 직접 듣고 안 사실이다. 인용문에서 그는 제주에 있을 때 만덕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심노승은 부친 심낙수를 따라 1794년 5월에 제주에 가서 4개월 간 머물렀다.³⁵⁾ 심노승의 근거 역시 ‘들은 것에 불과할 수 있다.’³⁶⁾ 하지만 〈만덕전〉은 대부분 입경한 뒤의 만덕의 형상과 일을 기록하는데 치중하여 정작 중요한 만덕의 성품이나 선행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 심노승의 언급을 염두에 두고 〈만덕전〉을 보면 몇 가지 특이한 점이

35)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고대 석사논문 참조. 진재교, 「한국 한문서사양식의 층위와 변모-전·야담·기사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0집, 118쪽에서 재인용.

36) 그리하여 진재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심노승의 만덕에 대한 평가를 ‘자신의 생각만으로 기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생각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심노승이 만덕의 특정 행위에 그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내지 왜곡한 것으로 독법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어서 진재교는 이렇게 다른 평가가 가능한 것을 ‘구연자와 건문의 입장에 따라 새로운 일화가 덧붙여져 점차 다양한 모습으로 퍼져’ 나감에 의의를 두고 해석하고 있다. 같은 글, 118쪽.

눈에 띈다.

첫째, 내용상의 문제인데, 채제공의 〈만덕전〉을 보면 그 분량의 6할이 만덕이 상을 받아 금강산 유람을 다녀와서 제주로 돌아갈 때까지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정작 표창의 이유인 섬 출신 기생이 굶주리는 백성을 구휼했다는 이야기는 간단한 언급에 그치고 있다. (단락⑥~⑪) 입전대상의 포품을 통해 유교적 덕목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이라고 할 때, 〈만덕전〉에서는 표창할 일의 언급보다 그에 대한 보상의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27단락 가운데 12단락부터 26단락까지 무려 15단락이 만덕의 포상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는 채제공의 〈만덕전〉의 서술 목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둘째, 〈만덕전〉은 다른 일반적인 전들과 달리 서술자가 3인칭화되어 노출된다. 다음은 그 예이다.

한두 번 정승 채제공을 만났는데, 채 정승은 만덕을 만나 본 사실을 글로 써서 위에 아뢰었다.

一再見蔡相國，相國以基狀白。

만덕은 떠날 때, 채 정승께 하직인사를 하면서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살아생전에 다시 정승님의 얼굴을 뵈 수 없겠군요” 이어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러자 채 정승이 말했다. “옛날 진나라 시황제와 한나라 무제는 바다 밖에 삼신산이 있다고 여겼네. 세상에서 우리나라 한라산을 영주산이라 하고, 금강산을 봉래산이라 하지. 자네는 제주에서 성장하여 한라산에 올라 백록담 물을 마시고, 이번에 또 금강산을 두루 답사하였으니, 삼신산 가운데 두 곳을 직접 유람한 셈이네. 천하의 수많은 남자조차도 이렇게 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 작별하는 마당에 어찌서 마음 약한 아녀자와 같은 태도를 하는가.” 그러고는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여 만덕전을 짓고는 웃으며 주었다.

萬德臨行，辭蔡相國，哽咽曰：“此生不可復瞻相公顏貌”仍濟然泣

下, 相國曰: “秦皇漢武, 皆稱海外有三神山. 世言我國之漢拏, 卽所謂瀛洲, 金剛卽所謂蓬萊, 若生長耽羅, 登攬拏, 剡白鹿潭水. 今又踏盡金剛, 三神之中其二, 皆爲若所包攬. 天下億兆之男子有能是者否? 今臨別, 乃反有兒女子刺刺態何也?” 於是. 其事爲萬德傳, 笑李與之.³⁷⁾

일반적으로 傳은 서술자가 노출되지 않는다.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傳의 논찬부에서 서술자의 시각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전대상의 이야기 외부에 존재하는 외부서술자로서 이야기 자체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서술자와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때로는 입전된 인물과 논찬자의 이념이 상충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덕전〉의 경우 서술자는 자신을 텍스트에 노출시킨다. 이렇게 자신을 직접 등장시켜 입전인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독자에게 사실임을 강조하는 효과³⁸⁾를 갖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하게 서술 내용, 그 대상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효과에서 그치지 않는다. 즉 서술하는 대상 내용의 신뢰성은 그것을 서술하고 있는 서술자를 동시에 신뢰하게끔 한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타자의 신뢰는 내 권위의 토대가 된다. 이는 나의 정체성 확립의 기본 요건이다. 덕이 있는 기인 만덕에게 상을 주고 그를 직접 만나 위로하는 행위는 ‘만덕’의 선행과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를 알아보고 포상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이다. 분량 상으로도 만덕의 선행보다는 만덕에게 주어진 ‘위대한’ 포상에 관

37) 채제공, 「만덕전」, 진재교 편역, 『알아주지 않는 삶』, 태학사, 2005, 345~346쪽.

38) 김근태, 『한국 고소설의 서술방식 연구』, 집문당, 2000, 183쪽.

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런 위대한 인물을 위로하는 재상의 모습이 강조되었다는 것은 〈만덕전〉을 지은 의도가 ‘만덕’의 선행을 알리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만덕이라는 제주 기생을 크게 포용할 수 있는 위정자의 ‘아량을 알리고자 함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수많은 개인 중의 하나인 ‘나’가 아니라 재상이라는 공적 직함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 확립을 넘어 사회 체제, 지배 체제에서 나의 권위와 지위를 공식화하는 행위가 된다.

傳은 곧 轉이다. 즉, 常道가 파괴되고 제왕의 도가 실추됨을 슬퍼하고 문화의 몰락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이를 성공과 실패의 사적을 들어 비판하고 국가의 존망을 입증하여 선악의 규범을 분명히 하여 바로잡고자 한 것이 공자의 〈春秋〉이고, 이러한 의식을 해독하여 시말의 맥락을 탐구하여 좌구명이 창조한 양식이 ‘傳’이다. 〈春秋〉는 그 심원한 뜻이 숨겨져 있어서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어려운 점을 쉽게 풀어 해석하고 또 경문에는 없으나 후세에 알릴만한 일을 첨가해서 해설하는 解經之學이 생겨나고, 여기에서 춘추의 여러 전이 성립되었다.³⁹⁾ 곧 經의 내용을 후세에 전하고자 풀어서 쓴 것이 傳이다.⁴⁰⁾ 따라서 邪惡을 적발하여 규탄하고 귀감을 표창하는 것이 良史의 直筆이지만 무너진 常道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貴人·賢者의 작은 결점은 감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곧 서술자는 전수하고자 하는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사적의 시작과 끝을 맥락의 일관성을 따져 조리 있게 만든다. 채제공은 만덕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춰 만덕의 일을 재구성한 것이다. 만덕이 제주에서 인색했던 음흉한 계책을 꾸며든 그것은 상관없는 일이다. 극히 작은 흠은 아름다운 구슬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기 때문이다.⁴¹⁾

39) 광정식, 『韓國傳文學의 理解』,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8, 8쪽.

40) 劉勰, 崔新浩 역, 『文心雕龍』, 64~65쪽 참조

임금도 못한 기민 구휼이라는 사건을 통해 만덕은 포상의 대상이 된다. 만덕의 포상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만덕의 선행을 널리 알려 못 백성들의 귀감이 되게 함이 첫 번째요, 동시에 만덕의 선행을 알아주고 인정하여 포상하는 자의 존재를 드러냄이다. 이를 위해 만덕의 작은 결점은 사라지고 그의 선행은 재구성된다. 실제 만덕이라는 인물은 사라지고 그의 선행은 재구성된다. 실제 만덕이라는 인물은 사라지고 서술자가 입전한 만덕의 이야기만이 남는다. 만덕이 살던 시대는 조선 왕조의 르네상스라 불리는 시대였다. 정조는 과학적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실학을 크게 발전시킨 임금이었다. 그를 보필하는 인물들 또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유명한 실학자들이다. 그들은 문체반정을 통해 虛誕之怪 小說을 경계하고 금했다. 호사가들이 만덕의 重瞳에 대하여 호들갑을 떨 때 정약용은 「重瞳辨」을 통해 차분하게 그 잘못됨을 증거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정약용도 만덕의 이야기가 재구성되어 허구화하는 것은 의식하지 않았다. 체제공을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의 확립과 안정은 곧 그의 정체성을 보장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IV. 정체성의 문제와 서술의식의 변화

〈북정일기〉는 온전하게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전하기 위해 실존하지 않은 허구적 인물과 사건마저도 참조하여 기록하는 실록정신을 보여주었다. 사실을 온전히 전하기 위한 노력이 허구적 생산물마저도

41) 若乃尊賢隱諱 固尼父之聖旨 蓋纖瑕不能玷瑾瑜也 奸慝懲戒 實良史之直筆, 259쪽. 같은 책, 70쪽.

전거로서 기록하게 되었던 것이다. 허구가 ‘기록’되기 시작한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명분과 목적의식이 앞서면서 허구를 기록하기 시작하고 ‘전’은 허구를 수용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만덕전>에서는 표창할만한 실제 인물의 이야기는 그 덕행에 걸맞도록 행위와 사건이 재구성되었다. 실재했던 기생 출신 제주 거부 만덕은 임금도 구휼하지 못한 제주기민을 사비를 털어 훌륭하게 구휼하고 궁궐과 금강산 기행을 보상으로 바라는 멋과 풍류를 이은 ‘만덕’이로 재현된다. 여기에서 ‘만덕’은 체제공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재현하는 하나의 추상화된 도구일 뿐 더 이상 실제 만덕이일 수 없다.

허구적인 것을 비판하고 대상에 대해 述而不作하던 서술의식은 조선 후기 들어 이렇듯 가공의 인물을 실록하고 실제 인물을 재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술의식의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 이야기하기, 글쓰기가 곧 자신의 정체성 확립의 한 방법이라 할 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갖게 된 정신적 가치의 혼란이 그 한 원인일 것이다. 조선전기까지는 주자학이라는 확고한 진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확고한 기준이 존재할 때 나의 정체성은 나와 다른 것을 구분함으로써 충분히 확인되었다.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신념을 재현하는 글쓰기 또한 그 대상은 명백한 것이었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이다. 傳을 짓고 읽는 행위⁴²⁾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정체성 확립의 욕망을 가장 충실하게 충족시켜 주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전은 실재하는 인물과 사건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42) 인간은 플롯을 통해 자신을 이해한다. 자신에 대해 안다는 것은 해석하는 것이고, 자신에 대해 해석하는 것은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폴 리콰르, 김동윤 역, 「서술적 주체성」, 주네트 외, 석경징 편, 『현대 서술이론의 흐름』, 솔, 1997, 52쪽 참조.

여기에서 잠시 ‘정체성’에 관해 생각해보자. 내가 누군인가를 결정하는 정체성은 이중적이다. ‘자기 동일적 정체성’ same과 ‘공유적 자아로서의 정체성’ self가 그것이다. 전자는 변하지 않는 이름으로 지시된 하나의 사물이 두 번 생겨난다는 것, 곧 유일성, 단일성으로서의 정체성이다. 그러나 시간상 매우 긴 거리가 있을 경우, 두 인물이나 사물에 대한 동일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유일성이나 단일성과는 다른 기준, 즉 하나의 존재가 첫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이를 때까지 겪는 변화 발전의 ‘연속성’이 제기된다. 바로 시간에 따른 변화 속에서도 유지되는 ‘항존성’이 요구된다.⁴³⁾ 이때 항존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적 자이라고 한다. 온전한 정체성은 이 두 가지 정체성의 교차지점에서 형성된다. 전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한다고 할 때, 각 전의 입전인물들은 신분과 성, 나이와 생김새는 저마다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유교적 가치, 즉 ‘충·효·열’의 화신이라는 공유적 자아의 재현물인 셈이다. 정체성의 기준으로서의 유교적 가치, ‘충·효·열’이 확고하고 명백할 때 전을 짓고 읽는 사람은 각 전의 입전인물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병양란을 거친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유교적 가치는 의심되기 시작했다. 이는 공유적 자아로서의 정체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지금까지는 판단해야 할 대상이 유교적 가치에 부합하는가, 곧 그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 되었다. 그러나 기준의 부재는 판단을 내려야 할 주체, 곧 ‘나’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확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충·효·열’이라는 유교적 가치가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궁극적인 목적일 때 그것은 나의 욕망의 대상이었다. 각 전의 입전인물들은 이

43) 같은 글, 52~54쪽 참조.

궁극적인 욕망의 대상을 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교적 가치의 실재성이 의심되기 시작하면서 욕망의 대상은 매개물로 대체된다. 왜냐하면 유교적 가치의 대상으로서의 실재성은 의심되지만, 왕조는 유지되고 이 왕권 하에서 정체성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에서 초점의 대상을 변화하게 만들었다. 조선전기에 유교적 가치에 대한 신념이 확고할 때에는 그 재현물인 입전인물은 실례로써 그 삽화만이 간단히 제시되면 되었다. 삽화 간의 인과성이나 논리, 입전인물의 현실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물로 인해 재현되는 가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 재현되는 가치가 의심되면서 그 가치의 가능성·사실성은 재현된 입전인물의 이야기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사실적인가, 그리고 가능한가를 보여줄 때 획득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매개물이며 더 중요한 것은 매개물을 재현함으로써 가치의 절대성이 회복되리라는 서술자의 신념이다. 조선후기에 들어오면서 서술자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그럴듯 한가, 또한 자신이 이야기하는 그 인물이 얼마나 현실적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초점화자로서의 서술자는 결국 자신을 초점화 한다. 〈만덕전〉에서 초점화자는 자신의 해석 활동을 지시하고 그것을 객관화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고 확인한다.⁴⁴⁾ 정약용이 만덕에게서 받았던 이미지, 그것은 체제공과 공유했던 것이고 체제공은 초점화자로서 만덕의 이미지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 초점의 대상은 주장되는 그 가치가 아니라 그 가치를 주장하는 자기 자신이다.

44) 대상으로부터 받은 이미지는 초점화자에 의해 결정된다. 동시에 대상의 이미지는 초점화자를 역으로 조명한다. 미케 발, 한용환 역,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193쪽 참조.

참고문헌

- 박태근, 『국역 북정일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73쪽.
- 申基碩 譯著, 『北征日記』, 탐구당, 1980, 23쪽.
- 沈魯崇, 「桂織傳」, 김영진 역,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2001, 254쪽.
- 채제공, 「만덕전」, 진재교 편역, 『알아주지 않는 삶』, 태학사, 2005, 345쪽.
- 곽정식, 『韓國傳文學의 理解』,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8, 8쪽.
- 권혁래, 「〈비시황전〉 연구-성립과 서사성, 역사의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집, 한국고소설학회, 1997, 212쪽.
- 김근태, 『한국 고소설의 서술방식 연구』, 집문당, 2000, 183쪽.
- 김기동, 「배시황전에 대한 일고찰」, 『어문학』 8, 1962.
- 김준형,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제주도연구』 17집, 제주학회, 2000, 1~26쪽.
- 송하준, 「〈북정록〉의 소설화 과정과 그 성취」,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340쪽.
- 劉勰, 최신희 역, 『文心雕龍』, 64쪽.
- 이신복, 「채제공의 〈만덕전〉 연구」, 『한문학논집』 12집, 근역한문학회, 1994, 643쪽.
- 정약용, 『輿猶堂叢書』, 驪江出版社, 1978, 2권, 312쪽.
- 진재교, 「한문소설과 기록전통과의 관련성에 대한 몇 가지 문제」, 『고소설연구』 11집, 2001, 33~34쪽.
- , 「한국 한문서사양식의 층위와 변모-전·야담·기사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40집, 2002, 104쪽 참조.
- 폴 리콕르, 김동윤 역, 「서술적 주체성」, 주네트 외, 석경징 편, 『현대 서술이론의 흐름』, 숲, 1997, 52쪽 참조.

| 2부 |

김만덕과 여섯

- 〈萬德傳〉에 나타난 여성성의 의미 탐색 - 조도현
- 아름다운 삶의 여정 - 몰 플란더즈와 김만덕을 중심으로 - 손달례

〈萬德傳〉에 나타난 여성성의 의미 탐색

조도현*

1. 머리말

傳은 고전소설의 발달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장르이다. 전과 고전소설은 상호 보완과 경쟁의 관계를 동시에 보여주며, 거시적 관점에서 고전 서사문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조선후기에 이르러 소설적 경향이 강한 전 작품이 속속 등장하면서 장르에 관한 성격과 규정의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고, 이에 대한 논의도 각 작품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진행¹⁾된 바 있다. 서사구조를 갖춘 이야기문학 중 傳은 역사적으로도 유서 깊은 양식이었는데,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일대기 형식은 서사문학의 발전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傳은 한 인물의 일생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서사양식으로, 애초에는 역사기술의 한 방법이었다. 이처럼 전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인물의 행적을 기술하고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서사문학적 측면에서 傳이 일정한 의미를

* 한밭대학교 강의 전담 교수

1) 차용주, 『한국한문소설사』, 아세아문화사, 1989.

주명희, 「傳의 연구방향」,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9.

박희병, 『조선후기 傳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3.

지니는 것은 인물을 중심으로 한 사건 진술이라는 점에 있다. 초점화된 인물의 삶의 궤적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갈등양상의 꺾진성은 이를 수용하는 독자들에게 세계에 대응하는 태도를 환기시켜 주고, 다양한 교훈과 감동을 주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전은 신라와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당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전 문학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 중 가장 뚜렷한 변화의 양상은 입전대상이었다. 전대의 전통을 이어 대중들에게 확실한 족적을 남긴 충신·열사·일사·효자·열녀는 여전히 주요 입전대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神仙者流·이인·유협·거지·농민·예술가·과학자·상인·의원·기녀·그밖에 여러 시정의 부류들이 새로운 입전대상으로 기술되는 일대 변화를 보였던²⁾ 것이다. 전대의 전이 몇몇 유형으로 한정된 전형성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입전인물 대상의 편폭에 다양성을 띠었다는 사실은 조선후기가 지니는 시대적 정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징후를 감지하게 한다. 요컨대 전이 고전소설과 관련을 맺으며, 조선후기 더욱 각광받는 산문 양식이 된 배후에는 근대정신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삶에 더욱 관심을 가졌던 당대 세계관의 반영이 내재해 있었다.

전과 소설이 공존하되 소설이 열등한 위치에 있던 단계를 ‘중세문학에서 근대문학으로의 이행기’³⁾라 규정한 논의에 동의하는 관점에서, 18세기의 전은 소설과 경쟁하면서 아직은 비교우위를 점하던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미 산문의 시대가 도래하고 개개의 인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던 이 시기에, 전과 소설은 사실과 허구 사이에 모호한 국면을 각각의 장르적 속성에 부합하여 서술 방식의 변별성을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박희병, 앞의 책, 85쪽.

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94, 88쪽.

그러나 전은 백성들에 대한 통치 질서의 유효성이라는 점 때문에, 규범 윤리에 충실하고자 했던 제도권에서 좀 더 매력적인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점에서 본고의 텍스트로 삼은 〈萬德傳〉은 여러모로 의미 있는 작품이라 여겨진다. 〈만덕전〉은 조선 영·정조 대의 재상으로 널리 알려진 樊巖 蔡濟恭의 작품이다. 그의 문집인 『樊巖集』에는 14편의 전이 수록되어 있는데, 번암은 유교적 이념에 충실했던 정통 관료답게 모범적 행실로 세상을 감동시켰던 인물을 입전 대상으로 삼았다. 그 중 〈만덕전〉의 주인공 김만덕 또한 모범적 행실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타 작품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으나, 당시의 사회 통념상 독특한 행적을 남겼기에 시대적 분위기와 조응하여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 생각된다.

〈만덕전〉에 관한 그간의 학술적 개별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로 번암의 傳 문학 전반을 통해 문화적 특성을 고찰하는 데 활용하였던 연구⁴⁾와 개별 작품론으로 〈만덕전〉에 나타난 만덕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어 傳과의 차별적 특성을 고찰한 연구⁵⁾가 있다. 오히려 〈만덕전〉에 기초하여 그의 생애를 다시 재구성한 일반 저서⁶⁾와 드라마⁷⁾가 최근까지 발간·방영되었고, 만덕의 고향 제주에는 그녀를 기리는 각종 기념 사업들이 있어 연구 외적 자료가 활발한 편이다. 본고에서는 〈만덕전〉에 나타난 주인공의 행적을 통해 작품의 구조와 인물의 특성을 분석

4) 최준하, 「번암 체제공의 전 문학 연구」, 어문연구 24집, 『어문연구학회』, 1993. 정미숙, 「체제공과 이육의 여성전 연구」, 어문학교육 15집, 『한국어문교육학회』, 1993.

5) 이신복, 「체제공의 〈만덕전〉 연구」, 한문학논집 12집, 『근역한문학회』, 1994. 633-649쪽.

6) 강영경 외, 『한국역사 속의 여성인물』, 한국여성개발원, 1998.
박무영·김경미·조혜란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2004.

정창권,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 푸른 숲, 2006.

윤수민, 『조선의 여성상인 김만덕』, 창해, 2009.

7) 드라마 『거상 김만덕』은 KBS에서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30부작으로 방영되었다.

하고, 시대를 통찰하며 선견의 혜안을 보였던 만덕의 여성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채제공의 작가의식과 〈만덕전〉의 창작 동기

〈만덕전〉의 작가 채제공은 조선 영·정조 대의 名臣이다. 그는 정조대에 우의정에 제수된 후 11년 간 정승으로 재임하면서 十年獨相이란 말을 들을 만큼 임금의 신임이 두터웠다.⁸⁾ 채제공의 탁월한 보필로 정조는 왕정을 정상화하였고 黨禍를 막아 탕평책의 실효를 거두었으며, 인재를 널리 등용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정치를 펴서 실학의 큰 발전을 보게 하였으며, 제반 문물제도를 정비하였고, 규장각을 궁내에 두어 학자를 등용하고 활용하여 문치정치의 전성시대를 이룩하였다.⁹⁾

이처럼 번암은 조선조를 통틀어서도 손꼽히는 명재상의 반열에 오를 만큼 많은 치적을 쌓았던 인물이다. 한편 그는 자신이 사는 시기를 更張이 필요한 시기로 인식했으나 제도의 개혁보다는 운영의 개선을 강조했다.¹⁰⁾는 점은 그의 정치철학이 합리적 방향을 표방하였음을 알려준다. 또한 그는 양명학·불교·도교·민간신앙을 모두 이단으로 비판했으며, 서학에 대해서도 비문화적·비윤리적·비합리적이라고 보았지만,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교화를 우선시했다. 따라서 그가 재상으로 재임하는 동안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가 확대되지 않았다¹¹⁾는 점을 통해 볼 때, 그는 보수 관료로서 당대의 지배이념인 정통 유학에 충실하게 따르되

8) 이신복, 앞의 논문, 634쪽.

9) 남만성, 「번암집 해설」, 『한국명저대전집』, 대양서적, 1975, 3쪽.

10) 한국브리태니커, 『브리태니커백과사전』. 채제공 편, 2008.

11) 한국브리태니커, 위의 항목.

계몽적 교화에 힘쓴 온건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만덕전〉은 채제공의 14편의 전 작품 가운데 여성을 입전한 두 편의 작품 중 하나이다. 역대 전 작품을 보면 여성을 입전한 작품이 눈에 띄일 정도로 소수인데 그것도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節婦·烈婦인 것이 보통이다.¹²⁾ 채제공의 또 다른 전인 〈淸風義婦傳〉도 동일한 맥락에서 ‘도적에게 겁탈당하기 직전에 기지로 위기를 모면’하는 정절 이야기이다. 또한 이 작품은 구성상 박진감이 넘치나 허구적 재연으로 확장¹³⁾되었으리라 여겨질 만큼 극적이다. 번암이 추구한 궁극의 목적이 교화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실제 사건에 적절한 윤색을 가미한 정황도 드러난다.

그러나 같은 여성을 대상으로 입전한 작품 〈만덕전〉의 기술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앞서 설명한 〈청풍의부전〉이 하나의 짧은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 의부의 활약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면, 〈만덕전〉은 만덕의 출생에서부터 만덕과 번암이 헤어지는 순간까지 서술¹⁴⁾하고 있다. 일단 입전대상의 중량감에서 경중의 차이가 느껴진다. 또한 만덕과의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번암은 만덕의 삶에 충실하게 감정이입하여 사실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사실 입전인물의 행적 면에서 볼 때, 만덕이 행한 업적은 여성이 아닌 남성과 견주어 보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기근에 시달리는 제주도민을 구출하기 위해 천금을 낸 만덕의 행실만으로도 큰 칭송을 받을 정도로 파격적인 일이

12) 이신복, 위의 논문, 641쪽.

13) 정미숙, 앞의 논문, 163쪽.

14) 蔡濟恭『樊巖集』第55卷〈萬德傳〉“於是敘其事 爲萬德傳 笑而輿之 聖上二十一年丁巳夏至日 樊巖蔡相國七十八 書于忠肝義膽軒”(이에 그 일을 서술하여 〈만덕전〉이라고 하고, 웃으며 그녀에게 주었다, 정사년 하지일, 채상국이 78세에 충간 의담헌에서 쓰다.) 〈만덕전〉은 정사년(1797년)에 썼고, 만덕은 1812년에, 채제공은 1799년에 각각 하세하였다.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만덕은 당시로서는 하대받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 요인을 지니고 있었는데, 여인이며, 기녀 출신이었고, 제주도에 살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당대의 통념상 단 하나도 변변히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녀가 사업으로 성공하고 큰 금액을 쾌척하여 빈민을 구휼하였던 미담은 불가사의한 일이었으며, 이 이야기의 주인공 만덕은 놓칠 수 없는 입전 대상이었던 것이다. 집권세력의 최고 수장을 역임하고 윤리적 교화의식에 충실했던 변암의 삶에 비추어 볼 때 〈만덕전〉의 창작 동기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로 보인다.

사실 〈만덕전〉 뿐만 아니라 만덕과 관련한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만덕은 이미 상당한 유명세를 탔음을 알 수 있다. 먼저 『朝鮮王朝實錄』에서는 만덕의 선행과 청원이 기록¹⁵⁾될 정도로 주목받았다. 양반도 아닌 기생 출신의 일개 여인이 왕조의 正史에 실리는 광영을 누리게 된 것이다. 또한 茶山 丁若鏞은 『與猶當全書』에서 만덕의 기특함을 칭송¹⁶⁾하였으며, 朴齊家와 李家煥 또한 만덕을 칭송한 시¹⁷⁾를 남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趙秀三』은 『秋齋紀異』¹⁸⁾에 시를 남겼으며, 만덕의 사후에

15) 『朝鮮王朝實錄』 正祖 20年 11月(丙寅) “濟州妓萬德 散施貨財 賑活饑民 牧使啓聞 將施賞 萬德辭 願涉海上京 轉見金剛山 許之 使沿邑給糧” (제주기생 만덕이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하였다고 목사가 보고하였다. 상을 주려고 하자, 만덕은 사양하면서 바다를 건너 상경하여 금강산을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허락해 주고 나서 연로의 고을들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게 하였다.)

16) 『與猶當全書』 第一集 詩文集 第十四卷 「題耽羅妓萬德 所得措紳大夫贈別詩卷」 “余論萬德 有三奇四稀 妓籍守寡一寄也 高賞樂施二奇也 海居樂山 三奇也… 嗟以一眇小女子負此三奇四稀又一大奇也” (나는 만덕에게는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기적(妓籍)에 실린 몸으로서 과부로 수절한 것이 한 가지 기특함이 있고, 많은 돈을 기꺼이 내놓은 것이 두 가지 기특함이고, 바다 섬에 살면서 산을 좋아함이 세 가지 기특함이다. …(중략)…아, 보잘 것 없는 일개 여자로서 이러한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을 지녔으니, 이 또한 대단히 기특한 일이다.)

17) 박제가는 〈送萬德歸濟州〉를, 이가환은 〈送萬德歸耽羅〉라는 시를 각각 지었다.

18) 조수삼 지음·허경진 옮김, 『추재기이』, 서해문집, 2008, 182쪽.

秋史 金正喜는 ‘恩光衍世’(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번진다)라는 편액을 써 보냈을 정도로 만덕은 각광받는 인물이었다. 당대를 풍미했던 유명 문인들뿐만 아니라 <만덕전>에서 만덕이 금강산 유람 후 상경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녀 보기를 원했다¹⁹⁾는 기록을 미루어 보면, 그녀는 일종의 신드롬에 가까운 찬사를 받으며 유명 인사 반열에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

기실 변암은 고전소설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²⁰⁾으로 경직된 면모를 보이면서도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시로 표현²¹⁾할 정도로 감성적이었다. 부녀자가 소설을 탐독하는 행위를 개탄하는 그였지만, 규범 윤리에 충실한 여인에게는 더없이 자애로운 성품을 보여준 그였기에 만덕의 입전은 그녀에 대한 경의와 송덕의 의미를 담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에게 있어 <만덕전>의 창작 동기는 선행을 통해 인간애를 구현했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행실을 만백성에게 알리고자 했던 교화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19) 蔡濟恭 『樊巖集』 第55卷 〈萬德傳〉 “當是時 萬德名滿王城 公卿大夫士無不願 一見萬德面”(이 때 만덕의 이름이 서울에 가득하여 삼정승 이하 사대부들이 한 번만이라도 만덕의 얼굴 보기를 원했다.)

20) 蔡濟恭 『樊巖集』 第33卷 〈女四書序〉 “竊觀近世閨閣之競以爲能事者 惟稗說是崇 日家月增千百其種 僧家以是淨寫 凡有借覽 輒收其直以爲利 婦女無見識 或買釵釧 或求價銅 爭相寫來以消永日”(가만히 살펴보니, 요즘 세상에 부녀자들이 서로 다투어 가며 일삼는 것은 오직 稗說 읽는 것이다. 패설은 날로 달로 늘어 그 종류가 수백 수천에 이른다. 책 대여점에서는 이를 깨끗이 베껴 빌려 주고는 값을 거두어 이익을 취한다. 아녀자들은 식견도 없이 비녀나 팔찌를 팔거나 또는 빛을 얻어서라도 다투어 빌려와서는 긴 날의 소일거리로 삼는다.)

21) 蔡濟恭 『樊巖集』 第5卷 〈百紵行〉 “皎皎白紵白如雲云是家人在時物 家人辛勤爲郎厝 要襪未了人先歿…”(새하얀 세모시 눈 같이 희구나. 당신이 살아 있을 때 남긴 물건 당신이 나를 위해 모시 한 필 끊더니 바느질 미처 못 마치고 당신 먼저 떠났구려…후략…)

3. 〈만덕전〉의 작품 내용과 구조 분석

〈만덕전〉은 제주 출생 김만덕의 입지전적인 이야기이다. 운명에 맞서 싸우며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성공담, 큰 장사로 모은 재산을 곤궁에 빠진 제주 백성들에게 환원하는 미담, 그 포상으로 임금에게 소박한 청원을 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만덕의 이야기는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소설보다 더 극적이며, 허구담이 표현하지 못하는 진정성을 보여준다. 실화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만덕전〉의 내용은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 더욱이 윤리적 덕목을 중시하고, 이에 천착했던 유가 중심의 조선조에서 만덕의 이야기는 하나의 실천적 전범으로 기능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엄격한 질서와 규범을 강조하던 신분제 사회에서 만덕의 이야기는 너무나 이례적으로 조선왕조 공식 기록문서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의 관찬서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만덕전〉을 기술한 채제공은 물론 숭한 사대부들이 앞 다투어 선행을 기록으로 남길 만큼 만덕은 조선사회 주변부 여성에서 유교사회 중심부 인물로 거듭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실제 만덕의 처지가 소외받았던 성별(여성), 계급(기녀), 지역(제주)이라는 악조건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 경우는 모든 면에서 인간 승리의 기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허구성이 가미될 수 있는 혐의를 배제할 수 없기는 하나, 〈만덕전〉은 선명한 역사적 기록²²⁾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선부른 추단을 하기가 어려우며 역사적 사실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

사실 만덕에 관한 주변 기록 중에는 유일하게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도 있다. 조선후기 동시대 문인이었던 沈魯崇은 제주 목사를 지냈던

22) 적어도 성장과정 이후 재산형성과 구휼과정기록은 사실로 여길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다.

아버지 沈樂洙를 따라 제주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훗날 〈桂織傳〉에서 다음과 같이 그녀를 질타한다.

지난날 내가 제주도에 있을 때 만덕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었는데,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해 돈을 보고 따랐다가 돈이 다하면 떠나는데, 문득 그 입은 바지저고리까지 빼앗으니 군의 기녀들조차도 침을 뱉고 욕하였다…중략…이리하여 만덕은 제주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그 형제 가운데 음식을 구걸하는 이가 있었는데 돌아보지도 아니하더니 섬에 기근이 들자 곡식을 바치고는 서울과 금강산 구경을 위한 것인데, 그녀의 말이 낙낙가관타 여겨 여러 학사들이 전을 지어 다 칭찬하였다. 내가 〈계섬전〉을 짓고 나서 다시 만덕의 일을 이와 같이 덧붙이고는 세상의 명과 實이 어긋나는 것이 이 같이 많음을 혼자 슬퍼하나니 계섬이 이른바 만나지 못하는 것이야 더 말할 무엇 하겠는가.²³⁾

오늘날에도 대상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면 진술 또한 정반대가 되는 경우를 접하게 되는데, 앞서 만덕에 대한 많은 이들의 호의적 입장과는 전혀 상반되는 진술이므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체제공과 정약용 등 만덕을 높이 평가한 사대부가 대체로 남인이라면, 심노승은 노론이기 때문에 당파적 입장이 만덕에 대한 평가에 개입했을 수도 있다²⁴⁾는 지적도 있으나 이 또한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심노승이 기술했던 만덕의 평가에서 그녀에 대한 폄하의 시각을 전면 부정하기도 어려운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왕과 왕비에서부터 정승·판서를 지냈던 관료와 명망있는 선비들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사람들이 칭송을 거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덕의 업적은 많은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23)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96. 44쪽.

24) 정창권,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 푸른 숲, 2006. 47~48쪽.

이런 점에서 만덕의 삶은 〈만덕전〉의 작품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개조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① 만덕 집안의 내력과 만덕의 삶 소개 : 제주도 양가집 딸이었으나 의지할 곳이 없어 기생의 명부에 올랐다가 관가에 흡수하여 다시 양민의 신분을 회복하고, 재산을 모아 부자로 이름이 알려짐.
- ② 제주도의 기근과 만덕의 빈민 구제 : 제주도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어 죽자 만덕이 천금을 내어 쌀을 사서 백성을 구휼하니 제주 백성들이 우리를 살린 이는 만덕이다 하면서 은혜를 칭찬함.
- ③ 만덕의 선행에 대한 제주 목사의 표창 상신과 만덕의 소원에 대한 왕(정조)의 윤허 : 제주 목사가 백성을 구제한 만덕의 일을 조정에 보고하니, 왕은 특별히 만덕의 청을 허락할 것을 약속하고 만덕은 두 가지의 소원(임금 알현, 금강산 유람)을 이룸.
- ④ 한양에 입성한 만덕에 대한 관직 제수 및 포상 : 마침내 만덕은 한양에 도착하고, 왕은 내의원 의녀에 임명하여 여러 의녀의 우두머리로 삼고, 빈궁은 궁녀를 보내 상을 후하게 내림.
- ⑤ 만덕의 금강산 유람 : 만덕은 금강산으로 들어가 아름다운 경관을 두루 구경하고 돌아와 제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중전과 빈궁이 전처럼 상을 내려주고, 삼정승 이하 사대부들이 한 번만이라도 만덕의 얼굴 보기를 원함.
- ⑥ 만덕과 채제공의 이별 : 다시는 채제공을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만덕의 슬픔과 아쉬움에 대해 채제공은 따뜻한 위로의 말로 석별의 정을 나눔.
- ⑦ 〈만덕전〉 찬술의 경위와 입전 과정

이상의 작품 경계를 살펴보면 〈만덕전〉은 傳문학이 지니는 일반적 패턴의 서사구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즉 주인공의 출생 내력 및 성장 과정을 서술(①)하고, 다음으로 그가 남긴 업적을 열거하며 그 원인과 결과 등을 기술(②~⑤)한다. 마지막에는 그 인물에 대한 저자 자신의

견해와 평가를 밝히는 동시에 교훈을 제시한다. 특히 앞서 제시한 서사 단락⑥에서는 주인공 만덕과 변암이 석별의 정을 나누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서로 간의 흠모와 애정이 곡진하게 나타나며 애뜻한 정서를 환기시키고 있다.

다시는 기약할 수 없는 만남을 뒤로 하고 떠나는 만덕에게 〈만덕전〉을 담담하게 건네는 노재상의 모습은 변암이 만덕의 선행에 진심으로 감회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한편 〈만덕전〉의 각 에피소드간 인과관계는 독립적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傳은 사건과 사건, 또는 일화와 일화가 행동의 인과관계를 통하여 연결되는 소설과는 달리, 그 인물의 성격 및 인격을 드러내주는 독립된 일화들로 연결²⁵⁾되어 있다. 그러나 〈만덕전〉은 기녀가 되고, 기녀의 신분에서 벗어나며, 부를 축척하고, 제주 백성을 구휼한 후, 소원을 성취하는 일련의 과정이 인과관계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시련을 극복하고 성취해 나가는 주인공의 성공담이 점층적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4. 〈만덕전〉에 나타난 조선후기 여성성의 의미

〈만덕전〉에서 보여준 만덕의 활약상은 여러 측면에서 여타 여성 전기의 주인공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조선이 유지했던 통치 질서에서 드러난 여성에 대한 제약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조선후기 몇몇 선구적 여성들의 활약은 두드러진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덕의 활약상은 다른 여성에 비해서도 남다른

25) 정미숙, 앞의 논문, 163쪽.

특성이 드러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만덕은 당시 성별, 계급, 지역에서 모두 차별과 제한을 받았던 극단적 마이너리티였다. 사대부 가문의 여성조차 감히 이를 수 없었던 사회적 성취를, 기녀의 신분까지 추락했던 만덕이 이루었던 과정은 말 그대로 극적인 것이었다. 더구나 지역적 차별까지 받았던 제주 여성²⁶⁾으로서 쌓아올린 만덕의 업적은 대단한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만덕이 재화 획득의 재주가 있어 부를 축적하였다는 사실²⁷⁾이다. 근대의 여명기였으나 아직 여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더욱이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조차 확립되어 있지 않던 18세기 후반에 그녀는 놀라운 혜안으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던 것이다. 만덕이 한국 최초의 여성 기업인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쳤다면 아마도 만덕의 업적은 개인의 차원에서 성공을 거둔 근대적 여성상으로 한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만덕의 행보는 구휼을 통한 자선활동으로 마침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자아실현을 완성한다. 한국 역사상 여성은 물론 남성을 포함하더라도 김만덕이 이룬 업적만큼 나눔의 실천적 정신을 몸소 보여준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한국 여성사에서도 개인의 재능이나 노력의 결실의 빛을 발한 경우는 있었으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에 그쳤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성공을 기반으로 축적한 재화를 많은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고자 했던 만덕의 봉사 정신은 지극히 예외적이면서도 더욱 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대중적 지지와 열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만덕의 삶을 기술한 〈만덕전〉을 통해 조선후기 여성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6) 蔡濟恭 『樊巖集』 第55卷 〈萬德傳〉 “蓋耽羅女人之禁不得越海而陸 國法也”(당시 나라의 법으로 제주도 여성들은 바다를 건너 육지에 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27) 蔡濟恭 『樊巖集』 第55卷 〈萬德傳〉 “其才長於殖貨 能時物之貴賤 以廢以居至數十年 頗以積著名”(그녀는 재화를 불리는 데 재주가 있어 물건의 귀하고 천함을 판단하여 때에 맞추어 내놓거나 저장하기를 잘 하니 수십년에 이르러 자못 부자로 이름이 알려졌다.)

1) 도전과 개척의 적극적 여성상

만덕은 관습에 대한 도전과 운명의 개척을 몸소 실천한 적극적 여성이었다. 특히 <만덕전>에 나타난 이러한 요소는 대개 세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먼저 기녀라는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만덕의 적극적 자세²⁸⁾를 들 수 있다. 본래 만덕은 양가집 딸로 태어났으나,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 기녀에게 의탁하여 생활하였다. 그러나 스스로가 기녀로 처신하지 않고, 기어이 관아에 읍소하여 양민 신분을 회복했다는 점은 운명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개척했던 만덕의 굳은 의지를 잘 보여준다.

<만덕전>에는 결혼에 대한 만덕의 생각²⁹⁾도 드러난다. ‘제주도 남자’라는 모호한 표현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결혼에 임하는 만덕의 자세가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또한 이후에도 결혼·남편·자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만덕은 끝내 혼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유인으로 살고자 했던 만덕의 가치관에서 결혼은 한낱 인습의 굴레로 여긴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결혼을 할 수 없었던 신분적 제약을 지니고 있거나, 유교적 인습에 얽매어 재혼할 수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만덕처럼 자유의지로 혼인을 거부했던 사례는 역사적 기록에서 일찍이 드물었다.

관습에 대한 만덕의 도전은 왕에 대한 청원³⁰⁾에서도 잘 드러난다.

28) 蔡濟恭 『樊巖集』 第55卷 〈萬德傳〉 “萬德雖屈首妓於役 其自待不以妓也 年二十餘 以其情泣訴於官 官矜之除妓案 復歸之良”(만덕이 비록 미천한 기생에 종사하였으나, 스스로 기생으로 처신하지 않았다. 나이 스무 살이 넘어서 그의 사정을 관부에 읍소하니 관부에서 이를 불쌍히 여겨 기생 명부에서 삭제하고 다시 양민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

29) 蔡濟恭 『樊巖集』 第55卷 〈萬德傳〉 “萬德雖家居乎庸奴耽羅 丈夫不迎夫”(만덕은 비록 집에 하인을 두었지만 제주도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지는 않았다.)

30) 蔡濟恭 『樊巖集』 第55卷 〈萬德傳〉 “若有何願 萬德對曰 無所願 願一入京都 瞻望聖人在處 仍入金剛山 觀萬二千峯 死無恨矣”(목사가 만덕을 불러 임금의 어명을 알려주어 말하기를, “네 소원이 무엇이나?” 하니 “별다른 소원은 없습니다만, 서울에 한 번 들어가 임금님

만덕의 소원은 소박하였지만, 궁궐 보기를 청하고, 금강산 유람을 소망하였던 그녀의 태도에는 당찬 기백이 엿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특이할 만한 것은 탐라에 사는 여성의 육지출입이 그때까지 허가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관습이 만덕에 의해 깨어지게 되었으니 만덕은 그야말로 破天荒의 영웅³¹⁾이 되었던 것이다. 이 예사롭지 않은 인물인 만덕은 결국 궁궐에 들어가 내의원 의녀에 임명되어 여러 의녀의 우두머리가 되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주어진 운명에 굴하지 않고 과감하고 의연하게 대처한 만덕은 현대 여성에 견주어 봐도 손색없는 근대 지향의 여성상을 보여준다.

2) 경제 활동과 부의 축적

근대적 자본주의에 대한 개안이 이루어지고 상품 유통이 발달하면서 조선후기는 경제 활동의 활성화가 꾸준히 진행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평민층에서도 축재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꾀했던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은 아직 익숙치 않은 환경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역사상 상업 경제 활동으로 이름을 올린 여성은 만덕이 전무후무할 것이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신분적 제한과 사회 진출의 한계만큼이나 어려웠던 것은 상업 경제 활동에서의 제약이었다. 더구나 여성들은 소규모의 상업 활동이 아니라 거상으로서 큰 거래를 담당하기에 상대적으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만덕이 경제 활동을 통해 제주의 상권을 좌우할 만큼의

계신 곳을 우러러 보고, 이어 금강산에 들어가 일반 이천봉을 구경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라고 하였다.)

31) 최준하, 「변암 체제공의 전 문학 연구」, 어문연구 24집, 『어문연구학회』, 1993, 310쪽.

역량을 갖추었다는 점은 그녀의 배포와 상술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지에 올랐음을 증명해준다.

재화를 불리는 데 재주가 있었다는 <만덕전>의 기록³²⁾을 살펴보면, 만덕은 상품을 선별하는 안목은 물론 적시적소에 매매하여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뛰어난 감각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로 그려진다. 만덕이 이처럼 거상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유년기부터 시련과 역경을 극복했던 굳은 의지와 더불어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상 상대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에 유연했던 분위기도 어느 정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생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여성들의 참여는 만덕이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만덕은 분명 조선 최초의 유일한 여성경영인으로서 경제 부문에서 큰 활약상을 보여준 인물임에 틀림없다.

3) 자선과 나눔의 봉사 정신

우리 사회에서 자선과 기부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두레나 품앗이처럼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상호 부조하는 형태가 발달한 한국 문화에서 이 개념은 익숙치 않은 현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득권자가 누려야 할 권리뿐 아니라 의무에 대해 이행하는 자세를 지칭하는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했던 경우가 드물게 기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경주 지방의 최부자³³⁾가 그 중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재화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富를

32) 蔡濟恭 『樊巖集』 第55卷 〈萬德傳〉 “其才長於殖貨 能時物之貴賤 以廢以居至數十年 頗以積著名”(그녀는 재화를 불리는 데 재주가 있어 물건의 귀하고 천함을 판단하여 때에 맞추어 내놓거나 저장하기를 잘 하니 수십년에 이르러 자못 부자로 이름이 알려졌다.)

33) 최해진, 『경주 최부자 500년의 신화』, 뿌리 깊은 나무, 2006, 13~254쪽.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이 나눔을 실천하는 가풍으로 수백 년 동안 존경받으며 부를 유지했던 최부자 집은 흔치 않게 淸富를 유지했던 유서 깊은 내력을 보여준다.

만덕의 경우는 이와 다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애초부터 결혼도 하지 않은 독신녀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줄 후손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강한 집착을 보인 것 같다. 앞서 서술한 심노승의 <계섬전>³⁴⁾을 통해 보거나 “개 같이 벌어서 만덕처럼 쓴다”는 제주도만의 속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만덕은 치부 과정에서 주변인들과의 마찰이 일정 부분 게재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만덕전>에서는 축재의 세밀한 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설령 부정적 방식으로 재산을 모았던 과정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만덕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해야 하는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황을 세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쨌든 만덕은 제주에 큰 기근이 들었던 시점에서 큰 결심을 하였다.

그것이 만덕의 평소 생각이었는지, 갑작스러운 심경의 변화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당시 그 누구도 생각하기 어려웠던 용단을 내렸던 것이다.³⁵⁾ 그리고 이 자선과 나눔의 봉사 정신을 통해 만덕은 우리 역사상 여성으로는 최초이며 유일한 기록으로 靑史에 길이 남게 되었다. 만덕은 지역사회를 구하기 위해 재산을

34) 주 23) 참조.

35) 濟恭 『樊巖集』 第55卷 <萬德傳> “於是萬德捐千金買米 陸地諸郡縣棹夫以時至 萬德取十之一以活親族 其餘盡輸之官 浮黃者聞之 集官庭如雲 官劑其緩急 分與之有差 男若女出而頌萬德之恩 咸以爲活我者萬德”(이에 만덕이 친금을 내어 육지에서 쌀을 사니, 여러 고을의 사공들이 때에 맞게 이르렀다. 만덕은 사가지고 온 십분의 일을 취하여 친족을 구휼하고, 나머지는 모두 관청에다 실어다 바치니, 굶주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관청의 뜰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관청에서는 굶주린 정도에 따라 백성에게 골고루 쌀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남녀 모두 나와서 ‘우리를 살린 이는 만덕이다’라고 하면서 은혜를 칭찬했다.)

사회에 환원한 인도주의자라는 평가와 함께, 가부장적 권위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몸소 자선과 나눔을 실천한 우리 사회의 진정한 귀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5. 맺음말

본고는 채제공이 지은 <만덕전>에 나타난 여성성을 중심으로 작품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우리 역사의 여성 인물 중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덕의 삶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불굴의 자세로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었다. 또한 여성 경영인으로서 빈민 구휼을 몸소 실천하여 후대인들에게 모범적 삶의 지표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덕전>을 지은 변암 채제공은 영·정조 대의 재상으로서 <만덕전>을 지어 선행을 통해 인간애를 구현했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행실을 만백성에게 알리고자 했다. 비슷한 시기에 많은 사대부들이 만덕을 칭송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덕행을 실천한 만덕을 통해 많은 백성들이 본보기로 삼기 바랐던 변암의 의도에는 작품을 통한 교화의 측면이 저변에 깔려있다. 유교적 통념이 윤리규범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던 조선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었던 여성 인물이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갖추었음은 전무후무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요컨대 작가 채제공은 윤리의 실천적 지향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덕전>을 편찬하였던 것이다.

둘째, <만덕전>은 만덕의 삶에 관한 성공담이다. 기녀에서 평민으로, 경영인으로, 자선사업가로 변신을 거듭한 만덕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

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만덕전〉은 주인공 만덕이 소원을 성취하는 일련의 과정이 인과 관계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즉 시련을 극복하고 성취해 나가는 주인공의 성공담이 점층적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傳이 실제 삶을 기초한 사실담을 기록한 문학이지만, 〈만덕전〉에서 보여준 만덕의 삶은 허구성을 바탕으로 한 소설보다도 더욱 극적인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조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도 만덕의 성공담에 견줄 만한 여성의 삶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처럼 만덕은 가장 역동적인 삶을 보여주며 전형성의 틀을 깬 한국 여성의 새로운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셋째, 만덕은 조선후기 근대적 여성상을 보여주며 사대부 가문의 여성 조차 이를 수 없었던 사회적 성취를 이루었다. 그녀는 도전과 개혁의 적극적 여성상, 경제 활동과 부의 축적, 자선과 나눔의 봉사 정신을 통해 한국의 역사적 여성인물에서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 주었다. 변신을 거듭하며 당대 기득권자였던 남성도 이루기 어려운 업적을 쌓았던 만덕은 진취적인 여성상을 제시한 모범적 사례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으로서 상대적으로 차별받았던 조선 사회에서, 만덕은 적극적인 여성성을 통해 운명의 굴레를 벗어던진 인물로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브리태니커. 『브리태니커백과사전』, 2007.
- 강영경 외, 『한국역사 속의 여성인물』, 한국여성개발원, 1998. 133~137쪽.
-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96. 1~56쪽.
- 남만성, 「번암집 해설」, 『한국명저대전집』, 대양서적, 1975, 1~26쪽.
- 박무영·김경미·조혜란,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들베개, 2004, 192~209쪽.
- 박희병, 『조선후기 傳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3, 85-125쪽.
- 윤수민, 『조선의 여성상인 김만덕』, 창해, 2009, 15~583쪽.
- 이신복, 「채제공의 〈만덕전〉 연구」, 학문학논집 12집, 『근역한문학회』, 1994, 633~649쪽.
- 정미숙, 「채제공과 이옥의 여성전 연구」, 어문학교육 15집, 『한국어문교육학회』, 1993, 159~206쪽.
- 정창권,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 푸른 숲, 2006, 16~243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사업사, 1994, 87~94쪽. 조수삼 지음·허경진 옮김, 『추재기이』, 서해문집, 2008, 182~187쪽.
- 주명희, 「傳의 연구방향」,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9, 324~334쪽. 차용주, 『한국한문소설사』, 아세아문화사, 1989, 18~54쪽.
- 최준하, 「번암 채제공의 전 문학 연구」, 어문연구 24집, 『어문연구학회』, 1993, 305~318.
- 최해진, 『경주 최부자 500년의 신화』, 뿌리 깊은 나무, 2006, 13~254쪽.
- 한국고소설학회 편, 『한국고소설론』, 아세아문화사, 1991, 53~71쪽.

아름다운 삶의 여정

- 몰 폴란더즈와 김만덕을 중심으로 -

손 달 례*

I. 그들은 여성이었다.

시몬느 드 보봐르(Simone de Beauvoir)는 「제2의 성(*The second Sex*)」에서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길들여진다고 썼다. 여기에서 밝히고자 하는 두 여성, 17세기의 영국 여성과 조선시대 제주기생 김만덕은 그 시대의 철옹성 같은 여성의 운명을 극복해서 잘 살아낸 장본인이며, 김만덕은 존경받는 인물로 후대에까지 명성을 남긴 여인이다.

두 여인은 나라와 시대가 다르지만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해서 그 나름대로의 성공을 이룬 점에서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먼저 몰 폴란더즈의 일생부터 살펴보면, 『몰 폴란더즈』(*Moll Foanders*)의 저자 대니엘 데포(Daniel Defoe)는 1697년 『입안서(*An Essay Upon Projects*)』에서 여성 학원의 설립을 주장하며 “여성들에게 말하는 예절, 대화법, 음악, 무용뿐 아니라, 불어, 역사 등에 관한 교육도 전개하고 특히 역사에 관한 책을 읽도록 하여 세계를 이해하는 안목을 넓혀야 한다(Sutherland 재인용 175)”고 주장하리만큼 그 시대에 여성들이 법적으로

* 부경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여성의 권리를 위한 조직적인 운동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이처럼 생각한 바를 소설 형식의 스토리로 표현하여 사회에 고발했으며, 우리는 이것을 데포의 문학이라고 한다.

“문학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불평등의 정체를 밝히고 모든 억압의 정체를 밝히는 일관된 노력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모든 것이 체제화 되는 것을 경계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신의 힘을 길러왔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의 소설들이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김치수 107). 영국 산업사회의 발달로 중산층이 확장되고 따라서 여성 독자층이 차츰 증가한다.

산업사회와 소설의 변화에 있어서, 현대의 문학사회학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소설의 짧은 역사(대개 18세기를 근대적 의미의 소설의 출발로 봄)는 산업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실상 유럽의 산업사회가 부르주아 혁명(프랑스혁명)과 더불어 대두되고 번창하였다고 한다면 소설문학도 바로 그러한 부르주아 혁명과 함께 강력한 문학양식으로 대두되어서 부르주아우리가 지배하던 19세기에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설문학이 대두되기 전에는 서사시나 운문으로 된 희곡이 문학예술의 대중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부르주아 혁명 이전의 사회적 체제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김치수 44).

미국교도였던 데포는 당시 국교도를 우롱한 풍자의 극 『미국교도를 없애는 지름길(The Shortest Way wit Dissenters)』을 쓴 죄로 뉴게이트(Newgate) 감옥에 수감되었고 3회에 걸친 죄수 생활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누구보다도 다양한 삶의 영역을 체험케 했는데, 특히 수많은 동시대의 사건들과 경험이 문학적 소재로서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데포가 이용한 소재는 당시 문학적 모델에 비추어 볼 때 독자적이었기 때문에 선구적이거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형학과 전통적이고 군사적인 기록들, 사회학적 소책자, 가정사 기록서, 범죄자들의 전기, 기억할만한 천재지변 기록서와 다른 초자연적 사건 등을 참조했다고 말할 수 있다.(Mckillop 9)

조지 에이트컨(George A. Aitkon)은 오랜 탐구 끝에 데포의 소설에서 몰 플란더즈는 실존하는 어떤 죄수의 삶의 소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언젠가는 그 인물의 정체가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당시 데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여자 죄수의 실제 경험 미담에서 이 소설을 창안했던 간에, 그 시대에는 몰(Moll)의 인생 같은 죄수의 자서전 따위는 인기를 끌지도 못했고 누구도 즐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 시대가 어려웠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의 얘기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Kelly viv-ix). 18세기 중반을 훨씬 넘어서서야 죄수나 도둑의 고백서 같은 서간들이 읽혀졌다고 한다. 이것 역시 데포가 창조한 주인공의 컨셉이 공헌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몰 플란더즈의 인물이나 행동양식은 영적 자서전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한 스타(G.A Star)와 같은 학자도 있다. 그는 “영적 자서전은 17세기 영국에서 형식적으로 신앙을 배척한 퓨리탄들의 생활 신앙 운동에서 비롯된 일기 형식의 반성문이었다”라고 말한다(126). 종교 개혁의 일환으로 이 운동은 개인의 영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데서 시작되어 자신의 생활과 사색의 과정을 신앙적인 기준에 따라 반성하고 기록해 두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돌려 보기도 했다. 자신의 영혼의 구원은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전제하에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혁신하는 기회로 삼았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영혼을 최악에 몰들지 않게 보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일상의 작은 일이라도 기록하고 반성하는 일은 개인의 중요한 의무였다.

내가 지금 생각을 거듭한다면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 슬프도다. 그것은 다만 아주 작은 반성에 불과하다. 나는 오만과 허영의 억제되지 않은 삶의 태도로 살았으나 보상의 삶은 거의 없었다...이와 같이 해서 조금의 자제 없이 파멸의 신세로 쉽게 내 자신을 포기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젊은 여성들이 그들의 허영을 그들의 겸양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좋은 본보기이다.(47)

몰이 자신의 허영과 오만의 결과로 파멸을 자초한 것처럼 후회하고 있지만 그녀로서는 선택의 의지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몰 플란더즈』의 작품 형식은 주인공 몰의 성격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몰은 야망과 자존감을 가진 여자이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자신이 태어난 신분과는 거리가 먼 귀부인이 되기를 열망한다. 18세기 영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위치에 의존했다. 리처드 스틸(Richard Steal)은 “모든 여자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것은 딸로서, 자매로서, 아내로서의 역할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Katharine M. Rogers 7). 몰과 같은 하류 계층의 미혼여성에게는 가정부일, 바느질, 아기 돌보는 일 등 힘든 일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풍족한 재산으로 편하게 사는 “귀부인”에 대한 열망이 그녀의 의식 속에 자리잡은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몰의 이 같은 바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부가 되겠다는 말로 오해를 불러 일으켜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더욱이 그녀에게는 도와줄 친구나 친척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재정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지위를 결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은 계급 상승의 기회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되어왔다.

[...] 그러나, 나는 이미 그 귀부인네들의 집에서 고상한 생활을

경험했다. [...] 그래서 나는 숙녀가 되는 것이 정말로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왜냐면 나는 이제 숙녀에 대해서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다.(14)

몰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사회에서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여성의 자립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고, 사실 그 당시에 여성의 노동으로는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정도였으므로 몰의 신분으로 귀부인의 시중을 드는 가정부의 역할을 수행해 생계를 이어가는 그 생활을 하면서, 그녀는 여성의 신분 상승의 과정이랄까, 아니면 고리같은 법칙을 터득하게 된다. 왜냐면 그녀는 고아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방법을 택하려고 하지만 세상은 동화처럼 펼쳐지는 건 아니었다. 즉, 상류층 부인들의 생활을 맞본 그녀는 ‘귀부인(gentlewoman)’이 누리지는 경제적 안정은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결혼을 통해 남편에게 예속됨으로써 얻는 대가란 걸 알게 된다.

그 다음 그녀가 범죄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은 은행원의 파산과 뒤이은 죽음 때문이었는데 그녀는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뼈저린 인식과 굶주림에서 두려움으로 절도라는 불법적인 생활 수단의 처지에 이른다. 그래서 그녀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데 대한 자책으로 갈등을 겪고 다시 한 번 스스로 노동하여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동안 나는 새로 시작했던 사악한 거래를 그만두고, 내가 일거리를 얻을 수단 있다면, 기꺼이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을 것이다.(15)

그러나 몰에게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파란만장한 삶의 주인공 몰은 5회에 걸친 결혼, 한번의 정부(mistress) 생활로 12명의 아이를

출산했지만, 그들에 대한 관심은 소홀히 하고 있음이 들어난다. 그녀는 첫 남편이 죽은 뒤 아이들을 남겨놓고 새 생활을 찾아 떠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당시 사회의 관습은 남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남편의 죽음 후에도 미망인은 남편이 아이의 보호인으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아이를 양육할 권리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몰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고 따라서 아이에 대한 애정을 소홀히 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강한 개인주의는 거의 완벽하게 이기주의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그녀는 이렇게 자신을 파악하는 데 영리하며 적절하게 인간성을 잘 사용한다. 오직 그녀의 기본적인 본능은 생존을 위한 것이고 용기와 그녀 나름대로의 지혜도 그런 상황을 극복해 가려는 노력이다.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도 아래와 같이 지적한다.

그의 위대한 소설의 도입부에서 그는 남녀 주인공들에게 쉽게 헤쳐나가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상황과 싸워나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았다면 그들 자신의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17)

버지니아 울프도 얘기했듯이 소설이란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이야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설가는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설가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앞에서 이야기한 주인공을 상징하지 않고는 이야기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란 인물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인물의 이야기란 그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유위변전의 사건을 자초지종 보고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잃어버린 환상」이란 소설에서는 뤼방 프레를 중심으로 한 어느 집단사회의 유위변전을 이야기 하는 것이며, 『보바리

부인』이란 소설은 마담 보봐리의 인간적 모험과 고통과 생애를 이야기 해 준다. 이 위대한 소설은 그럴듯한 유위변전을 발명해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작가는 그 모험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고 작가는 그 사건의 증인이었음을 나타내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독자와 작가 사이에는 하나의 목계가 성립한다. 즉 작가는 자신이 이야기 한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척하게 되고, 독자는 모든 것이 꾸며낸 것임을 잊을 것이다”(김치수 316).

이런 논리와 같이 데포는 뉴게이트에서 한 여자를 만나 그녀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다. 그녀가 바로 몰 플란드르이며 작가 데포의 손에 의해서 소설의 주인공으로 탄생하게 된다. 불평등함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데포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 어떤 처지에서든지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했을까. 이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용감한 삶의 자세가 아닐까 한다. 소설은 작가의 주관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몰의 삶에 있어서 부도덕과 비윤리적이란 말은 부당할 뿐이다. 살아야 된다는 명제는 그녀에게 있어서 목표일 뿐이다. 그 시대 하층 여인들이 받는 사회적 대접은 모두가 부당하다는 말밖에 어울리는 말이 없다. 그 상황에서 몰은 자립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만 했다.

그 시대의 사회를 조명해준 앙드레 모로와가 쓴 『영국사』에서 18세기의 영국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라고 가르치던 시대에 영국의 도시민이나 농민이 봉건시대의 귀족처럼 군대의 힘조차도 갖지 못한 지주, 귀족계급의 권위에 아무 저항 없이 복종한 이유가 궁금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첫째로 영국인은 추상적 권리보다도 구체적인 현실을 더욱 중시하는 데 기인했다. 프랑스인은 사상을 더욱 중요시했기 때문에 로크의 낙관주의의 영향도 영국보다 프랑스에서 더욱 심각했다. 로크의 시대에는 영국에는 크게 불만의 원인이 없었다는 사실도 들 수

있다.

영국민은 그들의 지방제도가 난점이 있어서 효율적이고 무던한 제도라는 것을 알았다. 치안판사는 의회를 통과한 법률을 시행과정에서 적당히 완화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유일한 경찰력이 촌락의 순경뿐인 시대에 교구민의 동의 없이 그들에게 법률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 치안판사가 무력했으므로 그의 판결도 비교적 공정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부랑인이나 밀렵자는 위험한 증죄인으로 다뤄졌다. 그러나 지주들은 자기 땅에 살면서 정직한 농부를 존중했다. 유능한 농사꾼인 영국의 지주들은 그들의 목동과도 친밀한 사이였다. 개인적 인간관계가 행정적 관계보다 우위였다. 18세기 영국은 개인적 친근에 의해서 완화된 과두정치였다.

대륙에서는 걸핏하면 모욕을 당하는 상인 계급도 영국에서는 긍지를 지킬 수 있었다. 귀족과 자수성가한 평민은 서로 간섭하지 않았으나 혼인에 의해서 그들의 가족은 서로 연결되었다. 이런 종류의 혁명이 가장 어려우니 혁명이라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영국에서는 수세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다. 예를 들면, 은단추를 단 윗도리에 가발을 쓴 지주, 사냥개,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가족식-이런 것은 시골사람들 눈에까지도 비친 영국 생활의 전형적 모습이었다. 도회지로 이주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일인 것이다. 18세기에는 장원의 생활이나 오두막의 생활이나 양식이 비슷한 것을 보고 그들은 만족했다. 공장의 가정에서는 여전히 수련공을 가족의 일원으로 알았다. 어느 스위스 여행자는 이렇게 썼다. “영국의 요소는 귀족, 상인, 성직자와 다같이 비슷한 쾌락을, 그리고 똑같은 덕과 악덕을 지니고 있다.”(모로와 재인용 107~108)

영국 사회는 모가 나지 않은 동글넓적한 데가 있었다. 또한, 동시대의 하층 계급에 대한 알렉산더 스미스(Alexander Smith)의 「앤 홀랜드, 소매치기」(Anne Holland, a Pick-Pocket)라는 글에서 여주인공의 태생에

대해서 예쁘고 똑똑하게 태어난 불우한 여성은 행복보다 불행의 늪이 더 가깝고 타락한 생활에 젖어들게 된다고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 불우한 피조물은 매우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젊은 여인으로 맑은 피부와 균형 잡힌 외모, 반짝이는 눈매,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과 예쁜 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악의 소굴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자 이러한 모든 타고난 아름다움은 그녀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었다. 썩은 고기조각을 먹기 위한 많은 까마귀 떼처럼, 추잡한 남자들이 그녀 주변에 몰려들었고, 그녀의 큐피드의 깃발 아래로 들어와 그들의 욕정을 채우려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아예 직업적으로 남자를 받아들이게 되고 방탕함의 각 단계들을 밟아나간다. 일단 순결한 여성의 의무를 저버리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견잡을 수 없어진다. 따라서 그녀는 가장 과렴치한 여자로 전락하게 된다. (301)

두 사람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데는 큰 안목으로 매듭지어 몇 가지 이유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불우한 환경에서 딸로 태어났다는 점이다. 둘째, 누구의 지원이나 가르침 없이 자발적인 의지로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는 점이다. 셋째, 신분 상승을 위해 노력하면서 자기 철학과 관점을 가지고 삶을 영위했다는 점이다. 넷째, 자기의 노력으로 이룩한 삶의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이끌었다는 점이다. 그러면 김만덕이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디 출신인가.

김만덕은 1739년 태생이므로 이름이 없었으리라 추정되지만, 정비석은 기녀열전에서 김만덕의 부친이 선견지명이 있어 만덕이라 이름을 지었다 한다.(21세기에서 다시 보는 김만덕 105) 만덕이란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 애당초 조선의 평민여아에게는 이름이 없었고 순수 토박이 딸로 갑돌(순), 정월이, 불드리 등이었는데 김만덕도 어렸을 적에는 이름이 없었다고 보여지며, 기적에 올릴 때 만덕이라는 기생 명으로

이름이 올려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록에서 ‘濟州妓萬德’은 바로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하고, 채제공의 만덕전에서도 官附籍萬德名妓案이라 하여 만덕이란 이름으로 기적에 올렸음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김석익은 탐라기년 정조 19년 조에서 행수 김만덕이라 하여 기녀라는 말을 뺏을 뿐 기녀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저런 기록의 설명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만덕은 가난 때문에 기녀의 딸이 되었다가 기적에 만덕이란 이름을 올렸고, 어떤 계기로 양인이 되어 기민을 구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녀라는 직책으로 왕을 배알한 셈이 된다. 여기서 신분이 낮은 인물인 여성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 빈민을 구했다는 사실은 당시 지배층의 사고로는 납득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 평가되었기에 그녀는 충분히 문학화할 수 있는 소재라고 여겨진다.

그녀의 출신 성분과 신분 상승의 기록에 대한 사실의 진실성을 두고 논란이 있다. 실록은 객관적 사적의 객관적 기술이 정당하다. 그러나 문학은 감동과 흥미성을 가미하므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실록의 만덕에 관한 기술과 만덕전의 기록 사이에 사실과 허구라는 요소의 개입을 상정하는 근거가 된다. 채제공의 만덕전에서는 기생이었던 신분이 양인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게 제시되지만 실록에서는 임금이 그의 공덕을 보고받고 적절한 포상을 한 점이 강조되어 있다.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양인이든 기녀이든 구출을 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표현이다. 누구든 백성이기에 이는 지배층의 치국관을 드러내는 것이다.

채제공의 만덕전에 따르면, 만덕은 탐라의 양가집 딸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의지할 데 없어 기녀에게 몸을 의탁했다. 나이가 들면서 관의 기적에 이름을 올리고 기녀일을 했으나 본인 스스로는 기녀라 생각하지 않았으며, 20여세가 되어 관에 흡수하여 관기에서 삭제하고 양가의 딸로 돌아왔다고 한다.(21세기에서 다시보는 김만덕 103)

조선조 신분체제는 양친, 사서, 사농공상으로 구분하고, 신분제도는

치자 계층과 피치자 계층의 2분법으로 나뉜다. 양반은 치자계층에, 중인, 상민, 천민은 피치자 계층에 속하며, 천민은 노비, 광대, 무당, 창기, 백정 등이 속했는데 만덕이 기녀였다면 천민이었고, 기적에서 벗어나 양인이 되었다면 상민이 되었다는 뜻이다. 서양(물 플란디즈의 물과는 달리)의 신분 상승 제도보다 매우 엄격한 경우이다. 기녀는 노비와 마찬가지로 한번 기적에 올려지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가령 양반과 혼인하더라도 그 자식은 천자수모법(賤子隨母法)에 따라 아들은 노비, 딸은 기녀가 되었다.

기녀의 신분은 관아에 예속된 채 세습되었다. 대를 잇는 기녀 외에도 일반 백성이나 양반의 자식이 기녀가 되기도 하였는데, 흥년이 들어 가족이 흩어질 때 흔히 여자들이 기녀로 팔려갔고, 역적 집안의 여자들이 강제로 기녀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은 굶어죽는 판에 무슨 일인들 못할까 하는 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재인용, 조선시대 기녀 제도 104) 여기에서 물과 김만덕의 공통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김만덕은 집안이 자기에게 베푼 것은 없어도 자기가 기생이 되어 집안에 누를 끼친다고 생각되어 관리로 있을 때의 인맥을 활용하여 기적에서 자기 이름을 삭제하고 난 뒤 양인의 신분이 되어 장사를 시작한다. 장사 초기에 갖은 수모와 곤란을 겪지만 관기 때의 인맥에 손이 닿아 제주의 양반가 여인네와 교방기녀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다. 많은 한량들이 길을 가르쳐 주고 도와주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의 됃됨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뛰어났다. 당시 제주에는 농민들이 농촌에서 이탈하여 전전하는 날품팔이가 많았다.(조선의 큰상인 김만덕 88) 만덕은 그들 중에서 사람을 선택하고 객주에 고용했다. 제주관기로서의 경험과 인맥, 시세를 잘 맞추는 큰손으로의 배포는 곧 만덕을 천냥부자로 만들었다.

II. 삶이란 극복해야 할 문제였다.

데포는 한 때 파산한 경험이 있으며, 채무자로서 법 집행인의 추적을 받았던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하여 범죄를 저지를 것인가, 굶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양자택일에 직면한 18세기의 억압받는 계층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여기에서 작가는 불쌍한 여인 몰을 등장시켜 그 시대 상황과 그 여인들이 살아가는 비참하리만치 우여곡절의 삶을 고백하고자 했을 것이다. 몰은 작가가 만난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또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삶을 헤쳐 나가도록 만든 주인공일 수도 있다. 몰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슬퍼하면서도 거기에 빠져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자립하는 데 불리했던 모든 사회제도나 불합리한 관습을 거부한 사실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몰은 충분히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여야 한다.

주인공 몰은 부딪치는 모든 문제가 여성에게 어려움만을 주는 그 상황에서 결혼만이 자신의 위치를 보전케 하는 것임을 안다. 결혼이 아니면 돈이나 재산인데 그 재산의 획득도 결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터득하게 된다. 한편 도움을 받을 친구나 친척 하나 없는 몰은 2번째 결혼의 실패에서 남편의 채권자들이 자기를 찾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빈민들의 구제 장소인 민트(Mint) 지역으로 가게 된다. 그 곳에서 몰은 과부로 위장하며 플란더즈 부인(Mrs. Flanders)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은 두 번째 포목상 남편의 떠남이 세상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환상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낭비가 심하고 방탕한 이중인격의 인물인 남편이 몰에게 빚만 남긴 채 또 그녀의 재산을 낭비시킨 채 떠나게 되자, 궁핍해진 그녀는 많은 돈에 의하여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 결정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돈이 있는 부유한 사람만이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게 성숙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은 깨달음을 문장으로 묘사해서 사회를 비춰보는 것을 문학이라고 하면, 문학이 이미 알고 있는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정해진 방법으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이 삶이나 세계의 정체를 새로운 문학을 통해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여성해방운동을 소설의 테마로 삼으려는 것과 같은 새로운 노력은 그것이 곧 문학의 새로움에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작품에서 새로운 요소를 읽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김치수 107)

강인한 인성의 주인공 몰은 또한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경우 여자에게서 거절을 당할 때 남자는 다른 여자를 찾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 여자는 최소한 자신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조차도 허용되지 않음에 분노를 느낀다. 한편, 몰은 자신을 너무 쉽게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선장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한 젊은 부인을 도와주기도 한다. 남성에 대한 복수의 감정으로 술선하고 앞장서는 여인 몰은, 그런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또한 여성들이라는 생각에 심한 갈등을 느끼며, 스스로 남성들의 무례하고 불합리한 행동에 주저하면서 포기한다면 값이 떨어지는 행동이란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녀의 이런 주장은 테포의 여권 의식이라고 본다.

나는 한 불한당에게 복수하려는 상처받은 한 여인을 도와주었다. 내가 생각한대로 그녀에게 충고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비친 한 만큼, 경멸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이기로 했던 한 남자는 오직 그 자신의 기분에 도취되어 나의 기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기쁨만을 이는 남자란 걸... 여성은 결코 그녀를 나쁘게 취급했던 한 남자에 대한 복수를 할 기회를 원할 수 없는 것... 아니면 확실하게 여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54-55)

데포를 의식적인 아이러니의 작가로 보고 있는 와트(Watt)는 작가가 몰이 사랑하는 애인과 자신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이중의 충족을 숨기고 있는 몰의 궤변을 폭로하고 있지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 궤변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데포 자신이 희생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 작품은 아이러니의 대상이지만 작품 자체가 아이러니의 작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작가가 의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아이러니가 조금 있지만 몰의 행동에 독자들이 재미있게 생각되는 모순된 행위가 과연 작가에 의해 의도된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유추해가며 읽으면서 데포의 여권의식을 추측한다.

나는 나의 참담한 환경을 씹으며 계속 울면서 이 우울한 처지를 2년동안 죽지 못해 살았다. 마치 죽음의 피를 흘리는 것처럼 신이나 인간으로부터 도움 받을 희망이 전혀 없이 울부짖으며 지냈다. 때로는 그 눈물이 다 말라버렸다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빈곤한 처지로 빨리 몰락해 갈 것이라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다. (149)

은행원 남편이 죽은 후 홀로 2년간 자신의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살아가는 몰은 굶주림의 공포 앞에서 있는 자신을 인식하게 됐다. 몰의 다양한 결혼에서 보았듯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하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큰 문제로 항상 대두된다.

더욱 여성이기 때문에 더 필연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것도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녀가 잘 생기고 훌륭한 태도나 우아한 행동을 갖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할 때는 오로지 재산과 물질에 자신이 선택되어진다는 사실은 또 하나의 사회적인 장벽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몰의 진정한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전망이 보였다면, 나는 결단코 이러한 사악한 직업,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런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158)

그녀는 절도 행각을 계속해 나가면서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느낀다. 그녀가 체포되어 뉴케이트에 보내질 때까지 많은 돈을 모으게 된다. 그 후에도 그 생활을 단념하지 못하는 몰의 태도를 채버(Chaber)는 인간의 탐욕이 자기의 행위를 능력으로 믿도록 충동하는 것(223)이며, 레른 바움(Leren-baum)은 몰의 이런 행위를 어머니로서의 사회적 역할의 상실에 대한 보상 심리의 결과이며, 정서적인 성취감 내지 만족감으로 보여지며 그리고 그 만족감은 삶에 끊임없는 활력을 제공받는 행위로 파악했다.(115)

그 이후 몰은 감옥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가 돈을 써서 사형을 면한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주지 못했으므로 신대륙으로 유배당하는 배를 타게 된다. 그리고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에서 결혼도 하고 재산도 모은다. 이미 당대의 영국은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해 모든 대상에 대해 소유가 강조되어 돈이면 무엇이든 지 된다는 황금만능주의 시대가 된다.

감옥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의 도우미(governess)의 주선
에 의해 사형은 사면을 받고, 특사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가진
돈은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내가 한 푼도 없게 되면 또 다시 발가벗는 신세로 내몰려지리라는
걱정 때문에.(239)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몰의 태도를 데포가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이 소설에서 마주하게 되는 “해결책”을 말하지 않는 공간은 선의 양가적인 특성과 관계가 있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지배적인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내에서 저자가 증후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태도와 일정 정도 공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태도, 이것은 차연(differance)과 연관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언어적인 동시에 화폐적 기호 사이의 관계를 교환 관계로 주목하게 함으로써 어원론적이고 인식론적인 이분법과 연기를 관찰하게 만든다. 이것이 우리가 결론부에서 이 텍스트 속에 숨겨져 있는 “비해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서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

데포가 물 플란더즈의 선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그의 편집자 서문이 제시하고자 하는 바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은 정확히 당대의 이데올로기 속에 함몰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지은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녀가 올바른 사고를 하도록 이끌기 이전에, 그녀는 이미 범죄의 한계를 위태롭게 넘나든다. 그녀가 처한 역경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물은 자신의 거래에서 이미 손을 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만약 물 플란더즈에게 도덕이라는 것이 있다면, 상품 물신주의라는 것이 인간을 사물과 대체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물이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한 번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자본의 관계에서 인간이 정확히 물신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물은 자신의 자유를 믿는다. 그리고 문제는 이 믿음에 있다. 주관적 관점 바깥으로 나가서 그녀는 물신주의에서 단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지만, 그녀는 자유를 믿었다. 물은 화폐가 상품이라

는 것까지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녀의 삶을 구조화하는 것은 자신이지, 바로 화폐 주도의 경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물의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이데올로기를 보다 강화하고 그녀의 삶을 보다 한계로 몰아넣게 된다.

Ⅲ. 노력하는 인간에겐 살 길이 열렸다.

데포는 당대 사회에서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소외자(outsider)였기 때문에 불평등을 보는 남다른 안목을 가질 수 있었고 힘있게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글 속에서지만 1697년에 발표한 「입안서」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성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느님이 여성을 단지 우리들 집의 집사나 요리사,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남성과 똑같이 재능 있는 영혼을 지닌 그토록 정교하고 훌륭한 피조물로 창조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나는 이처럼 대담한 주장을 하고자 한다. (Sutherland 재인용 36-38)

그는 당대의 남성 문필가로서는 드물게 당대 여성의 삶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즉 남성과 여성은 신에 의해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당대 사회에서 당연시되었던 남녀의 차이란 실제로는 우연한 것이며 그것에서 파생된 불평등은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며, 여성이 당하고 있던 불평등의 모습을 보여주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다.

우리 모두를 창조한 전지전능한 분은 그가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

에게 동등하게 능력과 자질을 부여했고…게다가 인류에게 나타난 큰 차이점은 그들의 신체조직에서 오는 우연한 차이이거나 또는 우둔한 교육의 차이에서 오는 수도 있다. (Sutherland 재인용 36-37)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능력은 동등하다는 전제하에서 여성에게 고급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했다고 본다. 정말 그가 창조한 주인공 몰은 자기의 지혜를 굴려서 어떤 난관에서도 돌파해 나가는 용기와 인내성을 발휘한다. 그 용기가 비록 그 시대가 정한 제도나 법률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생존이라는 대원칙에 충실한다. 우리의 생명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존귀한 것임을 몰이 실천하도록 이끌어간다. 진정 삶은 아름다운 여정임에 틀림없다. 비참하고 구차스런 삶의 여정이라도 살아가는 방법에 달려 있다. 창조자의 눈으로 보면 열심히 살아가는 인간에게 길을 제시해 주리라 생각한다.

주인공 몰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골드만의 표현을 빌면 “소설의 주인공은 문제점 주인공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범죄자이다. 왜냐하면 그는 절대적인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그걸 절대적인 가치들을 언제나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골프만, 「루카치의 초기론에 관한 서론」 김치수 43. 재인용)라고 하는 논의를 펼치면 분명한 것은 그의 소설의 특색이라기보다는 오늘의 소설의 특색이 그러한 것처럼 소설의 결말이 화해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서사시가 주인공과 세계 사이에 간격이 없었던 문학 양식인 반면에 소설이 주인공과 세계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을 가진 문화양식임을 말하는 것이다.(김치수 66)

또 다른 얘기는 포스터(E.M. Forster)의 『소설의 양상(Aspects of the Novel)』에서 들을 수 있다. “만일 창조주가 세상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했다면, 세상은 소설 같은 허구로 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 평가하기도 했다.

그 한 작은 예를 들자면 물 플란더즈를 쉬운 인물로 내세울 수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책 한권을 가득 채울 수 있으며, 그 책 속에서 홀로 승승장구하며 흡사 공원 속의 한그루의 나무처럼, 독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고 결코 다른 조건에 방해받지 않는 인물이다. (57)

물의 또 다른 특성은 자기 방어적인 생각과 보편적인 도덕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뇌에 빠지는 경우는 없다. 부도덕한 책임은 모두 절박한 상황이나 상대에게 돌리면서 자기는 피동적으로 따라간 자의 위치에서 최소한의 도덕적 반성의 순간을 갖기는 한다. 작가는 이런 점을 서문에서 제시하고 있다.

근본적인 것은 매우 엄격하게 부착되어 있다. 이 소설의 어느 부분에서나 악한 것은 없다. 그러나 처음이나 끝이 불운하고 불행한 것으로 된다. 소설 형식으로, 이 책의 이런 취지가 독자에게 전달되고,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확실한 종교적인 추측이 가능하다. 용서를 바라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추측 과정에 의해 독자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5)

이러한 작가의 말은 주인공이 자신의 비행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태도가 애매한 데 대해서 당시 청교도 사회로부터 예상되는 비난에 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주인공이 깊은 도덕성을 추구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서문에 제시한 말처럼 독자를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시범이 될 만한 후회나 반성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

물의 몇 번의 결혼 중에 서로 모르는 관계로 이복 오빠와 이루어진 결혼은 놀라고 충격을 받기는 하지만 모르고 한 일은 어쩔 수 없었다는 위안의 탈출구를 찾아나서는 것은 자기 합리화의 표본이기도 하다. 그녀는 도덕성보다는 현실적으로 살아남는 문제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주인공이 범행이나 비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이나 참회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가레스크 소설의 피카라와 같이 보는 평자도 있다 (Guilen 93, 유명우 재인용)

일인칭 화법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로 구성되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며, 주인공은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떠돌아 다니면서 여기서 이런 일, 저기서 저런 일을 겪고 저지르며 이야기는 진행된다. 그러면 몰이란 이 여성은 영원히 구제불능의 인물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면모가 있으나 삶의 무게에 눌리어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고 재고해 보면, 이 작품의 끝에서 몰은 자신의 현재를 과거로부터 떼어내기 위하여 과거의 악했던 모든 것을 인정하며 벗어 버리고자 한다. 뉴케이이트에서의 참회의 경험이 그녀를 분석함에 있어서 참회자로 규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그래도 그녀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최고 가치인 돈에 대한 열망과 안정된 삶에 대한 열망은 그녀의 삶이 존속되는 한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삶의 한 태도이다.

사회의 태두리가 다르고 개인의 능력과 활동범위가 다른 관계로 조선의 김만덕은 영국의 뉴케이이트 출신 몰과는 다른 범주를 개척했다. 본래 출생이 양인이었으므로 자기의 신분을 찾아 거상으로의 능력을 발휘하여 제주라는 특수한 섬의 영역을 이용해 직거래의 장사를 한다. 그리고 그 돈이 보람되게 쓸 기회를 얻게 되고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자선가의 배포를 실천한다. 그 결과로 조정이 포상하는 큰 인물이 되어 오늘날까지 칭송되는 전설적인 자선가의 리스트에 등재되었다. 한 여인은 생존을 위해 인간적인 품위를 누리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그리고 끝내 달성했으며, 조선여인 김만덕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진 것을 흔쾌히 바치는 큰 인물이 되었다. 두 사람은 일생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아름다운 귀결로 이끈 점에서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되었다.

참고문헌

- 김인숙, 정문주. 『제주의 빛 김만덕』. 푸른숲, 2006.
- 김치수, 『문학 사회학을 위하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0.
- 모로와, 앙드레. 『영국사』. 정병조 역. 서울 : 삼성출판사, 1997.
- 엘리자베드, 드루. 『영국소설의 이해와 분석』. 이경식, 이명석, 이재호 공역. 서울 : 탐구당. 1984.
- 유명우. 「피카레스크와 영적 자서전의 만남 - Daniel Defoe의 Moll Flanders에서」. 『호남대 인문사회 과학 연구』 2집, 1995.
- 이경화·백명식. 『구원의 여인 김만덕』. 깊은장, 2005.
- 정창권. 『조선의 큰 상인 김만덕과 18세기 제주 문화사』. 푸른숲, 2006.
- 제주국제협의회 외. 『21세기 제주 사회와 여성』. 오름, 2005.
- Bear, Gillian. 『로망스(The Romance)』 문우상 역.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0.
- Brooks, Douglas. Numbers and Pattern in the Eighteenth Century Novel. London; Routledge, 1973.
- Chaber, Lois A. “Matriarcgal Mirror : Woman and Capital in Moll Flanders”. PMLA97 (1982): 212~26.
- Defoe, Daniel. Moll Flanders. New York: Norton & Company, 1973.
- Donovan, Robert. A The Shaping Vision ; Imagination in the English Novel from Defoe to Dickens. New York ; Cornell UP, 1966.
- Forster, E.M. Aspects of the Novel. London ; Penguin, 1962.
- Kelly, Edward. “Foreward” Daniel Defoe, Moll Flanders. New York ; Norton & Company, 1973. vii-ix.
- Langland, Elizabeth. Society in the Novel. Chapel Hill: U of Carolina P, 1984.

- Leren Baum, Miriam, *Moll Flanders: 'A Woman on her own Account'*
The Authority of Experience: Essays in Feminist Criticism Ed.
 Arlyn Diamond and Lee R. Edwards. Amherst : U of
 Massachusetts P, 1977.
- Mckillop, Alan, D. *The Early Masters of English Fiction*. Lawrence ;
 U of Kansas P, 1956.
- Novak, Maximillian E. *Economics and the Fiction of Daniel Defoe*.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62.
- Starr, G.A. *Defoe and Spiritual Autobiography*. New York ; Gordian,
 1965.
- Sutherland, James. *Daniel Defoe ; A Critical Study*. Cambridge ;
 Harvare UP, 1971.
- Watt, Ian. *The Rise of the Novel ; Studies in Defoe, Richardson and
 Fiedlding*.
 Harmondsworth : Penguin, 1983.
- Wilson, Elizabeth. *Women & the Welfare State*. London : Tavistock,
 1977.
- Woolf, Virginia. "Defoe". *Daniel Defoe, Moll Flanders*. New York :
 Norton & Company, 1973.

| 3부 |

김만덕과 상업

- 濟州巨商 金萬德에 관한 研究 - 송병식
-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 - 양성국·김봉현

濟州巨商 金萬德에 관한 研究

송 병 식*

제주여성의 강인한 파워의 원천은 조선후기 여류거상 김만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18세기에 제주에서 태어나 한때 기녀로 전락하였지만 신분의 한계를 극복한다. 평범한 여성의 삶을 거부한 채 비범한 상업적 재능을 발휘해 큰 재산을 모은 김만덕은 재난으로 기아에서 허덕이는 제주 백성을 위해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구호 사업을 실천했던 자선 사업가였다. 숭고한 이웃사랑을 실천한 봉사정신을 통해 그녀는 상도의 모범을 보여준 인본주의자이며, 봉건적 신분의 굴레에 도전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기업인이었다.

본 연구는 김만덕의 생애를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경영사학적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그녀의 업적을 새롭게 평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I. 서론

최근 제주 지역 경제계에서 여성기업인의 파워가 대단하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2)'에서 대표자 남녀별 사업체 수를 살펴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

보면, 전국사업체 중에서 여성기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5.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도별 여성기업인은 서울 30.46%, 부산 38.1%, 대구 34.74%, 인천 35.45%, 광주 37.54%, 대전 37.6%, 울산 44.07%, 경기 34.54%, 강원 41.78%, 충북 37.9%, 충남 35.8%, 전북 37.11%, 전남 38.4%, 경북 38.82%, 경남 39.99%, 제주 42.9%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 지역에서 여성기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적으로 울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주 여성의 강인한 파워의 원천은 조선후기 여류거상 김만덕(金萬德)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18세기에 제주에서 태어나 한때 기녀로 전락하였지만, 결국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 평범한 여성의 삶을 거부한 채 비범한 상업적 재능을 발휘해 큰 재산을 축적하게 된 그녀는 재난으로 기아에서 허덕이는 제주 백성을 위해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는 구휼사업을 실천했던 자선 사업가였다. 숭고한 이웃사랑을 행한 봉사정신을 통해 김만덕은 상도(商道)의 모범을 보여준 인본주의자이며, 봉건적 신분의 굴레에 도전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기업가이다.

본 연구는 김만덕의 생애를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오늘날 경영사학적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그녀의 업적을 새롭게 평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II. 金萬德의 文獻記錄에 관한 考察

1. 김만덕의 행적에 관한 문헌기록

지금까지 김만덕(1739~1812)에 관한 행적을 인정한 공식적인 기록은

정조실록(순조 6년, 1805년 8월 간행),¹⁾ 채제공의 변암집(순조 24년, 1824년 이후 편찬),²⁾ 이가환의 시, 추사 김정희의 은광연세,³⁾ 만덕의 비문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이가환의 시는 그녀가 행한 업적을 시로 표현한 것이고, 김정희의 은광연세도 찬사일 뿐 그 구체적인 사실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정조실록까지도 채제공의 변암집(김만덕전)의 초고 내용을 참조하여 요약할 정도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후에 유재건의 이향견문록(철종 13년, 1862년 편찬), 김석익의 탐라기년(1918년 편술) 등의 문헌 기록도 있지만, 이들도 변암집을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

〈표 II-1〉 김만덕에 관한 문헌기록

시기	저자 및 발행인(연도)	저서 및 논문	출판사 및 기관
제1기 (기록)	정조실록(1805년 간행) 채제공(1824년 편찬) 유재건(1862년 편찬) 김석익(1981년 편술)	정조실록 변암집(樊巖集)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 탐라기년(耽羅紀年)	조선왕조실록
제2기 (설화)	김태능(1971년) 한치문(1973년)	김만덕전(金萬德傳) 만고기인 김만덕여인(탐라실록)	김만덕기념사업회 한진문화사
제3기 (소설 체계)	정비석(1981년) 김태능(1982년) 부영성(1986년) 제주도(1989년) 김봉옥(1990년) 양중해(1998년)	제주기만덕(명기열전) 의녀김만덕(濟州島史論考) 김만덕(구좌읍지) 구원의 여성 김만덕 김만덕전 김만덕의 자선(제주여인상)	신정사 세기문화사 태화문화사 제주도 도서출판 제주문화 제주문화원

- 1) 정조실록에 의하면, “丙寅 濟州妓萬德 散施貨財賑活饑民 特使啓問將施賞 萬德辭 願涉海上 京轉見金剛山 許之 使治邑給糧”이란 42자로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 2) 채제공(蔡濟恭)의 변암집(樊巖集)은 시문총집으로 정조의 어명과 어정법례에 의해 편성된 것으로, 순조 24년(1824년) 이후에 출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14편의 전(傳)에는 만덕의 포상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3)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는 김만덕의 공적에 감격하여 ‘은광연세’ 편액을 후손 김종주(金鍾周)에게 만들어 주었고, 김균(金均)이 물려받았다. 편액의 전문은 “恩光衍世 金鍾周大母 大施島畿 被殊異之恩 至入金剛山 縉紳皆紀傳 歌詠之 古今稀有也 書贈此扁 以表其家”이다.

시기	저자 및 발행인(연도)	저서 및 논문	출판사 및 기관
제4기	김봉옥(2000년)	증보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윤치부(2001년)	인물전에서 나타난 제주 여성의 삶(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제주도(2002년)	제주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제주여성특별위원회)	대영인쇄사
	김찬흠(2002년)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사
	김정숙(2002년)	제주섬, 신화 그리고 여성	제주시
	이덕일(2003년)	이덕일의 여인열전	김영사
	현승환(2004년)	21세기에서 다시 보는 김만덕(21세기 제주사회와 여성)	제주국제협의회
	김경애(2004년)	김만덕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21세기 제주사회와 여성)	제주국제협의회
	(사)김만덕기념사업회(2004년)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 보고서	제주도

따라서 역사적으로 입증된 김만덕에 관한 구체적 사실은 체제공의 변암집(김만덕전) 초고 내용의 기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김만덕의 인물을 재조명하기 위한 연구성과들이 나타나게 되었지만, 일련의 연구들은 체제공의 변암집에 근거하고 있다.

김만덕의 호칭에 대하여 문헌기록을 살펴보면, 정조실록에는 ‘제주기만덕’이라 하였고, 체제공은 본래 관기였었는데 나중에 양인의 신분을 획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석익은 ‘행수 김만덕’이라 하고, 김태능은 ‘의녀 김만덕’이라고 하였으며,⁴⁾ 한치문은 ‘만고기인 김만덕 여인’이라고

4) 김태능(金泰能)은 체제공의 원문과 그에 따른 해석을 가하면서, ① 머리말, ② 불우한 소녀시절, ③ 기생시절, ④ 양녀(良女)로 복귀, ⑤ 식산(殖産)에 전력, ⑥ 정조시대의 흥년 상황, ⑦ 구호곡을 기증, ⑧ 왕의 수이지는(殊異之恩)을 입음, ⑨ 만도(滿都)의 칭송과

붙렸고, 정비석은 ‘제주기 만덕’이라고 칭했다. 이 이외에도 행수내의녀(行首內醫女), 내의원 의녀반수(內醫院醫女班首), 의녀반수(醫女班首), 의녀(醫女), 의인(義人)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구원의 여성 김만덕’을 출간하면서 기업가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 김만덕의 가계에 관한 기록

김만덕의 가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녀의 증조부는 성순(性淳)이고, 조부는 영세(永世)로 응선(應先), 응남(應南), 응신(應信), 응열(應悅)의 4형제를 두었다. 아버지는 응열이고, 어머니는 고씨다. 두 오빠는 만석(萬碩), 만재(萬才)가 있고, 조카로는 성집(聲集)이 있다. 양손인 시채(時采)는 성집의 아들이다.

시채는 종진(鍾晉)과 종주(鍾周) 두 아들을 두었는데, 종주는 헌종 때로부터 철종 때에 걸쳐 제주영리(濟州營吏)를 지낸 사람이다.

종진과 종주의 후손들은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종진의 후손 중에는 구좌읍 덕천리에 김재흥(金才興) 등 일부가 살고 있으며, 서울에 연식, 우식 등이 있으며, 일부는 일본 도쿄의 재길(才吉)과 오사카의 여식(麗植), 주식 등이 있다. 종주의 손자인 고 김동인(金東仁)은 일찍이 경남 김해시로 이주하였는데, 아들 균(均), 철(哲), 승웅(勝雄) 삼형제를 두었다.

현재 이 집안의 본관은 경주 김씨인데, 김만덕의 비문에는 김해 김씨로 기록되어 있다. 본관이 변경된 유래를 살펴보면, 김해 김씨는 크게 분류하여 혈통이 다른 3계통이 있다고 한다. 즉, ① 수로왕의 후손인

만덕전 저술, ⑩ 김만덕 가계의 대략, ⑪ 만덕의 유덕을 추모하자, ⑫ 체제공 저 만덕전, ⑬ 추사의 김씨가 표창 편액 등의 순으로 집필하였다.

김해 김씨(속칭 先金), ② 경순왕 후손인 김녕 김씨 시조 김시흥(金時興) 후손 중의 김해 김씨(속칭 後金), ③ 임진왜란 때 귀화한 일본인 사가야(沙可也)의 후손인 김해 김씨다.

현재 제주도 내의 경주 김씨는 김시흥의 후손으로 익화군(益和君) 김인찬(金仁贊)의 아들인 입도조(入島祖) 김검용(金儉龍)의 후손들이는데, 본래의 본관은 김녕 김씨였다.

따라서 수로왕 후손과 경순왕 후손의 두 김해 김씨는 구별하기 위하여 선김과 후김으로 구별되어 왔다. 그러다 제주에 거주하는 김녕 김씨와 같은 입도조의 후손인 김해 김씨가 현종의 윤허를 받아 1846년에 본관을 경주(慶州)로 복관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현재 김만덕의 후손들이 경주 김씨이므로 김녕 김씨계의 김해 김씨(後金)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씨족들은 김검용의 직계후손으로 추정할 수 있다.

Ⅲ. 金萬德 生涯의 現代的 照明

1. 불우한 어린 시절

김만덕은 조선 영조 15년(1739년) 제주성안(제주시)에서⁵⁾ 김해 김씨의 후손으로 아버지 김응열과 어머니 고씨의 2남1녀 중 막내(외동딸)로 양가에 태어났다. 그녀는 만석과 만재 두 오빠를 두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근면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장사에 수완이 있어 전라도 나주를 오가면서 제주에서 나는 미역, 전복, 굴 등을 내다 팔고 그곳에

5) 정비석은 김만덕의 고향을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금막)라고 주장해 '구좌읍지'에 만덕 이야기가 실리는 계기가 된다.

서 쌀을 사다가 제주에 파는 상인이었다. 김만덕이 11세 되던 가을에 나주에서 돌아오던 그녀의 아버지는 풍랑을 만나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 후 어머니도 충격으로 1년 반 만에 세상을 떠난다.

2. 관가의 기녀 시절

어린 삼남매는 외삼촌집에 기탁되었으나, 두 오빠 만석과 만재는 목동으로 고용된다. 그리고 김만덕은 무근성에 사는 노기(老妓) 월중선(月中仙)⁶⁾이 하녀로 데려가 후에 수양딸로 삼는다.

세월이 흐르면서 노기는 김만덕이 노래와 춤, 거문고에도 재능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일을 승계시키기 위해 관가의 기적(妓籍)에 올렸다. 그녀는 어미기생의 뜻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내리받았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 노력하며 자기를 지켜나갔다. 그녀를 지탱시켜 준 힘은 본래 기녀를 타고나지 않았으며, 양가의 자손이라는 굳은 신념으로부터 나왔다.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양가 출신인 자신이 평생 기녀로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기녀가 된 과정을 되돌아보고 앞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

먼저 자신의 신분적 족쇄에서 벗어나야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양녀로 환원되기 위해 기적이 올라 있는 관가에 호소하지만 매번 거절당한다. 이에 좌절하지 않던 그녀는 마침내 제주목사 신광익(申光翼)과 판관 한유추(韓有樞)를 설득, 기적에서 제명하고 양인으로 복귀된다. 소녀시절에 집을 나온 후, 약 12년 만에 삼남매가 한 집에 모여 살게 되었다.

6) 양중해는 노기의 이름을 한매(寒梅) 또는 대산(大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창업과 재산 축적 및 사회 환원

1) 창업 과정

김만덕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지만⁷⁾ 포기한다. 그녀는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고 자신의 인생에 투자하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살던 18세기 후반은 정조시대로, 조선시대의 상업이 눈부시게 일어났던 시기였다. 전통적으로 산업의 기반이었던 농업은 이앙법(移秧法) 등의 기술발달로 농업생산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곡물이 상품화하여 유통되었고, 곡물 이외에도 면화, 모시, 인삼, 과일 등의 상업 작물이 적극 재배되었는데, 이는 상업의 발달을 수반했다. 생산성 증대에 따른 백성들의 부의 축적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상품들의 수요와 소비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상공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풍부한 생산물들이 전국 각지의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활발히 거래되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항해술과 선박의 제조기술의 발달로 해상교통이 크게 발달하였다. 포구는 해상교통의 중심으로 유통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으며 만덕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경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탄다면 가장 확실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그러한 변화의 물결과 함께 상품의 유통구조와 시세 변동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업이었다. 유교문화의 신분차별주의 뿐만이 아니라 남존여비(男尊女卑)라는 성차별주의 풍토 하에서, 여성의 몸으로 창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남성들만의 사회에서 여성이 그들을 상대로 사업하고 경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

7) 정비석은 만덕의 사랑했던 연인(高善欽)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화류계에 있었을 때, 소비자인 양반계층의 욕구와 기호를 잘 파악하고 있는데다가 사회변화의 흐름도 직접 체험을 통해 고객분석을 마친 상태였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그녀는 과감하게 창업하기로 결정한다.

2) 재산의 축적

당시 내륙에서는 각지에서 5일장인 장시(場市)가 섰고, 해안과 강가의 포구(浦口)도 흥청거렸다. 장시와 장시, 장시와 포구, 포구와 포구가 서로 연계되면서 전국이 하나의 상권으로 편제되어 가고 있었다. 내륙에서는 마필(馬匹)에 의한 육운(陸運)이, 연해안 또는 수로에서는 선박에 의한 수운(水運)이 상품을 유통시키고 있었다.

김만덕은 보부상 중심으로 전국유통망이 갖추어가던 시대 변화를 포착하고, 포구가 지닌 교통과 유통의 중심지라는 가치에 주목해 산지천(山地川) 동쪽 금산 기슭에 객주(客主)를 차렸다. 객주는 숙박업 역할도 했지만, 외지 상인들의 물건을 위탁받아 팔거나 거간하는 매매중개상 역할도 했다. 기생 출신이었던 그녀의 객주는 곧 번성했다.

그녀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 목표로 삼은 대상은 일상생활을 위해 일반 사람들이 쓰는 돈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양반 계층을 표적시장으로 설정했다. 제주의 특산물인 말총, 미역, 전복, 표고버섯, 양태, 우황, 약초, 녹용, 꿀 등을 수집하였다가 육지 상인들에게 공급하였으며, 제주의 양반층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육지의 옷감이나 장신구, 화장품 등을 팔아 많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

김만덕의 객주에서 숙박 제공과 매매중개상은 부수적인 사업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포구에 적극적으로 선상을 유치했고, 자신의 창고와 선박까지 소유하게 되었다. 관가의 물품도 조달하게 되었고, 선상들의 물품을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여객주인권이냐 포구의 상품유통을 독점

적으로 담당하는 포구주인권(浦口主人權)을 획득한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선박을 이용한 해운업에 이르기까지 포구의 전 상권을 장악하며 부를 축적해 갈 수 있었다. 또한 상품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금 제공 등의 금융업, 그리고 창고업까지 확대해 나가는 사업다각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기업을 키워나갔다.

역척스런 근면절약과 철저한 신용으로 재물과 사람을 모으고 기반을 다져 제주의 상권과 육지 상인과의 거래까지 장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0년도 채 되지 않아 제주의 거상(巨商)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3) 재산의 사회 환원

시대적 환경 속에서 김만덕은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만으로도 여성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 주었다. 더 나아가 막대한 부를 가졌지만 그녀는 늘 검소하게 생활하였으며,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해 절약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해 하늘의 은덕에 감사하면서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생활철학이었고, 또한 이를 실천하였다.

정조 16년(1792년)부터 정조 19년(1795년)까지 제주도에 4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어 아사자가 17,963명이나 발생하였다. 조정에서는 정조 19년 2월에 제주도민을 구휼하기 위해 구호곡물 1만1천석을 보내지만, 수송 선단 중 5척이 침몰하면서 제주도민은 아사자가 속출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김만덕은 자신의 재산(돈 1천금)을 출연하여 육지에서 쌀을 사오게 했다. 이렇게 사온 곡식이 모두 500여 석이며, 이 중 10%를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450여 석을 관(官)에 진흥미로 내놓았다. 당시로서 곡식 500여 석은 막대한 양으로 제주도 전체 부호들이 내놓은 양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제주목사 이우현(李禹鉉)은 그녀의 많은 기부에 크게 놀랐다. 당시

제주도민 중 전(前) 현감 고한록(高漢祿)이 300석, 장교 홍삼필(洪三弼)과 유학 양성범(梁聖範)이 각각 100석을 낸 것이 고작 전부였다. 정조는 고한록을 대정(大靜) 현감으로 임명했다가 군수로 승진시키기로 하고, 홍삼필과 양성범을 순장으로 승진시켰다.

이와같이 객주 운영과 유통업을 통해 얻은 막대한 부를 굶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놓은 것이다.

4) 조정의 치하와 포상

김만덕이 제주 백성을 기아로부터 구제한 공로는 뒤늦게 조정에 보고되었다. 정조는 그녀의 공헌을 치하하고, 제주목사를 시켜 “김만덕을 불러서 그 소원을 물어보고 난이를 논하지 말고 특별히 시행할 것”을 명한다. 그녀는 이에 대해 “다른 소원은 없사오나 오직 소원이 있다면 한번 서울에 가서 임금님이 계신 궁궐을 우러러보고 천하명산인 금강산 1만2천봉을 구경할 수 있다면 한이 없다”고 말하였다.

당시 제주 여인들은 1692년 제정된 월해금법(越海禁法)으로 출륙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김만덕의 소원은 정조에 의해 쾌히 받아들여졌다. 또한 말을 하사하고, 서울로 가는 길의 각 군현과 역(驛)에 숙식과 편의 제공을 명했다. 정조는 1796년 김만덕에게 여성의 벼슬 중에 가장 높은 내의녀 중 최고인 의녀반수(內醫院 醫女班首)에 명한다. 비록 실질적인 벼슬이 아닌 명예직이었지만, 그녀는 여성으로서 최고의 벼슬에 오른 셈이다. 당시 좌의정 채제공은 김만덕의 거룩한 뜻을 담은 만덕전을 지어 주었으며, 병조판서 이가환은 그녀의 선행을 시로 담아 주었다.

김만덕은 순조 12년(1812년) 10월 22일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다. 묘소는 제주시 동쪽 사라봉 위 언덕(ㄱ으니믄루 : 竝園旨)에 안치되었으며, 묘비는 ‘行首內醫女金萬德之墓’라고 기록되어 있다. 헌종 6년(1840년) 제주에 유배 온 추사 김정희는 김만덕의 진혼 행장에 감동하여,

“은혜로운 빛이 여러 세대로 이어진다”는 뜻의 ‘은광연세(恩光衍世)’란 편액을 후손에게 주었다.

제주도민은 1977년 1월 3일에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기슭의 모충사로 이묘하였다. 모충사 경내에는 김만덕의 공덕을 기리는 기념탑과 함께 만덕기념관을 건립하였다. 1980년부터 제주도는 매년 탐라문화제 때 모충사에서 만덕제를 봉헌하고, 또한 사회에 공헌한 여성을 선정하여 김만덕상(봉사상, 경제인상)을 시상함으로써 그 은덕을 기리고 있다.

2003년 11월 15일에는 김만덕기념사업회가 발족되어 자료발간 및 유물 제작 등 학술연구사업, 동상 건립 및 묘 성역화사업, 화폐인물 수록사업, 사이버 김만덕기념관 활성화, 드라마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김만덕과 관련된 사이트로는 김만덕기념사업회 (<http://www.manduk.org>), 제주사이버삼다관(<http://www.jejudamda.com>), 제주특별자치도청(<http://www.jeju.go.kr>), 여성사전시관(<http://herstory.mogef.go.kr>) 등이 있다.

IV. 金萬德의 經營史的 側面에서의 考察

최근 김만덕을 성공한 여성기업가로 새롭게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의 여성으로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오늘날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였다는 점에서 그녀는 여성기업가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그녀가 기녀에서 거상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오늘날 기업가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녀는 18세기 조선의 변방인 제주에서 시대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어 내고 세상을 꿰뚫는 안목을 바탕으로 객주에서 출발하여 창고업, 유통업, 금융업, 해운업 등으로 개척하여 사업다각화를 도모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찰력과 안목이 강한 추진력이 결합되면서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는 성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른바 기업가정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만덕의 성공신화는 그녀가 기녀 신분에서 출발하여 무(無)에서 제주 제일의 부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렇게 애써 모은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가 없이 나누어 주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기존 제도와 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불가능에 도전하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정신을 발휘했다는 사실이다.

1. 도전과 개척정신

김만덕은 자신의 사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를 기획하고 경영했던 인물이다. 여성과 기녀라는 성과 신분의 한계를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주체적인 인생을 개척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녀로부터 양인의 신분을 회복하는 인생역정이다. 여기에서 그녀가 얼마나 주체성이 확고한 여성인가를 알 수 있다. 그녀의 끈질긴 호소와 설득으로 기녀에서 양인으로, 그리고 객주 주인으로 삶의 형태를 바꾼다. 이후 사업수완을 발휘하여 부를 축적함으로써 자기 운명의 개척자가 되었던 것이다.

둘째, 양인의 신분을 회복한 뒤에 선택한 기업가로서의 삶이다. 사업 수완을 발휘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 이면에는 남성들을 머슴으로 거느리는 경영능력과 사람관리 능력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녀가 남성 중심의 유교문화에 동화되어 한 지아비를 섬기며 가정에 안주하기보다는 더 높은 사회적 이상을 추구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당시 활발해진 해상을 이용한 유통업에 눈을 뜨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갔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인물이었다.

셋째, 여성에게 부여된 한계를 뛰어넘어 인생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이다. 여성들에게 엄격했던 사대부들이 가난한 집안의 기녀 출신이었던 독신녀를 칭송하게 된 것은 어렵게 쌓은 부를 사회에 환원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비록 명예직이지만, 의녀반수라는 여성의 최고 벼슬에 오름으로써 유교사회의 중심부에 우뚝 서게 되었다.

너무도 부자유한 시대에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이것을 개척한 용기 있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바로 김만덕의 모습인 것이다. 오늘날 그녀를 재조명하는 이유는 엄격한 유교 규범과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여성을 억압하고 있던 시기에서 시대와 불화하지 않으면서 여성에게 지워진 법적, 제도적, 사회적 한계를 거침없이 뛰어넘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한 그녀의 용기와 도전 때문일 것이다.

2. 상도에 따라 부를 축적한 경영철학

자본주의의 정신은 이윤 추구 성향을 포함하면서도 이를 한 단계 초월하는 도덕적 자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김만덕은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원칙, 즉 ① 이익은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박리다매(薄利多賣), ②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원망을 사지 않는 정직매매(正直賣買), ③ 신용은 꼭 지킨다는 신용 본위(信用本位)라는 원칙을 내세워 실천해 나갔다. 그녀는 철저한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을 경영하였다. 즉,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직과 성실성에 기반을 두었던 것이다.

그녀는 기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반층 부녀자의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을 염가로 공급했다. 나아가서 관가의 물품까지도 조달하는 등 그녀의 객주는 큰 규모의 무역거래소 역할을 하였으며, 몇 년 만에 제주의 거상이 되었다.

김만덕이 보여준 경제활동의 준칙은 성실과 신용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정신의 표현이다. 즉, 개인적 이윤 추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의무로서의 일에 대한 엄격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윤 극대화만을 쫓기보다 상거래의 도(道)를 지키는 가운데 필요한 적정 이윤만을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근검절약과 겸손의 생활철학

객주에서 출발한 사업의 성공으로 거상이 되었지만, 김만덕의 일상생활은 언제나 검소하고 소박했다.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하여 절약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하여 하늘의 은덕에 감사하면서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생활철학이다.

태풍과 풍랑 때문에 육지와와의 거래에 문제가 생기면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제주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나갔다. 평소에도 풍년이 들면 흉년들 때를 대비하여 절약하고 비상 물품을 비축하였다. 늘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은 늘 하늘을 우러러 그 은덕에 감사하고 그 아래로 어렵게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하여 검소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당부를 하고 살았다. 그리고

재능과 성실함을 지닌 사람은 여자라도 데려다 일을 가르치고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겸손하고 근면하며 절약하는 금욕적인 삶의 모습이 그녀의 생활철학이다.

4. 베품과 나눔의 철학

김만덕의 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대가 없는 자선행위는 이웃에 대한 봉사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녀는 정조 16년부터 4년간 계속된 흉년으로 제주 백성이 기아에 허덕일 때 자신의 재산을 구호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기녀 출신의 여성으로서 객주 운영과 유통업을 통해 얻은 막대한 부를 이웃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내놓은 것에서 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녀의 삶은 재화에 종속된 삶이라기보다는 소유와 재화로부터 자유로운 삶이었다.

그녀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 진정 중요한 것을 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그리고 그런 결정이 진정 필요한 경우라면 무소유할 수도 있다는 그녀만의 자유로움이다. 그녀의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자선과 봉사의 삶은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 원천인 것이다.

5. 시류를 읽는 통찰력

김만덕이 살았던 조선 영·정조 시대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녀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었고, 자신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길을 선택하여 과감한 투자를 결행한다.

영·정조 시대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이에 따른 상업의 발달은 조선

후기 양반사회는 물론 서민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가운데 상품을 매점하거나 독점함으로써 이윤을 취하는 도매상인 도고(都賈)가 출현하게 되었고, 이는 서민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김만덕은 운송체계에 기초한 유통망이 상업발달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였다. 그녀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투자한 분야가 바로 유통업이다. 18세기 중엽은 전국적 유통망이 갖추어지던 시기였다. 당시 유통망은 육상과 해상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육상교통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어졌다면 해상교통의 중심은 포구였다.

그녀가 주목한 것은 바로 포구가 지닌 유통망으로서의 가치였으며, 이를 위해 포구에 객주를 차리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도전이 기업가로서의 그녀는 제주 지역이 지닌 지리적 한계와 여성으로서의 태생적 굴레를 극복하고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과감한 도전과 성취는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기업가정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6. 장기적 비전을 가진 여성기업인

성공적인 기업가는 시대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예측을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비전은 환상이 아니라 차별화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가치이다. 현재 처한 위치와 상황을 평가하고 미래의 시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가는 단기적 경영에 집착하기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비전에 따라 자신과 기업의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최고 경영자의 핵심적 자질 가운데 하나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마케팅 선전력이다.

마케팅 선견력이란 미래의 기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창조적인 예견능력을 말한다. 최고경영자는 근시안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시장과 상품의 개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장과 기업을 보는 시각을 수정하거나 또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전혀 새로운 유망한 산업을 예견하고 장기간에 걸치는 산업의 흐름을 주도함으로써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끼쳐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마케팅 선견력을 제고해 미래의 경쟁 우위를 추구하며 목표 달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능한 것이다.

김만덕의 경영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생존에 우선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유통업을 개척하면서 신용 본위의 원칙을 견지했다는 사실은 단기적인 이윤 추구를 초월하여 사업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신용을 토대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재물을 추구해야 한다.

김만덕은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면서 이와 같은 신용본위의 경영철학에 입각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을 보는 사람은 절제와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다. 그녀의 장기적 비전에 기초한 사업 경영은 오늘날 경영자들이 지녀야 할 전형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다.

7. 혁신과 모험을 통한 기업가정신

일반적으로 기업가는 기존의 것을 좀 더 잘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로 인식한다. 기업가는

현상을 뒤집고 또한 해체한다. 기업가가 수행할 과제는 창조적 파괴다. 기업가들은 변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건강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들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 그들은 언제나 변화를 탐색하고 그것에 대응하며,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활용한다. 그리고 이 것이야말로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의 정의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이란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행동양식의 문제인 것이다.

기업가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을 무릎쓰고 과감한 투자를 행하는 도전 의식이며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요소를 발전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이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이란 위험부담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전제로 하여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새로이 창조하는 과정이다. 모험과 도전을 극복하고, 어려움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남다른 인내심과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세 등이 기업가정신이다.

기업가정신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적 사고에 기초해야 한다. 또한 혁신, 창의성, 성장, 위험추구, 특이함 등의 특성을 갖는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변화의 추구, 모험과 도전을 통한 발전기회의 창출 등이 오늘날 기업가들이 지녀야 할 자질이다.

오늘날 우리가 김만덕을 18세기 조선의 여성기업가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녀가 당시에 보여주었던 기업가로서의 위와 같은 자질 때문일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제한적이었고 경제활동의 대상과 영역이 지극히 여성적인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숙박업에서 시작하여 중개상, 창고업, 유통업을 개척하고, 금융업, 해운업으로 발전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변화와 모험, 그리고 도전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김만덕은 조선 후기의 전통사회에서 가난한 양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일찍이 부모를 여의면서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만덕의 첫 번째 직업은 노기(老妓)의 하녀(수양딸)가 되어 수발을 드는 일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생계를 의탁하는 정도였다. 그녀의 두 번째 직업은 기녀였다. 생계를 위해 노기의 하녀로 일하다가 기녀가 된 그녀에게 어찌면 피할 수 없었던 직업이었는지 모른다. 기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들의 연회를 위해서 요청된 천한 직업이라 할 수 있다.

김만덕은 기녀라는 안정된 생활에도 불구하고, 양가의 자존심과 신념을 지키면서 양민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다. 남들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일에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여, 끊임없는 호소와 설득으로 기녀에서 양녀로 신분이 환원되었다. 그녀는 자기의 경험을 살려 객주를 운영하면서 객주를 드나들던 상인들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녀의 객주는 숙박업 역할도 하였지만, 외지 상인들의 물건을 위탁받아 팔거나 거간하는 매매중개상 역할도 병행하였다. 기생 출신이었던 그녀의 객주는 곧 번성했다. 그녀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양반 계층을 표적시장으로 설정했다. 제주의 양반층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육지의 옷감이나 장신구, 화장품 등을 팔아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포구에 적극적으로 선상을 유치했고, 자신의 창고와 선박까지 소유하게 되었다. 또한 상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금 제공 등의 금융업까지 확대해 나간다.

그녀의 사업은 숙박업으로 출발하여 유통업, 창고업, 해운업, 금융업 등으로 확대하면서 사업 다각화 전략을 구사하여 기업을 키워나갔다.

김만덕은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원칙, 즉, 첫째 이익은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박리다매, 둘째 적절한 가격으로 판매해서 원망을 사지 않는 정직매매, 셋째 신용은 꼭 지킨다는 신용본위라는 원칙을 세워 실천해 나갔다. 그녀는 철저히 신용을 바탕으로 일을 처리했다.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직과 성실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갔다. 그 결과 10년도 채 되지 않아 제주의 거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성공신화를 구가하던 그녀는 1794년 가뭄(갑인 흉년)으로 제주 지역에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최악의 사태를 맞았을 때,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출연하여 구제사업에 앞장선다. 그녀의 선행에 감명을 받은 정조는 1796년 한양으로 초청하고, 여성의 벼슬 중에 가장 높은 내의녀 중 최고인 의녀반수에 명하여 여성으로서 최고의 벼슬에 오른다.

여필종부의 조선 후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김만덕의 일대기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이며, 선각자적인 한국 여성경영자의 귀감으로 추앙 받아 마땅하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의 시류를 읽는 통찰력, 혁신과 모험을 통한 기업가정신, 도전과 개척정신과 창업가적 기질, 창의성과 혁신적인 사고, 박리다매·정직매매·신용본위의 원칙, 윤리경영, 신뢰경영과 함께 숭고한 베품과 나눔의 기부정신은 정신적 지주로 삼아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건우(2003), 김만덕, 분자향.
- 김경애(2004), “김만덕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 21세기 제주사회와 여성, 제주국제협의회.
- 김봉옥(1989), 구원의 여성 김만덕, 제주도.
- 김봉옥(1999), 김만덕전, 도서출판 제문문화.
- 김봉옥(2000), 증보 제주통사, 세림출판사.
- 김석익(1918), 탐라기년.
- 김태능(1971), 김만덕전, 김만덕기념사업회.
- 김태능(1982), 의녀김만덕, 제주도사론고, 세기문화사.
- 김준형(2000),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제주도연구 17, (사)제주학회.
- 박용옥(1981), “만덕,” 여성 176,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부영성(1986), “김만덕,” 구좌읍지, 태화문화사.
-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2004).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 보고서, 제주도.
- 소재영(1999), “제주의 여인상,” 국문학 편답기, 아세아문화사.
- 양중해(1998), “김만덕의 자선,”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 유재건(1862), 이향건문록.
- 윤치부(2001), “인물전에 나타난 제주 여성의 삶,”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 이경화(2005), 구원의 여인 김만덕, 깊은강.
- 이규태(1987), “제주기생 만덕,” 역사에 소문나지 않은 여인, 기린원.
- 이덕일(2003), 이덕일의 여인열전, 김영사.
- 이순구(1998), “김만덕: 굶주린 백성을 살린 사업가,” 한국 역사 속의

여인인물, 한국여성개발원.

이신복(1994), “채제공의 만덕전 연구,” 한문학논집 12, 단국한문학회.

이전문(1989), 조선의 성공인 열전: 부자 되는 이야기, 조선일보사.

정비석(1981), “제주기만덕,” 명기열전 6, 신정사.

정조실록(1805), 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정창권(2006),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 조선의 큰 상인
김만덕과 18세기 제주문화사, 푸른숲.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2), 제주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제주도·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2001),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제주
도·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제주문화원(1998),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진성기(1992), 제주도 전설, 도서출판 백록.

채제공(1824), 번암집: 만덕전.

한치문(1973), “만고기인 김만덕여인,” 탐라실록, 한진문화사.

현승환(2004), “21세기에서 다시 보는 김만덕,” 21세기 제주사회와 여
성, 제주국제협의회.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

양성국*·김봉현**

I. 서론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할 만큼 여성의 사회적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지적·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 자기개발과 자기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 여성 특유의 섬세함,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변화의 주체 세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역할과 사회 참여가 확대될수록 사회 및 국가의 경쟁력은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 출신으로 기녀의 신분을 극복하고 유통업을 개척하여 성공한 기업가이자 상도를 실천한 경제인, 전 재산을 지역 사회에 환원한 지역지도자, 여성의 굴레와 한계를 뛰어넘어 자유인으로 살았던 여성 김만덕에 대한 평가 작업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올해는 CEO 김만덕이 서거한 지 200주년이 되는 시점이라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의 사료나 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사료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 sungkuk@jejunu.ac.kr 064-754-3121, 제1저자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조교수, bong0711@jejunu.ac.kr, 064-754-3148. 교신저자.

나 자료에 기초한 이야기의 확대 및 재생산 과정에는 연구자의 상상력이 가미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김만덕과 관련된 사료나 자료들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변안집55권·만덕전」 등의 사료나 KBS 드라마 ‘거상 김만덕’, 현대에 와서 출간된 단행본과 세미나 자료 등에서 제한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김만덕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과 작품들은 김만덕의 삶과 행적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김만덕의 삶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가운데 김만덕이 보여준 기업가로서의 정신적 가치를 발굴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작업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김만덕이 성공한 여성 CEO로서 보여준 기업가정신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그녀가 지녔던 기업가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0여 년 전 조선시대 최초 여성 CEO로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을 분석하였다.¹⁾

즉, 200여 년 전 조선시대의 여성이 받았던 사회적·관습적 차별을 극복하고 제주 및 전국에서 존경받는 기업가로 성공한 김만덕이라는 한 여성의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CEO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보려는 것이다.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김만덕의 생애와 김만덕이 CEO로 역할을 수행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김만덕이 보여준 기업가정신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업가정신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1) 조선 최초의 여성 무역상 또는 CEO로 소현세자의 부인인 ‘민회빈 강씨’를 꼽는 경우도 있다.(참고 : 김용상의 “민회빈 강씨” 등). 다만 본 논문에서는 일반 여성 중에 최초 CEO란 의미로 김만덕을 사용하고자 한다.

후, 조선시대 최초 여성 CEO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본 논문을 구성하면서 한국경영사학회에서 발행하는 「경영사학」에 게재된 많은 논문을 참고하였다.(고광명 2008; 김성수 2009; 김한원 2011; 노부호 2010; 이민수 2011)

본 연구를 통하여 단지 의녀 김만덕, 나눔의 미덕과 배움을 실천한 기부 천사 김만덕 등 단순한 선행의 귀감을 칭송하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조선시대 최초로 성공한 여성 CEO의 길을 걸었던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과 기업 CEO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II. 김만덕의 생애와 시대적 특징

1. 김만덕의 생애

김만덕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김만덕의 생애와 관련된 자료들에 기초하여 인간적 특성이나 CEO의 자질들을 분석하고 있다. 김만덕이 가졌던 기업가정신의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만덕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만덕의 생애를 고난 속에서 운명을 개척하면서 CEO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던 기간, 본격적으로 CEO로 활동한 기간, CEO활동을 통해 얻은 것들을 사회로 환원시킨 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1) 운명개척기

김만덕은 조선 영조 15년(서기 1739년)에 중개상으로 활동하던 김응열의 딸로 태어나 순조 12년(서기 1812년)에 생을 마감한 제주 여성이

다. 김만덕 부모와 관련된 내용들은 책마다 서로 다르게 기술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김만덕의 아버지는 장사를 다니다 배가 난파되어 죽었으며, 어머니는 영조 26년(서기 1750년)에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다.(주희춘 외 2010)

그 후 친척 집에서 겨우 목숨을 이어가던 김만덕은 퇴기 월중선에게 의탁하여 살게 되었고 관기로 생활하게 된다. 관기로 생활하던 김만덕은 자신의 원래 신분이 양인이었음을 알게 된 후, 23세(서기 1762년) 때 제주목사 신광익에게 여러 차례 탄원하여 양인의 신분을 되찾았다.

관기로 생활하면서 평생을 마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가에 간곡히 호소하여 기적(妓籍)에서 이름을 없앴다는 것은 김만덕이 매우 확고한 주체성을 가진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박무영 외 2004) 왜냐하면 직업이 신분이었던 조선시대에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만덕은 자신의 설득력을 통해 기녀에서 양인으로 삶의 형태를 바꾼 것이다.

즉, 김만덕은 조선시대의 제도와 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의 정신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인의 신분을 회복한 뒤 김만덕은 한 남성과 결혼해 평생을 그 그늘 아래서 사는 대신에 독신으로서의 삶을 선택한다. 이러한 사실 또한 김만덕이 주체적인 삶의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비나 기녀 등이 아닌 여성이 조선시대에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덕이 독신을 선택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과 더불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제도를 넘어설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CEO 활동기

김만덕은 전통사회에서 여성이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직업이나 가부장제 사회가 필요로 했던 여성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객주를 운영하면서 객주를 드나들던 상인들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나갔다.(이덕일 2003)

김만덕은 관기 생활을 청산한 후 제주 건입포 일대에 객주를 차려 사업을 시작하였다. 건입포란 현재 제주시에 있는 동문시장과 2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건입포가 육지에서 배가 당도하는 곳이라면 동문시장은 이곳에 도착한 육지의 각종 산물이 거래되던 곳이었다. 객주란 중간상을 하는 일종의 도매상을 의미하는데 병영상인²⁾들은 이들을 대상이라고 표현하였다.(주희춘 외 2010)

김만덕은 객주를 차린 후에 육지에서 오는 물건을 산 후에 제주에서 파는 일을 하려 하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관아에 특별세를 내야만 금난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 도착 상인들이 이미 생필품에 한하여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김만덕은 기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녀와 양반층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을 공급하여 큰 돈을 벌게 되었다. 즉, 김만덕은 제주도와 육지, 엄밀히 말하면 강진, 영암, 나주 등 전라도 지역과 제주를 오가며 가격 차이가 심한 물건을 직접 사다가 파는 방식을 통하여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게 된다.

조선시대에 여성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로 김만덕은 여성에게 주어진 한정된 역할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 변화를 읽는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유통업을 개척하였던 것이다. 또한 강인한 추진력으로 만덕은 유통업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전라남도 강진을 주 근거지로 활동했던 남부지역 보부상의 핵심 상인 집단을 말하는데, 북의 개성상인과 쌍벽을 이루는 상인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경애 2006)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김만덕이 기녀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유통업에 도전하여 막대한 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경제 활동에서의 윤리적 덕목들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정신 또는 과거 우리의 상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변종현 2004)

요약하면 김만덕이 CEO로 성공하는 과정에서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조선시대라는 점과 김만덕이 여성이었다는 점, 그리고 육지부와의 접근 수단이 떨어지는 제주도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만덕이 성공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사회 환원기

제주는 워낙 토질이 척박하고 농사 지을 땅이 적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자주 기근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정조 16년(서기 1792년)부터 19년까지는 그야말로 최악의 흉년이 계속되었다. 정조 16년 가을에 전례 없는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이 수 천 명이었고, 정조 17년 8월에는 태풍으로 '정의'와 '대정' 두 고을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정조 18년 8월에도 큰 바람과 해수가 몰아쳐 제주에 어려움을 주었다.

김만덕은 정조 18년(서기 1794년)에 제주에 대기근이 들자 '천금'을 풀어 육지에서 쌀을 구입해 오도록 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김만덕 덕분에 1만 8천명의 제주 주민들이 생명을 구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주희춘 외 2010)

김만덕이 제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한 자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여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당시 김만덕이 곡식 500석을 사들여 50석은 친척들에게 나눠주고 450석은 관아에 바쳤다고 하지만 명확한 근거가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제공의 「만덕전」에 만덕이 천금을 내놓아 육

지에서 쌀을 사들여, 그 중 십분의 일로는 친척들을 살리고 나머지는 모두 관아에 바쳤다고 나와 있을 뿐이다. 또 「정조실록」에도 만덕이 재물을 풀어 굶주린 백성들의 목숨을 구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제주 주민을 구휼한 공을 인정받아 김만덕은 금강산과 한양을 구경하게 된다. 한양에서 돌아온 만덕은 객주집을 그대로 운영하며 남은 여생을 자선 사업에 주력하였으므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에 이르렀고, 그냥 ‘만덕할머니’로 통했다. 이러한 그녀의 활동이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부친 응열(應悅)공에게는 가의대부(嘉義大夫)³⁾를, 구휼사업을 도운 오빠 만석에게는 가선대부(嘉善大夫)⁴⁾를 추증했다.(김건우 2003; blog.daum.net/jib17)

조선시대 한반도 최변방 중의 한 곳인 제주에서 그것도 기생 출신 여자가 재물을 풀어 백성을 구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실록에 기록하였다는 점 또한 매우 이례적이었다. 여성이 쉽게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조선후기 사회에서 김만덕과 같은 여성의 성공 신화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신병주 2012)

조선시대 최고의 통치자인 정조 임금이 친히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채제공이 김만덕의 일생담을 「만덕전」이라 하여 편찬하여 주었으며, 조선의 대표적인 문장가 정약용, 이가환, 박제가 등이 그녀를 위한

3) 가의대부는 조선시대 문관 종2품 상(上)의 관계명을 말한다. 조선 초부터 가정대부(嘉靖大夫)라 하였으나, 1522년(중종 17) 명(明)나라 세종이 즉위하면서 ‘가정’을 연호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하여 가의로 고쳤다. 이에 해당하는 관직은 돈령부·의금부·경연·춘추관·성균관 등의 동지 사(同知事), 6조의 참판, 한성부의 좌우윤, 사헌부의 대사헌, 8도 관찰사 등이다.

4) 가선대부는 조선시대의 종2품 아래의 관계(官階)를 말한다. 초기에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관계로도 사용하였다. 이 관계에는 군(君)·위(尉)·동지사(同知事)·참판·좌우윤(左右尹)·대사헌·내각제학(內閣提學)·제학·세자좌우부빈객(世子左右副賓客)·부총관(副總管)·훈련대장·수어사(守禦使)·통제사·개성부관리영사(開城府管理營使)·군문중군(軍門中軍)·금군별장(禁軍別將) 등이 해당된다.

시를 남겼다. 게다가 사후에는 추사 김정희가 ‘은광연세(恩光衍世)’라는 편액을 써 주기까지 했다. 김만덕이 당대 최고의 인물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김만덕의 삶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는 제주여성의 표상인 의녀반수 김만덕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고 제주여성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1980년부터 「김만덕상」을 제정하여 봉사 부문과 경제인 부문 2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고 있다. 봉사 부문은 경제적·물질적 도움보다는 순수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 봉사를, 경제인 부문은 경제 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배품의 실천으로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4년까지 국비 4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총 140억 원을 투자한 김만덕기념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김만덕기념관 주변에는 김만덕이 주로 활동했던 객주터 재현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2. 시대적 특징

김만덕이 살았던 조선후기 영조, 정조 시대는 변화의 시기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전통적인 산업인 농업기술에서 이앙법(移秧法)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지금까지 정치이념의 주류를 이루었던 유학을 대신하여 실사구시를 부르짖는 실학 사상이 들어오게 된다.

또한 임진왜란과 실학의 영향으로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유통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그리고 상업과 유통 경제의 발달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포구 무역과 객주업이었다.

여기서는 조선후기 영·정조 시대에 일어난 변화 중에서 김만덕과 관련된 부분은 신분제의 변화와 상업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마지막에는 김만덕이 주로 활동했던 제주사회의 특징을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1) 신분제의 변화

조선시대는 유학을 정치이념으로 하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다. 당시의 사회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조선왕조 구성원의 대부분은 농민이 되고, 아주 소수의 양반들이 군주를 중심으로 하여 농민들의 농업생산력을 바탕으로 모든 권력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전형적인 전제군주국이었다. 인구 분포를 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국민 전체인구 중에서 양반이 차지하는 비중은 5%를 넘지 않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후유증 때문에 발생한 난국을 타개하고 궁핍해진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명첩(空名牒)을 발행하여 관직과 신분을 팔기 시작했다. 즉, 임명장에 이름을 쓰지 않고 두었다가 국가에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에게 관직과 신분을 주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국가로서는 나라를 운영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었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는 그 동안 확고부동한 특권을 누려오던 양반들의 신분이 위태롭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사회 전체의 신분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신분제의 변동은 곧 조선사회 전체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17세기를 지나면서 전체 인구의 70%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양반이 되면

서 양반의 신분에 하향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신분제를 바탕으로 지탱해오던 조선사회는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신분제 변화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김만덕이 기녀의 신분에서 양민으로 신분을 변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상업의 발달

조선시대에 상업은 신분제 사회에서는 무척 천시하던 직업이었는데, 신분제의 변동과 자본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세상이 되면서 상업의 중요성도 새롭게 인식되게 되고 발달하게 된다.

그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엄청난 두 전란을 겪으면서 발달한 도로망의 확충에 있다. 조선 후기의 도로는 특히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엄청나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도로망의 확충은 유통경제의 발달을 초래하게 되고, 유통경제의 꽃인 상업의 발달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상업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부자 상인들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들 역시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게 된다. 따라서 상업의 발달도 신분제의 와해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상업 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중개업 허가제, 대동법 시행으로 인한 공인성장 및 육상·해상교통의 발달, 상설점포인 포자의 발달, 객주의 번성 등이다.⁵⁾

(1) 중개업 허가제

조선시대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5) 상업의 발달과 관련된 많은 부분은 blog.daum.net/zhy5532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했다. 양민이 중개인이 되려면 해당 관청에 중개업 허가를 신청하고 관인이 찍힌 호소문을 받아야 했다. 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중개하다가 적발되면 곤장 60대를 맞고 받은 구전을 모두 몰수당했다. 또 저울 등 각종 도량형 기기를 규정대로 만들지 않는 장인도 장형 70대를 받았고,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원도 처벌을 받았다.

(2) 대동법 시행으로 인한 공인성장 및 육상·해상교통의 발달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세금이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 등으로 대납되는 것들을 한양까지 운반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일부는 주요 지점에 모아놓고 지정된 공인이 물건을 소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활발한 상업활동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나머지 일부는 서울로 운송되는데 그 운송을 위해 강가가 발달하게 되어 시장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한편, 대동법의 시행에 따라 상품 유통이 촉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폐가 전면적으로 유통되었다. 대동미 대신 동전을 수납할 수 있었던 것이 화폐 유통을 촉진시킨 면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동법 실시 이후 상품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수요가 커졌고 그 때문에 주화가 지속적으로 유통되었던 것이다.

육상교통의 경우 영조 46년(서기 1770년)의 「도로고(道路考)」에 의하면 전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서울-의주, 서울-경흥 서수라, 서울-동래, 서울-제주, 서울-평해, 서울-강화의 6대로였다.

한편 해상에서도 18세기 이후에는 해남에서 제주에 이르는 뱃길 등 전국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경강을 중심으로 하는 세 가지 해로가 완전하게 연결되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이처럼 육로와 해로 그리고 간선도로망을 통하여 전국은 육상과 해상으로 완전히 연결되고 있었다.

(3) 상설점포인 포자의 발달

17세기 이전에도 상설점포인 포자가 서울이나 개성, 평양 등에 있었으나 17세기 이후에는 급속도로 발달하였다. 포자가 설치되는 곳은 대개 상품 유통이 활발하여 상품이 모여드는 집산지에 집중되어 있었다. 민간인에 의해 운영되는 포자는 상업적 이윤을 얻기 위한 것이었지만, 관영포자는 유통뿐만 아니라 식리 활동을 통해 관아 재정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었다.

포자는 동전 유통을 확대시키고 식리 활동을 통해 얻어진 이윤으로 지방 관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설치한 상업기구로 장시 발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장시의 상설시장화를 촉진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포자는 당초 의도했던 방향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양반이나 아전들에 의한 금품요구 같은 비리가 발생해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운영과정에서 많은 폐단을 남겨 폐지되었다.

(4) 객주의 번성

객주는 각처에서 모여드는客商들에게 거처할 곳을 제공하고 물건을 보관하는 일, 매매를 성립시키는 일 등을 업으로 하는 상인이다. 그 중에서 창고 보관과 물품 운송은 위탁판매에 부수되는 업무다.

거래량이 많을 경우 시장에서 처음 만난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당사자들끼리 바로 거래하는 것을 매우 불안하게 여긴다. 객주는 위탁판매를 맡아 이러한 썩방 간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객주와 고객 사이에 신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은 객주가 위탁 판매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행하는 금융 서비스로서 물품 판매를 위탁받을 때 물품에 대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가도금(假渡金), 위탁판매를 조건으로 매상하는 전도금(前渡金) 또는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부금(貸附金) 등이 있다.

객주는 예금 업무도 담당했다. 매각 금액을 물주가 당장 가져가지 않고 맡길 경우에 객주는 그 기간 동안 예금한 데 대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준다. 어음을 발행하는 자들도 객주였다.

3) 제주사회의 특징

김만덕과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조선 후기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만의 독특한 사회적 환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하던 후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일 정도로 유연한 환경이다.(김방희 2009)

첫 번째는 김만덕이 관기 생활을 하다가 양민으로 신분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각종 기록에 따르면 김만덕은 자신이 양민 출신이었다는 것을 안 후 제주목 관아에 지속적으로 읍소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조선 신분제가 붕괴되는 초기 단계이기는 했으나, 개인적인 탄원에 의해 본래의 신분을 회복하는 예를 찾기는 힘들었다. 이런 점에서 당시 제주목의 신분제에 대한 유연한 태도는 김만덕이 신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여성이 거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점도 당시 제주가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보인다. 당시까지만 해도 주막 같은 일부 예외적 업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여성의 경제 활동은 원천 봉쇄돼 있었다. 여성이 상업에 종사한 기록이나 상업에서 성공한 기록을 찾기가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는 여성의 경제 활동 자체에 대해서 본토만큼 강한 반감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제주의 경제 구조상 여성들은 농사를 짓거나 물질을 하는 등 농수산업을 주도했을 것이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상거래에 참여하는 등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적극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가능했다.

왜냐하면 제주는 척박한 토양과 소규모의 토지에서 밭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지극히 낮았고 험한 바다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반과 상민, 적자와 서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란 것이 사실상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평등과 공정의 분위기는 제주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였다고 생각된다.(김정숙 2002)

Ⅲ. 김만덕의 기업가정신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선시대 최초 여성 CEO로 성공한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가정신의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김만덕의 삶에 대한 자료와 시대적 배경 등에 기초하여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을 찾아보았다.

1. 기업가정신의 개념 및 연구차원

1) 기업가정신의 개념

기업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본의 조직단위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먼저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가는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본질인 이윤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위해 기업가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나 정신을 말한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은 기업이 처해있는 국가의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기업가정신이 경제 발전의 주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나이트(Knight 1921)에 따르면 기업가는 불확실성 하에서 위험을 계산하고 결정을 내리며 산출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하며,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기업가 활동에 따라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슈페터(Schumpeter 1934)는 기업가를 혁신 주체로 규정하고 기업가는 창조적 파괴 과정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슈페터에 따르면 경제 발전은 생산방식의 새로운 결합 또는 혁신을 촉진시키는 기업가정신에 의해 달성된다. 기업가의 혁신활동은 신제품의 개발,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 신시장의 개척, 새로운 공급자의 확보, 새로운 기업 조직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기업가정신에 대한 OECD 보고서(1998)에서 “기업가는 경제에서 변화와 성장의 주체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생성·확산·활용을 가속화 한다. 이를 통하여 기업가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경제활동의 범위를 확장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배종태와 채민석(2009)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 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을 기업가정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기업가정신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업가정신이란 “미래의 불확실성과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혁신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의 의지 또는 활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김주미 외 2011)

〈표 1〉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나타낸 것이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에서는 공통적으로 ‘새로움’, ‘창조’, ‘위험’, ‘기회’, ‘자원’, ‘불확실성’ 등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기업가정신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연구자	정의	중심내용
Schumpeter(1934)	생산적 요소의 새로운 조합을 발견하고 촉진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	새로운 결합 촉진
Druker(1985)	새로운 부 창출능력을 가진 기존 자원의 할당을 포함한 혁신의 한 행동	혁신(자원 할당)
Hisrich(1985)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가치 창출
Stevenson과 Jarillo-Mossi(1986)	기회를 개발하기 위해 자원을 결합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가치 창출
Amit et al.(1993)	불확실하고 모호한 환경 하에서 새롭고, 독특하고 가치 있는 자원의 조합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	자원의 조합
Timmons(1994)	기회에 초점을 두고 총체적 접근방법과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 / 추론 / 행동 방식	기회 추구, 사고 / 추론 / 행동 방식
Kao(1995)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가치 창출
Lumpkin과 Dess(1996)	조직의 신규 진입	조직체 창조
Sexton과 Smilor(1997)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추구하는 행위	사업기회 추구하고 성장성
배종태·차민석(2009)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 행동양식	기회추구, 사고방식, 행동양식

출처: 배종태·차민석(2009), “한국형 기업가정신 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의 자료를 수정

2) 기업가정신의 연구 차원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의가 확대되면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초기 연구는 단일차원 관점에서 시작하여, 최근의 대다수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의 구성 요소를 다차원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 정의가 기능적 측면과 더불어 대상이라는 측면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학자들은 개인과 조직 차원으로 나누어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김주미 외 2011)

(1) 개인 차원의 연구

기업가정신의 초기 연구에서는 기업가 개인의 심리, 인성적 특성, 경험 및 경력 특성, 사회 심리적 특성 요인 규명 등 기업가정신과 관련되는 개인의 구성 지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특히 Chrisman et al.(1998)은 기업가정신의 개인 특성구성 지표를 인성적 특성, 가치 및 신념, 능력, 경험 및 교육, 행동적 특성으로 정의했다.

〈표 2〉 개인 차원의 기업가정신 구성 지표

기업가 특성	세부항목
인성적 특성	자율성, 자신감, 성취 / 소속 / 권력요구, 위험감수성, 모호성에 대한 인내
가치 및 신념	사회공헌, 권력, 안전, 신분, 부 등
능력	의사소통 능력, 대인능력, 관리 / 생산 / 마케팅 / 기술 / 재무적 능력 등
경험 및 교육	연륜, 부모의 창업경험, 창업경험, 유사직위 경험, 산업경험, 창업전 훈련 등
행동적 특성	문제의 핵심집중 능력, 의사결정과정, 유연성, 목표지향성, 조직화, 문제분석 등

출처: Chrisman et al.(1998)

(2) 조직 차원의 연구

조직 차원의 기업가정신 구성 지표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조직 차원의 기업가정신 구성 지표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자율성, 경쟁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표 3〉 조직 차원의 기업가정신 구성 지표

기업가 특성	세부 항목
혁신성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프로세스 개발을 목표로 한 실험과 창조적 프로세스를 통한 새로운 것을 기꺼이 하는 마음
진취성	예측 가능한 결과의 지식 없이 실행하는 의사결정 활동 : 위험을 감수하는 벤처프로세스에서 구체적인 자원의 몰입을 포함하는 실행
위험 감수성	미래수요의 예측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통찰력을 가진 선도자의 진취적 특성
자율성	개인이나 팀이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가적 감각으로, 조직의 관료주의를 탈피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기업가적 독립성
경쟁적 공격성	시장에서 경쟁사를 압도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집중적으로 경쟁하는 기업의 성향

출처: Dess와 Lumpkin(2005), Covin과 Slevin(1991), Lumpkin과 Dess(1996), Miller(1983)

한편, Timmons & Spinelli(2009)는 이러한 연구 차원을 종합하여 성공적인 기업가 및 팀의 핵심 특성을 〈표 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배수의 진을 치고 사업에 임하는 헌신/몰입과 결단성,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과 기회에 대한 집착, 현 상태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창의력과 적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속성들은 성공한 기업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바람직한 특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성공적인 기업가 및 팀의 핵심 특성

◆ 헌신 / 몰입과 결단성
결단성 규율 / 원칙성 끈기,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집요함 몰입과 자발적 희생
◆ 용기
도덕성 두려움 없는 실험정신 실패나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위험상황에서도 생기는 강한 호기심
◆ 기회에 대한 집착
기회 파악 능력 고객 욕구에 대한 지식 시장 지향성 가치 창조 및 확장에 대한 집착
◆ 위험, 모호성, 불확실성의 수용
계산된 위험 감수, 위험 공유 / 분산 / 극소화 불확실성과 비체계적 구조에 대한 수용 / 적응 스트레스와 갈등의 수용 문제해결 및 대안조정 능력
◆ 창의력, 자생력, 적응력
비전통적인 열린 사고, 수평적 사고, 혁신성 현 상태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 추구 적응력 개념화 능력과 꼼꼼함
◆ 남보다 앞서려는 동기
목표 / 결과 지향성, 성취와 성장에 대한 강한 욕구 타인에게 경쟁자보다 지원자라는 인식을 주는 능력 자신의 강점 / 약점 파악 능력 자신의 주관과 유머감각
◆ 리더십
솔선수범 남의 탓보다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사람 성실성과 정직성, 신뢰감, 인내력 팀을 구축하고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웅을 만드는 능력

출처 : Timmons와 Spinelli(2009)

2. 김만덕의 기업가정신

여기서는 개인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을 연구한 Chrisman et al.(1998)이 제시한 특성 중에서 창업 경험을 제외하고 인성적 특성, 가치 및 신념, 능력, 행동적 특성 등 4가지 관점에서 김만덕이 보여준 기업가정신을 분석하였다.

1) 인성적 특성

Chrisman et al.(1998)이 제시한 기업가정신의 인성적 특성에는 자율성, 자신감, 성취·소속·권력욕구, 위험감수성, 모호성에 대한 인내 등이 포함된다.

김만덕은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이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제주가 갖는 지리적 한계와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태생적 굴레를 극복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과감한 도전과 성취는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기업가정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는 조선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김만덕은 운송 체계에 기초한 유통망이 상업 발전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투자한 분야도 바로 유통업이다. 김만덕이 주목한 것은 바로 포구가 지닌 유통망으로서의 가치였으며, 이를 위해 포구에 객주를 차리게 되었다.(이덕일 2003)

이처럼 김만덕이 18세기 조선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세상을 꿰뚫는 안목을 바탕으로 유통업을 개척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찰력이 강한 추진력과 결합되면서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른바 기업가정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기업 CEO들에게 김만덕이 전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 가치를

찾고 일단 새로운 가치를 찾았다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해서 기다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보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부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려면, 남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2) 가치 및 신념

Chrisman et al.(1998)이 제시한 기업가정신의 가치 및 신념에는 사회 공헌, 권력, 안전, 신분, 부 등이 포함된다.

김만덕은 막대한 부를 가졌지만 만덕 자신은 늘 검소하게 생활하였는데,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해 절약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해 하늘의 은덕에 감사하면서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생활철학이었다.(고승희 2005)

또한 김만덕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 상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데 어긋남이 없었다. 제주도민은 만덕의 객주를 통해 육지의 물건을 손쉽게 얻었고 또 제주 물건도 정당한 시세로 팔 수 있어서 제주도민의 이익 증진에도 부합하였다고 생각된다.(제주도 1989)

김만덕은 금강산 구경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고 검소한 생활을 잊지 않았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쌀을 주는 등 자선사업에 주력하였다.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은 흙과 같다”는 김만덕의 생각 속에서 그녀가 재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김건우 2003)

요약하면 김만덕은 자신이 쌓은 부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칭송을 한 몸에 받았고, 명예직이었으나 ‘의녀반수(醫女班首)’라는 여성으로서 는 최고의 벼슬에 올라 주변부에서부터 중심부로 우뚝 서게 되었다.

오늘날의 기업 CEO들에게 김만덕이 전하는 메시지는 번만큼 베풀고, 세상과 더불어 이익을 나누라는 것이다. 부를 이루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는 더욱 어렵다. 어렵게 구축한 부를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는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즉 부를 축적하는 일 못지않게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에 공헌하라는 것이다.

3) 능력

Chrisman et al(1998)이 제시한 능력에는 의사소통능력, 대인능력, 관리·생산·마케팅·기술·재무적 능력 등이 포함된다.

김만덕이 유통업을 개척·운영하면서 신용 본위의 원칙을 지켜나간 것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넘어서 사업의 장기적 생존 및 발전 가능성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용을 토대로 절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재물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권명중 2002)

김만덕은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면서 이와 같은 신용 본위의 경영철학에 입각한 장기적 비전을 지니고 있었다. 만덕의 장기적 비전에 기초한 사업 경영은 오늘날 기업가들이 지녀야 하는 전형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조선후기 제주가 어업과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김만덕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상업에 뛰어 들었다. 유통업을 시작한 후 성공한 요인 중에는 관기로 있으면서 평소 관리들과 맺어둔 친분과 대인관계 능력도 중요한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김만덕은 오늘날의 마케팅 측면에서도 능력을 보여준다. 김만덕은 기존에 제주 상인들이 갖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조선 팔도 전체를 제주도의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미개척 시장으로 보았다. 또한 반대로 육지에서는 생산되지만 제주도에서는 나지 않는 물품을 놓고 본다면

제주도 역시 미개척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김만덕은 제주도에서만 나는 특산품을 육지에 내놓아 판매하고, 제주도에서는 나지 않는 물품을 육지에서 사들여와 판매한다면 자신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만덕이 유통업에서 성공한 전략은 매점매석이었다. 오늘날에는 매점매석이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되지만, 조선후기에는 각광을 받는 경영전략이었다. 매점매석은 단순히 자금만 많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정보력·판단력·결단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었다.(김종성 2011)

오늘날의 기업 CEO들에게 김만덕이 전하는 메시지는 기존의 시장, 제품, 서비스, 소비자 속에서도 사고의 전환을 통해 얼마든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관습적 사고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경영을 해 나가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4) 행동적 특성

Chrisman et al.(1998)이 제시한 행동적 특성에는 문제의 핵심집중 능력, 의사결정과정, 유연성, 목표지향성, 조직화 및 문제 분석 등이 포함된다.

숨뱀터가 제시했듯이 창조적 파괴를 통한 변화의 추구, 모험과 도전을 통한 발전기회의 창출 등이 현대의 기업가들이 지녀야 하는 덕목들이다. 오늘날에 와서 김만덕을 18세기 조선의 성공한 최초 여성 CEO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덕이 당시에 보여주었던 기업가로서의 위와 같은 자질 때문일 것이다.(변종헌 2004)

김만덕은 제주도의 특산물인 녹용, 꿀, 전복 등을 시세 변동에 따라 때 맞춰 육지에 내다 팔고 또한 제주도 사람 특히 소비 규모가 큰 양반

사대부와 부유한 계층이 필요로 하는 사치품이나 장신구 등을 육지에서 사들여오는 방식으로 재산을 불려 나갔다. 김만덕은 제주도와 육지 사이의 물품 수요와 물가 변동을 잘 알아 알맞은 때에 물품을 사고팔았다. 김만덕은 시기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여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오늘날의 경영기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주도와 육지를 잇는 상업 활동을 통해 시장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다진 김만덕은 이후 관가의 물품을 조달하는 권리를 얻는 한편으로 제주를 드나드는 선상(船上)의 물품을 독점적으 거래하는 여객주인권(旅客主人權)과 포구의 상품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포구주인권(浦口主人權)까지 획득했다.(이덕일 2003)

오늘날의 기업 CEO들에게 김만덕이 전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그것은 경쟁자가 없고 기존의 시장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블루오션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1〉 김만덕의 기업가정신 특성

인성적 특성	가치·신념
미래통찰력 도전정신 강한 추진력	검소한 생활태도 경영윤리 준수 사회 환원
조직화 탁월한 경영관리능력 인력네트워크 구축·활용	선택과 집중 시의적절한 전략 수립
능력	행동적 특성

IV. 결론

본 연구는 제주 출신으로 기녀의 신분을 극복하고 유통업에 뛰어들어 성공한 김만덕이 보여준 기업가정신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그녀가 지녔던 기업가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0여 년 전 조선시대 최초로 성공한 여성 CEO로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김만덕이 CEO로 역할을 수행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김만덕의 생애를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김만덕이 가졌던 기업가정신의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만덕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만덕의 생애를 고난 속에서 운명을 개척하면서 CEO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던 기간, 본격적으로 CEO로 활동한 기간, CEO 활동을 통해 얻은 것들을 사회로 환원시킨 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한편, 김만덕이 살았던 조선후기는 변화의 시기였는데 여기서는 조선 후기 영·정조 시대에 일어난 변화 중에서 김만덕과 관련되는 부분인 신분제의 변화와 상업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상업 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중개업 허가제, 대동법 시행으로 인한 공인성장 및 육상·해상교통의 발달, 상설점포인 포자의 발달, 객주의 번성 등을 들 수 있다.

김만덕이 보여준 기업가정신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을 연구한 Chrisman et al(1998)이 제시한 특성 중에서 창업 경험을 제외하고 인성적 특성, 가치 및 신념, 능력, 행동적 특성 등 4가지 관점에서 김만덕이 보여준 기업가정신을 분석하였다.

첫째, 인성적 특성 측면에서 김만덕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과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 가치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가치 및 신념 차원에서 김만덕은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였고, 상도를 실천하였으며, 사업에서 성공하여 축적한 부를 제주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아낌없이 사용하였다. 즉 자신이 쌓은 부를 사회에 환원시켜 세상과 더불어 이익을 나누었다.

셋째, 능력 차원에서 보면 김만덕은 기존 제주상인들과는 달리 사업의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중시하여 신용 본위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평소의 대인 관계능력, 마케팅 측면에서 사업 수완을 보여주었다.

넷째, 행동적 특성 차원에서 김만덕은 선택과 집중, 블루오션 등의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결실을 맺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만덕이 보여준 기업가정신은 인생경험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조선시대 최초로 성공한 여성 CEO인 김만덕의 기업가정신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과 기업 CEO들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만덕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과 작품들은 김만덕의 삶과 행적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김만덕의 삶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가운데 김만덕이 보여준 기업가로서의 정신적 가치를 발굴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다만 제한된 지면의 사료나 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평가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광명, 2008, “일제하 제주도 기업가의 사회적 배경 연구”, 「경영사학」, 제23집 제2호, 221~243.
- 고승희, 2005, “송도치부법에 투영된 개성상인의 경영사상”, 「기업경영 연구」, 제12권 제2호, 31~54.
- 권명중, 2002, 「거상 임상옥의 상도 경연」, 거름.
- 김건우 편역, 2003, 「김만덕 :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 문지향.
- 김경애, 2004, “시대와 불화하지 않으면서 시대를 뛰어넘은 여성 기업인 김만덕”, 함께 가는 여성.
- 김경애, 2006, “현대사회에서 김만덕 삶의 의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만덕과 파워 여성 토론회.
- 김방희, 2009, “드라마 김만덕과는 다른, 제주인 김만덕-경제위기 상황에서 재해석하는 김만덕 코드 7가지”.
- 김성수, 2009, “김재철 회장의 생애와 기업가정신 연구”, 「경영사학」, 제24집 제2호, 197~238.
- 김용상, 2012, 「민회빈 강씨」, 멜론.
- 김정숙, 2002, 「제주섬, 신화 그리고 여성」, 제주도.
- 김종성, 2011, “역사 그 밖의 이야기들 2 : 제주 거상 김만덕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 오마이뉴스, 2011.3.24.
- 김주미·박재필, 2011, “기업가정신 지수 표준 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 김한원, 2011, “담연 최종건 회장의 생애와 기업가정신”, 「경영사학」, 제26집 제4호, 399~434.
- 김효정, 2006, “파워여성의 사회적 역할”,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김만덕과 파워여성 토론회.

- 노부호, 2010, “유일한의 기업가정신과 경영”, 「경영사학」, 제25집 제4호, 5~35.
- 박무영·조혜란·김경미, 2004, 「조선의 여성들 :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 박주현, 2011, “김만덕 스토리텔링과 문화기획 개발의 방향”, 2011 (사) 김만덕 기념사업회 전국학술대회 : 김만덕 정신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 배종태·차민석, 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활성화”, 「중소기업연구」, 제31회 권 제1호, 109~128.
- 변종현, 2004, “21세기 제주 사회와 여성”, 제주국제협의회 제17차 학술대회 토론자료.
- 신병주, 2012, “고전의 향기 : 2012.2.20.”, 한국고전번역원 고전포럼.
- 오한숙희, 2011, “김만덕 정신을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2011(사)김만덕 기념사업회 전국 학술대회 김만덕 정신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 이민수, 2011, “장보고 리더십과 기업가정신”, 「경영사학」, 제26집 제1호, 59~91.
- 이덕일, 2003, 「여인열전」, 김영사.
- 제주도, 1989, 「구원의 여상 김만덕」, 제주도청.
- 주희춘·이희정·김태준·박성수, 2010, “강진 병영상인에 관한 역사적 재조명”, 「경영사학」, 제25집 제4호, 67~95.
- 최재석, 1976, 「제주도의 친족연구」, 일지사.
- 한창완, 2011, “김만덕 정신과 문화콘텐츠”, 2011 (사) 김만덕기념사업회 전국 학술대회 : 김만덕 정신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 한국여성민우회, 2004.7/8, 「함께 가는 여성」.
- blog.daum.net/jib17.
- bolg.daum.net/Zhy5532.

- Chrisman, J.,A. Bauerschmidt, et al., 1998, The determinants of new venture performance : An extended model,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3(1) : 5~29.
- Covin,. G. and D. P. Slevin, 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a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 7~25.
- Dess, G. G. and G. T. Lumpkin, 2005, “The Rol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Stimulating Effective Corporate Entrepreneurship”,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9(1): 147~156.
- Knight, F. H., 1921, *Risk, Uncertainty and Profit*, New york : Augustus M. Kelley. Reprint. 1964.
- Lumpkin, G. T. and G. G. Dess, 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ship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172.
- Miller, D., 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Timmons, J., 1994, *New Venture Creation :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Boston : McGraw-Hill.
- Timmons, J., and S. Spinelli, Jr., 2009, *New Venture Creation :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Boston : McGraw-Hill.
- OECD(1998), *Fostering Entrepreneurship*, Paris.

| 4부 |

김만덕과 문화콘텐츠

- 김만덕 스토리텔링의 양상과 과제 - 이창훈
- 고전의 현대적 수용 - 김만덕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 사례를 중심으로 - 정창권
- TV 사극에서 '거상(巨商)' 콘텐츠의 영웅 스토리텔링 개발 방안 - 안숙현

김만덕 스토리텔링의 양상과 과제

이 창 훈*

1. 서론

21세기는 문화가 곧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시대다. 이미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유적 등을 콘텐츠로 개발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있으며, 지역을 배경으로 하거나 지역의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 제작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제주도 역시 TV드라마 「올인」, 「태왕사신기」, 「인생은 아름다워」 등의 드라마 세트장과 촬영장소 등을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촬영장 대부분은 드라마의 종료와 함께 관광객 숫자 역시 빠르게 감소하고 만다. 단순한 세트장 건립이나 촬영장소의 제공만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지역의 문화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지역과 밀착되어 있으며,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내재한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발굴·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상품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다양한 콘텐츠 자원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이 김만덕이다.

* 제주대학교 박사과정. mansto@hanmail.net

김만덕은 유통업을 개척한 사업가, 상도(商道)를 실천한 경제인, 제주 도민을 구휼한 자선가, 그리고 조선조 여성의 굴레와 한계를 뛰어넘은 자유인 등으로 그려지는 선구자적 여성이다. 이러한 그녀의 전기적 사실들은 그녀를 성공한 삶을 산 여성, 진취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한 여성의 이미지로 소설, 만화, 전시, 드라마, 공연,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개발되게 만들었다. 김만덕을 소재로 한 창작물들로는 김봉옥¹⁾, 이경채²⁾, 권무일³⁾, 윤수빈⁴⁾, 김인숙⁵⁾ 등의 소설과 오성찬⁶⁾, 강용준⁷⁾의 희곡작품과 최근에 종방된 KBS 대하 역사 드라마 「거상 김만덕」 그 외에 수십 종의 만화까지 다양하게 가공되어 있다.

하지만 2010년 KBS를 통해 TV드라마로 제작된 「거상 김만덕」은 아쉽게도 흥행에 실패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김만덕의 이야기가 대중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데 실패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김만덕은 콘텐츠 개발 뿐 아니라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만덕에 관한 연구는 현승환, 송병식, 손달례 등에 의해 논의되었다. 현승환⁸⁾은 김만덕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자세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김만덕을 문화작품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송병식⁹⁾은 김만덕을 성공한 경영인으로 파악하고 있어 흥미롭다. 손달례¹⁰⁾는 출신은 다르지만 자신

1) 김봉옥, 『김만덕전 : 의병항쟁기 및 조봉호전』, 제주문화, 1990.
 2) 이경채, 『김만덕』, 나무처럼, 2010.
 3) 권무일, 『의녀 김만덕』, 문학과예술, 2009.
 4) 윤수빈, 『조선의 여성 상인 김만덕』, 창해, 2009.
 5) 김인숙, 『제주의 빛 김만덕 : 푸른 숲 역사 인물 이야기』, 푸른숲, 2006.
 6) 오성찬, 「넙더라 그 여자의 치마폭-김만덕전」, 『제주도』 제108호, 2004.
 7) 강용준, 「파도에 길을 묻다」, 『파도에 길을 묻다』, 지성의 샘, 2007.
 8) 현승환, 「실존인물 김만덕의 문화화 과정」, 『白鹿語文』 제20·21집, 백록어문학회, 2005.
 9) 송병식, 「제주거상 김만덕에 관한 연구」, 『經營論集』 제40권 제1/2호,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2006.
 10) 손달례, 「이름다운 삶의 여정 : 볼 플란디즈와 김만덕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의 삶을 스스로 개척했던 김만덕과 17세기 영국의 물 플란디스를 비교하여 두 사람의 진취적인 삶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김만덕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제공해주었다. 그 밖에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2004년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보고서』와 2010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추모 200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¹¹⁾을 발간하는 등 지금까지 발굴된 김만덕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만덕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김만덕에 관한 기존의 문헌기록들을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김만덕 이야기(이하 ‘만덕 이야기’로 통일)’의 문헌상의 변화 양상과 소설, 만화, TV드라마 등 최근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만덕 이야기의 시대별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덕 이야기의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김만덕 관련 문헌기록 고찰

김만덕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796년(정조 20년) 정조실록의 기록으로, 김만덕의 신분이 제주 기생이라는 사실과 그녀가 굶주리는 백성을 자신의 재물을 풀어 구휼했다는 사실, 그리고 상을 주려 하자 상 대신 금강산 유람을 원했다는 세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제주기생 만덕이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들을 구하였다고 목사가 보고하였다. 상을 주려고 하자, 만덕은 사양하면서 바다를 건너 상경하여 금강산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허락해 주고 나서 연로의 고을들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게 하였다.¹²⁾

제14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11) 문순덕·박찬식, 『추모 200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 제주발전연구원, 2010.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24일조에도 김만덕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 글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채제공과 정조의 대화를 기록한 것으로 만덕에게 식량과 노자를 주어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도록 비변사가 그 일을 담당하는 내용이다.

채제공이 말하길, “탐라의 기녀가 재산을 바쳐 백성을 진휼하였는데, 상 받기를 원치 않고 면천하기도 원하지 않고 오로지 왕성 보고 금강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바, 그 원함에 따르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겨우 서울에 올라왔는데, 마침 심한 추위를 만나 이 집 저 집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만덕이 신을 찾아와서 울며 호소하는데, 그녀가 비록 천류이지만 그 의가 매우 높고 그 정이 매우 높고 측은하므로, 유사(有司)에 분부하여 별도로 돌보아주게 함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탐라사람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가엾게 여기는 것이 타도보다 더욱 각별하다. 그녀는 한 천한 기생으로서 의롭게 재물을 내놓아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는 데 힘을 썼으니 매우 가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원 또한 녹록하지 않아 이미 서울에 올라온 후에 어찌 도로에서 지내며 굶주리게 할 수 있겠는가. 비변사로 하여금 다시 그녀에게 물어, 바라는 대로 서울에 머물렀다가 봄이 온 후에 금강산으로 내려보내 구경할 수 있게 한 다음 양곡과 돈을 지급하여 뱃길로 본향(제주도)에 떠나보냄으로써 (조정에서) 아무런 일도 함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짐의 뜻을 보여줄 수 있게끔 하라.”

이병모가 아뢰길, “신은 비변사에서 이번에 보고한 일 때문에 황송하기 그지 없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이번 일은 미세한 일에 불과하다. 대신들이 재상의 시사(時事)로써 들어와 보고하는 것은 전후의 어떤 시한(時限)도 거론하지 말라. 경들은 그제야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물러갈 것을 명하였다.¹³⁾

12) 「정조실록」 정조 20년 11월 25일. 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 자료 총서Ⅱ』, 도서출판 각, 2008, 13쪽.

13)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11월 24일조. 위의 책, 14-15쪽.

다음날인 「승정원일기」 25일의 기록에는 “제주 기생 만덕에게 양식과 비용으로 쌀 1석과 금전 5냥을 지불하고, 봄이 올 때까지 양식을 지급”하라는 정조의 명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만덕을 “내의원에 충원시켜 행수의녀로 임명하여 수의에 속하게 하여 각별히 돌보아주고, 금강산을 보고 돌아올 때 연로의 지방관들에게 분부하여 양식과 비용을 우대하여 지급하도록 하라.”¹⁴⁾는 기록도 보인다. 그러므로 현재의 만덕 기념탑 우측 벽면 동판에 새겨진 “정조는 서기 1796년 김만덕에게 의녀 반수의 직함을 제수하고 그녀를 궁중에 오게 하여 직접 그 공을 높이 칭송하다.”라는 기록은 전후관계가 뒤바뀐 것이다. 만덕을 한양으로 올리고자 그녀를 행수 의녀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양에 와 있는 그녀에게 대접이 소홀함을 탓하여 행수 의녀로 임명해 편의를 도모해 준 것이다.

그 외에도 만덕에 관한 기록은 관찬사료인 『일성록(日省錄)』, 정약용의 「중동변(重腫辨)」, 「탐라 기생 만덕이 진신대부로부터 송별시집을 얻다(題耽羅妓萬德所得摺紳大夫贈別時卷)」, 채제공의 「설날 혹한에 출유한다(元春苦寒行)」, 「만덕전(萬德傳)」, 이재채의 「만덕전(萬德傳)」, 심노승의 「계섬전(桂織傳)」, 조수삼의 「만덕(萬德)」, 이희발의 「만덕전(萬德傳)」, 김희락의 「교지를 받들어 만덕전을 지어 올린다.(奉教製進萬德傳)」, 이면승의 「만덕전(萬德傳)」 등 매우 다양하다. 이 같은 다양한 김만덕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만덕의 행적에 관한 기록으로,

- ① 만덕이 자신의 재산을 풀어 제주의 백성을 구휼했다.
- ② 상을 대신하여 한양과 금강산을 구경하고 돌아갔다.
- ③ 정조가 만덕을 행수의녀로 삼았다.

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14)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11월 24일조. 위의 책, 16쪽.

김만덕에 관한 기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화 과정을 거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만덕이 기녀에서 양인이 되었다거나, 그녀가 김해 김씨의 딸이라는 사실이 대표적이다. 이는 그녀가 기녀 신분으로 양민을 구휼했다는 사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된다.

“기녀는 조선 초기부터 있던 제도인데 그 종류는 여악(女樂), 의녀(醫女), 창기(娼妓) 등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관기(官妓)를 뜻한다. 이들의 신분은 천인으로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와 같은 존재였다. 기녀는 노비와 마찬가지로 한번 기적에 올려지면 천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가령 양반과 혼인하더라도 그 자식은 천자수모법(賤子隨母法)에 따라 아들은 노비, 딸은 기녀가 되었다. 기녀의 신분은 관아에 예속된 채 세습되었다. (...) 이를 벗어나려면 돈을 바치고 속량되는 경우가 아니면 평생 벗어날 수 없었다.”¹⁵⁾

또한, 김만덕은 1739년생으로 실제 이름도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들에게 이름이 부여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 호적을 정리하면서부터이다. 여자 아이들은 대개 큰년, 셋년, 죽은년, 말젓년 등으로 불렸다.”¹⁶⁾ 따라서 만덕 역시 실제 이름이라기보다 기적에 이름을 올리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보면 그녀의 성인 ‘김(金)’씨 역시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만덕이 성이 ‘김’씨였다는 기록은 채제공의 「만덕전」에 맨 처음 등장한다. 이후 김만덕이 양인이었다는 기록들은 여러 문헌에 보이나 이는 실제적인 검증이라기보다 채제공의 「만덕전」에 기댄 측면이 강하다. 김만덕의 본관이 ‘김해’임을 밝힌 것은 1812년 11월 21일 김만덕의 사망 이후 만들어진 「김만덕 묘비문」이다. 묘비문에는 “김만덕의 본은 김해 김씨요 곧 탐라의 양인 집안의 딸이다.”¹⁷⁾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1932

15) 현승환, 앞의 논문, 47쪽.

16) 위의 논문, 49쪽 참조.

년 김두봉의 『제주도 실기』 「여자 중 특이한 인물」 편에서 “김만덕의 본관은 김해이다”¹⁸⁾라고 다시 언급된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김만덕의 묘를 모충사로 이묘하며 기념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김만덕은 서기 1739년 제주에서 김응렬의 외동딸로 태어나니…”라며 만덕의 아버지가 김응렬임을 새롭게 밝히고 있다. 이는 김태능의 「의녀 김만덕전」¹⁹⁾ 등에 나타난 기록을 옮겨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만덕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으로 최초의 기록은 채제공의 『번암집』 권55에 수록된 「만덕전」이다. 채제공은 이 글에서 만덕의 성이 김씨이며 탐라에 사는 양가집 딸이었음을 밝혔다.

만덕의 성은 김씨이니 탐라에 사는 양가집 딸이었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돌아가서 의탁할 곳이 없어서 기생의 집에 의탁하여 살았다. 조금 자라나자 관가에서 만덕의 이름을 기안에 올렸다.²⁰⁾

“전의 일반적인 특징이 도입부에 대상과 인물에 대한 성명, 출생, 가계 족보, 성격을 제시한 뒤, 신화처럼 탄생과정 같은 것도 없이 바로 사건행적이 나오”²¹⁾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채제공의 기록은 실제 김만덕의 성이 ‘김’씨였음을 사실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 증거가 당시 일반적인 여성들의 묘비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김만덕의 묘비명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여성 묘지명의 경우 여성의 개인 성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남성의 경우 이름과 자호가 함께 기록되어 주체적인 개인으로 다루지만, 여성의 경우 아무개의 딸, 아무개의 처, 며느리로 표현함으로써 남성 뒤쪽에 숨겨진다. 살아

17) 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 자료총서 II』, 129쪽.

18) 위의 책, 118쪽.

19) 김태능, 「의녀 김만덕전」. 김만덕기념사업회, 『은광연세』, 도서출판 각, 2007, 19쪽.

20) 채제공, 「만덕전」, 『번암집』 권55. 위의 책, 45쪽.

21) 현승환, 앞의 논문, 45쪽.

있을 때 이름이나 당호나 사후 기록에서 배제된다. 이처럼 불출(不出)의 원리에 입각한 서술방식은 만덕의 묘비명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²²⁾ 이와 같은 김만덕 묘비명의 특징은 김만덕이 추앙받는 삶을 산 인물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수성이기보다 지배층의 통치수단의 결과물로 보인다. 실제 정조는 김만덕의 행적을 기리고자 여러 권신들로 하여금 그녀의 행적을 기리는 글을 짓도록 했다.²³⁾ 또한 이채재의 「만덕전」, 심노승의 「계섬전」, 이희발의 「만덕전」, 김희락의 「교지를 받들어 만덕전을 지어 올린다」, 이가환의 「만덕을 탐라로 보내니 돌아갔다」, 박재가의 「만덕이 제주로 돌아갈 때 송별한시」 등 동시대의 전(傳)의 형태를 띤 대다수 작품들에서도 만덕이 제주기녀라는 언급만 있을 뿐 그녀의 성씨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이다.

이런 이유로 채제공이 만덕의 성씨에 관해 언급한 부분은 그가 만덕의 출생에 관해 공식적인 문헌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기보다 만덕을 만나서 들은 내용을 기록했거나 혹은 채제공이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사실일 수 있다. 이는 채제공의 기록 이전에는 어디에도 만덕의 성씨에 관한 언급이 없고 동시대의 대다수 전에도 이런 내용이 언급되고 있지 않은 작품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자들에게 이름이 부여된 것이 일제강점기에 이르러서였고, 실제 여염 아낙의 성씨는 기록에 거의 없으며, 반가의 여식 또한 죽보에 기록될 때 ‘아무개의 처 김씨’ 정도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채제공이 「만덕전」을 지은

22) 김만덕기념사업회, 『은광연세』, 위의 책, 142쪽.

23) 김희락의 문집 『교식』에는 「교지를 받들어 만덕전을 지어 올린다」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다. 김희락은 이 글을 통해 만덕을 “협사전(俠士傳) 가운데 넣어둔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다.”(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 자료 총서 II』, 도서출판 각, 2008, 79쪽.)고 찬양한다. 김만덕의 구출 활동이 1795년의 일이니 그가 교지를 받들어 만덕전을 지어 올린 것은 정조대의 일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정조가 교지를 내려 많은 대신으로 하여금 만덕전을 짓도록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정조가 만덕의 덕행을 널리 알려 이를 치세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것은 만덕을 위로하고자 하는 뜻이 강했다. 그랬기 때문에 성이 없던 그녀를 위로코자 ‘김’씨라는 성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傳)은 애초에 구체적 인물의 주요 행적을 구심점으로 하여 서술되는 것 이외에 엄격하게 규범화한 어떤 제약도 없이 매우 자유로운 형식으로 성립되었다. 그리하여 필연적으로 전 양식은 공시적으로는 다양성을 지니며, 또한 통시적인 관점에서는 변화성을 떨 수 밖에 없다”²⁴⁾. 또한 전은 “자료의 취사 선택으로 말미암아 전기는 구성면에서 자연히 허구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엔 작가가 대상 인물의 일관된 생애와 성격을 그려내기 위해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사실까지도 주저없이 사용하여 허구의 진실은 더욱 확대된다.”²⁵⁾ “실제 인물의 기술, 재현하는 데서 출발하여 점차 허구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소설 발생의 계기가”²⁶⁾된 것이 전(傳)이다. 결국 채제공의 「만덕전」은 사실과 허구가 결합된 ‘전(傳)’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작품으로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허구인지 구분해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동시대의 다른 문헌과 함께 살펴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① 만덕은 제주도 기생이다. ② 재화를 풀어 기민을 구제했다. ③ 목사의 장계를 접하고 왕이 포상을 하고했다. ④ 포상으로 금강산 유람을 희망하여 이를 수락했다. ⑤ 입경한 후 여행의 편의를 도모코자 정조가 내의원 행수의녀직을 만덕에게 하사했다 정도이다. 이후의 문헌기록들은 대부분 채제공의 「만덕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사실 관계의 기록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것은

24) 광정식, 「전 문학의 장르적 성격과 소설적 한계」, 『새얼어문논집』 제4집, 새얼어문학회, 1988. 215쪽.

25) Alan Shelston 저, 이경식 역, 「전기문학」, 『문학비평총서』 16, 서울대출판부, 1979. 현승환, 위의 논문, 45쪽 재인용.

26) 광정식, 앞의 논문, 216쪽.

위에 언급한 다섯 가지 사실 기록에 채제공의 「만덕전」이 더해져 현재의 ‘만덕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으로 전해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허구적 사건들이 결합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문헌자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만덕을 의녀(義女)로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심노승의 기록만이 이와 다르다는 점이다.

지난해 제주기녀 만덕이 곡식을 내어 진흙하니 조정에서는 그녀를 예국의 우두머리 종으로 삼고 금강산 유람까지 시켜주면서 말과 음식을 제공하였으며, 조정의 학사들로 하여금 그의 전까지 짓도록 명하여 규장각의 여러 학사들을 시험하였다. 지난날 내가 제주에 있을 때 만덕의 얘기를 상세하게 들었다. 만덕은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해 돈을 보고 따랐다가 돈이 다하면 떠나는데, 그 남자가 입을 바지저고리까지 빼앗았으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남자의 바지저고리가 수백 벌이 되었다. 매번 쪽 늘어놓고 햇볕에 말릴 때면, 군(郡)의 기녀들조차도 침을 뱉고 욕하였다. 육지에서 온 상인이 만덕으로 인해 폐가망신하는 이가 잇달았더니 이리하여 그녀는 제주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 형제 가운데 음식을 구하는 이가 있었는데 돌아보지도 아니하다가 도에 기근이 들자 곡식을 바치고는 서울과 금강산 구경을 원한 것인데, 그녀의 말이 웅대하여 볼 만하다고 여겨 여러 학사들은 전을 지어 많이 칭송하였다.

내가 「계섬전」을 짓고 나서 다시 만덕의 일을 이와 같이 덧붙인다. 무릇 세상의 명(名)과 실(實)이 어긋나는 것이 이러한 것이 많음을 혼자 슬퍼하니 계섬의 이른바 만나고 만나지 못하고 하는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²⁷⁾

27) 심노승, 「계섬전」, 『효전산고』 권7.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연구-산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44쪽 재인용.

이에 대해 김영진은 당파성이 은연 중 개입되어 소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쓰고 남인들에 의해 찬양된 만덕에 대해 비판적으로 쓴 것으로 추정²⁸⁾했으나, 만덕의 행적에 대한 부분은 심노승이 제주에서 직접 들은 것을 기록한 것으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심노승은 만덕의 행적은 여타 기록들이 체제공의 「만덕전」에 기대고 있는 것과 달리 심노승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심노승의 기록이 작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을 폄하하거나 훼손시키기를 싫어하는 정서적인 반감과 김만덕을 지역의 대표인물로 키우고 있는 김만덕기념사업회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물로 보인다.

그러나 다양하고 개성적인 이야기를 원하는 현재의 콘텐츠 시장에서 천편일률적인 내용만을 반복 재생산해내는 현재의 스토리텔링으로는 김만덕을 지역의 대표적 콘텐츠 소스로 활용하기 어렵다. 심노승의 기록은 천편일률적 찬양 일색인 만덕 이야기에서 벗어나 인간 김만덕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개성적인 인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흥미롭고,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김만덕을 효과적인 콘텐츠 소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심노승의 기록은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처럼 만덕에 관한 고문기록은 심노승의 기록을 제외하곤 대부분 만덕의 ‘기민 구휼’이라는 행적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만덕을 예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8) 김영진, 위의 논문, 45쪽 참조.

3. 김만덕 콘텐츠 스토리텔링 양상

3.1. 전(傳)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만덕에 관한 기존의 문헌기록들은 심노승의 기록을 제외하곤 천편일률적인 찬양 일색이다. 이는 제주기민들을 구휼했던 김만덕의 행적에 채제공의 「만덕전」이 더해지며 미화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치세의 도구로 활용²⁹⁾한 정조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후의 기록들은 채제공의 「만덕전」에 조금씩 첨언된 것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의 전(傳)의 형태로 전해진 것이다.

전과 소설의 형태로 기록된 작품들 중 최근작으로 관심이 가는 것이 김태능의 「의녀 김만덕전」,³⁰⁾ 정비석의 「제주기 만덕」,³¹⁾ 김봉옥의 「구원의 여인 김만덕」³²⁾, 양중해의 「김만덕의 자선」³³⁾ 등이다. 김태능의 「의녀 김만덕전」은 내용에 있어 이전의 것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다른 기록들에는 거의 없던 김만덕의 가계(家系)에 관한 사항이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특이하다. 김태능은 이 글에서 김만덕의 본관이 경주 김씨인데 김만덕의 비문에는 김해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

29) “관료들에게 만덕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담론을 가능케 한 인물이었다. 때문에 조정에서는 학사들로 하여금 만덕의 전을 짓게 하였고, 많은 관료들은 만덕을 위한 글을 지었다.”(김준형,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김만덕기념사업회, 『은광연세』, 위의 책, 266쪽)는 부분이나 “서울에서 벼슬을 하는 선비들은 조선조 통치 윤희인 유교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인데 이들도 만덕을 칭송하는 헌사를 앞다투어 지어주었다. (...) 유교선비로서 정절이데올로기에 비추어 만덕에게 최고의 찬사를 한 것”(김경애, 「김만덕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 위의 책, 315~316쪽) 등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30) 김태능, 「의녀 김만덕전」,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김만덕기념사업회, 『은광연세』, 도서출판 각, 2007.

31) 정비석, 「제주기 만덕」, 『명기열전』 6, 신정사, 1981. 김만덕기념사업회, 위의 책.

32) 김봉옥, 「구원의 여인 김만덕」, 『제주도』, 1989. 김만덕기념사업회, 위의 책.

33) 양중해, 「김만덕의 자선」, 『제주여인상』, 1998. 김만덕기념사업회, 위의 책.

며, 이는 김해 김씨 혈통의 유래와 관계된다는 주장³⁴⁾을 펴고 있다.

김해김씨는 대별하여 혈통이 상이한 세 계통이 있다. 하나는 수로왕의 후손인 김해김씨(속칭 선김)요, 다음은 신라 경순왕의 후인 김녕군 김시홍(김녕 김씨 시조)의 후손 중의 김해 김씨(속칭 후김)파요, 또 다음한 계통은 임진왜란 때 귀화한 일본인 사가야의 후손 김해 김씨인 것이다. 현재 제주 도내의 대성인 경주 김씨(속칭 감목관 김씨)는 상기한 김시홍의 후손 익화군 김익찬의 자 김검용(입도조)의 후손들이는데 본시 본관은 김녕 김씨였다. 김녕과 김해는 옛적에는 오랜 유래가 있는 동명이므로 김녕 김씨 중에는 김해로 호관하는 파도 있게 되었다.(전국적인 현상) 그래서 수로왕 후손과 경순왕 후손의 두 김해 김씨 씨족들은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상기한 바와 같이 선김과 후김으로 구별되어 오기는 하나, 세월이 흘러가고 후손들도 많이 불어나므로 이런 정도의 구별만으로는 혼동을 막을 수가 없으므로 제주에 주거하는 김녕 김씨와 같은 입도조의 후손인 김해 김씨들만은 국왕의 윤허를 받아 현종 12년(1846년) 선씨의 본관인 경주로 복관하였다. 이런 역사적 관계로 미루어 보아 현재 만덕의 동기의 후손들이 경주 김씨이므로 만덕은 분명히 김녕 김씨 계의 김해 김씨(후김)였던 것이다.³⁵⁾

김태능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이 확실한 고증에 의해 기록된 문헌이라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실제 김만덕의 족보가 위와 같은 이유로 김해 김씨에서 경주 김씨로 바뀌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원래 김만덕의 본관이 김해 김씨가 아님에도 채제공의 「만덕전」에 채제공이 김만덕을 위로하고자 ‘김’이란 성을 임의로 지어주었기

34) 경주김씨 익화군 제주파 족보에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경주김씨 익화군 제주파 십오세손 입도조 검용공 십사세손 석우조문중회, 『경주김씨 익화군 제주파족보 1권』, 1995. 74~76쪽 참조)

35) 위의 책, 39~40쪽.

때문에 나타나는 혼동인지 알 수 없다. 또한, 그녀가 양자로 들인 자식들의 성씨가 김씨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구체적 가계 기록을 통해 ‘만덕 이야기’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구체성을 띄게 변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이 작품에는 탐욕스럽고 호색한인 목사와 만덕을 대비시켜 만덕을 더없이 정숙하고 기품 있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때 제주에 탐욕과 호색의 목사가 부임되어 왔다. 그는 지방민으로부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기회 저런 기회를 이용하여 구하기 어려운 우황을 비롯하여 귀중한 각종 약재와 진주와 준마들을 슬금 슬금 거두어들여 그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일방, 탐라의 명기 만덕도 정복하여 자기 손아귀에 넣어보려고 흥계를 세웠다. 그래서 그는 심복 부하를 시켜 만덕에게 수청 들도록 꾀어 달래게 하고, 만일 불응할 때는 이리이리해서라도 기어코 그를 동헌으로 데려오라고 일러 보내었다.³⁶⁾

이제 다시 기생인 만덕의 인품과 몸가짐을 살펴보면, 그는 비록 노류장화의 신세인 천기였으나 불타는 정욕의 청춘 시절에도 흥분해서 극력 자신을 억제하였고, 부귀와 권력의 유혹 속에서 그는 힘써 부덕을 지키려 노력했으며, 정절을 또한 생명과 같이 중히 여겼다.³⁷⁾

이러한 김만덕의 묘사는 상대적으로 만덕으로 하여금 자신의 수청을 들게 하려는 지방수령을 타락한 호색한과 악당으로 강조해 비치게 한다.

이 또한 만덕을 영웅화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의 내용은 저작들과 비슷하다.

김봉옥의 「김만덕전」에서 이전 작품들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만덕

36) 김태능, 앞의 책.

37) 위의 책.

이 세우는 세 가지 장사 원칙이다.

만덕은 장사하는 데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것이요. 둘째, 적당한 매매가격, 셋째, 정직한 신용 본위였다.³⁸⁾

만덕이 세웠다는 이 세 가지 원칙은 뒤에 오성찬의 희곡 「넙더라, 그녀의 치마폭-김만덕전」에 활용된다. 그 외 만덕이 내의원 반수가 된 원인을 “평민으로서의 임금을 배알할 수 없으므로 만덕에게 예궐할 수 있게 하는 조치”³⁹⁾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밝혀놓은 〈송정원일기〉의 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결과물이다.

양중해의 「김만덕의 자선」은 김만덕의 생애를 일괄하고 난 후, 만덕이 기녀가 되는 과정과 기적에서 벗어나는 과정, 상인으로 부를 축적하고 기민 구휼에 나서는 과정을 소설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만덕이 ‘한매’라는 퇴기의 집에 5, 6년을 기거하다 17·8세에 기적에 오르게 된 사연과 양가의 딸로 기녀 생활에 강한 저항을 느끼는 것으로 묘사⁴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후일 만덕이 기녀 신분을 벗어나게 되는 개연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밀도는 다소 떨어진다. 이처럼 만덕을 다룬 전(傳)들 대부분이 만덕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녀 신분의 해방과 거상으로서의 성장, 기민 구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8) 김봉옥, 앞의 책, 123쪽.

39) 위의 글, 135쪽.

40) 양중해, 앞의 글, 161쪽 참조.

3.2. 소설

구술과 전의 형태로 전해지던 '만덕 이야기'가 현대소설 형식으로 가공되기 시작한 것은 정비석의 『명기열전』(1977, 이우출판사)부터다. 『명기열전』 이후 현재까지 '만덕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화된 작품⁴¹⁾만도 윤수민의 『김만덕-조선의 여성상인』, 권무일의 『의녀 김만덕』 등 다양하다. 이들 소설작품은 2009년을 전후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2010.03.06~2010.06.13일까지 KBS를 통해 <거상 김만덕>의 흥행을 예상하여 급조된 작품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명기열전』은 1976년부터 정비석에 의해 조선일보에 4년간 연재된 작품이다. 정비석은 작품의 첫머리에 채제공의 「만덕전」을 읽고 당시 영의정인 채제공으로 하여금 전기를 쓰게 만든 제주 기생 만덕에 대한 궁금증으로 「제주기 만덕」을 쓰게 되었다고⁴²⁾ 작품의 창작 동기를 밝히고 있다. 그의 작품은 당대의 유명 작가답게 사건 진행, 당위성, 개연성에서 이전의 전(傳)들과 다르게 구체적이고 흥미롭다.

“목사는 웬일인지 만덕이에게 비천한 기생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도리어 인품이 고상한 현부인과 같은 용모와 체취를 느끼기도 하였다.”⁴³⁾ “만덕은(...)스스로 정결한 기녀로서 처신할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⁴⁴⁾ “만덕 객주집은 제주도와 육지의 물자를 교역하는 곳이 되자 육지의 물건을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또 제주 물건도 정당한 시세로 팔

41) 윤수민, 『김만덕-조선의 여성상인』, 창해, 2009.

권무일, 『의녀 김만덕』, 문학과 인식, 2009.

홍종화, 『조선 최초 여성 CEO 김만덕』, 주류성, 2009.

이수광, 『소설 김만덕』, 워스비전, 2010.

이성길, 『숨비소리-조선의 거상 신화 김만덕』, 순, 2010.

김영미, 『김만덕』, 산수야, 2010.

42) 위의 책, 43~44쪽.

43) 김태능, 앞의 책, 20쪽.

44) 김봉옥, 앞의 책, 120쪽.

수 있으므로 모두가 만덕의 뛰어난 장사솜씨에 감탄하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⁴⁵⁾ 등 기존의 구체적인 사건 없이 막연하게 기술되어 있던 부분을 이 작품에서는 개연성 있는 에피소드로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사건의 개연성 확보와 새로운 에피소드를 삽입함으로써 만덕의 행위 대부분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한다. 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제주기 만덕의 구성과 에피소드의 작품 내적 효과

	에피소드	작품 내적 효과
①	사냥터에서 화살 맞은 노루를 살려줌	생명존중 사상의 표현
②	만덕이 신관 사또의 수청을 거절	당찬 기개의 표현
③	고선흥과의 사랑	여인으로서의 정절 의식 표현
④	구체적인 부의 축적 과정	재화 축적 과정의 정당성 표현
⑤	기민 구휼의 과정	애민사상의 표현

기존의 기록과 전들이 그랬던 것 같이 만덕에 대한 영웅화를 위한 설정 역시 이 작품 곳곳에 등장한다. 만덕이 부를 축적하는 사재기 과정이 단골 상인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덕행의 결과로 미화되거나, 우환의 사재기 과정이 만덕의 재능으로 묘사되고 있는 부분, 실생활에서 검소한 생활을 한 소박한 여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하다.

설날 보름쯤 지나간 어느날 목포에서 단골 거상 하나가 필목과 솜과 기명을 한 배 가득 싣고 왔다.(…)

“그러잖아도 연말 대목을 보려고 이런 물건을 가지고 떠났는데, 도중에서 풍랑을 만나 도착하기가 20일이나 늦었소이다. 2월 초에는 우리집 아이를 장가 보내기 때문에 나는 빨리 돌아가야 하겠으니, 이 물건을 속히 처분하도록 힘써 주시오.”(…)

45) 위의 책, 124쪽.

만덕은 단골손님의 편의를 도모해 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다.(…)
“ 좋습니다. 아주머니가 맡아주신다면 이백 냥은 손해를 볼테니
천 냥에 맡아주시오.”

(…) 만덕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못해 그 물건을 맡아버렸는데,
그 해 가을에 삼만 일대의 목화가 대홍작이어서 그 해 겨울에는 필목
과 솜 값이 다섯배로 뛰어 올랐다. 그리하여 만덕은 일약 만 냥 부자
가 되었다.⁴⁶⁾

제주도에는 소가 많아서 우황 같은 것은 어디를 가도 흔했다. 우황
이란 소의 쓸개에 병으로 인해 생기는 특이 물질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는 우황 같은 것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우황을 서울에서는 녹용이나 인삼보다도 더 귀한 약재로 여겼다.⁴⁷⁾

이 작품에서 기존 작품에 없던 흥미로운 부분은 작가 정비석이 ‘만덕’
의 이름을 나름의 해박한 지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대목이다.

신라의 진흥왕은 음악을 존귀하게 여기는 까닭에 그는 우탁으로
하여금 제자들을 길러서 가야국의 음악을 같이 계승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탁은 많은 제자들을 길렀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제자 세 명이 있었으니, 계고는 가야금에 출중하였고, 대나마 범지
는 노래에 출중하였고, 태사 만덕은 춤에 출중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 ‘만덕’하면 누구나 춤을 연상했던 것이다.⁴⁸⁾

이와 같은 역사적인 고증은 ‘만덕 이야기’에 또 다른 신화성을 가미하
며 이야기를 구체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정비석의 「제주기
만덕」은 내용에서는 기존 만덕 이야기의 정형성을 벗어나지 못하나 소
설이라는 형식으로 ‘만덕 이야기’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만덕의 이름에

46) 위의 책, 82~84쪽.

47) 위의 책, 84쪽.

48) 위의 책, 55쪽.

관한 새로운 유래를 내놓으면서 스토리텔링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의 작품으로 2009년에 발행된 윤수빈의 『조선의 여성상인 김만덕』이 있다. 이 작품은 발표 시기로 보아 TV드라마 『거상 김만덕』의 후광을 기대하고 기획된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김만덕을 ‘나’로 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회상 형태로 시작되는 특징이 있다.

열한 살, 그러니까 내가 눈앞의 계집아이만 하던 시절에 나는 난생 처음 정의현 바닷가 마을 동북리를 떠났다. 부모를 따라 목안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였다.⁴⁹⁾

이 작품에서도 만덕의 아버지는 장삿길에 바다에 빠져 죽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뒤에 검토할 강용준의 희곡 「파도에 길을 묻다」의 설정과 흡사하다. 그 밖에 이 작품 곳곳에는 기존 전들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던 제주도에 대한 작가 나름의 해박한 지식을 곳곳에 드러내고 있기도 한다.

뱀은 탐라 땅에 넘친다. 탐라에 많은 세 가지가 바람, 돌, 여자라지만 그건 틀린 말이다. 여자인 내가 보기엔 탐라의 삼다 마지막에 들어가야 할 건 뱀이다. 산이 메슥지고 안개와 비구름이 잦은 이 땅엔 축축하고 그늘진 어디나 뱀이 있다. 그래서 뱀 신의 이야기도, 신당도 많다.⁵⁰⁾

제주는 일선의 섬이라 인구 유지를 위해 출륙금지령이 내려있어, 육지의 객상들이 우리에게 부족한 필수품, 즉 쌀과 무명, 삼베, 소금, 무쇠 등을 가지고 와서 팔고 우리의 토산을 사간다.⁵¹⁾

49) 윤수빈, 앞의 책, 19쪽.

50) 위의 책, 202쪽.

“하지만 예부터 우리 섬에선 군번수가 모자라면 건강한 처녀까지 수자리에 나서길 마다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⁵²⁾

하지만 이러한 작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역시 과거의 전에서 보여주던 행위 중심의 이야기 구조를 답습하는 데 그치고 있다. 만덕을 ‘나’로 설정하여 그녀의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나름의 해박한 지식을 통해 제주도를 다각도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18세기 제주도의 현황과 역사적, 시대적 상황 속에서 김만덕을 조명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대다수의 작품들과 이경재, 권무일 등 비교적 최근의 작품들 대다수가 드라마 〈거상 김만덕〉으로 인해 급조된 것들로 기존의 ‘기녀 신분 극복 - 거상으로의 성장 - 기민 구출’이라는 행위 중심의 내용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진일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2006년에 발표된 정창권의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⁵³⁾가 눈에 띄는데, 이 작품은 만덕의 상인으로서의 면모가 강조되고 있다. 작품의 발표 시기가 2006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 작품이 이후 발표된 대다수 만덕 관련 창작물이 만덕의 상인으로서의 면모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소설 형식과 논문 형식을 뒤섞은 중간 형태의 창작물로 본격적인 소설이라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이를 만화화한 『조선 최초 여자 거상 김만덕』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으로 대신하려 한다.

51) 위의 책, 213쪽.

52) 위의 책, 310쪽.

53) 이 작품은 김만덕기념사업회가 주관한 드라마 시나리오 공모전(2007)에서 당선된 작품으로 2010년 KBS에서 드라마화된 「거상 김만덕」의 바탕이 되었다.

3.3. 만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만덕 이야기의 대부분은 우리의 설화를 소개한 단편집에 간간이 수록⁵⁴⁾되었다 그러던 것이 2010년을 전후해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면서 본격적인 학습만화로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이 또한 드라마의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격적인 학습만화 작품으로 안형모, 박산하, 미디어S, 동화창작연구회의 작품⁵⁵⁾을 들 수 있다. 이 중 박산하⁵⁶⁾의 만화 『조선 최초 여자 거상 김만덕』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박산하의 작품 원작이 정창권의 소설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를 원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창권의 소설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는 이전 만덕 이야기의 전형성에서 조금 벗어나 그녀의 상인으로서의 면모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만덕의 ‘기녀 신분의 극복 - 거상으로 성장 - 기민 구휼’이라는 행위 중심 이야기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만화 속 캐릭터는 대부분 선·악의 대결 구도를 중심으로 주인공, 조력자, 적대자 등이 결정된다. 만화 속 캐릭터들은 소설에서보다 성격을 단순화시키거나 강조시켜 독자들에게 이를 각인시키려고 노력한다.

54) 남석기, 『마고할미의 욕심』, 능인, 1994.

이현주·장수하늘소, 『빛나는 우리문화유산』, 배동바지, 2006.

이광렬, 『조선과 함께한 27인의 여걸』, 흰돌, 2007.

박정희, 『나는 당당하게 살리라』, 한희란, 2005.

이형진, 『큰 부자들의 경제이야기』, 랜덤코리아하우스, 2005. 등

55) 안형모, 『나눔을 실천한 거상 김만덕』, 학산문화사, 2010.

미디어S, 『나눔과 베품의 삶으로 조선을 감동시킨 거상 김만덕』, 흥진P&M, 2010.

동화창작연구회, 『조선 최고의 거상 김만덕』, 꿈꾸는 사람들, 2010.

박산하, 『조선 최초 여자 거상 김만덕』, 주니어김영사, 2010.

56) 박산하는 1992년 만화잡지 주간 『아이큐 점프』에 대표작 「진짜사나이」를 연재하면서 1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인기작가 중 한 사람이다.

이를 위해 만화는 주인공 중심으로 플롯이 짜이고, 주인공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것이 작품의 성공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설에서 묘사만으로 표현된 인물을 캐릭터로 형상화하여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설의 인물과 만화 캐릭터는 차이가 있다.⁵⁷⁾ 이처럼 만화에서는 소설보다 인물의 성격이 단순화되고 평면화되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의 대결 역시 극명하게 표출된다. 박산하의 만화에서도 만화적 재미를 동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객주 부목한과 김만덕의 대결을 이야기의 중심에 놓고 있다. 선악 중심의 인물 구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박산하 만화의 인물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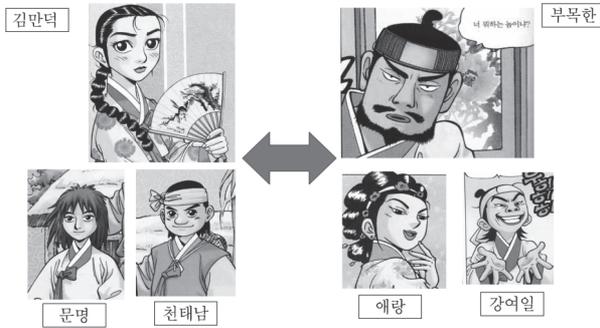
선	악
김만덕	부목한
문명	강여일
천태남	애랑
김한태	이방
언년이	

이 만화에서 김만덕은 조력자인 문명, 천태남, 김한태의 도움을 받아 완벽한 영웅으로 탄생한다. 반면 동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부목한은 김만덕과 사사건건 부딪치며 훼방꾼 노릇을 한다. 그러다 결국 악행이 드러나며 이방과 함께 옥에 갇힌다. <그림 1>의 주요 등장인물을 보면 김만덕과 맞서는 부목한과 강여일, 애랑은 그 표정이나 얼굴을 희화화하

57) 이창훈, 『소설의 만화 변용 양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14쪽.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김만덕과 문명, 천태남 등 주인공과 주인공의 조력자들은 근엄하고 진중한 표정을 보이고 있어서 이미 시각적으로 형상화된 캐릭터에 있어서도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산하의 만화는 이전 정비석의 소설보다 선악 대결구도를 중심으로 흥미롭고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널뛰듯 전개된다는 인상이 강하다. 이는 한정된 지면이라는 한계가 있었으나 원작인 정창권의 소설이 완벽한 소설 형식을 띠지 않고 자료 중심으로 이야기를 늘어놓은 원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만화 『조선 최초의 여자 거상 김만덕』 주요 인물과 대결 구도

소설을 만화화할 때 일반적으로 플롯의 재구성, 캐릭터의 입체화, 화자 소멸과 시점 변화, 서술의 시각화, 장면 구성과 가독성 향상 등의 변화가 일어난다.⁵⁸⁾ 박산하의 만화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일어난다. 에피소드별로 이를 살펴보면 우선 만덕의 어린 시절을 4페이지로 짧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만덕의 상인으로서의 면모에 집중하기 위해 가독성을 높일 목적으로 축약하고 있는

58) 위의 글, 28-96쪽 참조.

것이다. 반면 만덕이 기적에서 물러나 양인이 되는 과정은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또한 주인공인 만덕을 영웅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다만, 만덕의 아버지가 양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적에서 빼줘야 한다는 작품의 주장은 정비석의 소설작품보다 개연성이 부족하다. 앞선 문헌 고찰에서 살펴 보았듯 기아에 허덕이던 양인의 여식 중 상당수가 기적에 이름을 올린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양인으로 신분을 회복했던 것은 아니다.

박산화의 만화가 기존의 만덕 이야기를 작품화한 대다수의 만덕전과 정비석의 「제주기 만덕」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그녀의 상인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비석의 소설에서도 이와 같은 면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비석의 작품이 그녀의 기녀생활과 상인생활, 그리고 기민 구홀과 금강산 유람에 나선 만덕의 모습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만화에서는 만덕의 상인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만덕의 기민 구홀의 문제는 〈그림 2〉와 같이 축소되어 나타난다. 금강산 유람 장면 역시 마찬가지다.

이 두 사건의 축약은 원작인 정창권의 소설 탓이기도 하지만 과거 작품들보다 최근 작품들에서 상인으로서 만덕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뒤에 다룰 드라마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으로 만덕 이야기의 특징이 그녀의 기민 구홀과 신분 상승에서 상인으로서의 면모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야기의 초점이 변화할 뿐 ‘만덕 이야기’의 행위중심 이야기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설과 전의 형태로만 전해지던 만덕 이야기가 만화라는 새로운 미디어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야기 구조는 변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박산하, 『조선 최초의 여자 거상 김만덕』, 178~179쪽.

3.4. 희곡

김만덕을 희곡화한 작품은 강용준의 희곡작품 「파도에 길을 묻다」와 오성찬의 작품 「넓디랴, 그 여자의 치마폭 - 김만덕전」이 있다. 강용준은 전문 희곡 작가로 “시종 제주도의 역사나 설화, 토속 문화와 생활정서, 제주 방언을 연극의 중심에 놓고 그 연극성을 실험”⁵⁹⁾해 온 작가이다. 총 2막 8장으로 구성된 강용준의 작품 「파도에 길을 묻다」는 1막에서 기녀 신분의 해방, 상인으로서의 성공 과정이 다뤄지고, 2막에서는 기민 구휼의 과정이 중심을 이룬다. 이와 같은 극의 구성 역시 만덕의 행적 중심 이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59) 김성희, 「연극에 길을 내다」, 강용준, 『파도에 길을 묻다』, 지성의 샘, 2007, 361쪽.

이 작품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부분은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던 만덕의 오빠 만재와 만덕의 정인인 순무어사 도원이 새롭게 등장하고, 만덕의 아버지가 상인이었다는 설정을 통해 만덕이 후일 거상이 되는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덕 부친은 전라도를 오가는 중개상이었습니다. 장사를 할 때는 집안에 여유도 있고 참 좋았습니다. 헌데 어느날 큰 돈을 벌 요량으로 온 재산을 저당 잡혀 배를 빌려 육지로 나갔습니다. 허나 과욕이 화를 부른다고, 물건 잔뜩 싣고 오던 중, 태풍을 만나 좌초하는 바람에 부친도, 재산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⁶⁰⁾

기녀가 된 동생을 부끄럽게 여기는 만재와 갈등하던 만덕은 도원의 도움을 얻어 기적에서 풀려난다. 그러나 그 과정은 대부분 생략되어 도원과 만덕의 청원에 의해 목사가 만덕을 기적에서 풀어 주었다고 추측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원 만덕아, 드디어 네 소원이 풀리었다.
만덕 예? 무슨 말씀이옵니까?
도원 양인의 신분을 되찾게 되었던 말이다.
만덕 그게 참말이옵니까?
도원 방금 목사께서 결정을 내리셨다.
만덕 고맙습니다, 서방님 다 서방님이 애써 주신 덕분인가 하옵니다.
도원 아니다. 여자의 몸으로 가정을 일으키고 불쌍한 이웃들을 돌 보겠다는 가당한 뜻을 목사가 높이 산 거야.⁶¹⁾

이 작품에는 이렇게 이미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만덕의 기녀 신분

60) 위의 책, 169쪽.

61) 위의 책, 174쪽.

해방의 과정을 축소시키고 대신 상인으로 성공한 만덕이 객주의 모략에 걸려 고초를 치르는 새로운 사건이 삽입되어 있다. 이 사건을 통해 만덕이 돈을 번 과정이 그녀의 성실과 근면의 결과물임이 강조된다.

- 만덕 나쁜놈! 아무리 상거래가 천한 직업이라고 하지만 같은 업자를 무고해? 사실이 아니면 가만두지 않겠어.
- 객주 가만 안 두면 나한테 몸이라도 줄 건가?
- 만재 이런 뻘뻘스런 놈!
- 사또 (말리며) 그만, 판결은 내가 한다. 거짓말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라.
- 형방 (들어오며) 사또, 장부를 아무리 뒤져봐도 탈세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 객주 그럴 리가 없어요. 조작된 걸 왜 못 찾아냈니까? 장부를 정직하게 적으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뭐있다고?⁶²⁾

그 외의 여타 작품들에서 만덕이 양민을 구휼하고 금강산을 구경하고 귀향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끝맺는 것과 달리, 이 작품은 양민 구휼 장면에서 끝을 맺고 뒷부분을 내레이션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

오성찬의 작품 「넙더라, 그 여자의 치마폭-김만덕전」⁶³⁾ 역시 「만덕 이야기」를 희곡화한 것으로 2004년 『제주도』에 실린 작품이다. 오성찬의 희곡은 채제공의 「만덕전」과 김봉옥의 「구원의 여인 김만덕」, 양중해의 「김만덕의 자선」⁶⁴⁾ 등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 김만덕기념사업회의 부탁을 받아 작성⁶⁵⁾되었다. 이 때문에 전체 이야기 구성은

62) 위의 책, 190쪽.

63) 오성찬, 「넙더라, 그 여자의 치마폭-김만덕전」, 『제주도』 통권 108호, 2004.

64) 양중해의 작품은 김만덕의 생애를 일괄하고 난 후, 김만덕이 기녀가 되는 과정과 기적에서 벗어나는 과정, 상인으로 부를 축적하고 기민 구휼에 나서는 과정을 소설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기존의 이야기들과 흡사하다.

오성찬의 희곡은 ‘시인’을 내레이터로 하여 극이 진행된다. 또한, 기존의 만덕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거나 간과되어왔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만덕의 부모와 오라버니인 만석과 만재, 만덕을 입양하여 기적에 오르게 한 홍매, 동냥아치 등이 그런 인물들이다. 특히 만덕을 기적에 오르게 한 홍매는 양중해의 「만덕전」에서는 ‘양매’로, 김창집의 「만덕전」과 정비석의 「제주기 만덕」에는 ‘월중선’으로 등장했던 인물로 비교적 최근의 ‘만덕 이야기’에 새롭게 첨가된 인물이다. 기존 작품들에서 ‘월중선’과 ‘양매’는 부모를 잃고 버려진 만덕을 데려다 기적에 올리는 인물로 ‘퇴기 출신’ 정도의 언급이 전부였다. 그러나 오성찬의 희곡에서 ‘홍매’는 전형적인 모사꾼 악인으로 표현된다.

홍매 (혼잣소리)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저 애를 놓고 한 말이라니까. 저 애를 데려다가 잘 기르기만 하면 틀림 없이 온 섬 안을 울리는 명기가 될 것이야. 그때 쬐미면 나는 늙어 퇴기가 되겠지? 그러니 백년대계를 이제부터 튼튼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야. 요 아래 피기 잘 낚는 어부도 낚시질을 할 때 밑밥을 듬뿍 듬뿍 뿌려두지 않던가.⁶⁶⁾

이처럼 홍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인의 딸인 만덕을 기녀로 만들어 버린다. 이와 같은 작품의 설정은 후일 만덕을 환속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설정은 당위성이 부족해 보인다. 그 때문에

65) “나는 여러해 전 서울에 있는 한인문화사에 들렀다가 그곳 대표인 김양식 시인이 갖고 다니던 채제공이 쓴 그의 문집에서 「김만덕전」을 복사해 올 수 있었다.

(…) 몇 해 전 김만덕기념사업회 회장직을 맡고 있던 한상수 여사로부터 희곡을 써 줄 것을 제의받았다. 희곡이 되면 연극을 올리기로 어느 극단과 약속도 되어 있었다.”(위의 책, 246쪽.)

66) 위의 책, 250쪽.

만덕이 기적에서 환속되는 과정 역시 부자연스럽다. 이 작품에서 특이한 것은 만덕이 상인으로 성공하기 위한 신념을 만드는 과정과 백성을 구휼하는 과정이 '선비'라는 인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비 장사를 하되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것, 즉 바리다매지요. 이것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최종적으로는 그들 사이를 묶어 줍니다. 결과적으로 같이 잘 사는 것이지요. (...) 다음은 적절한 가격에 팔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정가매매지요. 사람도 그렇지만 모든 물건에는 다 그 나름의 가치가 있게 마련이예요. (...) 세 번째는 정직한 신용본위입니다.⁶⁷⁾

선비의 이 대사는 김봉옥의 「만덕전」에 나오는 부분⁶⁸⁾으로 김봉옥은 이를 만덕 스스로 세운 원칙으로 표현했다. 오성찬은 이를 선비의 대사로 바꾸어 만덕을 수동적 인물로 만든 것이다. 또한, 구휼의 과정에도 어김없이 선비가 등장한다.

만덕 그런데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동안 고생한 덕분에 이제 밥이라도 먹게 되었고 여유도 없지는 않습니다. 헌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할 지를 모르겠어요.

선비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덕은 베풀면 반드시 이웃들이 모여들게 마련이지요. 그리고 하늘이 재물을 내린 것은 그것을 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⁶⁹⁾

67) 위의 책, 260쪽.

68) “만덕은 장사하는 데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것이요, 둘째, 적절한 가격 매매, 셋째 정직한 신용본위였다.”(김봉옥, 「만덕전」, 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 자료 총서Ⅱ』, 123쪽.)

69) 오성찬, 앞의 책, 271쪽.

만덕을 수동적인 인물로 해석한 오성찬의 희곡은 기존 작품의 전형성에서는 탈퇴하고 있지만 ‘만덕’을 자의식이 부족한 인물로 만든 부정적 측면이 있다. 또한, 작품 곳곳에 등장하는 시인의 장황한 내레이션과 시문은 극의 흐름을 자주 끊어 오히려 역효과를 주고 있다. 이들 희곡 작품들은 ‘만덕 이야기’를 매체 변환하여 다양한 콘테츠로 가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매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갈등보다 만덕의 행위에 중심을 놓은 기존의 ‘만덕 이야기’를 반복 재생산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3.5. 드라마

김만덕은 이미 1977년 「정화」라는 제목으로 드라마화되었다. 「정화」는 1977년 12월에 1978년 8월까지 MBC를 통해 일일극으로 방송되었으며, 당시 제주 출신 연기자인 고두심이 김만덕을 맡아 장안에 화제⁷⁰⁾를 낳기도 했다. 주연을 맡았던 고두심이 이 드라마를 통해 한국 연극·영화 예술상 신인상을 수상하고, 1급 배우로 성장했다는 기사⁷¹⁾를 보면 당시 드라마의 인기를 추측할 수 있다.

김만덕은 2010년 3월 6일~2010년 6월 13일까지 「거상 김만덕」이란 제목으로 30부작 KBS 주말 드라마로 방영되었다. 특히 주연을 맡은 이미연에 대한 관심과 「정화」에서 김만덕 역을 했던 고두심이 ‘할매’에 캐스팅되면서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드라마 방영 전후를 기해 10여 종이 넘는 소설과 만화들이 출간되면서 드라마의 성공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그러나 막상 드라마는 30부 내내 10% 초반대의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그저 그런 평작으로 종영되고 말았다.

70) 「고두심 - 배역마다 변신 천의 얼굴 매료」, 『경향신문』, 1993.4.16.

71) 「고두심, 한국 연극·영화예술상 신인상 수상」, TV週評, 『동아일보』, 1977.12.28.



〈그림 3〉 「거상 김만덕」 주요 인물

「거상 김만덕」은 정창권의 소설과 마찬가지로 김만덕의 상인으로서의 면모에 집중한 작품이다. 제주읍성의 재래시장인 동문시장과 서문시장이 서로 이권을 둘러싸고 암투를 벌이고 있다. 이에 김만덕은 악덕업자인 서문 객주 강계만을 무너뜨리고 동문과 서문시장의 화합을 이끌며 거상으로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주된 플롯이다. 여기에 정홍수와 만덕, 문선의 삼각관계를 또 다른 흥미 요소로 삽입했다. 이야기는 〈그림 3〉에서 만덕을 둘러싸고 그녀를 괴롭히는 강유지와 문선 그리고 만덕을 도와주는 할매와 정홍수 간의 대결이 중심을 이룬다. 여기에 다양한 조력자들과 적대자들이 등장하며 이야기에 흥미 요소를 추가시켰다. 이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거상 김만덕」의 인물 대결구도

	김만덕		서문객주 강계만
조력자	정홍수 동문객주 고석주 동아 백소례 덕팔 김관술	⇔	강유지 문선 제주현감 최남구 오집사 김동주 김서주 호방

〈표 3〉의 동문시장과 서문시장을 둘러싼 대결구도를 통해 이 작품이 만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극명한 대결구도를 중심으로 한 대중스토리텔링의 전형적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매회 만덕을 둘러싼 서문객주 강계만과 그의 아들 강유지, 제주 현감 최남구 등이 설 새 없이 그녀를 괴롭히고 음모에 빠뜨린다. 이렇게 흥미진진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거상 김만덕」은 실패한 드라마로 평가된다. 이는 동시간대 방영되었던 이전의 KBS 역사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대조영」, 「무인시대」, 「천추태후」 등이 100회 이상의 방영횟수와 30%대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사극 붐을 일으켰던 것에 크게 못 미치는 30부작, 10%대의 낮은 시청률로 종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거상 김만덕」이 나름의 대결구도와 흥미 요소를 가지고 대중스토리텔링의 전형에 충실하기는 했으나 새로움을 주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거상 김만덕」이 되풀이한 ‘위기-극복-위기-극복’의 반복적 구성방식은 이미 「대장금」, 「허준」 등의 사극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방식이며, 김만덕의 상행위 과정에서 벌어지는 음모와 투쟁 역시 이미 「상도」(MBC, 2001), 「영웅시대」(MBC, 2004), 「해신」(KBS, 2004) 등에서 반복된 것들이었다.

최근의 미디어들은 다양한 채널과 게임, 영화 등 풍부한 볼거리들과 경쟁해야 한다. 치열한 미디어 경쟁은 조금의 진부함도 허용치 않는다.

또 다른 실패 원인은 국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비교적 덜 알려진 '김만덕'이란 인물을 중심에 둔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드라마 대부분은 왕조 중심이거나 난세 영웅 중심의 선 굵은 이야기들이었다. 민초의 삶을 다룬 시대극들 역시 「임꺽정」, 「상도」, 「추노」 등 대부분 남성 중심의 역동적 이야기였다. 이 때문에 '사극=남성드라마'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다. 하지만 「거상 김만덕」은 왕조 중심 사극도 아니고, 역동적인 이야기도 없이 희소한 여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야기였다. 이전에도 「명성황후」, 「천추태후」 등 여자 주인공을 내세운 드라마가 있었으나 대부분 왕실 중심 역사 드라마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대장금」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원인은 18세기 제주 거상이었던 김만덕을 다루면서 당시의 제주도 현실과 주변 정황, 18세기 상인 계층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드라마에 담아내지 못한 것이다. 풍부한 서사 없이 단순한 대결구도만으로 만든 드라마라는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만덕을 개성 있는 인물로 만들지 못하고 기존의 전형성을 반복한 것도 실패의 원인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 보면 「거상 김만덕」의 실패는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 낮은 여성 주인공, 비(非) 왕실 중심의 사극, 역동성의 부족, 드라마 정체성 확립의 실패, 제주도라는 지역의 특색과 18세기 상인 계층의 부각 실패, 주인공의 전형성 반복 등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드라마 한편의 실패가 '만덕 이야기'가 지닌 서사 전체의 실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풍부한 서사와 치밀한 세계관, 당시의 역사적 상황 등 당대의 시대 상황과 맞물린 다양한 서사 구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지 않고는 '만덕 이야기'가 본격적인 방송미디어로 가공되어 성공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만덕 이야기'가

방송미디어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원작을 활용하여 성공한 드라마 「상도」와 「해신」의 성공과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의 논의로 대신하고자 한다.

4. 김만덕 스토리텔링 활성화 방안

채제공의 「만덕전」이 지어질 당시, 만덕에 관한 문헌기록은 만덕의 제주 기민 구휼의 행적을 예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민 구휼 행적보다 만덕의 기생 신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만덕이 양인 신분을 회복하는 과정이 첨언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이는 채제공의 「만덕전」에 ‘만덕이 양인의 딸’로 기록된 데 의존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최초의 ‘만덕 이야기’는 그녀의 행적을 칭송할 목적으로 지어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생’이라는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이야기로 초점이 옮겨진다.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만덕의 이야기는 당시 피지배층에 있어서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다. 기민 구휼에서 신분 이동으로 초점이 옮겨지던 ‘만덕 이야기’는 최근에 이르러 ‘상인 김만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개화기를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신분사회가 붕괴되면서 만덕 이야기의 흥미 요소 역시 변화한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밀려들기 시작한 서양문물과 상인계급의 성장이 변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공고화된 현대에 이르러 상인 김만덕의 모습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다. 최근의 ‘만덕 이야기’가 『조선 최초 여자 거상 김만덕』⁷²⁾, 「제주거상 김만덕에

72) 박산하, 앞의 책.

관한 연구」⁷³⁾ 등 거상으로서의 김만덕에 초점을 두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만덕 이야기의 이러한 변화는 만덕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자의 취향일 수도 있겠으나, 큰 틀에서의 이야기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면 대중의 기호에 따라 이야기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형적인 대중스토리텔링의 특징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초점 변화에도 불구하고 만덕 이야기의 구조는 ‘신분 극복 - 거상으로의 성장 - 기민 구출’이라는 행위 중심 이야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덕 이야기가 소설, 만화, 드라마, 희곡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음에도 콘텐츠로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행위 중심 이야기 구조의 한계 때문이다. 행위 중심 이야기 구조는 기존의 짧은 ‘전’ 형태나 아동 대상의 단편소설에서는 효과를 가져왔을지 모르나, 개성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인물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현대극에서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콘텐츠들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만덕 이야기의 행위 중심 이야기 구조를 인물간의 갈등 중심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대극에 어울리는 새로운 텍스트 구조로 만덕 이야기를 재편해야 하는 것이다.

「상도」의 주인공 ‘임상옥’은 조선 후기 무역 상인으로 국경 지대에서 인삼 무역권을 최초로 독점한 천재상인으로 알려졌으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드라마 「상도」는 2001년 10월 15일부터 2002년 4월 2일까지 30%를 웃도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상도」의 이러한 성공은 이 드라마의 원작인 최인호의 동명소설 『상도』의 성공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상도」는 인기 작가인 최인호가 『한국일보』에 연재했던 작품으로 2000년 단행본으로 발매되어 300만 부가 넘는 판매

73) 송병식, 앞의 논문.

고를 올린 베스트셀러다. 이 같은 원작 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의 성공도 가능했던 것이다. 최인호는 「불새」, 「도시의 사냥꾼」, 「별들의 고향」, 「깊고 푸른 밤」, 「겨울 나그네」 등 많은 작품들이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진 베스트셀러 작가 중 한 사람이다. 이런 그의 작품 「상도」를 드라마화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의 또 다른 소설 「해신」 역시 같은 과정을 통해 드라마로 만들어지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만덕 이야기’가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향유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야기 구조를 영상미디어로 변화시키는 것보다 대중소설을 통해 이야기 구조를 인물의 갈등 중심으로 변화시킨 이후 다른 미디어로 가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드라마나 영화의 제작비보다 소설로 만들었을 때 제작비가 저렴하다는 장점 이외에도, 무시할 수 없는 소설의 독자층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문 연재소설은 과거보다 그 효과는 줄어들었으나 폭넓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작품을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또한, 소설화를 통해 독자의 반응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더 나은 작품을 영상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해신」과 「상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자채나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신문 연재 지면을 확보하고 당대의 인기 작가를 통해 만덕 이야기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한다면 상당한 홍보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인기 작가를 통한 상품의 작품화는 외국의 사례에서 이미 존재⁷⁴⁾한다.

현재도 ‘만덕 이야기’가 소설화되고 있지만 기존의 행위 중심 이야기

74) “명품 보석과 시계로 유명한 불가리(BVLGARI)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페이 웰던(Fay Wel-don)을 섭외하여 「불가리 커넥션」이란 제목의 소설을 발간했다. 이 소설의 표지에는 불가리 목걸이가 사진으로 나왔고, 스토리 전개상 불가리 목걸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훈철 외,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기술』, 멘토르, 2008, 174~175쪽)

를 반복하고 있을 뿐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덕 이야기가 큰 틀에서 인물의 갈등 중심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대표적 인물이라는 한계도 작용한다. 이미 영웅화된 지역의 대표 인물을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이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인 것이다. 이것이 대다수 만덕 이야기를 활용한 작품들이 심노승의 『계섬전』의 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심노승의 기록은 기존의 전형성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개성적인 만덕을 창출할 수 있는 역사적 문헌이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만덕’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창작자들의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만덕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승정원 일기」와 「일성록」의 문헌기록이다. 이후 채제공이 「만덕전」을 지어 만덕에게 주면서 본격적인 만덕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전(傳)의 특성상 채제공의 기록은 사실과 허구가 결합되어 있어 문헌에 나타난 내용 모두를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 이후 지어진 대다수의 전들 역시 채제공의 기록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들로 추정된다. 후일 만들어진 김태능, 김봉옥, 양중해의 「만덕전」은 조금씩 내용이 첨언되면서 채제공의 「만덕전」을 보강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 과정에서 양중해는 만덕이 내의원 행수의녀에 임명된 것이 그녀를 각별히 보살피고자 한 정조의 뜻임에도, 평민으로서의 임금을 배알할 수 없으므로 만덕에게 예절할 수 있게 하는 조치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 기록 대부분이 만덕의 기민 구휼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천편일률적인 찬양 일색으로 만덕의 생애 전체를 미화하고, 영웅화하고 있으며, ‘기녀 신분의 극복 - 거상으로의 성장 - 기민 구휼’이라는 이야기의 전형을 만들어 놓았다. 이 전형에서 벗어난 심노승의 『계점전』은 이미 만들어진 만덕 이야기의 전형 때문인지 창작자들의 손에서도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다. 그 결과 정비석의 소설 「제주기 만덕」에서부터 최근 윤수빈의 『조선의 여성상인 김만덕』까지 만덕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소설로 창작되면서도 과거의 행위 중심 이야기 구조를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소설의 창작자들이 특별한 고민 없이 기존의 만덕 이야기를 기계적으로 반복, 재생산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소설에서의 이 같은 반복은 만화나 희곡, 드라마 등으로 콘텐츠가 변모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과거에는 ‘기녀 신분의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거상으로의 성장’ 과정으로 이야기의 초점이 변화하고 있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콘텐츠의 종류는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의 만덕 이야기가 지닌 행위 중심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 재생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품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가장 대중적인 콘텐츠라 할 수 있는 TV드라마 「거상 김만덕」이 10% 초반대의 낮은 시청률로 고전 끝에 종영된 것도 오랫동안 반복 재생산되던 만덕 이야기의 허술한 구조를 그대로 답습한 탓이 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김만덕을 스토리텔링하기 위해 김만덕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드라마 「거상 김만덕」처럼 실패한 드라마를 만들지 않으려면 ‘만덕 이야기’의 뼈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 만덕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만덕의 업적이나 행위 중심에서 벗어나 역사 속의 김만덕, 당시대 제주 속의 김만덕, 18세기 전반이라는 시대 상황 속의 김만덕,

인간 김만덕을 보다 치밀하게 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만덕 이야기가 지닌 찬양 일색의 교훈적 내용과 허술한 이야기 구조에서 벗어나 인물 갈등 중심으로 이야기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천편일률적으로 전형화된 만덕을 보다 개성적인 인물로 변화시키기 위해 심노승의 기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단체나 기관이 나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작가를 통해 만덕 이야기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최인호의 「상도」와 「해신」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중적으로 성공한 원작을 미디어로 재가공해 성공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지금부터라도 만덕 이야기의 대중스토리텔링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것인지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강용준, 『파도에 길을 묻다』, 지성의 샘, 2007.
- 곽정식, 「전문학의 장르적 성격과 소설적 한계」, 『새얼어문논집』 제4집, 새얼어문학회, 1988, 215~230쪽.
- 김만덕기념사업회, 『김만덕 자료 총서 II』, 도서출판 각, 2008.
- 김만덕기념사업회, 『은광연세』, 도서출판 각, 2007.
-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연구 - 산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7.
- 김훈철 외,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기술』, 멘트로, 2008.
- 문순덕·박찬식, 「추모 200주기 기념 김만덕 재조명」, 제주발전연구원, 2010.
- 박산하, 『조선 최초 여자거상 김만덕』, 주니어김영사, 2010.
- 송병식, 「제주거상 김만덕에 관한 연구」, 『경영논집』 제40권 제1/2호,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2006, 213~231쪽.
- 손달래, 「아름다운 삶의 여정 : 몰 플란더즈와 김만덕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14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 173~191쪽.
- 오성찬, 「넙더라, 그 여자의 치마폭-김만덕전」, 『제주도』 통권 108호, 2004.
- 윤수민, 『김만덕 - 조선의 여성 상인』, 창해, 2009.
- 이창훈, 『소설의 만화 변용 양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정창권,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 푸른숲, 2006.
「널리 덕을 베푸는 여인 만덕」, 『좋은생각』, 2004년 9월호.
- 최혜실 외, 『문화산업과 스토리텔링』, 다홍미디어, 2008.
- 현승환, 「실존인물 김만덕의 문학화 과정」, 『백록어문』 20·21집, 2005,

39~73쪽.

경주김씨 익화군 제주파 십오세손 입도조 검용공 십사세손 석우조문중
회, 『경주김씨 익화군 제주파족보 1권』, 1995.

「고두심 - 배역마다 변신 천의 얼굴 매료」, 『경향신문』, 1993.4.16.

「고두심, 한국 연극·영화예술상 신인상 수상」, TV週評, 『동아일보』,
1977.12.28.

고전의 현대적 수용

- 김만덕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 사례를 중심으로 -

정 창 권*

1. 머리말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만남

근래 우리의 인문학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갈수록 인문학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인문학은 밥 벌어 먹기 힘든 학문이고, 취업하기 힘든 학문이며, 사회로부터 좋은 시선을 받기 힘든 학문이라고 한다. 심지어 인문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조차 괜히 아까운 등록금 내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할 정도이다.

하지만 필자는 그것을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본래 인문학은 뿌리가 깊은 만큼, 그 속에 내재된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지금은 단지 그 잠재력을 활용하고 있지 못할 뿐이다. 앞으로는 그저 자기 학문만을 위한 인문학이 아니라 좀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실생활에 접목시킨다면, 우리의 인문학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필자는 인문학의 콘텐츠화, 곧 문화콘텐츠와의 만남을 강조하고

*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싶다. 여태까지 장기간 축적해온 인문학적 지식들은 고스란히 문화콘텐츠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들 들어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왕의 남자〉 등도 모두 인문학적 성과들을 활용하여 성공한 경우이다. 그래서 21세기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자, 인문학이 지식과 정보, 더 나아가 문화 산업의 경쟁력을 선도해갈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¹⁾

도대체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최근 들어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거의 폭발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가 뭘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문화콘텐츠라는 말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출판이나 만화, 방송, 영화 등 그 분야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들 문화콘텐츠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문화콘텐츠란 과연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콘텐츠란 용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콘텐츠(contents)란 사전에 나온 그대로 ‘내용물’인데, 쉽게 말해서 각종 대중매체에 담긴 내용물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드라마나 영화, 공연, 게임 등에 들어있는 각종 작품들이 그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들은 흔히 ‘대중문화’라 불렀으나, 요새는 그것들이 더욱 다양하게 사용되고 하나의 거대한 산업화가 되어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란 용어를 쓰고 있다.

물론 콘텐츠는 최근에 와서 생겨난 것이 아닌 인류 역사상 계속 존재

1) 정창권, 「디지털 시대, 우리 국악의 나아갈 길」, 『국어문학』 42, 국어문학회, 2007.2, 225~229면 참고.

정창권, 『문화콘텐츠학 강의』(쉽게 개발하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9, 189~194면 참고

해 왔다. 문학이나 그림, 음악, 무용 등의 각종 작품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21세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그 의미가 상당히 변모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 멀티미디어성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보의 무한한 복제와 변형 및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콘텐츠의 의미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내용물로 바뀌게 되었다. 즉,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콘텐츠는 ‘내용물은 내용물이지만,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내용물’인 것이다.

그런데 콘텐츠는 생각할수록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용어이다. 많은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가 곧 콘텐츠인 줄로 알고 있으나, 실제 콘텐츠의 내부를 뜯어보면 저마다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다.²⁾ 우선 콘텐츠에서의 아이디어는 널리 활용할만한 아이টে이어야 한다. 그리고 스토리는 다시 캐릭터와 서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대개 캐릭터를 통해 감정이입을 하므로 무엇보다 캐릭터를 잘 설정해야 한다. 서사도 역시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흥미 위주로만 흘러서는 안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만한 감동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문화콘텐츠(Culture Contents) 역시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조어이자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용어이다. 사실 콘텐츠를 외국에선 사전적 의미인 내용이나 목차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더 나아가 각종 문화사업인 내용물로까지 확대해서 사용하고 있다. 문화콘텐츠도 또한 그러한데, 흔히 문화사업을 미국에선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산업, 일본에선 미디어(Media) 산업, 영국에선 크리에이티브(Creative) 산업이라고 각각 부르고 있다.

2) 이런 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광고나 사업 아이টে은 콘텐츠와는 거리가 있다. 광고는 문화콘텐츠의 홍보 수단이요, 사업 아이টে은 콘텐츠와는 무관한 것이다.

문화콘텐츠란 한마디로 콘텐츠를 담는 그릇이자 다양하게 활용하는 도구들, 예컨대 출판이나 만화, 방송, 영화, 게임, 캐릭터 등 각종 문화사업을 말한다. 과거 이것들은 ‘대중매체’라 불렸으나,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날이 갈수록 서로 융합되고 하나의 거대한 산업화가 되면서 문화콘텐츠란 신조어를 쓰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분야는 대단히 많은데, 출판과 만화,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공연, 음반, 전시, 축제, 여행, 디지털콘텐츠(데이터베이스, 에듀테인먼트, 인터넷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등 최소한 16가지 이상의 분야가 있다. 또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매체가 탄생할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요즘 뜨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에만 관심이 많고, 그렇지 않은 출판이나 만화, 전시, 축제 공연, 에듀테인먼트 등은 별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 21세기 디지털 시대에선 하나의 콘텐츠를 개발하더라도 통합적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모든 문화콘텐츠를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하며, 학생들도 우선은 폭넓게 이해한 뒤 차츰 자기만의 분야를 찾아가야 한다.

문화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은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Use)’ 곧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로 활용해서 고부가가치를 얻는다는 것이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문화산업은 출판이면 출판, 영화면 영화, 공연이면 공연 등처럼, 각각의 매체들이 서로 따로따로 움직였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모든 매체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구조를 이룬 유기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대장금〉처럼 한편의 드라마가 성공하면, 거기에 삽입된 O.S.T(배경음악)를 음반으로 출시하고, 캐릭터를 활용하여 각종 기념품을 발매하며, 촬영지나 세트장을 관광지로 개발한다. 또 드라마를 해외로 수출함은 물론이요, 나아가서는 그 내용을 토대로 소설 혹은 만화를

출간하거나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제작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매트릭스〉 등처럼, 아예 기획 단계부터 출판이나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을 망라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³⁾

끝으로 한국 문화콘텐츠의 현주소는 아직까지도 미개척지, 곧 걸음마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은 이미 문화콘텐츠를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적 기반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문화콘텐츠의 역사가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인지⁴⁾ 문화콘텐츠라는 용어 자체도 생경하게 여길 뿐더러, 문화콘텐츠를 단지 돈벌이의 수단쯤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이다. 물론 이는 전적으로 문화콘텐츠가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다.⁵⁾

고전의 현대적 수용

최근 들어 콘텐츠, 특히 원천 소스(원작, 스토리)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 속을 채워줄 내용물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컴퓨터 산업을 예로 들면, 하드웨어가 극한까지 발달한 오늘날에는 소프트웨어가 더욱 중시되는

-
- 3) 필자가 보기에 문화콘텐츠의 강점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중시하거나 인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역시 '원소스 멀티유즈' 시스템이 아닐까 한다.
 - 4) 한국 사람들이 문화콘텐츠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 5) 정창권, 「문화콘텐츠학, 어떻게 연구하고 가르칠 것인가」, 『동양한문학연구』 24, 동양한학회 2007, 31~36면 참고
정창권, 『문화콘텐츠학 강의』(깊이 이해하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9, 8~21면 참고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게다가 영상세대로 갈수록 인간의 상상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원천 소스를 생산할 인력이 갈수록 귀해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문화콘텐츠 기획자들은 좋은 원천 소스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문화콘텐츠 아이템이나 스토리텔링 같은 원천 소스 공모전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 원천 소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개인이나 단체, 회사도 늘어나고 있다.

사실 한국 문화콘텐츠 업계의 문제점은 멀티유즈, 곧 제작과 마케팅에 만 혈안이 되어 있지, 정작 중요한 원천 소스 개발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학들도 문화콘텐츠 제작론이나 마케팅론 위주로 가르치고, 기획론이나 스토리텔링론에 대해선 등한시하고 있다. 아무리 많은 멀티유즈화 방안을 갖고 있더라도 확실한 원천 소스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란 사실을 잊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원천 소스를 포함한 콘텐츠는 과연 누가 개발하는 것일까? 콘텐츠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인문이나 사회, 자연, 예술, 체육 등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콘텐츠는 창의성과 상상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므로, 이에 대해 장점을 갖고 있는 인문학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인문학도는 전통문화 콘텐츠, 즉 고전의 현대적 수용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듯하다. 요즘처럼 획일화된 사회에서 전혀 새로운 콘텐츠를 찾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잘 파악해서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의 성공한 작품들, 예컨대 <대장금>이나 <쾌걸춘향>, <왕의 남자>, <신암행어사> 등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새롭게 가공해서 성공한 경우이다.

만약 우리의 전통문화를 새롭게 가공해서 콘텐츠로 개발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민족문화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욱이 요즘 동양적인 요소를 지닌 콘텐츠들이 서구 사람들에게 조금씩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우리만의 특색을 살린 작품들도 얼마든지 글로벌 콘텐츠(Global contents)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학자도 있어야겠지만, 그것들을 일반 대중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콘텐츠로 개발하는 사람도 많아져야 할 것이다.⁶⁾

필자도 역시 지금까지 고전의 현대적 수용, 곧 인문학의 콘텐츠화 작업을 계속해왔다. 특히 필자는 전통시대 여성이나 장애인, 하층민 등 사회적 약자층의 삶과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해서 널리 알리는 일을 주로 해왔다.⁷⁾ 또 요즘에는 그것들을 토대로 출판이나 만화, 드라마, 영화, 뮤지컬, 디지털콘텐츠 등 각종 문화콘텐츠로 제작하는 데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그것들 중 김만덕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 과정을 토대로 고전의 현대적 수용의 실제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2. 김만덕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 과정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조선 최초의 여성 사업가이자 자선사업가 김만덕은 여자로서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조선시대 후기에, 그것도 양반이 아닌 평민 출신의 여자로서, 해상 무역업을 하여 큰 부자가 되고, 그 돈을 다시 제주 사람들을 위해 내놓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였던, 그야말로 훌륭한 경제인이자 사회사업가였다. 또한 그에 대한 포상으로 임금님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얻고, 임금님께서 특별히 금강

6) 정창권, 『문화콘텐츠학 강의』(쉽게 개발하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9, 193면.

7) 필자의 대표적인 콘텐츠로는 미암일기, 향량, 장애인사, 만덕 등이 있다.

산 유람까지 보내주셨던 그 시대의 ‘영웅’이었다. 그래서 당시 영의정을 지낸 채제공을 비롯해서 이가환, 박제가, 정약용, 김정희 등이 그녀를 위해 시문과 글씨를 써줄 정도로 매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한데, 필자가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질 무렵 김만덕이라는 인물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녀가 노블리스 오블리주⁸⁾를 실천한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CEO이자 자선사업가이고, 새 화폐인물의 후보로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심지어는 경영학자들조차도 그녀의 이름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다음의 도표에서처럼 김만덕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만덕 현대화 작업일지

- 1) 제주YWCA 초청강연회 및 만덕 관련 유적지 답사, 〈한라일보〉, 2004년 4월 15일자.
- 2) 김만덕 현대화 작업 필요성 역설, 〈한라일보〉, 2004년 4월 20일자.
- 3) 널리 덕을 베푼 여인, 만덕(萬德), 『좋은생각』, 2004년 9월호
- 4) 김만덕 콘텐츠 개발팀 현장답사, 2005년 3월 11일~13일.
- 5) 김만덕 기념 전국 학술세미나 발표, 제주그랜드호텔 2층, 2005년 7월 9일.
- 6) 김만덕을 아시나요, 〈조선일보〉, 2005년 7월 12일자.
- 7) 김만덕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 『제주문화』 11, 제주문화원, 2005년 12월.
- 8)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 푸른숲, 2006년 3월.
- 9)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CEO 김만덕, 『SK 사보』, 2006년 8월호.

8)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란 프랑스어로서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 10) 사이버 전시<김만덕과 제주문명전> 완성, <http://coreastory.co.kr>, 2006년 10월.
- 11) 김만덕과 파워여성 토론회, 국회, 2006년 10월.
- 12) 김만덕 드라마 시나리오 지정공모 당선, 김만덕 기념사업회, 2007년 1월.
- 13) 김만덕 드라마 및 뮤지컬 제작 계약, 가다엔터테인먼트, 2007년 3월.
- 14) 새 지폐인물 ‘김만덕’으로, <조선일보>, 2007년 5월 11일자.
- 15) 김만덕 학습만화 제작 계약, (주)주니어김영사, 2007년 7월.
- 16)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제작, 제주도문화정보접자도서관, 2007년 9월.

아래에서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김만덕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 과정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만덕 현대화 작업 필요

2004년 초반, 필자는 이전에 『홀로 베풀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라는 책을 내어 독자들로부터 적잖은 호평을 받은 적이 있었다.⁹⁾ 그래서 이 해 4월에 제주도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제주 YWCA에서 ‘문화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였다.¹⁰⁾ 그때 필자는 제주 사람들에게 만덕의 중요성과 현대화 작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머잖아 만덕을 토대로 조선시대 제주 사람들의 생활문화사를 자세히 써보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강연 후 며칠 동안 제주에 머물면서 만덕 관련 현장 답사를 하였다.¹¹⁾

9) 정창권, 『홀로 베풀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사계절, 2003.

10) <한라일보> 2004년 4월 15일자.

11) 「김만덕 생애 현대화 작업 필요」, <한라일보> 2004년 4월 20일자.

이후 필자는 만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그녀에 대한 홍보 작업에 들어갔다. 만덕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국내 최대의 잡지와 신문들을 통해 그녀를 알리고자 하였다.¹²⁾

한데, 앞에서 설명했듯이 최근 문화콘텐츠의 가장 큰 특징은 원소스 멀티유즈 곧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로 활용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 있다. 김만덕 콘텐츠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기획 단계에서부터 원소스 멀티유즈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싶었다. 그래서 필자는 우선 김만덕 콘텐츠 개발 기획서를 작성한 뒤, 2005년 7월 김만덕 기념 전국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다.¹³⁾ 즉, 김만덕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미리 수립한 것이다.

스토리가 있는 인문서

2005년 여름, 마침내 필자는 원천 소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우선 만덕 관련 자료 수집은 이미 끝난 상태였으므로, 본격적인 자료 분석과 정리에 들어갔다. 이 책의 목적이 김만덕을 통해 조선시대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김만덕과 제주 생활사 및 기타 상업사나 구휼사 등에 관한 자료를 폭넓게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책 속에 들어갈 시각 자료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였다.

그런 다음 개요 작성, 곧 스토리라인 구성에 들어갔는데, 만덕의 일생을 순차적으로 맛있게 보여주기보다는, 그녀가 양민의 신분을 회복하려는 시점부터 거상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리고 이후 노년기에 모든 재산을 흠어 제주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12) 정창권, 「널리 덕을 베푼 여인, 만덕(萬德)」, 『좋은생각』 2004년 9월호.

정창권, 「김만덕을 아시나요」, 〈조선일보〉 2005년 7월 12일자.

13) 정창권, 「김만덕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 『제주문화』 11, 제주문화원, 2005.

그 밖의 어린 시절과 기녀 생활에 대해서는 인물들간의 대화를 통해 드러내고, 말년의 한양과 금강산은 제주로 돌아온 지 1년 후의 시점에서 회상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했다.

글쓰기 방식은 기존의 이야기체가 교차하는 방식을 넘어서, 최대한 이야기체로 전개하되 필요한 부분에서만 역사적 설명을 가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책에서는 시나리오식, 곧 영상적 글쓰기를 시도하고자 했는데, 본문의 내용이 주로 대화체로 이루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본문에서 대화는 시나리오의 대사에, 설명은 지문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에 더하여 김만덕 및 제주와 관련된 문헌이나 유물, 고지도, 회화, 답사 사진 등 다양한 시각자료를 첨부하여, 독자들이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뿐 아니라 향후 전시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물론 이러한 작품의 형식은 출판과정에서 상당히 달라지고 말았다.

원래 필자는 최대한 이야기체로 작품을 전개해 나갔는데, 출판사에서 는 이야기체를 유지하되 군데군데 역사 지식을 추가해서 역사책으로서 의 성격을 강화시키자고 하였다. 특히 각 장의 끝마다 ‘한걸음 더’라는 정보 페이지를 마련하여 제주 역사와 문화에 대해 좀더 다양하게 알려주 자고 하였다.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라는 책 제목도 역시 출판사의 제안을 거의 그대로 따른 것인데, ‘꽃’과 ‘새’가 서로 대비되면서 김만덕의 내면적 의지를 한마디로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목이 아닌가 한다. 즉, 관기로 살기보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야망과 포부를 마음껏 펼쳐보고 싶었던 김만덕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해낸 것이다.

2006년 3월 29일, 이로써 필자는 한국 사회에 또 한 명의 존경할만한 여성인물을 발굴하여 세상에 내놓았는데,¹⁴⁾ 여느 때처럼 언론계의 반응은 자못 뜨겁고 호의적이었다.

대중을 위한 드라마화 추진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라는 책을 출판한 후에도, 필자는 계속해서 드라마나 뮤지컬, 학습만화, 사이버 전시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였다. 책 자체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김만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멀티유즈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 결과 2007년 1월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김만덕 드라마 시나리오 지정 공모’에 당선되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은 2007년 3월엔 가다엔터테인먼트와도 필자의 책을 원작으로 삼아 드라마와 뮤지컬을 각각 제작하기로 계약까지 하였다. 특히 가다엔터테인먼트와는 원작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역사적 사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새로운 형태의 드라마를 제작하자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몹시 바쁜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책에서 못다한 이야기와 미진한 부분들 및 기타 드라마의 성격에 맞도록 보완해서, 시나리오의 전 단계인 트리트먼트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그 각색 방법을 대강 살펴보면, 먼저 드라마의 흐름은 원작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재미를 위하여 인물과 사건을 상당히 많이 추가하였다. 예컨대 인물로는 특히 오좌수가 부각되었는데, 책에서는 그저 공명정대한 벼슬아치로 나오지만, 드라마 속에서는 척추장애인(이른바 ‘곱추’)으로서 만덕을 짝사랑하는 인물로 나온다.

사실 우리나라 사극에서는 장애인이 좀처럼 등장하지 않을뿐더러, 등장한다 하더라도 지능이 낮거나 천민 출신의 불쌍한 인간형으로 그려져 있다. 하지만 만덕 드라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천민은 커녕 엄연한 양반집 이들에다, 신분적 차이로 인해 만덕을 짝사랑하며 그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도움을 주기까지 하는 꽤 매력적인 인물로

14) 정창권,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 푸른숲, 2006.

그려져 있다.

그리고 사건으로는 어린시절 만덕의 아버지를 부목한과 대립 관계에 놓고, 부목한이 만덕 아버지의 배를 난파시켜 죽인 것처럼 설정하였다. 그래서 훗날 만덕과 부목한이 대결하는 데 좀 더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오일장에서 돼지가 날뛰는 장면이나 표류선 발견, 해적 출몰, 해신제(海神祭) 등 당시 제주 사람들의 풍속을 많이 삽입하여 드라마의 리얼리티를 살리고, 육지와 다른 제주 특유의 향대를 많이 맞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 속에서 재미와 감동을 추구한다는 작품의 본래 의도는 나름대로 잘 유지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극은 거의 픽션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아니, 과도한 픽션으로 인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주 듣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만덕의 생애와 제주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다. 역사적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뼈대를 잡고, 기타 유머나 액션, 로맨스 등을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장면들을 구성하였다.

또한 필자는 만덕 드라마와 함께 뮤지컬도 동시에 계약을 하였다.

하지만 제작 여건이나 투자 문제로 인해 드라마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대중성을 확보한 뒤에야 실현될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뮤지컬은 무대나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원작의 서사를 대폭 줄인 채, 특히 만덕의 사랑이나 거상(巨商)으로서의 길만 부각해서 만들어야 할 듯하다.¹⁵⁾

15) 한편, 필자는 김만덕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일부 참여한 적이 있다. 지난 2007년 5월 KBS 1TV 〈한국사 傳〉의 프로듀서와 방송작가가 학교로 찾아와서, 필자의 『꽃으로 피기 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하였다. 이에 필자는

어린이를 위한 학습만화 개발

공중과 방송에서의 드라마화와 함께 필자가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한 것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만화 개발이다. 조선의 ‘큰’ 상인 김만덕은 학습만화로 개발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만화는 아이들이나 보는 쉬운 것 또는 가벼운 것으로 여기는데, 이것이 바로 만화의 가장 큰 장점이다. 즉, 만화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습 만화의 경우는 즐기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즉 의도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게다가 요즘 총체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만화시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학습만화이다.¹⁶⁾

대개 학습만화는 재미와 지식의 조화가 핵심이다. 학습만화에선 ‘재미’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학습’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는데, 재미 곧 오락적인 측면에만 신경을 쓰면 만화를 보고 남는 것이 없고, 교육적인 측면에만 신경을 쓰면 금방 흥미를 잃기 때문이다.

김만덕 학습만화도 만덕의 생애를 극적 형식으로 전개하되, 각주와 부록 등 정보페이지를 최대한 삽입하여, 학습만화 특유의 재미와 지식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마치 다큐멘터리 형식의 세계 명작동화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특히 만덕 학습만화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만큼 가끔씩 제주도 사투리도 사용한다면, 어린이들이 그 특이한 언어에 흥미를 느낄 것이다. 또한 그림체도 주 독자층인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크고 귀엽게, 그리고

김만덕의 주요 생애와 업적 및 촬영지 등을 차례대로 설명해 주었다.

16) 정창권, 『문화콘텐츠학 강의』(깊이 이해하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9, 59~60면 참고.

조금은 코믹하게 그려서 흥미를 더해줘야 할 듯하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기엔 약간 조잡스러운 책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좋아하는 어른들의 심리에 비해, 아이들은 약간 복잡해도 흥미를 유발하는 것들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화책이 약간 조잡해 보이더라도, 본문에서는 각주 형식으로 그림이나 지도, 도표, 해설 등을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하고, 각 장의 끝에서는 '쉬어가는 페이지'를 마련하여 본문과 관련한 퀴즈나 퍼즐 풀기, 색칠 공부 등을 통해 꾸준히 흥미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학습만화는 독자와 구매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독자는 아이들이지만 실질적인 구매는 학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이들 학부모는 부록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제주도 역사문화 지도나 전통복식을 갖춘 종이인형, 조선시대 시장놀이 세트 등을 부록으로 넣어주는 방법도 한번쯤 생각해볼 만한 듯하다.

현재 김만덕 학습만화는 필자의 원작과 드라마 트리트먼트를 토대로, (주)주니어김영사 출판사에서 만화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¹⁷⁾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사이버 전시

필자는 제주도에 가면 항상 들르는 곳이 있다.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17) 학습만화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생각해볼만한 것이 '그림 동화책'이다. 아직까지 김만덕 그림 동화책은 한 권도 나와 있지 않은데, 만약 이것이 제작된다면 유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그 부모들 사이에 김만덕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그림 동화책은 타겟이 유아-초등학교 저학년이므로 20페이지 내외의 분량이 적당하고, 문장 또한 쉽고 간결한 문체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용도 위인전이지만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해야 하고, 제목도 '임금님을 만난 장사꾼', '임금님을 만난 여자 상인' 등이 적당할 듯하다.

기슭에 있는 모충사가 바로 그곳으로, 거기에는 김만덕 묘와 묘비, 기념탑, 기념관 등이 있다. 특히 기념관에는 김만덕의 영정과 삶을 재현한 그림들, 몇 가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보면 볼수록 김만덕의 업적이나 중요성에 비해 너무 허술히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실제로 김만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그곳에 가면 김만덕 기념관은 웬지 공원 내 화장실 같고, 기념관 내의 전시물은 너무 빈약해서 한번 보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한다.

전시란 굳이 큰 돈을 들여 거창하게 꾸밀 필요는 없다. 비록 규모가 작더라도 전시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해서 내용을 알차고 흥미롭게 꾸미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김만덕 관련 유물은 현재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으므로, 김만덕과 함께 당시 제주의 생활문화사, 예컨대 의식주나 노동, 민속, 종교 등과 결합해서 전시 공간을 꾸밀 필요가 있다. 필자가 보기엔 ‘김만덕 전시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해서 그곳의 기념관을 새롭게 꾸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듯하다.

한편 필자는 지난 2006년 10월에 ‘김만덕과 제주문명전’이란 주제로 사이버 전시를 완성한 적이 있는데, 다음의 홈페이지(<http://coreastory.co.kr>)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사이버 전시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완성하였다.

1차 컨셉을 설정하고 2차 스토리텔링을 한 다음, 3차 플래시 애니메이션 형태의 사이버 전시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인력이나 기술상의 문제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두 번씩이나 실패하고 말았다. 비용상의 문제로 전문가가 아닌 학생이나 아마추어를 고용해서 작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엔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소개를 받은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김만덕의 생애를 토대로 그림이나 사진에다 해설을 덧붙이는, 일종의 ‘스토리가 있는 사이버 전시’의 형태로 제작하게 되었다.

김만덕 콘텐츠와 관광산업의 진흥

제주에서 관광산업은 매우 중요하다. 제주는 우리나라의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소득도 많은 부분 관광산업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제주의 관광산업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사람들이 제주로 여행을 가기보다 비슷한 시간과 경비가 드는 동남아나 중국, 일본 쪽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엔, 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지나 신혼부부의 신혼여행지, 부모님의 효도관광지로 전략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제관광도시라고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너무 경치 관람 위주이고, 틀에 박힌 관광 프로그램 때문인 듯하다. 주어진 자연환경 외에도 새로운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계속 개발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한 시도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주를 찾았던 사람들도 '갈 때마다 똑같다!'라는 푸념을 늘어놓게 하고 있다. 물론 새로 생긴 소인국 박물관이나 테디베어 박물관 등이 관광명소로 자리잡았지만, 그것들은 제주만의 특별한 콘텐츠가 아니다.

다음으로 지나친 상업성을 들 수 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지나치게 물가를 높여놓아 관광객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육지에 비해 제주도의 물가는 상당히 비싼 편이며, 차를 렌트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식물원이나 박물관, 국립공원 등의 입장료도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그렇다면 제주의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선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지적하면, 무엇보다 먼저 제주만의 특색을

살려야 한다. 즉, 제주의 자연이나 문화적 특질을 잘 살려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눈으로만 보고 사진으로만 남기는 여행보다는, 테우리(목자)나 해녀, 감귤 수확, 기타 민속생활 등 한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직접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문화콘텐츠와 관광산업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데, 제주의 신화나 언어, 역사, 자연, 민속, 종교 등의 자원들을 활용한 각종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제주의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이다. 특히 제주의 대표적 역사인물인 김만덕과 관련된 출판이나 학습만화, 드라마, 뮤지컬, 전시/축제, 여행 같은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와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그야말로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지역 이미지의 제고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앞에서처럼 학습만화와 관광산업을 연계해서, 만덕 관련 역사문화 지도를 학습만화의 부록으로 실어주고, 그 지도를 따라 제주여행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듯하다. 그럼 관광객은 보다 적극적으로 제주를 찾아다닐 것이요, 자연풍경과 함께 역사지식도 동시에 얻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3. 맺음말

콘텐츠 개발은 정말 어렵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근 4년 동안 김만덕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 작업에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이 일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즉, 하나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널리 활성화하는 데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 터득한, 고전의 현대적 수용 시 유의점에 대해 차례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학의 콘텐츠화, 특히 고전의 현대적 수용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먼저 문화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콘텐츠는 일종의 활용론이요, 출판이나 만화, 방송, 영화, 게임 등 여러 분야가 결합된 멀티미디어적 성격이 강한데, 그러므로 우선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쌓을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에 대한 이해, 곧 학문적 깊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문화콘텐츠의 시대로 갈수록 오히려 기초학문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상력이나 창의력도 결국은 학문적 깊이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셋째, 통합학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선 인문이나 사회, 자연, 과학, 예술 등 다양한 학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인문학이야말로 콘텐츠 개발의 중요한 토대인데, 평소 문학과 역사, 민속, 종교 등 인문학적 지식을 폭넓게 쌓아둘 필요가 있다.

넷째, 그와 함께 해당 콘텐츠에 대한 선행사례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라도 자신이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이미 시중에 나와 있거나 누군가가 작업하고 있다면 애써 개발한 것들이 모두 헛수고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고전을 현대적으로 활용할 경우엔 철저한 고증을 통해 가급적 역사적 사실 속에서 재미와 감동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픽션임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즉, 이젠 콘텐츠 생산자들도 우리 문화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현대적으로 활용할 때는, 특히 주제적 측면에서 지금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 아무리 역사적 사실에 충실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게 만든다면, 사람들에게 금방 외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고전의 단순 차용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지금 우리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공학이나 예술학, 경영학 등과 마찬가지로 인문학 전공자들도 너나없이 문화콘텐츠에 뛰어들고 있다. 일부 기존 학계의 좋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이미 문화콘텐츠, 곧 활용론(응용학문)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할 점은 인문학도로서의 자존심 하나만큼은 끝까지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실용성이 강조되는 시대라 할지라도 인문학도들이 중심을 잃고 상업주의에 빠져버린다면, 차라리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한라일보〉, 2004년 4월 15일자.
- 〈한라일보〉, 2004년 4월 20일자.
- 정창권, 『문화콘텐츠학, 어떻게 연구하고 가르칠 것인가』, 『동양한문학 연구』 24, 동양한문학회, 2007, 25~48면 참고.
- 정창권, 「디지털 시대, 우리 국악의 나아갈 길」, 『국어문학』 42, 국어문학회, 2007.2, 225~245면 참고.
- 정창권, 『문화콘텐츠학 강의』(깊이 이해하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9, 1~229면.
- 정창권, 『문화콘텐츠학 강의』(쉽게 개발하기),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9, 1~207면.
- 정창권, 『홀로 베풀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사계절, 2003, 1~279면.
- 정창권,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 푸른숲, 2006, 1~243면.
- 정창권, 「널리 덕을 베푼 여인, 만덕(萬德)」, 『좋은생각』 2004년 9월호.
- 정창권, 김만덕을 아시나요, 〈조선일보〉 2005년 7월 12일자.
- 정창권, 「김만덕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 『제주문화』 11, 제주문화원, 2005, 140~151면.

TV 사극에서 ‘거상(巨商)’ 콘텐츠의 영웅 스토리텔링 개발 방안

안 숙 현*

I. 서론

TV드라마에서 왜 ‘거상(巨商)’ 콘텐츠인가? 모든 삶의 기준이 경제와 자본이 된 신자유주의 시대에 ‘거상’은 시청자들이 바라는 영웅이기 때문이다. 거상 스토리 속에는 부와 성공을 향한 인간의 꿈과 욕망이 있고, 시련과 성장·희생을 바탕으로 한 인간 승리가 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주요 키워드인 ‘경제’와 관련하여 ‘거상(巨商)’ 스토리는 TV드라마 스토리텔러들의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다. 2010년에 방영된 TV드라마 콘텐츠를 살펴보면, TV사극 「명가」와 「거상 김만덕」을 비롯하여 TV드라마 「자이언트」 등 경제를 주된 스토리로 삼는 드라마가 유난히 많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부’와 ‘부자’는 꿈과 욕망의 대명사이면서 거부감을 주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그래서 TV드라마는 부자의 성공담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특히 ‘역사’에 주목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TV사극 「상도」·「명가」·「거상 김만덕」이다. IMF 직후 경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였던 2001년에는 TV사극 「상도」는 사회적인 이슈와 더불어 문화콘텐츠로서

* 단국대학교(천안) 교양기초교육원 강의전담 조교수

다양한 효과도 낳았지만, TV사극 「명가」와 TV사극 「거상 김만덕」은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둔 콘텐츠는 아니었다. 물론 TV사극 「거상 김만덕」의 경우는 TV드라마의 영향으로 김만덕에 관한 책들이 출판되었고, 제주도 ‘김만덕 기념관’에 관람객 방문수가 늘었으며, 김만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감대도 사회에 형성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관심이 ‘계속해서’ 유지될 만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드라마의 성공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의 성공은 주지하다시피 대중성과 공익성을 갖춘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거상들은 상당히 많다. 역사적인 인물을 발굴하여 TV드라마로 콘텐츠화 하면 교육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류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외에 우리 문화 알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실 극단적인 욕망이 넘쳐나는 21세기는 무엇보다도 인간성 회복과 도덕적 교훈이 절실한 시대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욕망을 채우면서도, TV드라마의 공익성이라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찾을 필요가 있다.

본 텍스트에서는 TV경제사극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텔링 개발에 관한 연구가 미흡했던 점¹⁾을 고려하여, 21C 시청자들이 역사드라마 속에서 만나고자 하는 거상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거상’을 다룬 기존 TV사극 콘텐츠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공익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찾아보고자 한다.

1) 현재 거상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개발을 연구한 자료는 전무하다. 하지만 거상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 사례를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 정창권의 논문 「고전의 현대적 수용-김만덕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 사례를 중심으로」(『한국고전여성성문학연구』, Vol.15, 2007)가 그것이다. 이 논문은 김만덕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학의 콘텐츠화, 특히 고전의 현대적 수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창권의 『꽃으로 피기보다 새가 되어 날아가리』가 〈김만덕기념사업회 드라마 시나리오 공모전〉에 당선되었다고 저자가 『문화콘텐츠학 강의』(커뮤니케이션북스, 2008)에서 고백한 것을 보면, 이 연구가 TV드라마 콘텐츠 제작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거상 콘텐츠로 민족교육과 문화사업에 전 재산을 바친 평양 거부 백선행(1848~1933)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으로서 조선 최초로 사회장(社會葬)이 치러질 정도로 역사적인 인물이며 21C형 ‘모멘텀(momentum) 리더’로서의 면모를 지닌 거상이지만, 시청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사실 백선행이라는 역사적인 콘텐츠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백선행 콘텐츠를 TV드라마로 제작했을 경우에는 역사·경제·윤리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백선행 콘텐츠를 통해서 거상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자 하기 때문에, TV드라마 스토리텔러들과 제작자들에게 실제적인 안내가 될 것이라고 본다.

II. 신자유주의 시대의 TV경제사극과 ‘거상(巨商)’

이 시대 TV드라마가 만들어내는 거상(巨商)의 이미지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만들어낸 탈출구이다. 신자유주의는 1990년대가 전성기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부분적으로나마 퇴조하는 형국이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²⁾

‘경제 최우선주의’라는 기준을 만든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는 신뢰·충성·헌신 등의 가치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일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를 희석시켜 버렸다. 인간은 스스로 상품화가 되었고, 소득 불평등은 날로 심해져 경제 전반에 불안정성이 증대되었다. 끊임없이 ‘경쟁’을 양산하는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갔고,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감도 상실해버렸다.³⁾

2) 최태욱, 『신자유주의 대안론』, 창비, 2009, 64쪽 참고.

이런 상황 속에서 TV드라마 시청자들은 모순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경쟁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사회를 변화시켜 줄 누군가를 기다린다. 즉, 시청자들은 신자유주의라는 괴물과 싸울 영웅을 통해 인간성과 헌신·정의·신뢰라는 가치를 회복하길 원한다. ‘보호하고 봉사하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영웅이라는 용어에는 ‘자기희생’이 내포되어 있듯이, 영웅은 참된 가치를 위해 자기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모험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시청자들은 영웅을 통해 도전을 간접 경험하고자 한다. 사실 영웅의 모험은 목적지가 뚜렷한 모험이지만, 신자유주의 현실에서 모험은 목적지보다는 ‘출발’ 그 자체가 중요한 모험이다. 경쟁사회에서 모험하지 않는 것은 마치 주검과 같은 안주와 실패의 징조로 본다.⁴⁾ 따라서 그 시대 경제를 움직이고 성공을 향해 달려간 거상(巨商)의 모험 스토리는 성장지상주의 철학이 지배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시청자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1997년 한반도를 강타한 국제통화위기(IMF)의 영향 아래 21세기를 맞던 당시에 최인호 작가의 장편소설 「상도」가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2001년에는 TV사극 「상도」가 방영되면서 ‘부자열풍’이 일어났다. 당시 부자에 대한 가치관을 바꿀 정도로 TV사극 「상도」의 거상 스토리는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10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그 갈급함은 더욱 심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의 스토리텔러들은 시청자들이 갈급해하는 욕망의 대리자로 ‘거상’ 캐릭터를 되살려놓고 있다. 하지만 ‘부’와 ‘부자’가 꿈과

3) 황성훈,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영남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28~43쪽 참고.

4) 리처드 세넷, 조용 옮김,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2002, 123~128쪽.

욕망의 대명사이면서도 동시에 거부감을 주는 키워드이듯이, 부자의 성공담을 다룰 때 TV드라마는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과거 속에서 캐릭터를 찾는 경향이 있다. 또는 경제 스토리를 좀 더 새롭게 풀어내기 위해 ‘역사’를 활용하기도 한다. 역사는 현실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상징화시켜 ‘낯설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상반기에 제작된 TV드라마 콘텐츠를 살펴보면,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 TV사극 「명가」·「거상 김만덕」이 있으며, 1970~80년대 경제이야기를 다룬 TV드라마 「자이언트」도 있다.

더욱이 시청률 40%를 달성할 정도로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던 TV드라마 「찬란한 유산」(2009)은 부자의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시대의 도래를 예고했는데, 이는 대중이 부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0년 8월에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을 비롯한 미국 억만장자 40명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약속하는⁵⁾ 등 미국 거부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이 우리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던 일이 있다. 또한 2011년 경제학의 화두로 ‘경제 윤리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을 정도로, 효율성을 최우선시하는 기존 경제학에 윤리 문제가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했다.⁶⁾ 이런 시점에서 이제 대중은 “부를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해서 TV사극 「명가」·「거상 김만덕」을 재빠르게 제작했다.

2001년도에 제작된 TV사극 「상도」의 기획 의도에서도, “IMF사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인들의 윤리의식과 상도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거상 임삼옥의 일대기를 극화하여 경제인들에게 바람직한 기업인의 표상을 제시한다”⁷⁾고 했으며, 2010년도에 제작된 TV사극 「거상 김만덕」

5) 『헤럴드경제』, 2010.08.05.

6) 「올 경제학 화두는 윤리 회복」, 『매일경제』, 2011.01.08.

에서는 “제2의 IMF라고 불리는 경제적 대공황 속에서 불황을 이겨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리더상의 필요에 따라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을 보여준 김만덕을 통해서 각박한 세상을 위로한다”⁸⁾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 드라마는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과 같다”(「상도」)·“언제든 돈을 다 버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아이러니하면서도 진리인 메시지”(「거상 김만덕」)를 전했다.

사실 역사 속 거상 캐릭터는 문화콘텐츠로의 활용이 매우 크다. TV드라마로 제작이 된다면, OSMU로의 가능성도 크다. TV사극 「상도」는 ‘부자 열풍’을 일으켜 경제에 관한 다양한 베스트셀러를 탄생시켰고, 광고와 게임 시장에서도 상도 콘텐츠를 상품화시켰다. 또한 TV사극 「거상 김만덕」도 TV드라마의 영향으로 서적 출판과 제주도 「김만덕 기념관」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계속해서 김만덕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감대도 사회에 형성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역사 속에 숨겨진 다양한 거상들을 찾아내어 문화콘텐츠화 하면 교육적인 자료로서의 활용이 크다. 또한 거상을 다룬 TV사극 콘텐츠는 한류가 지속적인 현 시점에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⁹⁾

7) TV사극 「상도」, <http://www.imbc.com/tv/drama/sangdo/concept.html>

8) TV사극 「거상 김만덕」, <http://www.kbs.co.kr/drama/manduk/about/plan/plan01.html>

9) TV드라마 「거상 김만덕」은 2010년 프랑스 칸에서 열린 MIPTV2010에서 일본 NHK 그룹의 NHK 엔터프라이즈와 드라마 ‘거상 김만덕’ 방송권을, 일권 최대 유통사인 츠타야외는 비디오그램권 판매계약을 체결했고, 대만에서도 매우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 TV사극 콘텐츠 수출은 한국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KBS 뉴스」, 2010.04.13, <http://news.kbs.co.kr/cul-ture/2010/04/13/2079415.html>)

Ⅲ. TV경제사극에서 ‘거상(巨商)’ 콘텐츠의 영웅 스토리텔링 개발 방안

1. 선행 콘텐츠들의 스토리텔링 분석 : TV사극 「상도」·「거상 김만덕」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거상 스토리를 다룬 TV드라마는 1982년도에 MBC에서 방영된 TV드라마 「거부실록」 시리즈라고 할 수 있다. 구한말 거부들의 삶을 그린 TV드라마 「거부실록」 시리즈는 「남강 이승훈」·「공주 갑부 김갑순」·「행동하는 지성인 백산 안희제」·「이용익」·「무역왕 최봉준」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들 드라마는 경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단지 인물의 성공담과 역사사회상을 위주로 사건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백산 안희제」의 경우, 경제인이기보다 항일 독립 운동을 한 애국지사로서 그려질 정도였고, 「무역왕 최봉준」은 무역업보다는 개인의 입지전적인 신분 상승 과정과 나라를 잃고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의 한을 조명했다. 「거부실록」은 해당 인물이 거부가 된 과정을 큰 줄기로 삼았으면서도 ‘경제 행위에 관한 구체성’이 부족했다.”¹⁰⁾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이용익」의 연출을 맡았던 고석만은 “돈을 모으는 과정이나 방법을 정성스럽게 보여 주는 게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지는 말자”¹¹⁾고 말할 정도로 당시 시청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 따라서 시청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길 원하는 본격적인 경제 스토리는 21C에 들어와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TV사극 「상도」(이병훈 연출, 최완규 극본, MBC,

10) 박상대, 「MBC 경제 드라마의 발전사」, 『MBC 가이드』, 2002년 3월호, 42~43쪽.

11) 「거부실록」 ‘이용익’이 보여주는 경제의 본디 모습, 『MBC 가이드』, 1982년 10월호.

2001.10.15~2002.04.02.)와 TV사극 「거상 김만덕」(강병택·김성윤 연출, 김진숙·강다영 극본, KBS1, 2010.03.06~06.13.)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제대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TV 경제사극을 대상으로 거상 스토리텔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보글러의 영웅 스토리텔링 가이드¹²⁾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거상 스토리를 다룬 TV드라마인 TV사극 「상도」·「거상 김만덕」의 영웅 스토리 구조를 살펴보았다. 즉, 신화학자인 조셉 캠벨의 영웅신화에 담긴 순환 구조를 선형적 구조로 일반화시킨 보글러의 12개의 틀을 기본 틀로 하여, 두 작품의 스토리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보글러의 스토리 구조		TV 사극 「상도」		TV 사극 「거상 김만덕」	
무대	스토리	회	스토리	회	스토리
1	일상의 세계	1회	소년·청년 입상옥은 역관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1~2회	어린 만덕은 한양 저잣거리 '할매'의 양성소에서 생활하면서 거상의 꿈을 키워간다.
2	모험에의 소명	2회	상술이 뛰어난 상옥을 보고, 다녕은 송방에서 일할 것을 권하지만 상옥은 거절한다.	3~5회	밀매 현장에 억울하게 관련된 만덕으로 양성소가 해체되고, 만덕은 할매와 헤어져 제주도로 간다.
3	소명의 거부	3·4회	아버지는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고 상옥은 감옥 생활을 한다.	6회	만덕은 제주 기생이 된다.
4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	5회	석송 스님과 흥득주와 만난다.	7·8회	할매와 재회한다.

12) 크리스토퍼 보글러, 함춘성 역,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무수, 2005.

보글리의 스토리 구조		TV 사극 「상도」		TV 사극 「거상 김만덕」	
무대	스토리	회	스토리	회	스토리
5	첫 관문의 통과	6회	상옥은 고가의 반상기를 팔아오라는 유기전의 시험을 받는다.	9·10회	만덕은 구질막에서 죽음을 이겨내고, 정신적으로 새로 태어난다.
6	시험, 협력자, 적대자	7회	첫 시험에서 선보인 상옥의 상술에 허삼보(협력자)는 감탄하고, 정치수(적대자)는 긴장한다.	11·12회	만덕은 아버지 김응렬(협력자)과 상봉하게 되고, 문선·묘향(적대자) 등의 방해를 받는다.
7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의 접근	8~ 22회	상옥은 만상에서 상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송상과 정치수와 경쟁한다.	13~ 17회	기적(妓籍)에서 빠져나온 만덕은 동문객주에서 전복 거래를 시작으로 문선과 경쟁한다.
8	시련	23~ 26회	만상의 쇠망으로 상옥은 선왕사에서 지내며 석승 스님으로부터 예언을 듣는다.	18~ 20회	동문객주는 파산하게 되고, 할매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다.
9	보상	27~ 39회	상옥은 장미령의 보은(報恩)으로 만상의 재기를 도모하게 되고, 인삼 교역을 토대로 만상을 조선 제일의 상단으로 키운다.	21~ 23회	만덕은 숙박업과 백립·후립 사업 등의 성공으로 동문객주를 되찾는다.
10	귀환의 길	40~ 43회	상옥은 홍대수(홍경래) 일로 인해 관아로 끌려간다.	24회	만덕은 밀주령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다.

보글러의 스토리 구조		TV 사극 「상도」		TV 사극 「거상 김만덕」	
무대	스토리	회	스토리	회	스토리
11	부활	44~ 48회	홍경래의 난 이후 상옥의 공을 치하하여 순조는 상옥을 태친고를 현감으로 제수하고 그 후 광신군수로 제수한다.	25~ 29회	만덕은 서문의 배를 사들이고, 할매의 죽음의 원인인 치부책을 얻게 된다.
12	영약을 가지고 귀환	49~ 50회	상옥은 당사관 중주부 호군으로 제수되고,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상인으로 거듭난다.	30회	전 재산을 털어 제주 백성들을 살린 공으로 만덕은 임금을 알현하고 의녀로 칭송받고, 금강산 구경을 한다.

영웅은 변화하는 영혼을, 그리고 개개인의 삶을 통해 겪는 여행을 상징한다. 그러한 점진적 진보의 단계, 생사의 본질적 단계는 영웅의 여행을 구성한다.¹³⁾ 영웅의 모험은 살아있음의 모험이며¹⁴⁾, 영웅이 겪는 분리·하강·시련·복귀라는 과정은 우리가 겪는 삶의 여정이다. 보글러가 설명하듯이, 신화는 거대한 섭리에 둘러싸인 인간의 처지와 삶의 목적을 돌려서 시적·은유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¹⁵⁾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영웅의 모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보게 된다. 따라서 영웅 스토리텔링은 시청자들의 몰입을 이끌어내는 데에 매우 용이하다.

우선, TV드라마 「상도」의 스토리 구성을 살펴보자. 캠벨의 ‘출발’에 해당하는 제1막은 보글러의 영웅 모험의 1무대에서 5무대까지, ‘입문’에

13) 위의 책, 89쪽.

14)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이윤기 역, 『신화의 힘』, 이글리오, 2002, 303쪽.

15) 스투어트 보이탈라, 김경식 역, 『영화와 신화』, 을유문화사, 2006, 7쪽.

해당하는 제2막은 6무대에서 9무대까지, '귀환'에 해당하는 제3막은 10무대에서 12무대까지로 볼 수 있는데, TV사극 「상도」는 16회 정도로 나눠 분할되어야 했지만, 중·후반부에 주요 사건들이 몰려있어서, 21세기 관객들의 시선을 뒤늦게 사로잡았다. 전자정보 시대가 만들어낸 빠른 속도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은 변화가 더딘 전개를 견디지 못한다. 즉, 드라마 초반에는 영웅 모험의 '출발'에 해당하는 스토리에 집중한 탓에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다가, 임상옥과 정치수가 벌이는 상술 싸움이 긴장을 만들어내면서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던 것이다. 더욱이 「상도」는 출발 부분에 영웅이 되기 위한 주인공의 고난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스토리텔링이어서, 답답하고 무거운 분위기만 부각되었다.

그에 반해서, TV사극 「거상 김만덕」은 '출발·입문·귀환'의 세 과정이 균형있게 나뉘어 전개되었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진부하고 예측 가능한 사건 해결 방식으로 인해서 시청자의 흥미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

TV드라마에서 긴장감은 필수이다. 사실 긴장은 게임과도 같이 강약의 리듬이 주어졌을 경우에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TV사극 「상도」의 경우에는, 중·후반에 전개되는 임상옥과 정치수의 경쟁 스토리에서 예측 불가능한 게임식 전략으로 드라마의 긴장감을 크게 높여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TV사극 「거상 김만덕」에서는 문제해결 방식이 단순하게 반복되어서, 긴장감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전복 경합과 공물선 경합 등에서 오문선의 계략에 동문객주는 늘 당하기만 하지만, 위기의 정점에서 김만덕이 '잠깐만요'라고 말하며 뒤늦게 나타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식이다. 모든 해결이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었기 때문에, 드라마는 시청자와 진정한 게임을 벌이지 못했다.

사실, 21세기의 드라마 스토리텔링은 시청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시청자들과 함께 놀며, 두뇌를 사용하는 게임 전략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21세기 시청자들은 스스로 두뇌를 사용하기를 원하며,

주인공 영웅이 그들의 재치를 뛰어넘길 원한다. 따라서 ‘경제’라는 소재에 걸맞게, 시청자들과 두뇌게임을 벌일 수 있는 다층적인 미션과 게임 전략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캐릭터들을 살펴보면, 역시 입체적이고, 다성(多聲)적인 성격이 아니라, 틀에 박히고 단편적인 성격이었다. 앤드루 호튼은 “캐릭터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부여하고자 하는 존재의 개인적 목소리를 찾는 것이다.”¹⁶⁾라고 했지만, TV사극 「상도」는 21C 거상 캐릭터를 창조하지 못하고 과거 캐릭터를 답습한 임상옥을 그렸다. 사실 TV사극 「상도」는 지나치게 교훈적인 성격의 단선적인 캐릭터와 입지전적 성공 나열이 진부하다고 비판을 받았다.

TV사극 「거상 김만덕」의 경우에는 지나칠 정도로 정의롭고 다혈질적인 특성이 초반에는 잘 표현되었지만, 사건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힘을 잃어, 나중에는 아예 그 성격 자체가 상실되었다. 특히 김만덕(이미연 분)은 딱딱한 교훈을 대사만으로 읊었고, 내적인 갈등이 없이 행동했으며, 모든 일을 바르게만 해결했다. 내적인 갈등과 성장이 결여된 이러한 캐릭터는 진부한 선악 구조와 단순한 갈등 구조를 만들어낼 수 밖에 없었다.

영웅 캐릭터와 더불어 주변 캐릭터를 창조하는 작업도 21세기 스토리텔링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실 영웅이 만나는 캐릭터들은 선악을 불문하고, 영웅의 다각적인 모습을 대변하는 인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TV사극 「상도」의 주변 인물들은 주인공의 성격을 변화시켜주는 다면적인 캐릭터인데 반해서, TV사극 「거상 김만덕」의 주변 인물들은 선악이 너무 분명하거나, 도식적인 캐릭터여서 흥미를 끌만한 요소가 지극히 적었다.

16) 앤드루 호튼, 주영상 옮김, 『캐릭터 중심의 시나리오 쓰기』, 한나래, 2006. 74쪽.

그 외에도 정신적 스승 캐릭터와 관련하여, TV사극 「상도」에서는 석승 스님과 흥득주라는 정신적인 스승 외에도, 주인공 임상옥이 만나는 다양한 주변 인물들이 상황에 따라서 스승 역할을 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다. 하지만 TV사극 「거상 김만덕」은 스승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다양하게 부각되지 못했다.

이미 앞 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21세기 시청자들은 TV드라마에서도 실제적인 현실을 경험하길 원한다. 그들은 TV드라마가 환상의 스크린이 아니라, 실제적인 정보가 살아있고, 시청자들의 의식을 깨우고, 함께 놀 수 있는 현실 공간이 되길 원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경쟁’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TV방송에서도 경쟁게임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TV사극 「상도」·「거상 김만덕」도 이런 시청자들의 니즈(needs)에 주목하여 영웅과 악한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21세기 비즈니스 마케팅을 선보였다.

TV사극 「상도」에서 그려진 마케팅을 살펴보면, 우선 1회에서 길거리 공연 마케팅을 연상시키는 사당패 연회를 활용한 장사와 14회에서는 시(詩)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흥삼을 파는 감성마케팅이 소개되기도 했다. 36회에서는 청국상인들의 담합을 저지하기 위해 조선 흥삼을 불에 다 태워버리려는 임상옥의 담력을 통해서 의미 있는 목적을 위해 도전하는 비즈니스 정신을 전달했다. 특히 14회에서는 임상옥이 연경 흥등가에서 장미령이라는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 거금을 지불했지만 결국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애’야말로 최고의 마케팅임을 보여주기도 했다.

‘인간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이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임상옥의 모습은 김만덕에게서도 강하게 비춰진다. TV사극 「거상 김만덕」은 ‘나눔’을 실천한 영웅 김만덕을 그리면서,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는 마케팅을 강조하였다. 특히 정확한 시장 분석을 통한 상품 선택·개발

그리고 유통망 확보 등 체계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시청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냈다.

다음으로, 이들 드라마에서는 ‘비주얼적인 영상’과 ‘놀이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극적 흥미를 높였다. TV사극 「상도」의 영상에서는 광활한 자연 속 인간이 Long Shot으로 비취져서, 이병훈 감독의 독특한 영상미와 더불어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의미도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었다. TV사극 「거상 김만덕」은 기획 의도에 “아름다운 제주의 풍광을 담아내다”¹⁷⁾라고 밝혔듯이, 제주도의 풍경을 환상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외에 TV사극 「상도」는 남사당패 놀이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21세기에 만나는 거상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은 영웅의 교훈적인 삶과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 스스로가 ‘즐겁게’ 깨우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TV사극 「상도」·「거상 김만덕」은 착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도식적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사실 드라마가 그 당시 상업 구조의 모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역동적인 영웅을 보여주었다면, 교훈적인 내용 전달에 더 큰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었을 것이다.

TV사극 「상도」·「거상 김만덕」의 스토리텔링을 SWOT 분석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 TV사극 「거상 김만덕」, <http://www.kbs.co.kr/drama/manduk/about/plan/plan03.html>

	Strength	Weakness
내 적 요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자유주의 시대의 새로운 리더상 제시 · 게임 경쟁을 활용한 21C 마케팅 소개 · 영상미 · 민속공연놀이 등 볼거리 · 예측 불가능한 게임식 전략 (「상도」) · 다양한 스승 캐릭터(「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훈 메시지 전달의 도식적인 방법 · 영웅 캐릭터의 단편적인 성격 · 영웅 모험의 ‘출발’ 과정에서 변화가 더딘 전개(「상도」) · 예측 가능한 문제해결 방식 (「거상 김만덕」) · 영웅의 내적 고뇌의 부재 (「거상 김만덕」) · 실수가 없는 캐릭터(「거상 김만덕」) · 진부한 선악 구조(「거상 김만덕」) · 주변 캐릭터들의 단편적인 성격 (「거상 김만덕」)
	Opportunities	Threats
외 적 요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자유주의 시대와 경제에 대한 관심 · 희망의 부재로 인해 영웅 스토리가 주는 감동 ·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한 관심 · 역사적인 인물 발굴과 문화콘텐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자의 성공담에 관한 거부감 · 고리타분한 교훈적 메시지 전달

2. ‘거상(巨商)’ 백선행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개발

탁정언은 『기획의 99%는 컨셉이다』라는 저서에서, 컨셉 설정의 7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1) 독특한가(Unique), 2) 차별화했는가(Differential), 3) 연관성이 있는가(Relevance), 4) 고객 지향적인가(Consumer oriented), 5) 조건에 맞는가(Condition), 6) 즉시 반응이 오는가(Reaction), 7) 시나리오가 있는가(Scenario)”¹⁸⁾

컨셉 설정에 유의해야 할 점은 수용자의 니즈(needs)에 부응하여 확고한 컨셉을 정착시키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신자유주의

18) 탁정언, 『기획의 99%는 컨셉이다』, 원앤원북스, 2005.

시대를 살아가는 시청자들에게 경제이야기와 성공한 인물인 거상 스토리는 니즈(needs)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21C에 들어와서는 ‘임상옥’과 ‘김만덕’ 이외에 사극에서 다뤄진 인물이 부족하여 역사적인 거상 콘텐츠를 새롭게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거상들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된 컨셉 설정의 7가지 조건을 TV드라마화와 관련해서 보면, 일제 강점기에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돌산을 사서 거부가 된 백선행을 주목해볼 수 있다. 21C TV드라마로서 독특·차별화·연관성·고객 지향적·조건에 적합·즉각적 반응·시나리오라는 조건을 고려하여, 그동안 대중에게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던 역사적 인물로, 인물과 시청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드라마틱한 삶’을 산 인물을 찾는다면, TV드라마의 첫 걸음인 성공적인 컨셉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인간이 태어나 사회를 구성하고 시련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영웅 신화’에 녹아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신화의 핵심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인간으로 살아갈 힘을 주는 ‘재생의 삶’을 가르쳐 주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¹⁹⁾

캠벨이 말한 이러한 ‘재생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백선행(1848~1933)이다.

백선행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거상으로, 자선사업으로 인해 ‘선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정도로 진정한 거상의 면모를 지닌 여성이다. 16세에 남편과 사별한 후 근검절약과 뛰어난 장사 수완으로 큰 재산을 모아, 광성(光成)보통학교·창덕(彰德)보통학교·평양승현학교(崇賢學校)·승인상업학교 등 교육 사업에 땅을 기부하였고, 평양에 3층 공회

19) 조셉 캠벨,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07, 33쪽.

당을 건립하고, 1925년에는 전 재산을 구빈(救貧)을 위해 사회단체에 내놓았던 인물이다. 어린 과부가 홀어머니까지 잃고, 친척들에게마저 재산을 빼앗긴 후 무일푼으로 남자들 틈에서 장사를 하여 거부가 되기까지 그녀가 겪은 삶은 아픔과 시련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였다. 더욱이 그녀는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교육 사업에 전 재산을 투자했던 큰 인물이었다. 그녀의 삶은 한마디로 ‘재생의 삶’을 실천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여성으로서는 조선 최초로 사회장(社會葬)이 치러졌으며, 평양 시민 3분의 2가 참석할 정도로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다.²⁰⁾

사실 21C TV드라마에서 여성 CEO는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기에 유리하다. ‘부와 거상’이라는 이미지가 가지는 거부감이 여성이라는 약자의 이미지와 만나서 긍정적인 새로운 리더상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결국 모친까지 잃은 백선행의 처지는 나라를 잃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처지로 상징화될 수 있으며, 21C에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꿈을 잃어버린 서민들의 처지로 인식될 수 있다. 더욱이 과부 백선행은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냈고, 오히려 민족을 살리는 역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해방되어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냈고, 결국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

그렇다면 백선행이라는 인물을 TV드라마로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할 때, 고민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 우선, 본 연구에서는 선행 콘텐츠들의 스토리텔링에서 살펴본 SWOT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는 전략이

20) 백선행의 삶을 소개한 책들은 다음과 같다 : 최은희, 『조국을 찾기까지』 하근, 探求堂, 1973 ; 한국여성개발원, 『한국 역사 속의 여성인물 하』, 한국여성개발원, 1998 ; 한영제, 『한국기독교인물 100년』, 기독교문사, 1987 ; 한정주, 『조선의 거상 경영을 말한다』, 비즈페이퍼, 2007 ; 박용욱, 『한국여성항일운동사 연구』, 지식산업사, 1996 등.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SWOT 분석을 위한 매트릭스²¹⁾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내 적 요 소	SO 전략 ²²⁾	WO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C 모멘텀 리더상 창조하기 · 21C 새로운 여성 리더상 제시하기 · 실제적인 경제 정보와 다양한 21C 마케팅 소개하기 · 게임경쟁을 활용한 놀이식 서사 살리기 · 1920·30년대 학생극을 활용하여 시청각적 볼거리 제공하기 · 1910·20년대 역동적인 사회상의 비주얼화와 '영상미' 살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편적인 영웅 서사를 프라이 이론과 접목하여 통합적 스토리텔링 구조로 변화시키기 · 영웅 서사에서 '모멘텀'을 살리기 · 기존 규칙을 파괴하는 게임 놀이식 전개로 흥미 유발시키기 · 입체적인 영웅 캐릭터 창조하기 · 주변 캐릭터들의 다양성과 개성 살리기 · 다양한 문제 제기와 논의거리로 시청자의 참여 유도하기
외 적 요 소	ST 전략	WT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자유주의 시대에 다양한 경제 정보와 마케팅 소개로 시청자들의 관심 끌기 ·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공익성 강조하기 · 역사적인 인물인 백선행 콘텐츠 발굴과 문화콘텐츠화 하기 · 1910~30년대 시대 배경에 대한 역사적 관심과 교육적 효과 만들어내기 · 희망을 상실한 시청자들에게 백선행의 '재생의 삶'을 보여주기 · 개화기시대 평양 보부상들의 활동상 보여주기 · 한국 여성 항일운동 활동상 보여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선행이 보여준 '재생의 삶'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통해서, 부자의 성공담에 대해 시청자들의 거부감 줄이기 · 교훈 메시지를 영상기법과 역동적인 행동 등을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21) 김만식, 『문화콘텐츠 개발전략』, 학연사, 2009, 218쪽.

22) SO전략 :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 / WO전략 : 약점을 보완하면서 기회를 살리는 전략 / ST전략 : 강점은 극대화, 위협을 회피, 최소화하는 전략 / WT전략 : 약점 보강, 보완하면서 위협을 약화, 회피, 최소화하는 전략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에 제기된 문제들은 백선행 콘텐츠를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획과 관련된 질문들이다.

첫째, 이 드라마가 갖는 21세기 경제사극으로서의 역할과 차별성은 무엇인가? 둘째, 캐릭터를 어떻게 입체화할 것인가? 셋째, 어떻게 스토리텔링에서 '모멘텀(momentum)'을 살릴 수 있을까? 넷째, TV경제사극에서 어떻게 21세기의 놀이성을 반영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들 문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21세기 경제사극으로서 '역할'과 '차별성' 살리기

21C 경제사극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재생의 삶'을 보여주는 리더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희망의 부재와 인간 가치의 상실이다. 사실 거대한 경제 흐름 속에 재빨리 뛰어들어 성공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그런 흐름에서 소외된 서민들이며, 열등감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선행이 겪는 시련과 아픔은 시청자들의 상처를 되돌아보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를 닮은 그녀가 고난을 극복하여 사회에 자신의 모든 것을 환원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도 희망을 준다.

또한 버려진 돌산을 장애물로 보지 않고, 큰 이윤을 남기고 팔아 거부가 된 백선행을 통해서 '모멘텀(momentum) 리더상'을 보여줄 수 있다. 독특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묻고 발견하며, 젊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직원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해주는 모멘텀 리더²³⁾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이다. 특히 새로운 자원을 찾기보다는 한정된 자원을 새롭게

23) 장 클로드 라레슈, 서혜민 옮김, 『모멘텀 이펙트』, 교보문고, 2009 ; 「제품이 알아서 팔린다고?... 그게 모멘텀의 마력이야, 모멘텀 리더십」, 『매일경제』, 2010.10.30 참고.

‘발견(discovery)’하여 활용하고, 주변 인재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하여 이끌어주는 ‘모멘텀 리더’의 ‘발견’ 능력은 현대인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백선행을 통해 그려내는 ‘괴짜’와 같은 독특한 ‘모멘텀 리더십’은 시청자들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해줄 수 있다.

21C 경제사극은 시청자들이 실제적인 경제 정보를 예술적 감각 스타일로 만나볼 수 있는 드라마여야 하며, 또한 입체적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놀이’의 장’이 되어야 한다. 사실 빠른 속도에 익숙한 이 시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방법은 변화가 빠른 사건 전개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미적 감각과 ‘놀이성’ 강화에 있다. 특히 실제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청자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시청자들과 두뇌게임을 벌일 수 있도록 게임식 스토리텔링으로 기존 경제사극과 차별된 스타일을 부각시켜야 한다.

사실 백선행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은 일제 강점기를 시대 배경으로 그 당시의 상인들이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여 돈을 벌었고, 항일운동을 도왔는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매우 흥미롭다.

둘째, 영웅 서사에서 ‘모멘텀(momentum)’을 살리기

논문 「신화의 구조와 스토리텔링 모델」에서 최민성은 캠벨의 원질신화에 기반을 둔 스토리의 연쇄체 구조에 프라이의 이론을 접목시켜 다음과 같은 통합적 스토리텔링 구조를 만들어냈다.²⁴⁾

24) 최민성, 「신화의 구조와 스토리텔링 모델」, 『국제어문』, Vol.42, 국제어문학회, 2008, 512쪽.

	수준	주인공	주제	스토리 구조
가	신화	매우 우월	삶에 대한 총체적 비전	열두 가지 스토리 구조 요소 중 선택과 집중
나	로망스	우월	영웅들의 보편적 진리 추구	상동
다	상위모방	우월하나 현실적	사회와 국가의 부응	상동
라	하위모방	보통	개인의 심리와 행위	상동
마	아이러니	열등	실존과 예술	상동

스토리텔러는 이러한 기본형을 바탕으로 주인공·주제·스토리 구조 중 일부를 다른 수준의 계열에서 선택·혼합하는 방식으로 변형을 시도할 수 있다. TV드라마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 다형과 라형의 조합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으려면, 라형에서 다형으로 변하는 구조가 적합하다.

백선행의 실제 삶을 살펴보면, 그녀가 처음에는 매우 평범했지만, 삶을 통해 서서히 배워가면서 발전했으며, 중국에는 역사적인 업적을 이루어냈다. 즉,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비범하지는 않았고, 사명감도 없었다. 철저하게 개인적이었고,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못한 구두쇠로서의 면모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은 보글러의 영웅 스토리텔링을 따르고 있지만, 그녀의 삶을 TV드라마로 스토리텔링하면 나·다·라·마형이 적절히 혼합된 구조가 훨씬 입체적이고 개성적인 스토리텔링이 될 것이다. 또한 그 주변 캐릭터와의 갈등을 통해서 전개되는 스토리도 위의 유형들을

혼합하면서 대처하면 흥미로운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때 ‘스스로 속도를 붙여 움직이게 하는 것’인 ‘모멘텀(momentum)’ 효과를 스토리텔링에서 살려야 한다. 물리학에서 모멘텀의 사전적 의미는 탄성 또는 탄력이다. 모멘텀은 첫 힘만 가하면 외부에서 추가로 힘을 가하지 않아도 저절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따라서 물꼬만 터지면 이후에는 저절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모멘텀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TV드라마 스토리텔링에서도 스토리텔러는 이러한 방해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탄력을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모멘텀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파워 오퍼(power offer)’가 중요하다. 장 클로드 라레슈는 고객이 스스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즉 ‘파워 오퍼(power offer)’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고객이 생산자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파워오퍼는 모멘텀을 얻은 기업의 특징이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다. 타겟 고객은 파워오퍼가 의심할 나위 없는 가치를 제공한다고 인식하고 거기에 자동적으로 빠져버린다. 파워오퍼가 갖고 있는 가치는 고객에게 순식간에 인식되고, 매우 개인적이며 매우 공감 가는 나머지, 고객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고객을 확신시키거나, 설득시키거나, 구매하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²⁵⁾

따라서 TV드라마 스토리텔링 역시도 시청자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청자들 스스로가 드라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놀이’의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즉, 시청자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는 즐거움을 선사해야 한다. 특히 프로슈머(Prosumer)로서 시청자들의 가

25) 장 클로드 라레슈, 앞의 책, 151쪽.

능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거리와 변화가 필요하다. 이미 선행 콘텐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예상이 가능한 단선적인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논의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기존 서사의 규칙을 과감하게 파괴하여 다양한 방해요소에도 개성적으로 반응하고, 실패하기도 하며, 시청자들의 허를 찌르는 기발한 해결방법으로 승리하는 식 등으로 스토리텔링의 ‘파워오피’를 만들어내야 한다. 충분히 기다려주었던 20C의 시청자들과는 달리, 속도에 민감한 21C 시청자들은 초반부터 다양한 논의거리를 만나고 싶어 하고, 그 문젯거리로 드라마 안팎을 넘나들며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셋째, 모멘텀 리더 캐릭터의 ‘입체성’ 살리기

이미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청자들은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창조되지 않았을 때 불만을 토로한다. 전형적이며 고정적인 성격의 인물은 매력을 끌지 못한다. 시청자들은 독특할 정도로 개성적이며, 기존의 생각을 뒤엎는 엉뚱한 성격의 인물을 만나고 싶어한다. 또한 부족한 면이 있고, 실수를 하는 인간적인 성격을 더욱 가깝게 여긴다. 이런 인물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물의 다면적인 면은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흥미로울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따라서 남는 것은 이들의 중간에 있는 인물이다. 덕과 정의에 있어 월등하지는 않으나 악덕과 비행 때문이 아니라, 어떤 과실 때문에 불행에 빠진 인물이 곧, 그러한 인물인데.”²⁶⁾ 시청자들은 이러한 중간적인 주인공을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고, 그런 모습이 사람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주인

26)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문예출판사, 1990, 74쪽.

공은 선과 악의 경계선에 머물러야 하고, 주변 인물들도 이 경계선에 기대어 자리잡아야 하며, 인물들의 성격도 이 경계선 주변에 펼쳐져야 한다.²⁷⁾

사실 실제로 역사에 밝혀진 백선행이라는 캐릭터는 매우 흥미롭다. 스스로에게는 자린고비의 구두쇠 캐릭터지만, 타인과 민족 앞에서는 가진 모든 것을 다 돌려주는 배포가 큰 거인이다. 거친 남자들과의 싸움에서 흔들림 없는 여장부이며,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지혜로운 상인이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모멘텀’ 리더에 가깝다. 그녀는 문자를 몰랐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계산했고, 쓸모 없는 돌산을 사서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팔아버린 괴짜였다. 신문기자가 사진을 찍으려 할 때, 역광인 그 자리에서 그냥 사진을 찍겠다고 우기는 고집스런 노인이었지만, 생각과 행동은 젊은이와 같았다.

TV드라마에서는 이런 실제 캐릭터에 극적인 ‘입체성’을 입힌다면, 영웅 캐릭터가 훨씬 매력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 즉, 모순적인 성향을 교묘하게 섞어 개성을 만들어내면 영웅의 인간적인 면모가 살아날 것이다. 일상에서 비취지는 자린고비와 같은 수전노의 면모는 주인공을 인간적이며, 코믹하게 보여줄 수 있고, 여장부로서의 대담한 배포에 여성적인 서정성을 입힌다면 캐릭터를 훨씬 사랑스럽게 부각시킬 수 있다.

또한 도덕적 갈등은 인물의 내적인 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거상의 이미지가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경계에 서서 갈등하던 인물이 결국 더 큰 선을 향해 변화해 간다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훨씬 쉽다. 특히 고통스러운 도덕적 질문을 제기한다면, 인간의 근원에 대해 시청자

27) 마이클 티오노, 김윤철 역, 『스토리텔링의 비밀』, 아우라, 2009. 164쪽.

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특히 경제드라마에서는 캐릭터들의 ‘협업(Collaboration)’이 매우 중요하다. 현대사회에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생각으로는 복잡한 상황을 탈피하기 어렵다. 회사도 제휴와 협업을 통해서 자기 브랜드를 강화하듯이, 복잡한 현대사회의 시스템을 감안하여 영웅도 주변의 인물들과 협력하고, 서로의 상황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TV사극 「거상 김만덕」에서 ‘만덕’ 캐릭터는 슈퍼영웅처럼 혼자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21C 리더상과 맞지 않았고, 시청자들의 호응도 이끌어내기 힘들었다.

따라서 주변 캐릭터들은 영웅인 백선행의 성장과 성공에 모두 기인하는 인물이어야 하며, 그녀 역시 그들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21C형 리더여야 한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숨겨진 능력을 발견(discovery)하게 해주고 끊임없이 질문을 유도하는 ‘모멘텀’ 리더의 면모를 보여준다면, 21C의 진정한 리더상을 제시할 수 있다.

넷째, TV드라마의 ‘놀이성’을 보여주기

21C TV드라마의 주요 역할은 ‘놀이’이다. 하지만 거상 스토리는 매우 교훈적인 삶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콘텐츠들을 접했던 시청자들은 거상 스토리를 고리타분하게 인식하여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스토리텔러는 계몽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을 대사로서가 아니라, 역동적인 극행동과 영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영화의 스토리텔링을 서술한 마이클 티오노의 『스토리텔링의 비밀』에는 영화 속에 함께 참여하여 ‘놀이’를 원하는 관객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두 개의 뇌를 사용한다. 그 중 한 부분은 영화에 참여하여 불쌍한 로즈마리를 자신으로, 그녀가 처한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또 다른 부분은 영화 밖의 철저한 구경꾼으로서 영화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본다. 우리는 영화를 밖에서 지켜보기도 하지만, 영화를 볼 때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참여하고 싶어하기도 한다. 아무리 믿기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머릿 속은 영화감독과 함께 놀기를 바란다.”²⁸⁾

사실 TV드라마는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시청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하는 ‘놀이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도 하고, 그 기대를 배반하는 등 게임놀이와 같은 서사는 충분히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백선행 콘텐츠에서는 보부상들과 거상 간의 ‘경쟁’을 이용한 게임 놀이도 흥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영웅 스토리와 다르게, 거상 스토리는 비즈니스 세계의 ‘경쟁’을 다루기 때문에 ‘경쟁게임’을 놀이화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즉, 비즈니스 상대와의 ‘경쟁’으로 미션을 수행해가는 거상 스토리는 대조와 대립의 갈등 구조가 더 강조되는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몰입을 이끌어내기가 훨씬 쉽다.

호이정하는 ‘경쟁’이 승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승리는 타인보다 뛰어나려는 욕망과 타인에게 존경을 받으려는 바람을 그 기반으로 한다. 한마디로 우월성을 증명하는 역할이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경쟁은 게임을 지배하고 있는 긴장과 해소의 요소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절정에 달하게 한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에 ‘경쟁게임’을 강화하면 경쟁놀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재미’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다.

28) 마이클 티오노, 앞의 책, 131쪽.

29) J. 호이정하, 권영빈 옮김, 『놀이하는 인간』, 흥성사, 1985, 88쪽.

더욱이 TV사극 「선덕여왕」에서는 캐릭터들과의 게임 뿐만 아니라 시청자와의 게임을 유도하여, 텍스트 전체를 놀이화시킨 흥미로운 예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게임과 같은 쌍방향 게임놀이를 시청자들을 텍스트 속에 적극 끌어들이어야 한다.

또한 TV사극 「상도」·「거상 김만덕」과 같이 ‘볼거리’를 위한 놀이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 TV사극 「상도」에서는 남사당패 놀이를 볼거리로 제공하였고, TV사극 「거상 김만덕」에서는 초반에 기생이었던 김만덕을 통해서 기생들의 춤사위를 보여주기도 했다. 따라서 백선행 콘텐츠를 활용한 TV드라마에서도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1910년부터 1930년대 유행했던 연극 장르를 볼거리로 제공할 수 있다. 즉, 백선행은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교육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연극 활동을 스토리텔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국연극사에서 1920·30년대 학생극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당시 학생극은 민족계몽운동의 하나였으며, 한국 사실주의 연극운동의 출발이었다.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학생극은 시대와 사회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의미있는 볼거리가 될 수 있다. 즉, 학생극 공연무대는 1920·30년대의 음악과 의상·분장·헤어스타일·무대장치 등 시청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위의 문제들을 통해서 얻은 예상 시나리오로, 백선행 콘텐츠의 TV드라마화와 관련해서 <기획의도>를 설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1. 21C형 모멘텀 리더상 제시
2. 진정한 노블리츠 오블리제의 삶 제시
3. 개화기 시대 평양의 보부상들 활동과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생활상

4. 경제 게임을 통해서 21C 마케팅 소개
5. 한국 여성 항일운동 활동상
6. 1910~30년대 역동적인 사회상을 비주얼화시킨 영상 미학

그리고 백선행이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협력자와 적대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캐릭터들을 가상적으로 설정하여 기본적인 <등장인물>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등장인물들의 역할	성격 및 특성
협력자	안재욱	백선행의 남편. 선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서이준(가명)	어릴 때부터 백선행을 짝사랑했고, 성장한 후에도 항상 그녀를 도와준다. 대학교수이자 연극배우로 활동하며 독립 운동을 한다. 그는 백선행과의 행복한 결혼을 꿈꾸지만, 결국 일본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최육경(가명)	백선행보다 15살 정도 많으며, 스승의 역할을 하는 여성이다. 보부상을 시작으로 평양의 거부가 되었지만, 안경철로 인해 파산을 하게 된다.
	보부상들	백선행이 보부상으로 활동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 그들은 상인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후원한다.
협력자	학교 관련 인물들	학교 교사들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 인재 양성에 헌신하며, 젊은 학생들은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연극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운동을 통해 민족계몽운동을 펼친다. 그들은 참교육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독립운동가들	조만식과 여성 근우회 회원들을 비롯해서, 백선행이 후원하는 독립운동가들로, 특히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다양한 활동력을 보여준다.

구분	등장인물들의 역할	성격 및 특성
적대자	안경철(가명)	백선행의 먼 친척으로, 남편을 죽게 만든 인물이다. 그는 거대한 상인으로 성장하여, 백선행의 일을 평생 방해한다.
	안화정(가명)	안경철의 딸로, 백선행의 어릴 적 친구이며, 서이준을 짝사랑한다. 안경철의 일을 도우면서, 현실과 도덕적인 양심 사이에서 늘 고민한다.
	팽한주(가명)	평양 부유으로, 탐관오리이다. 백선행에게 누명을 씌우고 가두는 등 안경철과 협력하여 백선행을 괴롭힌다.
	팽경우(가명)	팽한주의 이들로, 고위 경찰이다.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백선행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잔인한 행동을 하며, 서이준과 적대관계에 있다.

보글러의 영웅 모험 구조에 맞춰서, 실제와 가상을 엮은 내용으로 백선행의 삶을 스토리텔링하면 다음과 같다.

막 구분	보글러의 스토리 구조	백선행 콘텐츠의 거상 스토리텔링
제1막	일상세계	14세 어린 신부인 백씨(선행)는 착하고 밝은 성격의 남편과 함께 일상적인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산다.
	모험예의 소명	2년 후 남편이 죽고, 친정으로 쫓겨 온 백씨(선행)는 친정어머니 밑에서 억척스럽게 일하며 살아간다. 10년 후 어머니마저 죽자, 문중 사람들은 양아들을 들어서 백씨(선행)의 재산을 빼앗고, 그녀는 무일푼이 된다.
	소명의 거부	백씨(선행)는 희망을 잃고 자살을 기도한다.
	정신적 스승과의 만남	보부상인 최육경이 백씨(선행)를 살려내어, 보살펴 준다. 백씨(선행)는 최육경의 열정적인 삶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한다.
	첫 관문의 통과	있는 것을 활용해서 장사 밀전을 만들라는 최육경의 가르침에 따라 백씨(선행)는 봉숭아꽃을 재배하여 시장에 팔기 시작한다. 그리고 닭을 키워 계란을 팔고, 그 후에는 양계장과 돼지농장까지 경영하게 된다.

막 구분	보글리의 스토리 구조	백선행 콘텐츠의 거상 스토리텔링
제2막	시험, 협력자, 적대자	백씨(선행)는 돼지농장을 기술들에게 맡기고, 본격적으로 등짐장수를 시작으로 남자들처럼 면직물 장사에 나선다. 번 돈으로 땅을 사기 시작하여, 장사 10년 만에 집포를 열게 된다. 좋은 상품만을 거래하는 그녀에게 보부상들이 찾아오고, 백씨(선행)는 거지떼들을 점원으로 고용하여 도와준다. 안경철은 그녀의 사업을 방해하며, 평양부윤 팽한주는 백씨(선행)에게 누명을 씌워 협박한다.
제2막	심연 가장 깊은 곳으로의 접근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을 거치면서 백씨(선행)는 사회 변화에 지혜롭게 대응하여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그녀는 평양 근교인 강동군 만들면 승호리 일대의 만달산에서 석회석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쓸모없는 돌산을 매입한다.
	시련	평양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모두 비웃는다. 배 난파로 백씨(선행)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면서 만달산에 대한 희망도 서서히 사라진다.
	보상	석회석을 찾던 일본인들은 백씨(선행)에게 만달산을 팔 것을 요구하고, 그녀는 대담하게 거래하여 막대한 대금을 받고 산을 팔아 평양 제일의 갑부가 된다.
제3막	귀환의 길	서이주의 죽음을 계기로, 조선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된 백씨(선행)는 수해 이재민을 돕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다리(선행교)를 놓아 사람들로부터 백선행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하여, 평양 광성소학교와 승현여학교, 창덕소학교 등에 부동산을 기부하고, 조만식의 독립운동과 근우회 평양지회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후원한다.
	부활	독립운동가들을 후원하는 일로 인해서 백선행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 백선행 기념관을 건립한다.
	영약을 가지고 귀환	1931년 12월 백선행의 동상 건립이 추진되고, 백선행은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는다. 1933년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 여성 최초로 사회장이 엄수되어, 애국지사들과 수많은 시민들이 애도해 한다.

IV. 결론

21세기의 주요 키워드인 ‘경제’와 관련하여 ‘거상(巨商)’ 스토리는 TV 드라마 스토리텔러들의 새로운 관심거리고 떠오르고 있다. 거상 스토리 속에는 부와 성공을 향한 인간의 꿈과 욕망이 있고, 고난·시련·고통을 통해 얻은 성장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 인간 승리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거상들은 상당히 많다. 그들의 이야기를 TV드라마 콘텐츠로 개발하면 문화콘텐츠로서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경제 최우선주의로 인간적인 가치들이 무가치한 것이 되고, 인간 스스로가 상품화 되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거상’ 스토리는 인간성 회복과 도덕적 교훈을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콘텐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V경제드라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우리 역사 속에서 21세기 대중들이 찾는 거상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개발해보고자 했다. 특히 거상을 다룬 기존의 TV드라마 콘텐츠들의 문제점을 살펴 보면서 공익과 대중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본격적으로 거상을 다룬 TV드라마는 1982년에 MBC에서 방영된 TV드라마 「거부실록」 시리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 드라마는 경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단지 인물의 성공담과 역사사회상을 위주로 극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21C에 들어와서 ‘경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TV사극 「상도」(2001)와 TV사극 「거상 김만덕」(2010)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을 살펴보았다.

이들 사극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경제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인간 승리를 담은 영웅 스토리와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을 제시하여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역사적 인물의 김상옥과 김만덕

을 문화콘텐츠화하는 데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들 드라마는 단편적인 캐릭터들, 진부한 선악 구조, 도시적인 교훈 메시지 전달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거상 콘텐츠로 민족교육과 문화사업에 전 재산을 바친 평양 거부 백선행(1848~1933)을 제시하여, 이 시대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거상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우선, 21C 경제사극은 ‘재생의 삶’을 보여주는 리더와 21C 모멘텀(momentum)리더상을 창조해야 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입체적인 스토리텔링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영웅 서사는 단편적인 성격을 지양하고, 프라이 이론과 접목하여 통합적인 스토리텔링 구조로 변화시킨다. 또한 영웅 서사에서 ‘모멘텀’을 살린다. 특히 시청자들의 몰입을 유도하는 비즈니스 경쟁놀이와 기존 규칙을 파괴하는 게임식 전개로 흥미를 유발시킨다. 영웅 캐릭터는 젊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끊임없이 질문하고 주변인들의 숨은 능력을 발견하게 해주는 ‘모멘텀’ 리더형을 지향한다. 경제드라마는 시청자들이 실제적인 경제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21C 마케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시청자들이 직접 드라마 속 경제 마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게임 놀이식 스토리텔링을 만든다. 그 외에도 1920·30년대 학생극을 활용하여 시청각적 볼거리를 제공하며, 당시 시대 사회상의 비주얼화로 영상미를 강조한다. 특히 교훈 메시지를 영상 기법과 역동적인 극행동 등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즉, 21C TV드라마 콘텐츠의 ‘놀이성’을 살린다.

참고문헌

- 김만식, 『문화콘텐츠 개발전략』, 학연사, 2009.
- 노스롭 프라이,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2000.
- 리처드 세넷, 조용 역,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2002.
- 마이클 티어노, 김윤철 역, 『스토리텔링의 비밀』, 아우라, 2009.
- 박상대, 「MBC 경제 드라마의 발전사」, 『MBC 가이드』, 2002년 3월호.
- 박용옥, 『한국 여성 항일운동사 연구』, 지식사업사, 1996.
- 스튜어트 보이털라, 김경식 역, 『영화와 신화』, 을유문화사, 2006.
-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아리스토텔레스서 시학』, 문예출판사, 1990.
- 앤드루 호튼, 주영상 옮김, 『캐릭터 중심의 시나리오 쓰기』, 한나래, 2006.
- 장 클로드 라레슈, 서혜민 역, 『모멘텀 이펙트』, 교보문고, 2009.
- 조셉 캠벨, 이윤기 역, 『세계의 영웅신화』, 대원사, 1996.
- 조셉 캠벨,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07.
- 조셉 캠벨·빌 모이어스, 이윤기 역, 『신화의 힘』, 이끌리오, 2002.
- 최민성, 「신화의 구조와 스토리텔링 모델」,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Vol.42, 2008.
- 최은희, 『조국을 찾기까지』, 탐구당, 1973.
- 최태욱, 『신자유주의 대안론』, 창비, 2009.
- 크리스토퍼 보글러, 함춘성 역,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무수, 2005.
- 탁정연, 『기획의 99%는 컨셉이다』, 원앤원북스, 2005.
- 한정주, 『조선의 거상 경영을 말하다』, 비즈페이퍼, 2007.

황성훈, 「신자유주의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6.

J. 호이징하, 권영빈 옮김, 『놀이하는 인간』, 홍성사, 1985.

『「거부실록」 ‘이용익’이 보여주는 경제의 본디 모습』, 『MBC 가이드』,
1982년 10월호

『헤럴드경제』, 2010.08.05.

KBS 뉴스, 2010.04.13, <http://news.kbs.co.kr/culture/2010/04/13/2079415.html>

TV드라마 「상도」, <http://www.imbc.com/tv/drama/sangdo/concept.html>

TV드라마 「거상 김만덕」, <http://www.kbs.co.kr/drama/manduk/about/plan/plan01.html>

부 록

- 현대사회에서의 김만덕의 삶의 의미 - 김경애

현대사회에서의 김만덕 삶의 의미

김 경 애*

1. 서론

최근 역사 속의 여성인물을 새로 발굴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과거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업적을 남기거나 사회에 공헌한 여성들을 발굴하고 새롭게 평가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현대여성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남의 집 살이하다 기생이 되어 명성을 떨쳤고, 기생을 그만 둔 후 객주 집을 열고 육지와와 상업에 종사하여 부를 이루었고, 다시 그 부를 사회에 환원하였던 김만덕(이하 만덕)의 삶이 오늘을 사는 현대 여성들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특히 18세기 제주도 전통사회에서 살았던 만덕을 그녀가 당시 살았던 시대와 환경에서 어떻게 삶을 개척하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여성들에게 여러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제주도는 육지와 마찬가지로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사회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유교 문화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만덕이 살았던 18세기는 유교의 엄격한 규범이 정착하기 시작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여성학

한 때로 만덕도 남성 중심적이고 차별적인 유교 윤리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도는 전통사회에서 유교 윤리에 기반한 가부장적 문화는 육지에 비해 약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재석, 1979). 제주도는 척박한 토양과 소규모의 토지에서 밭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지극히 낮았고, 험한 바다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누구나 생산에 참여하면서 재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양반과 상민, 적자와 서자,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란 것이 사실상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평등과 공정의 분위기는 제주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었다’(김정숙, 2002:35). 여성들은 농사에서 아주 힘든 일을 제외하고는 남성과 공동으로 또는 주로 담당하였으며, 농사일에 있어서 여성의 참가율은 육지에 비해 높아(최재석, 1979:91) 내외법도 엄격하지 않았으며, 바다에서도 해녀로 일하면서 여성이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의 권리 또한 상대적으로 평등할 수밖에 없는 제주의 고유성을 만들어내었다고 본다(김정숙, 2002:37).

또한 제주도는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육지와는 매우 달라, 최재석에 따르면 토지가 토박하여 누구나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자립정신이 전통이 되어(최재석, 1979:82) 장남도 부모와 분가하여 핵가족의 형태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서로 독립적으로 산다. 그러나 가사 일은 대체로 여자가 담당하며 핵가족이기 때문에 다만 여자가 물질이나 김매기에 종사할 때는 남자가 일이 없으면 아이를 돌보았다(최재석, 1979:72-73).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심이 강한 제주 여성들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아 이혼율이 높았고, 재혼이 육지에서처럼 금지되지 않았으며, 첩살이도 육지와 다른 형태를 띠면서 드물지 않았다. 제주도는 육지와 같이 엄격하게 유교 윤리가 여성에게 적용되지는 않았고, 제주 여성들은 결코 가부장적 사회에 순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활달하고 개방적이며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이며 독립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만덕은 이러한 제주도 여성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대 여성들은 전통사회와는 달리 주체적이며 활달한 제주도 여성들의 특징을 중심 가치로 삼고 있다.

전통사회를 지배했던 유교 윤리에 따르면 여성은 기본적으로 부부유별의 규범에 기반하여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유교 사회에 존재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결혼을 통해서 여성은 유교 사회에서 주류에 편입되었다. 여성은 대가족 내의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아들의 어머니로서 집안에서 머무르면서 가정 내에서 시부모 봉양, 남편 뒷바라지, 자녀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되었다. 시부모에게는 효부, 남편에게는 열녀, 어머니로서 훌륭한 아들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이자 가치로 자신보다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자신의 삶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현대 여성들은 이러한 가족 관계 속에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기보다는 개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자아실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 엄격한 내외법은 여성들을 남성으로부터 격리하는 이데올로기로 전통사회 여성들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주체적 선택은 불가능하였고 강요되었다. 가문을 이어가고 빛낼 아들이 남편의 자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여성에게 엄격한 정절이데올로기가 부여되었고, 여성의 정절은 가문의 번영에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 전체의 관심사로 여성을 옥죄었다. 그러나 현대 여성들은 자아의식을 확고히 보유하며 가족의 일원으로 희생하기보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며 남성과도 주체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

또한 전통사회에서 부부유별의 윤리는 여성의 집 밖 활동을 엄격하게 금했고, 따라서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할 경우 이는 결코 높지 않게 평가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사회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행했던 역할이 대폭 축소되면서 가정이라는 경계를 벗어나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현대 여성들의 열망은 크다.

만덕이 가난하였지만 제주도 여성으로 활달하고 진취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졌던 경계를 끊임없이 뛰어넘어 주체적으로 살고자 했던 삶을 돌이켜 보면서 현대 여성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만덕의 삶을 경계 뛰어 넘기와 주체성의 관점에서 현대 여성들의 관심의 중심이 되고 있는 남성과의 관계와 사회참여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2. 주체적 이성관계

2-1. 관심과 사랑의 대상자로서 만덕

기생

만덕은 일생을 통해 수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자였다. 먼저 기생으로서 당시 제주도 최고의 명기로 못 남성들의 연모의 대상이 되었다. 만덕은 타고난 미모와 상냥한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고 정결한 몸가짐과 뛰어난 기예는 널리 알려져 관가에서 베푸는 연회에는 물론 민가에서 벌이는 놀이마당에도 참석하였다. 만덕은 자색과 풍류로 기예에 종사한 지 5년만에 명기로 명성을 날렸다.(제주도, 1989: 30). 만덕은 ‘앞 이마엔 해님이요, 뒷 이마엔 달님이요, 두 어깨엔 금 셋별이 송송히 박힌 듯한’(김정숙, 2002:63) 아름다운 자태와 재주로 남성들의 연모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민가명사들이 벌이는 놀이마당에서도

만덕이 나가고 아니나가는 것으로 격이 좌우될 정도로 남성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만덕은 자신을 기생으로서 사랑하거나 집요하게 유혹하며 치근거리는 남성들을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혼인의 대상자

만덕은 못 남성들의 사랑으로 명기로 이름을 날리자 오히려 평민 출신의 집안으로부터 명예를 더럽힌다 하여 오히려 비난을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많은 노력 끝에 기적에서 빠져 나오게 되자 만덕은 혼인의 대상으로 많은 남성들의 관심과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만덕은 기생으로 있었던 전력 때문에 정치보다는 첩이나 재취로 혼인할 수밖에 없었다. 만덕은 기적에서 빠져나온 후 쉽게 재취로나 첩으로 혼인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혼인을 거부하였다. 정치가 될 수 없었던 혼인을 거부하였고 또한 혼인을 한다고 해도 기생이었던 자신의 과거는 한 남성의 가계에 편입되고 난 후에도 계속 지울 수 없는 멍에로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간파하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남성들이 만덕과 혼인하고자 하였으나 명기로서 경제적으로 기반을 가진 만덕은 남성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의존적으로 살기보다는 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선택했던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독신자로서의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의 삶을 독자적으로 개척해나갔다.

자선사업가

독신으로 살면서 부를 축적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고 마침내, 축적한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희사하여 제주도민을 기아에서 구출하여 정조에게 포상으로 요청한 금강산 구경을 가기 위해 제주도를 떠나 한양으로 향하고 다시 금강산을 향하여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만덕의 얼굴을 보고자 하였고 때로는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도 있어’(제

주도, 1989:54) 만덕은 또다시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금강산 유람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자 장안에서는 만덕의 업적이 화제가 되어 있었다. 나이가 육십에 가까이 다달았음에도 여전한 미모와 명기로서의 명성, 장사 솜씨와 이를 토대로 쌓은 부, 무엇보다도 부를 굶주린 백성을 위해 쾌척한 것은 장안에 회자되었다. 더욱이 임금의 어명에 따라 금강산 유람을 하게 된 것과 벼슬을 내린 것 또한 화제 거리가 되었다. 이와 함께 많은 사람이 만덕을 칭송하고 만나보기를 원할 정도로 명성을 얻었다.

만덕은 다시 남성들의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만덕의 업적이 한양에 알려지자 한양의 유교 선비들이 앞다투어 만덕을 칭송하였다. 당시 천시되었던 남의 집 살이 하는 가난한 고아였고 기생이었으며 유교 사회에서 주변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독신녀였던 만덕은 조선조 통치 윤리인 유교를 실천하는 데 앞장섰던 선비들의 연모의 대상이 되었다.

병조판서 이가환이 만덕에게 헌정한 시에서 ‘돌아오니 찬양하는 소리가 따옥새 떠나갈 듯하고/ 높은 기풍은 오래 머물러 세상을 맑게 하겠지’라고 써서 만덕에 대한 칭송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병조판서 이가환은 이 시에서 ‘여회청대(女懷淸臺)로 이름은 어찌 죽히 벗어나 있으니’라고 마지막을 장식했는데, 여회청대는 진나라 시황제 때 청이라는 과부가 조상의 업을 이어받아 재산을 모으며 정절을 지켰으므로 이를 정부(貞婦)라 일컫고 그를 위해 세운 누대(제주도, 1989:79)로 만덕이 기생을 그만둔 이후 홀로 살면서 정절을 지켜 유교 윤리에 합당한 여성으로 거듭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당시 열녀가 최고의 칭송이었던 시대에 만덕은 절개가 곧았고 부를 이루었던 청이라는 여성에 비유함으로써 유교 선비로서 정절이데올로기에 비추어 만덕에게 최고의 찬사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남자 정승들이 만덕을 찬양하는 시를 앞다투어 쓴 것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만연하던 그 시대에 여성을 찬양하는 글을 쓰고 시를 짓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만덕이 얼마나 흠모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특히 유교 선비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아 만덕은 주변부 여성에서부터 유교사회의 중심부에서도 인정 받고 흠모의 대상자가 되었다.

만덕이 내놓은 쌀로 기아에서 벗어난 기민들은 만덕이 서울과 금강산을 다녀 제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포구에 ‘가족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손을 멈추고 환영을 나갔으며’ 만덕은 ‘3일 동안 음식을 만들어 만나러 온 사람들을 대접하였다’(제주도, 1989:80). ‘우리의 목숨을 만덕이 살렸으니 만덕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다’라면서 감사해했다. 만덕에 대한 사랑은 제주도민 모두의 것이 되어갔다.

만덕은 서울에서 돌아온 후에도 장사는 전과 다름없이 계속하면서 검소한 생활로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주고,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쌀을 주어 자선 사업에 주력하였으므로 온 도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만덕할머니〉로 통칭되었다. 주변부 여성으로 살아온 만덕이 제주도민으로부터 모두의 〈할머니〉로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만덕이 1812년 74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온 도민의 애도 속에서 안장되었는데 당시 판관이 만덕의 행적을 비문으로 지었다. 현종 6년(1840년) 유배온 추사 김정희는 만덕의 행적을 듣고 감동하여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번진다’는 뜻으로 은광연세(恩光衍世)라고 쓰고 그 옆에 ‘김종주의 할머니가 이 섬의 큰 흉년을 구휼하니 임금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어 금강산을 구경하였으며 벼슬아치들이 모두 전기와 시가로 이를 노래하였다. 이는 고금에 드문 일이므로 이 편액을 써 보내어 그 집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당대의 최고의 서예가요, 대학자였던 김정희가 감동하여 글을 써준 것도 극히 이례적이다. 더 나아가 벼슬아치들

이 전기와 시로 칭송한 것이 얼마나 이례적인가를 증언하고 있다. 이로써 만덕이 살아생전뿐 아니라 죽은 후에도 그의 업적은 더욱 인정받았고 명성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덕은 기생으로, 혼인의 대상자로, 또 자선사업가로 많은 남성과 백성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만덕은 주변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흠모의 대상자로서는 때로는 단호하게 끊거나 담대하게 처신하였다. 그럼에도 살아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오늘날까지 사랑과 관심, 그리고 흠모의 대상이다.

2-2. 만덕의 사랑하기

만덕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흠모의 대상자였으나 자신의 사랑은 50대 후반의 나이에 단 한번의 사랑을 스스로 선택하였다. 만덕은 주변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흠모의 대상자로서는 때로는 단호하게 끊거나 담대하게 처신하였으나 자신이 선택한 사랑에서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

그 대상자는 한양에 머물 동안 보살펴주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 당시 좌의정이던 채제공이었다. 만덕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채제공에게 제일 먼저 도착했음을 알리면서 그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한양에 머무는 동안 채제공은 만덕을 계속 돌봐주면서 만덕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채제공은 만덕의 삶에 대해 자세히 알고 높이 칭송하기 위해 만덕의 일생을 기록한 전기, 〈만덕전〉을 쓸 만큼 만덕에 대해 관심이 높았고 애정도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채제공에 대한 만덕의 사랑도 채제공에 못지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덕전〉에 채제공은 만덕과 자신과의 관계도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만덕이 채제공에게 이제 다시는 이승에

서 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자 채제공이 만덕을 달랬다고 한다.

만덕이 출발에 임하여 채상국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목이 메여 말하기를 ‘이승에서는 다시 상공의 얼굴 모습을 볼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는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 상국이 말하기를 ‘...이제 작별함에 있어서 도리어 어린 여아처럼 척척거리는 태도가 무엇이나(제주도, 1898:85)고 말했다고 채제공은 기록했다. 만덕은 채제공에게 적극적이고 거리낌 없는 애정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채제공이 이를 만류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만덕은 정절이데올로기에 주눅 들어 있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개방적인 여성의 풍모가 드러난다. 또한 만덕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여성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나이 58세의 만덕과 78세의 채제공의 아름다운 로맨스에서 만덕은 주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현대 여성들의 모습이 투영된다.

만덕은 평생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자였다. 뛰어난 미모와 기예로 기생으로, 재취나 소실로서의 혼인의 대상자로 많은 남성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력을 바탕으로 당시 주변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독신자의 길을 당당히 선택하였다. 많은 재산을 제주도민을 아사에서 구하기 위해 내놓은 후에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유교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르던 만덕은 유학자들의 찬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만덕은 이러한 흠모와 사랑의 대상자였으나 자신은 일생의 단 한번의 짧은 기간에 걸쳐 채제공과 사랑을 하였는데, 만덕은 자신이 선택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만덕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적극적인 사랑을 엮어간 것은 현대여성들이 꿈꾸는 삶의 방식과 맞닿아 있다.

3. 경계 뛰어 넘기

CEO 만덕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부모의 슬하에서 지내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 내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여성으로,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직업을 갖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게 간주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만덕의 경우 부모님을 일찍이 여의고 자신이 스스로 생존해야 했고 이를 위해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만덕은 기생의 하녀로 일하였고, 그 이후 관에 속하는 기생이 되어, 악기를 연주하고 춤과 노래를 하는 기예인으로 직업을 거쳐, 술과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객주를 운영하였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덕은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에 기반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덕은 전통사회에서 여성이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직업이나 가부장제 사회가 필요로 했던 여성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 객주를 운영하면서 객주를 드나들던 상인들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개척해나가게 되었다. 당시 이양법의 발달로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곡물이 상품화하여 유통되었고, 곡물 이외에도 면화, 모시, 인삼, 과일 등의 상품 작물이 적극 재배되었는데 이는 상업의 발달을 수반했다. 조선 후기에는 항해술과 조선술의 발달로 해상교통이 크게 발달하였다(이덕일, 2003). 해상교통을 통해 상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 포구는 해상교통의 중심으로 포구를 중심으로 유통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다. 만덕은 이런 사회 변화에 주목하였다.

만덕의 객주는 여관 구실도 했지만 외지 상인들의 물건을 위탁받아 팔거나 거간하는 중간상의 역할도 했다. 만덕은 객주를 중심으로 삼베, 모시, 청포, 비단과 지물, 잡화, 쌀 등을 사들여 팔았으며 제주의 양반층

부녀자에게 육지의 옷감이나 장신구, 화장품 등을 팔고, 제주 특산물인 미역, 전복, 표고, 양태, 말총, 약초 등을 수집하였다가 육지 상인들에게 공급하였다. 만덕은 박리다매, 정직매매, 신용본위의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육지인과 제주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하였다(제주도, 1989:34-36). 만덕의 객주는 곧 번성했다.

만덕은 관가의 물품도 조달하게 되었는데, 선상들의 물품을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여객 주인권이나 포구의 상품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포구 주인권을 획득한 것으로 추측된다. 만덕은 자신의 포구에 적극적으로 선상을 유치했고, 그 자신의 창고와 선박까지 소유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이덕일, 2003; 제주도, 1989:35).

그 시대에 여성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로 만덕은 여성에게 주어진 한정된 역할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 변화를 읽는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유통업을 개척하였던 것이다. 또한 강인한 추진력으로 만덕은 유통업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부를 축적함에 있어 상(商)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데 어긋남이 없었다. '만덕의 객주를 통해 제주도민은 육지의 물건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고 또, 제주 물건은 정당한 시세로 팔 수 있어서(제주도, 1989:36)' 제주도민의 이익 증진에도 부합하였다.

만덕은 여성 특히 기생 출신인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그 변화를 꿰 뚫어 보는 안목을 가지고 강한 생활력을 가진 제주 여성의 특징을 살려 부를 이룩하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나갔다. 만덕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객주 경영에서 경계를 넘어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안목으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어 거부가 될 수 있었다.

부의 사회 환원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주었던 만덕은 막대한 부를 가졌지만 만덕 자신은 늘 검소하게 생활하였는데,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해 절약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해 하늘의 은덕에 감사하면서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활 철학이었고 이를 실천하였다(제주도, 1989:36). 그러나 결코 만덕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정조 17년(1793) 무렵 제주도에 흉년이 계속되었다. 정조 19년 제주도민을 구휼하기 위해 조정에서 보낸 곡물 1만1천 석을 싣고 떠난 두 번째 수송선박 중 다섯 척이 침몰하면서, 보릿고개가 다가오는 제주에는 아사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풀어 육지에서 쌀을 사오게 했다. 이렇게 사온 곡식이 모두 500여 석, 만덕은 이 중 10분의 1을 친척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 450여 석을 모두 진휼미로 내놓았다. 객주 운영과 유통업을 통해 얻은 막대한 부를 굶고 있는 제주도의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놓은 것이다.

당시로서는 곡식 500여 석은 막대한 양으로 제주도 남성 부호들이 내놓은 양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제주도의 현감이었던 고한록이 300석을 내놓자 이를 당시 ‘무려 300석이나’로 표현하여 그 양이 엄청난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데 만덕은 그보다 더 많은 쌀을 내놓음으로서 주위를 놀라게 하면서 남성을 능가하는 능력을 보이면서 사회적 명예를 회복하였다.

제주도 밖으로 나가기와 최고 벼슬에 오르기

만덕이 제주도민을 아사에 구한 공로는 뒤늦게나마 조정에도 알려졌다. 이에 대한 포상으로 정조는 만덕의 공헌을 치하하고 제주 목사를 시켜 ‘만덕을 불러서 그 소원을 물어보고 난이를 논하지 말고 특별히

시행할 것'을 명하였다. 만덕은 이에 대해 '다른 소원은 없사오나 오직 소원이 있다면 한 번 서울에 가서 임금님 계시는 궁궐을 우러러보고 천하명산인 금강산 1만 2천봉을 구경할 수 있다면 한이 없겠습니다.'라고 응답하였다. 임금은 이를 쾌히 허락하고 역마를 하사하여 서울로 가는 길의 관에 숙식과 편의를 제공하라는 분부를 내렸다(제주도, 1989:52). 이 소원이 성취되어, 만덕은 한라산이 있는 제주에서 태어나 금강산 구경을 하였다.

만덕이 금강산 1만2천봉을 구경하고 싶다고 한 것은 당시 제주도 백성들은 육지에 나가는 것이 통제되고 있었고, 특히 여성은 육지에 올라가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것을 만덕이 알고 있었을 것이나 이러한 금기를 깨고 경계를 넘어 새로운 것을 행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다. 만덕은 사업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과 같이 당시 제주도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금기를 깨었다. 임금의 교지에 난이를 논하지 말고 시행하라고 하여 만덕은 육지로 나가는 최초의 여성으로 기록되면서 법을 깨고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내면서 경계를 뛰어 넘었다. 당시 유사모 목사가 만덕의 소망을 의외라고 생각하였다(제주도, 1989:51)는 점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추진하는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힘찬 만덕의 풍모를 느끼게 한다.

임금을 알현하기에 앞서 정조는 만덕에게 여성의 벼슬 중 가장 높은 내의녀 중에 최고인 의녀반수에 명한다. 비록 실질적인 벼슬은 아니었고 명예직이었으나 만덕은 당시 여성으로 최고의 벼슬에 올랐다. 또한 정조 임금은 '너는 한낱 여자의 몸으로 의기심을 발휘하여 천백여 명의 굶주린 백성을 구호하여 귀중한 인명을 살리었으니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다'라고 치하하고 상으로 중국 비단 다섯 필을 내렸다. 임금의 치사에서 '한낱 여자의 몸으로'라는 말은 당시 여성의 지위가 하찮았고 여성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낮았음을 시사한다. 만덕은 그러한 전통적인 여성상

을 뛰어넘은 것으로 평가하고 치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제주도, 1989:58). 만덕의 공로는 임금과 중전 등 조정으로부터 당시 전통적인 여성상을 뛰어넘는 여성으로 인정을 받았다.

채제공도 만덕에게 이는 남자들이 다하기 어려운 것을 했다고 하면서 치하하였다. 이는 만덕이 보통 남성들을 능가하는 구경을 한 여성이었던 사실을 지적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여성에게 그어진 경계를 뛰어넘었음을 치하하는 것이었다. 부를 이루고 이를 사회에 돌린 행위는 만덕이 당시 여성들에게 부과되었던 규범과 윤리라는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음을 말한다.

만덕은 사업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고, 어떤 남성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또 이를 제주도민을 위해 쾌척하였다. 또한 제주도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공간적 경계를 뛰어넘어 여성의 공간을 확대하였다. 만덕의 경계를 넘어 헤쳐 나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은 여성에게 부과된 한계를 뛰어 넘으려는 현대 여성들에게 용기를 준다.

4. 결어

만덕은 전통사회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딸로 태어나 일찍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홀로 어린 나이에서부터 전통사회가 규정한 천대받는 여성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생존하고 또 성공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성공이 주는 명성과 안일한 행복에 대한 집착을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버리는 결단을 내리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만덕은 세상의 흐름을 꽤 꿰는 안목을 가지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사업을 구상하였고 육지 상인과 제주도민과 더불어 이익

을 나누는 철학으로 사업에 성공하였다. 만덕은 자신은 검소하게 생활했으나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넉넉한 마음을 지녀 자신이 아껴 모은 재산을 기꺼이 사회에 환원하여 제주도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 일반 백성과 왕실로부터도 칭송을 들었고, 조정의 유교의 선비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음으로써 변방이었던 제주도의 주변적인 여성이었던 만덕은 여성 최고의 벼슬에 오르고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경계를 뛰어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또한 로맨스로 여성으로서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게 한다. 만덕은 억척스러운 제주도 여성의 전형인 당차고 창의적이며 강한 의지력과 탁월한 능력으로 여성에게 부과된 경계를 뛰어넘은 여성이었으며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추구하는 개방적이고 아름다운 주체적인 여성이기도 하였다.

만덕이 남성중심 사회에서 스스로 부를 이루고 또 그 부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커다란 공헌을 하였고 또한 이를 인정받아 여성으로서 최고의 벼슬에 올랐고, 또 말년에 아름다운 사랑을 한 것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며 또한 사랑을 추구하는 현대여성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미 성취한 것이다. 만덕은 현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자아 실현을 위해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며 남성과의 관계를 설정해나가고자 하는 현대 여성에게 삶의 사표로 조금도 손색이 없다.

참고문헌

- 김경애, 2004, 김만덕 삶의 여성주의적 재해석, 김만덕기념사업회.
김정숙, 2002, 제주섬, 신화 그리고 여성, 제주시: 각
제주도, 1989, 구원의 여상 김만덕, 제주도청.
이덕일, 2003, 이덕일의 여인열전, 김영사.
최재석, 1976, 제주도의 친족 연구, 일지사.

김만덕 자료총서 III 증보판

나눔과 봉사의 실천가

김만덕

초 판 인쇄 2013년 4월 1일

초 판 발행 2013년 4월 3일

증보판 발행 2025년 6월 1일

발행인 양원찬

발행처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0길 31, 2

제 작 일신옵셋인쇄사

ISBN 979-11-90748-38-4 03090

[비매품]

나눔과 봉사의 실천가

김만덕



재단
법인

김만덕재단



비매품
03090

9 791190 748384

ISBN 979-11-90748-38-4